

느리지만
치열하게
사람, 희망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年史

1999 - 2018

느리지만
치열하게
사람, 희망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年史

1999 - 2018

발간사

여러분이
곧 부천의 힘이고
희망입니다.



1999년 5월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로 공식 출범하여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의 경험, 느리지만 치열했던 20년의 기록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년사」를 발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크고 작은 국내외 정치경제 위기에도 우리는 소통과 연대, 신뢰와 협력의 가치로 슬기롭게 해결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선도하는 ‘노사민정파트너십 모델’, 지역단위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교과서로서 국내외 주목과 찬사가 이제는 그리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항상 부천 노·사가 있습니다. 올 곧게 이끌어온 부천 노·사의 지혜와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제 우리는 ‘다시 사람을 키우고 희망이 되는’ 부천미래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력의 불씨 ‘고용이 곧 복지다’

청년, 비정규직, 사회취약계층이 힘이 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부천경제의 핵심 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회적 대화·문화 ‘공정한 대화 플랫폼’의 형성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양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20년의 경험과 노력, 소중한 사회적 자산 ‘여러분이 있기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곧 부천의 힘이고 희망입니다.

2019년 1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부천시장

장 덕 천

인사말

꿈꾸는 스무살
이제, 시작합니다.
새로운 방향과 길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당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안정, 실업극복을 위해 부천시의 각 경제 주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고자 우리 부천노총의 제안으로 1999년 1월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어느덧 설립 20주년을 앞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넘어 이제는 세계에 소개될 만큼 지역 거버넌스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지역고용과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조정하며, 의제별, 업종별 협의체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면서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상호 협업하면서 '사람중심 부천', '노동존중 도시 부천', '시민이 누리는 부천'에 한발, 한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확장, 노사상생, 노동정책 이행, 일자리 성과의 지속화라는 핵심의제를 들어쥐고 지역 제 주체들과 더욱 힘을 합쳐 나갑시다.

꿈꾸는 스무 살, 전국 최초, 전국 최고라는 책임감과 부담감 이제 살짝 내려놓으면 새로운 방향과 길이 보일 것입니다. 향후 20년을 구상하고 스케치하는 한결 더 성숙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19년 되심과 관계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스무살을 축하합니다.

2019년 1월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박종현

인사말

지역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먼저 20년이란 긴 시간동안 노사 신뢰관계 구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신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뜻 깊은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빛나는 수상을 하는 등 뜻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사민정이 함께 모여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각 주체가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신 덕분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노사민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부천을 떠올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적인 협력적 상생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우리 부천시 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각 경제주체가 합심하는 큰 장이 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든든한 협의체로서 기능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조천용

20주년을 맞이하여
더 높은 비상을
꿈꾸며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탄생한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부천시지역 노-사-정 단체는 20년 전 전국 최초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생활임금제 실시, 노사공동 훈련 및 분과협의회 운영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사업을 만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그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업종별협의회를 현안 중심의 '의제별' 분과위원회로 개편하여 정책연구, 정책의제 협의 및 대안제시 등 20주년을 맞아 더 높게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더 나아가 '지역단위 노사고용 통합거버넌스 구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부천시청은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고용노동부 부천시청 지청장

유재식

축하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스무살,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의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스무살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9년 설립당시 초대위원장으로 역사의 출발점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노-사-민-정은 지역경제의 축이자 지역발전의 동반자입니다. 20년 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와 함께 성장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 좋은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데 역할을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천 경제가 활력을 찾고,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언제나 '느리지만 치열하게' 소통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역공동체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사회적대화기구로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스무살,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2019년 1월
국회의원
(초대위원장) 원혜영

축하글

부천의 내일을 위한
부천노·사·민·정
열정과 헌신, 지혜에 감사하며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본 협의회가 부천에서 이루어낸 훌륭한 성과와 역동적인 활동을 깊이 회고하면서 저는 우리 부천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발전사에 있어 특히 격동적인 시대였던 지난 20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시기였습니다. 특히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와 IMF체제하의 극복과정은 우리 모두의 삶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태동한 우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부천시노사정위원회’를 전신으로 부천경제 및 사회분야의 핵심적인 각 주체가 하나로 합심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노사간 갈등양상을 화합으로 주도하며 부천의 내일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회 현장의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노사민정 화합사례로 꼽힐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노사민정 협력주체 개개인이 지역을 사랑하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과 의지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오늘의 결실을 이루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노력을 통해 얻은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돌아보면서 다져진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원드리며 창립 2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부천상공회의소 전 회장 장상빈

축하글

이제 20년,
역사는 이제부터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여는
부천지역노사민정



별써,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창립 20주년입니다.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당시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당시 부천지역 노동·고용 시장은 대혼란에 휩싸였지만, 지역의 뜻있는 노·사·정 관계자들은 참으로 현명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당시 부천노사정위원회를 꾸리는데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것은 큰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전국 최초로 부천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탰던 사람으로서 남다른 감회를 새삼스레 가져봅니다.

20년 전 전국 최초로 자발적인 노·사·정 사회적대화 거버넌스를 만들어낸 저력은 지금도 생활임금제 실시, 노사공동 훈련 등 여타 지역에 귀감이 되는 모범들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항상 힘들고 새로운 길만 두박두박 걸었던 부천 노·사·정 관계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겨우 20년 왔을 뿐입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은 더 멀고 할 일은 더 많습니다.

지난 20년을 되새기는 것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를 힘 있게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고민에 부천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더 힘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저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무관치 않은 사람으로서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국회의원 김정형

축하글

뒤따르는 이가
따라 걷는 발자국이 되는
바른 걸음을 기대합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출발 때 실무로 시작해 본회의 위원을 하기까지 약 15년간의 경험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년 전 부천노사정이 모여 노사정위원회를 준비할 때는 지금을 상상하지 못하고 시작했습니다.

부천노사공익협의회의 짧은 경험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출발을 준비하고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아이디어가 모여 작은 조각 그림들이 점점 큰 그림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이후에 걸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며 길을 찾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걸어간다는 부담과 백지에 그림을 그린다는 기대감이 공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부천지역노사민정은 앞서 걸어간다는 부담을 작은 성과들로 바꿔냈습니다. 노사정이 함께하는 직업 훈련의 모범을 만들고 이어가고 있고, 생활임금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오지랖 넓게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의 발걸음은 뒤따르는 이가 따라 걷는 발자국이 된다는 생각으로 더 큰 걸음보다는 바른 걸음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년을 함께 해 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2019년 1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김준영

본협의회

1대 원 혜 영



1999.5.~2003.12.

2대 홍 건 표



2004.1.~2011.6.

3대 김 만 수



2011.7.~2018.6.

4대 장 덕 천



2018.7.~현재

실무협의회

1대 김 만 수

前 부천시장



1999.5.~2000.10.

2대 홍 인 석

前 부천시의회 의원



2000.11.~2002.4.

3대 류 중 혁

前 부천시의회 의원



2002.12.~2004.10.

4대 이 재 진

前 경기도의회 의원



2004.11.~2006.4.

5대 강 동 구

前 부천시의회 의장



2006.9.~2014.12.

현재 남 순 우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과장



2018.7.~현재

본회의회 위원

위원장 **장 덕 천**
부천시장



부위원장 **유 재 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



위원 **박 종 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부 의장



위원 **조 천 용**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위원 **곽 내 경**
부천시의회 의원



위원 **남 미 경**
부천시의회 의원



위원 **김 광 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



위원 **김 용 현**
(주)미래테크 대표



위원 **설 재 우**
노무법인 정도 대표



위원 **손 인 환**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장



위원 **이 찬 희**
근로자복지공단 부천지사장



위원 **이 하 철**
유한대학교 부총장



위원 **이 진 선**
부천시 경제국장



· 발간사	2
· 인사말	3
· 축하글	6
·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 사람들	10

1부 사회협약 체결

· 1999 제1차 부천시·노사민정위원회 공동협약	22
· 2004 제2차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발전을 위한 부천시·노사정 사회협약	27
· 2009 제3차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 미래 도약을 위한 부천시·노사정 협약	32
· 2013 제4차 ISO26000 지속가능발전 협약(이행촉구, 이해결과 공개)	35
· 2015 제5차 미래세대의 고용 희망과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부천시·노사민정 공동협약	40

2부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 경험과 역사

제1장 출범배경 및 준비기(1998.~1999.5.)	60
· 1. 개요	60
· 2. 세부일지	63
1) 1998년	63
2) 1999년	64
제2장 노·사·정 이해관계의 조정(1999.5.~2002.)	67
· 1. 개요	67
· 2. 세부일지	71
1) 1999년	71
2) 2000년	73
3) 2001년	73
4) 2002년	74

제3장 지역 파트너십 의제 모색(2003.~2005.)	76
· 1. 개요	76
· 2. 세부일지	79
1) 2003년	79
2) 2004년	82
3) 2005년	84

제4장 지역 파트너십 실행(2006.~2009.)	89
· 1. 개요	89
· 2. 세부일지	94
1) 2006년	94
2) 2007년	99
3) 2008년	104
4) 2009년	109

제5장 지역 파트너십 성과공유(2010.~2013.)	111
· 1. 개요	111
· 2. 세부일지	114
1) 2010년	114
2) 2011년	118
3) 2012년	126
4) 2013년	136

제6장 지역 파트너십 의제 확장(2014.~현재)	144
· 1. 개요	144
· 2. 세부일지	148
1) 2014년	148
2) 2015년	156
3) 2016년	162
4) 2017년	167
5) 2018년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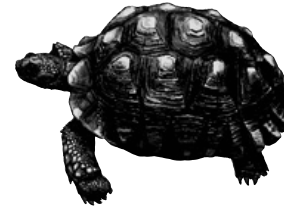
느리지만 치열하게 사람, 희망

3부 주요활동보고

제1장 주요활동사진	181
제2장 주요연혁 및 수상경력	189
· 1. 주요연혁	189
· 2. 수상경력	195
제3장 근거 및 조례	196
· 1. 운영조례	196
· 2. 부천시생활임금조례	200
제4장 우수사례	203
· 1. 부천노사공동훈련사업(2006.~현재)	203
· 2. 지역고용자산맵 구축_부천훈련정보망(2009.~현재)	211
· 3. 부천시생활임금(2012.~현재)	215
· 4. 노동인권보호지원(2012.~현재)	220
· 5. 브랜드콜 '환타지아 콜' 도입(2012.~2014.)	225
· 6. OECD 지역거버넌스 사례보고(2012.~2014.)	231
· 7. 일가양득 행복일터지원센터(2015.~현재)	247
제5장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주요 발간서	250

4부 종합진단

제1장 종합진단	277
제2장 주요정책 제안	303



느리지만
치열하게
사람, 희망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

20年史
1999 - 2018

제1부 사회협약 체결

1999
2004
2009
2013
2015

사회협약

사회협약정치는 다원주의 정치의 대안으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 간의 정책 협의와 사회적 파트너십에 의해 사회협약을 이끌어냄으로써 공공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 거버넌스 시스템이다(2006, 설훈태, 사회협약정치의 역동성).

사회협약은 단순히 노사정 간의 교섭을 통한 협약 체결이라는 차원을 넘어 노사정 및 시민단체 등 제반 사회주체들 간 정책현안에 대한 협의, 법·제도적 개선, 정책사업의 수행 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공동노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2004, 중앙노사정위원회 정의).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경험과 역사는 고용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주체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핵심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 책무성과 이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시기별로 체결된 협약은 선언적 의미에서 나아가 제기된 정책 현안에 대한 협의, 법·제도적 개선, 정책사업의 수행 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공동 노력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지만 사회협약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 협의회 출범시기, 노사정 간 주된 쟁점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지역 사회협약의 체결 내용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등이었다. 추진주체를 구성하고 (한노, 민노, 상의, 지방관서, 부천시 5주체), ARS 시민여론조사 실시 등 절차를 거쳐 운영조례로서 그 존립근거를 갖는 제도화된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출발에 대하여 협의, 조례 제정(1999, 1월 공포)하게 된다. 참여주체별 '노사정 공동협약' 내용의 18개 항 합의과정의 주요정점은 '부천시 청소행정 및 업무에서의 청소노동자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과 '택시노동자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조기 정착을 위한 노사정 정책 협의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핫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2004년 2차 협약은 출범초기 지역 단위 노사정 이해관계의 조정 통합의 한계로 성과는 미흡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상호 신뢰는 새로운 협력의제를 모색하는 계기로 작동하게 되었다. 노사정 선진모델 연구 및 교육 등 협의회 구조의 증충화와 고용협력 파트너십으로의 경험에 요구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역노사의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의 참여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발전을 위한 부천시지역 노사정 사회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중앙정부 재원을 활용하여 2006년 노사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부천노사공동훈련사업」과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지역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2030프로젝트」, 중장년 희망 「4050프로젝트」 실행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는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와 유사한 지역단위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원스탑센터_민관 공동희망일자리 지원본부' 부천고용센터 내 마련, 운영을 시도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2009년 3차 협약에서는 중앙의 일자리 지원사업 재원 확보의 한계를 겪으며 그 간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차원의 재원 확보와 협력시스템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2009년 4월 30일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부천시지역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고, 8월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차 개정으로 '주요 목적과 기능에 있어 노사협력 증진만이 아니라 지역 고용 및 인적 자원개발 등 추진' 등을 담게 되었다. 3차 협약으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의 의제와 그 추진체로 상설 사무국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며, 본회의에서 부천시지역 노사공동훈련지원사업의 부천시 예산지원과 전담사무국 설치 등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지역고용자산 탭(부천훈련정보망) 구축 및 운영이 포함되었다. 2011년 3월 사무국 설치 운영으로 협의회의 전문인력에 의한 지속가능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며, 미조직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명제 하에 부천시 생활임금 제도 도입과 환타지아폴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2013년 4차 협약은 2010.11.1. ISO26000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회적 책임 준거를 기반으로 노사민정 모두 사회적 책임실천 활동을 위한 협력의제의 다양화와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그간의 1~3차 협약이행을 점검하고 부천시지역 노사민정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를 채택, 핵심주제 노동분야인 고용, 노사, 교육훈련, 사회적 대화 분야 등 주요 4대 핵심의제의 이행촉구를 결의, ISO26000 핵심주제 실천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노사민정 사회적 책임실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로써 노사협력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노동권 보호와 고용복지로 협력의제가 확장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2년에 걸쳐 논의되었던 '부천시생활임금'과 '환타지아 폴'은 전국 최초 노사민정 합의에 의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15년 5차 협약은 2013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실천 협약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등 고용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미래세대의 고용희망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부천시지역 노사민정 공동실천 선언」이 체결되었다. 고용복지로의 의제 확장을 선언한 공동실천선언으로 협의회는 그 이행실천으로 2009년에 구축된 지역고용자산 탭(www.bchrd.info)의 구축은 훈련에서 고용복지 정보제공으로 확대되었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식산업단지 내 교육문화복지공간 조성으로 '노사공동훈련센터-근로자특화도서관-일가양육행복 알터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미조직 취약계층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1999년 설립 이후 1차~5차에 걸친 체결된 협약 및 실천선언은 '노사관계 혁신-일자리-훈련-고용복지'로 협력의제가 발전 진화하고 있으나, ① 아직 변화된 지역 환경에서 요구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구조가 약하고, 노사정 중심의 협약 체결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설립 초기 협약에 비해 3~5차의 협약은 참여주체나 협약의 내용이 다소 느슨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향후 지역 내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에서의 지역단위 대표적인 사회적대화기구로서의 재구조화와 명확하고 현안해결 중심의 의제의 채택과 사회적 연대라는 중요한 과제가 주어진다.

1) 2009년 중앙정부의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과 지역노사공동훈련사업의 재원 지원 동결로 지역단위 일자리 지원사업은 개별기관 중심으로 전환, 추진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부천시지역노사공동훈련사업에 부천시 지원 합의를 이끌어냄과 새로운 고용의제 중심의 협력 파트너십을 요구받게 됨

1999_제1차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공동협약

1. 노사안정을 위한 산업평화 유지

- 1-1. 노·사·정은 노동쟁의 예방 및 쟁의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위해 협력하고 지역 사회의 조정(안)을 제시하여 노사안정을 이룬다.
- 1-2. 노·사·정은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중지를 촉구하고 노·사간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 1-3. 노·사·정은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며 지역노사정 위원회의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1-4. 노·사·정은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사·정 협력 행사를 개최한다.

2.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 2-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존공단의 유지 및 신규공단 조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을 기한다.
- 2-2. 부천시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이하 "정"이라 한다)는 신규 창업 및 근로자 인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 2-3. 노·사·정은 공공근로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3. 고용안정을 통한 실업극복

- 3-1. 정은 구조조정 사업장의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안정대책을 강구한다.
- 3-2. 노·사·정은 기업의 신규채용장려와 해고회피노력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한다.

3-3. 시는 부천지역내 관급공사에서 관내인력의 채용을 장려하여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3-4. 시는 공공생산성이 높은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을 통한 고용창출 방안을 마련한다.

3-5. 노·사·정은 민간실업극복사업에 협력한다.

4. 노사정 협력을 위한 기타사항

- 4-1. 시는 부대시설의 민간위탁 등 조직혁신을 도모한다.
- 4-2. 시는 노정, 실업대책, 취업알선 등 다원화된 노동복지 및 노사관계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4-3. 노·사·정은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 4-4. 시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모색한다.
- 4-5. 부천지역 공익사업 종사자(택시·청소 등)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강구한다.
- 4-6. 노·사·정은 위 합의 사항에 대한 세부추진 등에 관해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논의한다.

1999년 5월 31일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위원 일동

1999_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출범선언문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그 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취약성과 도덕적 해이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금융, 외환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금년 중에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경제회생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도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창의와 자발적 협력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성장은 물론 존립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우리 부천지역 노사정 대표 일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경제위기를 단시일 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천지역의 노·사·정이 참여와 협력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당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안정 및 실업 극복에 기여코자 오늘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선언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자발적인 대타협으로 탄생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역사적인 선언이며 또한 대립이 아닌 참여와 협력, 지배가 아닌 공존의 이념이 살아 숨 쉬는 노사관계의 출발을 알리는 새로운 역사적 창조의 선언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천 지역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주체는 뼈를 깎는 결단과 그리고 성실한 대화를 통해 경제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이라는 공동의 절박한 목표를 위하여 진정한 고충분담을 통한 대타협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5월 31일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위원 일동

1999_부천지역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협약

우리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는 고용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탈속 취지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각종 부당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우리 부천지역이 노사관계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경영계는 불법적인 정리해고·근로조건저하·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노동계는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자제하며, 노사간의 의견은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행정기관은 노사 간 분쟁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노사 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공정정대하게 처리한다.

노사·정은 공히 지역 내 노사 간의 문제를 해당 노사 당사자 간의 자율에 의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999년 9월 14일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위원 일동

2004_제2차 부천지역 노사정 사회협약 (일자리 만들기과 지역발전을 위한 부천지역 노사정 사회협약)

최근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경쟁력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내수부진과 투자 감소, 제조업의 지역 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일자리 부족사태가 초래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취업기피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천지역 노사정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부천지역 노사정 사회협약』은 지난 2월 10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천지역 노동단체와 사용자 단체, 그리고 부천시 및 부천시의회, 부천시방노동사무소 3자간의 상호협력과 각각의 역할을 공개·확약함으로써 우선 기업과 노동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더 나아가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고용확대 구조를 이루어 지역 주민 전체의 공동번영에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 노사정은 대립과 반목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사회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놓을 수 있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부천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그리고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음 사항을 결의하고 함께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1.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충실한 이행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지난 2월 10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체결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정신과 내용이 부천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만들기 지역 연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1-1.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노사정은 기업이 일자리 만들기의 주역이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척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 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 부천시는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위해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창업과 기업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1-2. 지역협력을 통한 직업훈련 체계 마련

- 노사정은 중소기업이 열악한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적인 조사작업을 기초로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업종별 직업훈련 체계를 마련한다.
-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율적인 교육훈련과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노사는 고용유지 및 확대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은 인력개발투자를 확대하며,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 부천시와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지역 내 근로자 복지시설이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3. 고용안정

- 노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감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금근로시간의 조정, 배치전환의 원활화 등을 통해 감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며 추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하여 재고용하도록 노력한다.
-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전직 취업알선지원 등을 통해 고용안정에 노력한다.

1-4. 고용증대

-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실근로시간이 초기에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교대근무제 개선 등 기업실정에 적합한 근무방법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노사정은 부천지역의 생산능력 향상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한다.
-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인력난으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의 구인지원 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 노사정은 사회공공성이 인정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1-5. 비정규직 해소 및 근로의욕의 고취, 임금안정

- 노사정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기업은 임금·근로조건·교육·훈련·복지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지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배려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 노동계는 일자리 만들기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한다.

1-6.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의 고용촉진

- 기업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청년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부천시와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재활 및 탐색기회 제공, 각급 학교의 직업지도 확대, 직장체험프로그램 확충, 해외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층의 경력형성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노사정은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고용촉진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출산비용의 사회적 부담확충 및 직장인 탁아시설에 관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부천시와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장애인 취업 인프라 확충과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숭선수범하고, 산재장애자 직장복귀 지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노사는 편의시설 제공, 장애인 동료 갖기 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간다.

- 노사정은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인력의 성공적인 취업알선 서비스를 강화한다.

2. 노사관계 안정

- 경영자는 경영정보의 공개, 불법 정치자금 제공관행 근절 등 투명경영·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노사 간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의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한다.
- 노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적·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확립한다.
- 노사정은 산업현장의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 노동자는 생산시설 점거·조업방해 등의 불법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영자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 부천시와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노사분쟁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대화와 타협,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평화와 준법질서가 정착되도록 한다.

3.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발전방안

-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지역 차원의 일자리 연대사업 강화와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계와 시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업종별 노사협력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산하에 운송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사정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지역 내 분규가 예상되거나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 사전예방과 조기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협의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성 있는 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투자유치 공동 노력

- 노사정은 부천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 및 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 노사단체에서는 유능한 홍보요원을 투자유치단에 참석시켜 해외 홍보활동에 동행토록 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간다.

5. 협의사항 실행계획 수립 추진

-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노사정협의회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추진해 나간다.

2004년 4월 6일

(노)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 김 경 협

(사)부천상공회의소 회장 장 상 빈

(정)부천시장 권한대행 방 비 석

(정)부천지방노동사무소 소장 김 왕

2009_제3차 부천지역 노사정 사회협약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부천지역 노사정 협약)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역 내 많은 기업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으며, 미증유의 기업 위기는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유례 없는 세계적 경제 한파를 극복하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노사정 각 주체들이 상생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통분담의 노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우리 노사정은 그간의 상호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지역경제의 안정과 대도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협약하며, 함께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1. 노사의 공동노력을 통한 기업의 경영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기업의 경영변화에 따른 비용절감 노력에 동참한다.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해고자제와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기존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노사는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의 도입 확대, (순환)휴직휴업 및 무급안식월(년)제 도입, 인력재배치, 교육훈련(휴가), 재택근무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하며,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가치와 숙련 요소를 확대한 임금체계로의 전환,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2.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천시는 중소기업자금 지원, 신용보증 확대, 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계한 중소기업 R&D사업 지원, 기술 컨설팅, 기업체 판로확장과 수출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을 실시한다.

3. 근로자 지원을 위해

부천시는 노동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한다.

부천시는 노동자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4. 기업 및 지역단위에서의 고용유지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을 위해

노사단체는 사업장 단위 고용안정을 위하여 소속 노조 및 회원사에 대해 일자리 나누기·유지 방안을 지도하고, 노동부(부천시청)는 지역고용 안정을 위한 각종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노사단체는 노사공동사업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부천시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노사정은 기업별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개발 진단을 통한 고성과작업장 구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부천시는 이를 지원하고 고성과작업장 구축사례를 부천지역 내로 확산한다.

노사정은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체계를 업종별, 주체별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노사민정 파트너십이 중층화되도록 노력한다.

노동부(부천시청)와 부천시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민간공동기구 및 직업훈련기관의 확대발굴을 위해 노력하며, 노사공동의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노사공동의 고성과 작업장 구축사업, 지역 평생학습센터를 통한 노동자의 평생학습, 지역고용 훈련기관 네트워크 사업 등에 대한 재원확보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한다.

5. 지역노사민정협의체의 강화를 위해

노사민정은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 정책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의제를 최우선적인 논의 의제로 하고,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을 개발하고 토의한다.

노사민정은 노사민정협의체의 강화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상설직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노사민정은 상기의 합의된 사항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며 노사민정협의회는 매년마다 본 협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2009년 4월 30일

(정)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위원장 부천시장 홍 건 표

(노)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 김 준 영

(사)부천상공회의소 회장 장 상 빈

(정)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장 나 병 선

2013_제4차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실천 협약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부천 노사민정 사회적 실천 협약)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 2010.11.1. ISO26000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의 발효로 기업 및 노동조합,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사회적 책임실천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미 UN global compact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른 가이드라인(GRI),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준거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민정 모두 사회적 책임실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부천시는 노동자와 기업, 시민과 시 정부 등 모든 구성원의 노력으로 금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했으며, 그 과정에서 노-사-민-정 제 주체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역할은 매우 클 뿐 만 아니라, 향후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약을 위해 다시금 '공공의 선'에 대한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공동 노력을 전제로 한 노사파트너십 모델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

이에 지난 3차 협약까지의 이행점검을 중심으로 핵심주제 노동분야인 고용, 노사, 교육훈련, 사회적대화 분야 등 주요 4대 핵심의제의 이행목표를 결의하는 바이며, 향후 ISO26000 핵심주제 실천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노사민정 사회적 실천 협약」을 체결한다.

1. 노사민정은 일자리 만들기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고용분야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고용/ 2004 제2차 협약 1조, 2009 제3차 협약 4조]

1-1. 저소득근로자 근로 고취 및 청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취약취약계층의 고용촉진과 고용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알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1-2. 취업취약계층의 취업훈련 및 지역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기관중심에서 지역 차원의 대책 모색을 위한 네트워크로의 확대 등 각종 사업의 다양화와 효율화를 위해 노사민정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1-3. 각 취업취약계층별 지역 내 고용현황과 실태파악 등 최소한의 통계 및 객관적 데이터의 축적, 지역적 공유를 통해 종합적 대책 기반 마련과 나아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노력한다.

1-4. 일자리 만들기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제도 마련 및 연구사업, 지역법인과 추진 등 지역에 적합한 종합적 고용정책 수립과 효율화, 지속가능 시스템 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노사민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준중반는 기업관행 정착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사분야의 충실한 협약이행과 사회적책임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노사/ 2004 제2차 협약 2조, 2009 제3차 협약 1조, 2조, ISO 26000]

2-1. 근로자의 권리와 건강을 중시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근무제도를 모색하는 한편, 지역 내 원하청 간의 상생협력, 적극적 투자를 통한 고용 확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및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2-2. 직업훈련이 기업발전과 평생학습에 핵심요소임을 재확인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확대에 동참, 일자리 창출과 교대근무제 개선 등 기업실정에 맞는 적합한 근무방법 모색하고 급격한 경영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노사상생문화 및 경영혁신에 최선을 다한다.

2-3. 부천시와 부천노동사무소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전직취업알선지원 등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와 사업의 적극적 정보제공과 그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노사분쟁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대화와 타협, 공정하고 엄격한 법 감행을 통해 산업평화와 준법질서가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4. 노사는 근로자의 산업안전 예방 교육과 기업내 산업 위험요소의 개선 등을 통한 근로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부천시와 부천노동사무소는 지역내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구성 독려와 각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교육과 대뉴얼 보급을 통해 객관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산업안전재해 예방과 대책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5. 가속화되는 저소득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안, 심리적, 정신적 건강관리의 심각성에 대해 노사민정은 기업의 벽을 넘어 임금, 근로시간, 교육, 훈련, 복지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3. 노사민정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지속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분야 협약의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교육훈련/ 2009 제3차 협약 4조]

3-1. 노사는 노사공동훈련의 양, 질적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에의 적극적 참여와 새로운 노사상생훈련모델을 발굴 실시하며, 노사민정은 지역내 노사공동훈련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지속교육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3-2. 재직자 훈련 데이터 및 지표관리, 교육훈련기관 등의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 현황의 상시적 파악 등을 통해 객관적 지표화하고, 교육훈련의 공급과 수요에 근거한 대책 마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3. 부천시와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중앙의 각종 지원제도와 지원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지역적 활용과 협력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지역내 근로자복지시설이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4. 노사민정은 지속가능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의제의 다양화와 지역파트너십의 강화 등 사회적대화 분야 협약의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사회적대화/ 1999 제1차 협약, 2004 제2차 협약]

4-1. 지역사회 원안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의 참여를 적극 추동하며, 지역 내 계층별, 대상별 노사관계 혁신-고용-학습-복지 등의 협의기구와의 연대를 마련과 그 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한다.

4-2.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핵심의제인 '노사관계혁신',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등 협의의제의 다양화와 그 참여의 폭을 확대, 안착화를 위한 노사민정의 법인과 적극 검토 등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 그의 실현에 적극 노력한다.

4-3. 사회적대화를 통한 다양한 정책제안이 부천시 정책에 반영되고, 그 과정에의 참여와 결과, 성과공개 등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실질적 거버넌스의 수행에 적극 노력한다.

5. 노사민정은 지속가능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실천과 지역사회와의 공유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지역사회 / ISO 26000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사회적책임실천 핵심지표]

5-1. 지역사회는 소비자의 관점을 극복하고 조직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공익적 이슈를 제기하며, 노사민정 간의 사안별 연계와 연대를 강화하여 지역 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2.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지역사회 참여를 적극 추동하며,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부천시 각종 지표와 통계 취합 및 진단, 노사·고용·학습·복지 등의 종합적인 지원 연계, 연대 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3. 부천시 일자리공시 및 대책, 성과보고와 고용현황 및 추진사업 성과 등이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의 다양화, 공개 등 적극적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한다.

5-4. 노사민정 및 지역사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기여와 지역 자선형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역 내 확산과 기여, 지역 내 공존을 위한 지원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본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노사민정은 노사민정협의회 내의 사회적책임실천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실천 안착화와 ISO 26000 사회적책임 실천 지표 및 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 적용 등 경제, 환경적,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적극 개진한다.

본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이행점검 시스템 마련과 이를 매년 이행 점검 및 결과를 보고, 공개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하여야 한다.

2013년 4월 27일

(노)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 의장 황 완 성

(사)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조 성 만

(정) 부천시 시장 김 만 수

(정) 고용노동부부천지청 지청장 양 정 열

2015_제5차 부천노사민정 공동협약 (미래세대의 고용 희망과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부천지역 노사민정 공동실천선언)

부천지역 노·사·민·정은 미래세대의 고용 희망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적 동반자로서 결의하고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청년, 여성, 중장년층 등 근로빈곤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새로운 산업기반 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스펙'이나 '연공서열' 보다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제로 개편하여 미래세대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다 함께 일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 고용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고, 일터에서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위험·유해요인을 사전에 개선하는 등 재해예방에 적극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미래세대 고용안정과 지역산업 발전 및 기업 성장을 위하여 민-관 협력 및 산-학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창출의 애로점을 해결하고, '단비 일자리 사업' 추진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남용을 지양하고, 배려와 공유를 통해 차별 없는 상생의 노동시장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부천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우리 노사민정은

미래세대 고용의 희망과 노동인권 보호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천시 산업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 동시 제고',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복리 증진', '기초 고용질서 준수' 등 4대 실천 방향을 중심으로 상생하는 노사, 약진하는 부천의 사회적 책임실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결의를 다짐하고 공동 실천한다.

실천선언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이행사항은 향후 실무협의회(이행점검단)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이행하도록 한다.

2015년 10월 6일

부천시	시 장	김 만 수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	의 장	황 완 성
부천상공회의소	회 장	조 천 용
부천대학	부총장	한 정 석
고용노동부부천지청	지청장	김 연 식

이행결과 보고서

본 이행결과 보고서는 2013년 지속가능발전 실천협약 체결, 그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이행점검 최종보고서 내용으로 이행여부는 협약내용의 동일성이나 연계성이 높은 항목은 함께 이행여부를 체크하였으며, 협약의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진행 중인 것은 이행 중으로 중복 체크, 이행점검의 자료와 데이터 미확보 등 부족하여 결과확인이 부적절한 경우 <이행점검>으로 체크하였다. 2013년 이후 매년 당해연도 공동실천선언이나 협약 체결 내용을 중심으로 이행결과 보고서를 발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1999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협약 (1999.5.31.)

협약내용		이행결과			
		이행내용	이행정도		
			이행	이행중	미이행
노사안정을 위한 산업평화유지	노동쟁의 예방 및 쟁의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위해 협력하고 지역사회의 조정(안)을 제시하여 노사안정에 기여	•1993 지역 자발적 노사분쟁기구 운영(노 10, 사 10, 기타10), •1998 제도적 장치로 노사정협의체 제안, 설립 •1999 제1차 협약, 2004 제2차 협약, 2009 제3차 협약 체결 ※ 2004년 이후 무분규지역	●	○	○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중지를 촉구, 노사간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1999.09.14 부천지역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	○	○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준수, 지역노사정위원회의 강화 노력	•1999 전국 최초 자발적 노사정위원회 구성, 운영중, •2000.12 이행 촉구, •2001. 02, 12월, 2002년 3월 노사정파트너십 협력행사 개최 •2010 사무국 설치 운영 본협의회의 결 •2011.03.14 사무국 설치 운영 •매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예산 편	●	●	○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사정 협력행사를 개최				

협약내용		이행결과			
		이행내용	이행정도		
			이행	이행중	미이행
		성 지원(약 12,000만원) •2018 사무국 전담인력(3인)			
기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존공단의 유지 및 신규공단조성을 통한 고용창출을 기한다.	•1999.05 기존공단 활성화와 신규공단 조성으로 일자리창출 마련 함의, •1999.09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과 시민서명운동 가진 •2012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등 지원조례 마련, 오정산업단지 등 지식산업집적단지 조성, 활성화에 기여 •2016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유치 민선 7기 공약 '노사상생특구'로 발전 유치	●	●	○
	부천시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이하 "정"이라 한다)는 신규창업 및 근로자 인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노사정은 공공근로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1999.09 중소기업지원기동반 운영 공공근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추진함.(439개 업체, 2,019명 지원)	●	○	○
고용안정을 통한 산업극복	정은 구조조정 사업장의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안정대책을 강구	•지역내 고용불안과 정리해고 등 해결을 위한 지역노사정협의체 제안, 설립(1999.5월 운영조례 제정, 설립) •1999.09 중소기업지원기동반 운영, 공공근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추진함.(439개 업체, 2,019명 지원)	●	○	○
	노사정은 기업의 신규채용 장려와 해고 회피 노력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한다.				
	시는 부천지역 내 관급공사에서 관내인력의 채용을 장려하여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	<이행 점검> •부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 지하철 공사 등에 추진된 것으로 보고됨.	-	-	-
	시는 공공생산성이 높은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을 통한 고용창출 방안을 마련				

협약내용	이행결과				
	이행내용	이행정도			
		이행	이행중	미이행	
노·사정은 민간 실업극복사업에 협력	•1998 IMF 극복을 위한 부천시의회 실업극복특별위원회 구성 •한시적 지역협의기구 출범 (실업극복본부)	●	○	○	
시는 부대시설의 민간위탁 등 조직혁신을 도모 및 부천지역 공익사업 중사자(택사정소 등)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강구	•1999 부천시청소체계 개편을 위한 쓰레기문제시민협의회 운영 •2005.03.22 택시업종협의회 구축 및 공공부문협의회 구축 제안 •2005.07 공공부문협의회 구축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자문위원 정인수 박사) •2005.09 공공부문협의회 6개 공공부문 노동조합(부천환경미화원, 부천환경기동반, 재활용선별자, 공원관리원, 수로준설원, 시설관리공단) 합의 •2012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추진, 시행 •2014년 택시업종 중사자 임금인상 효과 및 시민 편의 제공 '환타지아 브랜드 플' 도입	●	○	○	
시는 노정, 실업대책, 취업알선 등 다원화 된 노동복지 및 노사관계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2013 재정경제국>일자리경제과>고용노동 및 일자리 창출팀으로 일원화체계임 •2018년 민선7기 노사협력 의제로 지역고용해결의 이슈 점차 증가. 고용노동팀에서 일자리정책팀과 노사협력팀으로 이원화, 효과성 제고	●	●	○	
노·사정은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	•민선7기 지역화폐제도 도입 공약		●		
시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을 모색	•부천노사정 공동협약으로 제안되어 2001.11.06. 본협의회 설립 권고 의결. •2002 부천시근로자장학재단 설립 (3억5천만원), 2017년 현재 12억	●	●	○	

노사정협력을 위한 기타 사항

협약내용	이행결과				
	이행내용	이행정도			
		이행	이행중	미이행	
노·사정은 위 합의 사항에 대한 세부추진 등에 관해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논의	•1999 설립초기부터 실무협의회 운영 부분적 협약 이행. 점검 •1999.08.18. 제1차 협약 점검 •2004.04.16 협의사항 실행계획 수립 추진 협약 체결 •2009.04.30. 이행시스템 강구 및 매년 협약 이행사항 점검, 보고 협약 체결 •2013년 이행추진 협약 체결, 협약 이해여부 점검, 결과 공개	●	●	○	

■ 2004 일자리 만들기과 지역발전을 위한 부천지역 노사정 사회협약 (2004.4.6.)

협약내용	이행결과				
	이행내용	이행정도			
		이행	이행중	미이행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일자리 만들기	건전한 기업 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공토 조성을 위해 공동노력	○	●	○	
	부천시는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만들기 사업을 위해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창업과 기업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노력	○	●	○	
	•부천기업사랑축제 매년 10월 개최 •2013 행복한 'GOOD' 일터 조성 기업인 표창 및 사후관리(10개기업) 사업 추진 •2013 재정경제국>일자리경제과>고용노동 및 일자리 창출팀으로 일원화 체계로 사회적기업지원팀 신설, 지원조례 제정 등 사회적기업 및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민선 7기 노사상생특구 '대장동 천 환경산업단지' 유치, 추진				

협약내용		이행결과			
		이행내용	이행정도		
			이행	이행중	미이행
사회협약의 충실한 이행	지역협력을 통한 직업훈련체계 마련	•2007 중소기업기업 직업훈련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2009 부천시고용서비스기관 실태 조사를 통한 부천훈련네트워크 제안 및 부천시훈련정보망 마련 고용촉진 기여 •2009 지역HRD네트워크(전략산업지원기관 중괄자)를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산하 구성 부분적 체계 마련, 운영 •노사상생 일자리창출 모델 성과 지속화 노력 2017년 대상 수상, 현재 '일자리 mismatch 해소를 위한 일드림센터'로 확대 (현재 공간 마련,	●	●	○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교육훈련과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2005 지역노사의 정부 고용및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참여 제의 •2006.01.04. 고용노동부 지역노사공동훈련사업 지역노사참여 합의 •2006.01.23.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2006.05.15. 부천노사공동훈련지원사업추진 노사공동 센터 설립 •2009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투자 및 적극 참여 촉구 제3차 협약 체결 •2009.09 부천노사공동훈련사업 지원 확대 본협의회 의결 •2010~2013 현재 1억 규모 부천시 재원 확보 노사공동훈련센터 운영 중	●	●	○
	노사는 고용유지 및 확대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기업은 인력개발투자를 확대하며,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에 적극 참여				
	부천시와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지역내 근로자복지시설이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이행 점검> 상위 법, 규정 개정 등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미이행	-	-	-

협약내용		이행결과			
		이행내용	이행정도		
			이행	이행중	미이행
고용인정	노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감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금 근로 시간 조정, 배치 전환의 원활화 등을 통해 감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추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 재고용하도록 노력	<이행 점검>	-	-	-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전직취업알선 지원 등을 통해 고용안정에 노력	<이행 점검> •부천의 독자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했으나 노동부의 정책과제로 추진되었음.	-	-	-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실근로시간이 조기에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대근무제 개선 등 기업실정에 적합한 근무방법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행 점검> •부천의 독자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했으나 노동부의 정책과제로 추진되었음.	-	-	-
	노사정은 부천지역의 생산능력 향상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및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한다.	•부천지역 아파트형공장 주요 4개단지(부천, 쌍용, 대우, 준의) •2011.10 부천지역기업발전협의회(현재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구성 •2011 부천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법인 설립 운영	●	○	○
고용증대	노사정은 부천지역의 생산능력 향상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및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한다.	•2012~2013 현재 중소기업 현장애로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현장기동반 운영 및 기업건설팀' •인적자원개발사업, 일자리희망본부 등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될 듯 •2015년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	○	●	○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인력난으로 생산 자질을 꺾고 있는 영세기업의 구인지원 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협약내용	이행결과				
	이행내용	이행정도			
		이행	이행중	미이행	
비정규직 해소 및 근로의욕 고취	스센터 유치, 일부 종합적인 고용 서비스업무 이루어짐. •관내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적극 추진(7개 기관) 2018년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부문 대통령상 수상				
	노사정은 사회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노력				
	•2010 사회적기업협의회 구성 운영 (사회적기업지원센터) •2012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구매 등 지원 조례 제정 •2016년 청소업체 가로청소 단시간 일자리 제안, 부천시 공공부문 단시간 일자리 '단비' 일자리 추진동력 제시 (지속적으로 생활임금 지급, 단시간근로 개발 시행중)	○	●	○	
	•2011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지원조례 제정 •2012.05 전국 최초 부천시시설관리공단 255명 정규직화 •2012.09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국가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문 진행	●	●	○	
	기업은 임금·근로조건·교육·훈련·복지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				
	<이행 점검>	-	-	-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지원 확충을 위해 노력 •2002 부천시근로자장학재단 설립(3억5천만원), 현재 12억 4천만원 적립 운영 •매년 부천시 자원 확충	●	○	○	

협약내용	이행결과				
	이행내용	이행정도			
		이행	이행중	미이행	
노사민정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배려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	○	○	
	•1999 한국노동부전지역지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가입전략으로 노동운동 전개, 전국 단위 모범사례 •2012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운영				
	노동계는 일자리 만들기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2년 간 임금안정에 협력	●	●	○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고령	•2011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지원조례 제정 •2012.05 전국 최초 부천시시설관리공단 255명 정규직화 •2012.09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2011.12 본협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저소득근로자 생활임금지원 조례 마련 의결 •2012 생활임금지원조례제정 실태조사 및 생활임금기준안 마련				
	기업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청년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	○	○	
	•2011 부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사업 추진' •2012 부천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청년인턴제 사업 추진' •2013 부천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와 부천고용센터 인력수급원활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부천시와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및 탐색기회 제공, 각급 학교의 직업지도 확대, 직장체험프로그램 확충, 해외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층의 경력형성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이행 점검>	-	-	-	

협약내용		이행결과			
		이행내용	이행정도		
			이행	이행중	미이행
촉진	노사정은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고용촉진을 위해 남녀 고용평등, 출산비용의 사회적 부담확충 및 직장인 탁아시설에 관한 지원방안을 강구	<이행 점검>	-	-	-
	부천시와 부천시지방노동사무소는 장애인 취업 인프라 확충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출선수발하고, 산재장애자 직장복귀 지원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이행 점검>	-	-	-
	노사는 편의시설 제공, 장애인 용료 갖기 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이행 점검>	-	-	-
	노사정은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인력의 성공적 취업알선 서비스를 강화	- 지역 노사공동으로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일자리 정보 및 창출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 지원사업 매년 추진 - 노사공동훈련센터의 가시적 성과를 기반으로 2018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드림센터'로 확대, 준비중	○	●	○
노사관계 안정	경명자는 경영정보의 공개, 불법 정치자금 제공 관행 근절 등 투명 경영·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노사간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행 점검>	-	-	-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의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	1998 기초지자체 최초 노동자단체 노사정협의회 제의 및 2006.05 노사공동 작업장 혁신을 위한 전국 최초 노사공동훈련지원센터 설립 개소	●	●	○

협약내용		이행결과			
		이행내용	이행정도		
			이행	이행중	미이행
부천지역 노사	노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적,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확립	1995 자율적 노사협의회를 통한 지역차원의 노사분쟁조정기구 마련, 운영, 1999.05 자율적 노사정협의회 전국 최초 설립 2006년 노사공동훈련사업을 출발로 현재까지 공동법인 설립하여 실행기구화하였으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드림센터로 확대중 2018년 노사공동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선언 등 추진	●	○	○
	노사정은 산업현장의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공동 노력	1999 제1차 협약-2009 제3차 협약으로 체결, 그 이행의 성실한 수행 등 - 매년 당해연도 현안 중심의 공동실천선언으로 지역내 사회책임무성 강화	○	●	○
	노동자는 생산시설 점거·조업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영자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2004 이후 무분규지역	●	○	○
	부천시와 부천시지방노동사무소는 노사분쟁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대화와 타협,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평화와 준법질서가 정착되도록 한다.		○	●	○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지역차원의 일자리 연대사업 강화와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계와 시민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0 학계 대표성 확보 - 지역차원의 일자리 연대사업은 다소 미시형 ※2009년 이후 중앙 일자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개별기관(법인, 단체) 중심으로 전환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역 일자리 협업모델의 제시가 어려움 통착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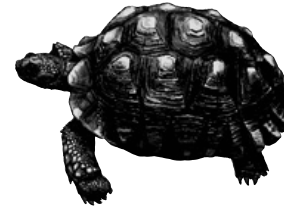
협약내용	이행결과				
	이행내용	이행정도			
		이행	이행중	미이행	
민정협의회 발전방안	부천시지역 노사정협의회는 업종별 노사협력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산하에 운송 부문과 공공 부문의 노사정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	○	
	부천시지역 노사정협의회는 지역내 분규가 예상되거나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 사전예방과 조기해결을 위해 노력	○	○	●	
	부천시지역 노사정협의회는 협의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성 있는 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	○	○	
투자유치	노사정은 부천시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 및 해외투자 유치를 위하여 공동 노력	-	-	-	
	노사단체에서는 유능한 홍보요원을 투자유치단에 참석시켜 해외홍보활동에 동행토록 하여 투자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	○	○	●	
공동노동력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노사정협의회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추진	○	●	○	
	1999 제1차협약에서 실무협의회에서 이행 점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제1차 협약 이행 점검 및 이행실천은 충실했으나, 그 이후 협약에의 이행 점검은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음	○	●	○	

■ 2009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 미래 도약을 위한 부천시지역노사정협약 (1999. 4. 30.)

협약내용	이행결과				
	이행내용	이행정도			
		이행	이행중	미이행	
노사의 공동노동력 기업의 경영개선과 고용안정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기업의 경영변화에 따른 비용절감 노력에 동참	●	○	○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해고자처와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기존의 고용수준을 유지	-	-	-	
	노사는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의 도입 확대, (순환)휴직, 휴업 및 무급안식월 (년)제 도입, 인력재배치, 교육훈련(후기), 재택근무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하며,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가치와 숙련요소를 확대한 임금체계로의 전환,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하여 공동 노력	-	-	-	
	부천시는 중소기업자금 지원, 신용보증 확대, 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계한 중소기업 R&D사업 지원, 기술 컨설팅, 기업체 판로확장과 수출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을 실시	-	-	-	
일자리나누기	부천시에는 중소기업자금 지원, 신용보증 확대, 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계한 중소기업 R&D사업 지원, 기술 컨설팅, 기업체 판로확장과 수출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을 실시	-	-	-	
근로자	노동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	○	●	○	

협약내용	이행결과				
	이행내용	이행정도			
		이행	이행중	미이행	
지원	노동자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점차 확대	●	●	○	
기업 및 지역 단위 고용유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노사단체는 사업장 단위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소속 노조 및 회원사에 대해 일자리 나누기유지방안을 지도하고 노동부(부천시청)는 지역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	-	-	-	
	노사단체는 노사공동사업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능력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부천시는 이를 적극 지원	●	●	○	
	노사정은 기업별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개발 진단을 통한 고성과작업장 구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부천시는 이를 지원하고 고성과작업장 구축사업을 부천지역내 확산	○	○	●	
	노사정은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체계를 업종별, 주제별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노사민정 파트너십이 중층화되도록 노력	●	●	○	
	노동부(부천시청)와 부천시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민관공동기구 및 직업훈련기관의 확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며,	○	○	●	

협약내용	이행결과				
	이행내용	이행정도			
		이행	이행중	미이행	
노사공동의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노사공동의 고성과작업장 구축사업 추진	노사공동의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노사공동의 고성과작업장 구축사업 추진	●	○	○	
	지역평생학습센터를 통한 노동자의 평생학습, 지역고용 훈련기관 네트워크 사업 등에 대한 재원확보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	○	●	○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의 강화	노사민정은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 정책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의제를 최우선적인 논의 의제로 하고,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을 개발하고 토의	○	●	○	
	노사민정은 노사민정협의체의 강화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상설적 사무국을 설치 운영	●	○	○	
	노사민정은 상기의 합의된 사항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며 노사정협의회는 매년마다 본 협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	○	●	○	
	노사민정은 상기의 합의된 사항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며 노사정협의회는 매년마다 본 협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	○	●	○	



느리지만
치열하게
사람, 희망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年史

1999 - 2018

제2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경험과 역사

제1장 출범배경 및 준비기(1998.~1995.5.)

제2장 노·사·정 이해관계의 조정 단계(1999.5.~2002.)

제3장 지역 파트너십 의제 모색 단계(2003.~2005.)

제4장 지역 파트너십 실행 단계(2006.~2009.)

제5장 지역 파트너십 성과 공유 단계(2010.~2013.)

제6장 지역 파트너십 의제 확장 단계(2014.~현재)

경험과 역사

부천시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발전과정을 구분함에 있어서 1999년 설립 이후 연도별로 '무엇을 주된 의제로 선정하고, 활동하였는가'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제도는 환경의 변화와 행위자 간의 전략적 선택으로 변화 발전한다."는 명제하에 협의회의 존립 근거가 중앙의 사회적대화 흐름과 발전과정에 관계없이 「부천시역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이해관계자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채택, 적용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회는 타지자체 사회적대화 사례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고용 및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전략적 선택은 중요시기마다 사회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그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여 왔다.

협의회 유형은 ①부천시역은 지역환경의 변화와 지역주체의 전략적 대응으로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노사정 외에 지역 시민단체까지 함께 활동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지만, 협의회의 의사결정 구조나 참여주체에 있어 노사주도의 고용노동파트너십협의체로서 지역고용노동에의 역할과 기능을 자임해오고 있다.

또한 ②협의회의 주된 의제와 활동내용은 지역 노사정의 5차 사회협약의 체결, 이행으로 그 책무성의 근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발전단계 구분이 가능하다. 공식 출범 이전의 시기는 준비기로 별도로 구분하였으며, 이해조정-협력역제 모색-의제 실행-성과공유-의제확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즉, 협의회의 주요 발전시기는 노사주도 고용노동파트너십협의체로 5차 사회협약을 통해 그 조직이 진화, 발전하고 있으며, 그 발전시기 구분은 제도 도입 전 사전 준비기(1998년~1999년, 5월)를 거쳐 「노사정 이해관계의 조정(1999년~2002년)」, 「지역파트너십 협력역제 모색(2003년~2005년)」, 「지역파트너십 실행(2006년~2009년)」, 「지역파트너십 성과공유(2010~2013)」, 「지역 파트너십 의제 확장(2014~현재)」로 5단계의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④발전시기별 활동정리는 2009년 10년사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으며²⁾, 발전시기별 개요와 세부활동일지 형식으로 개괄하였다.

2) 2010년 이전 자료는 충분하지 않아, 1999~2008년 개괄 10년사와 홈페이지 기록 등을 참조하였음

제1장 출범배경 및 준비기 (1998~1995.5)

1. 개요

1997년 12월, 한국사회를 엄습한 IMF 국제금융시대의 도래는 우리사회의 급격한 산업활동 위축을 초래하였고, 그에 따른 고용불안과 대량 실업 등 경제·사회적 균열은 국난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국가공동체의 근본적인 위기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5대 대통령 당선자인 김대중 당선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노사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IMF 체제 극복을 위하여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하고, 1998년 1월 15일 (중앙)노사정위원회가 출범되었고, 불과 20여일만인 2월 6일에 노사정 대타협에 성공하였다. 이는 노사정 사회 주체들이 기존의 일방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주체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다. 1998년 2월 6일 노사정 대타협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MF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한국사회 몸부림의 본격적 시작이었다.

IMF 국제금융시대의 엄습은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부천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당시 부천지역 제조업 일자리수의 약 7천 개에서 1만여 개가 사라졌다.³⁾ 아울러, 대기업의 하청구조에 얽힌 중소기업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결성된 중견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와 도산 등은 지역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었다.⁴⁾

중대형 사업장에서부터 시작된 상시적인 구조조정(기업의 지방이전, 휴폐업, 상시적 인력구조조정 등)은 일반 중소기업사업장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의 수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수까지 감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총체적 고용불안에 대해 지역 노동계는 고용불안 확산방지가 지역 노동조합활동의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고, 지역사회의 각 주체에게 지역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정도에 불과한 지역노동계 입장에서는 지역 사회 내에서 정리해고·고용불안의 분위기를 부천지역사회에서 만큼은 막아보자는 현실적 이유에서 지역 노사정협의체를 필요로 하였다.⁵⁾

지역 노사정협의체 필요성을 절감한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는 1998년 6월 실시된 제

3) 이주희, 2004.9,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부천지역 발전모델 구축」,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4) 대표적 지역 중견기업체인 변도기계(신용용 총장비 제조업체로써 재직근로자 400여명)는 1999년 1월 회사가 노조에 근로자 100명의 정리해고 방침을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견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5) 부천시의회 산업국복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1998.10.13

2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각계에 지역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쟁점화 시켰으며, 내부적으로는 임시대의원대회와 확대간부회의 등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조합원 대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지방선거가 종료된 이후인 1998년 8월 27일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는 「부천시 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지역 노사정 주체들에게 제안하였고, 9월 16일 부천시 원혜영 시장이 주재한 노사정간담회에서 지역 노사정 주체들은 '부천지역 노사정협의체 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한국노총 부천지부,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지방노동사무소, 부천시 등 참가 5주체)할 것, '노사정협의체는 시민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 등에 합의하였다.

부천시는 1998년 9월 지역노사정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시민 ARS 여론조사를 실시(9.19~21, 20세이상 부천시민 501명)하였는데, 응답자의 75.2%가 지역단위 노사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응답자의 56.8%가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고, 노사정협의체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⁶⁾

지역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주된 쟁점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와 '지역 사회협약을 체결한다면 무슨 내용으로 할 것인지' 등이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사정협의체가 과거 노사공익협의회⁷⁾와 같은 임의적인 기구가 아닌 지역사회 내 제도화된 사회적 협의기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례로써 그 존립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공통 입장을 보인 반면, 부천시는 관련 법률이 부재⁸⁾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조례제정권을 가진 부천시의회는 산업국복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수)가 10월 13일 이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노사정 각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 지역노사정협의체 추진실무협의회에 김만수 시의원(부천시의회 산업국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 실무협의회에서의 구체적 논의사항을 조례에 반영한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조례 제정작업은 속도를 더하였다.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는 12월 18일까지 진행된 4차례의 추진 실무협의회에서의 실무적 합의사항(지역노사정협의체의 역할과 내용, 조직 구성, 세부 운영방안 등)을 바탕으로, 부천시의회 산업국복특별위원회가 부천시의회에

6) 노사정위원회 설치 관련 주민여론조사 결과, 1998.9.

7) 1993년 부천지역내 집단적 분쟁조정을 목적으로 노사공익 각 10명(한국노총 부천지부 10명, 부천상공회의소 10명 및 노사가 합의한 10명의 교수 등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되어 분쟁조정시에만 한시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분쟁조정 외에 특별한 활동은 없었으나, 지역내 임의적인 공익적 분쟁 조정기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8) 이 당시(1998년 하반기)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인 '노사정위원회 규정'에 근거한 상태였으며, 노사정위원회법은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인 1999.5.24.에 비로소 제정되었다.

발의하여 1998년 12월 26일 제정되었고, 1999년 1월 공포·발효되었다.

1999년 1월 15일 제5차 추진실무협의회의 주된 정점은 '노사정 공동협약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였다. 추진 실무협의회에서는 한국노총 부천지부가 제출한 19개 항의 협약 요구내용, 부천상공회의소가 제출한 19개 항의 협약 요구내용,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가 제출한 4개 항의 협약 요구내용, 부천시가 제출한 3개 항의 협약 요구내용 등을 종합하여, 총 18개 항의 공동협약 내용을 마련하였다. 공동협약 18개항을 종합하면서 특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한국노총 부천지부가 제출한 '부천시 청소행정 및 업무에서의청소노동자 참여보장'에 관한 사항과 '택시노동자 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 조기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이었다.

당시는 부천시와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업체 간의 용역도급금해의 공개여부를 두고 관련 노동조합과 민간업체 간의 노동쟁의가 빈발하던 상태였고, 한편으로는 부천시가 직접사용하고 있는 가로청소업무와 재활용수거 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상태에서 종사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문제가 노정간 쟁점이었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은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8개 택시업체들의 반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하던 상태였다. 이러한 2가지 쟁점 현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노사정 공동협약의 체결 및 지역 노사정 협의체 출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에 관하여 추진 실무협의회에서는 1999년 5월 8일까지의 마지막 논의를 거쳐, 2가지 쟁점현안이 지역노사정협의체의 조속한 구성보다 앞서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만 지역노사정협의체 구성 이후 2가지 쟁점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협약내용에는 "노사정은 부천지역 공익사업 종사자(택시, 청소 등)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강구한다"고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지역노사정협의체 출범과정에 있어서 중대 난관은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의장 이재운)의 갑작스런 탈퇴선언이었다.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는 1998년 11월 15일 제1차 추진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함께 구성 논의를 해왔으나, 2개월여 만인 1999년 1월 22일에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가 추진 실무협의 과정에서 지속 주장한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를 지역노사정협의체에 상설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민주노총 중앙이 중앙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상황에서 지역조직이 더 이상 지역노사정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조직의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지역노사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하였다.

9)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는 사전 27개항의 협약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 1999.1.22. 제6차 추진 실무협의회 회의개최 직전에 지역노사정협의체 불참을 서면통보하여 협약요구안에 없는 것으로 하였다.

추진 실무협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특위 상설화는 한국노총 부천지부도 동의하였으나, 경영계에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특위가 상설화된다면 항구적 무쟁의 조치 등 노동계의 행의행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추진 실무협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우선 조례를 통해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특위 구성방법과 세부적 내용 등은 차후 지역노사정협의체 출범이후 논의될 '부당노동행위근절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정에서 시행하기로 실무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었다.

때문에 실무적 차원에서 민주노총 지역조직의 중도탈퇴의 진의와 배경을 파악한 추진 실무위원회는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 중도탈퇴가 민주노총 중앙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정한 마당에 이러한 중앙단위의 방침에 역행할 수 없는 지역조직의 교육지책으로 이해하였다. 중앙단위의 노사정위원회법 제정과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 탈퇴로 당초 1999년 2월을 목표로 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의 출범은 1999년 5월로 지연되었다.

2. 세부일지

1998년

- 5월 22일 한국노총 부천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천시노사정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원태영(시장후보), 김만수(시의원후보) 등 12명에 대한 정책연합 후보의결, 당선운동 결의
- 8월 27일 한국노총 부천지부는 부천시, 부천시의회, 부천상공회의소에 각각 '부천시노사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의제(안)'를 송부하면서 구체적 논의를 위한 노사정간담회 개최 제안
- 9월 16일 원태영 부천시장은 부천상공회의소 회장(김규명),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 소장(이원복), 한국노총 부천지부 의장(김경협) 초청 노사정간담회 개최, 노사정간담회에서 시민여론수렴절차를 거쳐 별도의 추진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천시노사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
- 9월 19일 부천시는 9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부천시민을 상대로 노사정위원회 설치 여부, 기대정도, 구성범위 및 구성인원수를 묻는 ARS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 수렴 (응답자 75.2%가 부천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찬성)

- 10월 13일 부천시의회 실업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수)는 노·사·정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천시노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문회 개최, 부천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조례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부천시의 의견 청취
- 11월 15일 지역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1차 추진 실무협의회 개최.
지역 5주체 실무자 부천시(지역경제과 노정담당 조기현), 부천상공회의소(회원부 차장 여성국),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근로감독관 홍인국), 한국노총 부천지부(홍보국장 심재정),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사무처장 조송자) 참석, 부천시노사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 이후 추진 실무협의회를 계속하여 개최하기로 함.
- 11월 30일 제2차 추진 실무협의회 개최
기구 및 체계, 구성, 기능, 의제에 대한 세부사항 토의, 명칭을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로, 구성을 '10인 이내'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및 '특별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함.
- 12월 11일 제3차 추진 실무협의회 개최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본회의 간사로 할 것인지는 계속 논의, 특별위원회는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시기는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설치하기로 결정
- 12월 18일 제4차 추진 실무협의회 개최
기존까지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천시의회 실업극복특별위원회가 준비한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최종 검토
- 12월 21일 부천시의회 실업극복특별위원회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의결
- 12월 26일 부천시의회(의장 안익순)는 제67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천시의회 실업극복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심의/의결

1999년

- 1월 12일 제5차 추진실무협의회 개최
2월초 공식 발족 및 노·사·정 주체는 공익위원을 각각 1명씩 추천할 것, 본위원회 간사(실무협의회 위원장)는 시의회 측에서 맡을 것 합의

- 1월 15일 부천시「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공포
- 1월 22일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의장 이재은)는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지 못한 점, 민주노총 중앙의 방침으로 중앙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상황에서 지역단위 조직이 지역노사정위원회 참여하는 것은 조직의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
- 1월 22일 제6차 추진실무협의회 개최
한국노총 부천지부(19개항), 부천상공회의소(19개항),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4개항), 부천시(3개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노사정 공동협약(안)을 토의하고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최종으로 검토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와 불참선언에 대해서는 추진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불참 진의여부와 배경 등을 파악(이후 1개월여 간 추진 실무협의회는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와 접촉하여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논의구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
- 2월 27일 제7차 추진실무협의회 개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본위원 추천 확인(부천시의회: 김만수 시의원, 홍인석 시의원, 신철영 부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부천상공회의소: 이태영 유성기업 상무이사, 한광연 흥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한국노동부천지부: 이양원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가 추천할 노동계 추천자 1인에 대해서는 자후를 위해 공식으로 하기로 함. 이후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에 국회의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경과를 지켜보며 진행하기로 함.
- 5월 8일 제8차 추진실무협의회 개최
쟁점 협약내용(청소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택시 전액관리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사항 등) 토의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출범일을 5월 31일로 결정, 출범준비를 위한 세부 실무사항 추가 토의
- 5월 24일 국회「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5월 25일 부천시는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출범에 관한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현수막, 지방 일간지, 지역 유선방송 및 케이블TV, 인터넷 등을 통해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출범에 관한 홍보활동 전개
- 5월 31일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발족 및 제1차 본회의 개최
부천시 노사화합지원협의회' 폐지 의결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공동선언문과 18개항의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공동협약(제1차협약)을 심의/의결

11명의 본위원회 위원과 6명의 실무협의회 위원 위촉 및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심의 의결

제2장 노·사·정 이해관계의 조정 (1999.5~2002)

제1절 개요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¹⁰⁾는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99년 5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출범하였다.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출범 초기 주된 활동은 지역사회와 노·사·정 이해관계(제1차 협약에서 합의한 18개 협약내용)와 사업장단위 노·사·노·정 이해관계(노동정의)를 조정·통합하는 것이었다.

지역사회 노·사·정 이해관계의 조정·통합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추진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18개항의 공동협약(제1차 협약)¹¹⁾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실무협의회에 위임하였다. 실무협의회는 1999년 8월 18일까지 3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대장동 공업지역화 조성, 공공근로사업 중 중소기업기동지원사업 대책¹²⁾, 청소년무종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 등 5개의 우선이행과제 및 세부 실행방안에 의견접근을 보았고, 이러한 의견 접근내용은 제2차 본회의(1999년 9월 14일)에서 실무협의회에서의 의견 접근 내용대로 의결되었다.

공공근로사업 중 중소기업기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부천지부와 부천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별도의 점검팀(중소기업기동지원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원업체를 직접 현장방문하여, 공공근로 참여자의 의식부족(일하기 편한 사업 선호)과 인력지원 업체 중 3D업종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 배정자의 중도포기 상황, 기업주의 의식 부족으로 인한 공공근로 참여자의 채용 기피, 업체의 기존 재력자와 공공근로참여자의 불협화음 및 소속감 결여 등에 대한 현상을 진단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동지원사업단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공근로 인력지원 업체 중 기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등이 있는 업체는 공공근로 인력지원을 중단할 것, 3회 연속 공공근로 참여자를 지원받은 업체는 공공근로 참여자를 1명 이상 채용전환하지 않는 경우 공공근로 참여자의 계속 지원을

10) 1999년 9월 제2차 본회의에서 명칭을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로 변경하였다

11) 부천지역노사정 제1차 협약(1999.5.31.)

12) IMF 직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중 공공근로참여자를 중소기업의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의 공공성 강화하고 공공인력 지원을 통해 취업을 촉진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일부기업에서는 기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고 공공근로 참여자로 대체하여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이 더욱 야기되었으며, 정부가 기업에 대해 무료 생산인력 파견사업을 실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부천지역의 경우 439개 업체에 2,019명을 중소기업기동지원인력으로 지원하였으나, 채용률은 0.5%(11명)에 불과하였다.

중단할 것(3진 아웃제), 공공근로 참여자를 채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 등을 협의하고 이를 중소기업노동사업 운영규정에 반영토록 합의하였다.

청소업무종사 노동자의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는 1999년 4월부터 부천시와 관련 노동조합(가로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재활용 노동조합) 그리고 쓰레기문제 시민협의회(이하 '쓰시협')와 민간 청소업체 간에 부천시의 청소체계 개편(민영화 확대)에 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쟁과 대규모 집회 등 관련 노·사정 당사자 간에 불신이 야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노총 부천지부가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산하에 '부천시 청소체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청소체계방안의 강구와 청소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마련해보자는 의제안이 제출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의제는 8월 18일까지 진행된 3차례의 실무협의회 과정에서 노·사정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적 사항이었다. 청소체계 개편문제가 쓰시협 체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청소업무 종사근로자들의 고용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논의는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제2차 본회의(1999.9.14)에서 상호간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 "쓰시협에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본위원을 대표하여 한국노총 부천지부 의장이 참여하여 그 과정에서 쓰시협 대표들과 청소업무 종사근로자의 고용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복잡한 현안 문제를 조정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제한된 지역의 산업여건으로 인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산업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지역적 위기 속에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대장동 일대 120만평에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피함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모색하였다. 제1차 본회의(1999.5.31)에서 의결된 공동협약에서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존공단의 유지 및 신규공단 조성 등을 통해 고용창출을 기한다"고 합의한 다음,

제2차 본회의(1999.9.14)에서는 세부 실행방법으로 대장동 일대 120만평이 중앙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장총량제 제한 대상이므로 그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청와대 등에 대한 대정부 건의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추진과정에서 전시민적인 의지를 모아내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과 시민서명운동이 절실하므로 이를 부천상공회의소와 부천시가 주도하여 전개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후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경기도, 건설교통부, 청와대에 대장동 일대 120만평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였고, 별도의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부천시민 12만 명의

서명을 받아 재차 관제기관 6개 기관(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접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지역 산업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내복지가 열악한 중소기업근로자의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1999.5.31)에서 18개항의 공동협약(제1차 협약)을 통해 "부천시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모색한다"고 의결한 바 있는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2001년 5월 이후 한국노총 부천지부가 '부천근로자장학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상황 중에 개최된 제5차 본회의(2001.11.6)에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부천시가 지역내 근로자 자녀의 장학사업을 위해 부천근로자장학문화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것을 권고한다"고 합의하고, 부천시는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회의의 출연권고를 받아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을 출연하였다.¹³⁾

한편,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의 노·사정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1차 본회의(1999.5.31)에서 18개항의 공동협약(제1차 협약)을 통해 "노·사정은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사정 협력행사를 개최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2000.12.27)에 노사정 워크숍 등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토의하면서 향후 노사정파트너십 형성 및 강화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사정 워크숍을 개최할 것을 의결한 이후, 2001년 2월, 2001년 12월, 2002년 3월에 각각 노사정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사정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사업장 단위 노·사정 이해관계의 조정·통합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출범 이후 2002년까지는 지역사회의 노사분쟁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1999년 4월부터 시작된 부천시의 청소체계개편과정에서 청소업무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문제가 지역사회의 갈등요인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를 쓰시협과의 대화와 타협으로 감응을 조정한 바 있는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1999년 11월 15일 부천지역 8개 택시노조의 공동파업이 예고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를 지역사회 노·사정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3) 부천근로자장학문화재단은 한국노총 부천지부가 출연한 1억3천만원, 조합원 기업체 시민 모금으로 출연한 2천만원 및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회의 권고를 받아 부천시가 출연한 2억원 등 총 3억5천만원을 기본재산으로 2002년도부터 근로자자녀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까지 총 205명의 근로자 자녀에 대해 총 8,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제3차 본회의(1999.11.13)는 한국노총 부천지부가 부천지역 택시노조협의회¹⁴⁾(부택노협, 의장 류지훈)의 제안을 받아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본회의에는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요구로 부택노협을 대표한 2명의 노조대표자, 8개 택시 사업주를 대표한 2명의 사업주 대표자가 각각 출석하였고, 청문회 방식으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리적 분쟁해결을 주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진행 도중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 간부 수명이 '본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2개 택시노조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의안이 처리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정상적인 청문회 분쟁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비록 제3차 본회의에서 택시 노사 간의 분쟁에 대해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이후에도 택시업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특히 2002년 3월 26일 개최된 노사정 워크숍에서는 8개 택시회사의 노사대표자를 모두 초청하여 분임토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한 결과 택시노사대표자들이 "소모적 개별교섭을 지양하고 저비용·고효율 교섭을 위해 각 기업별 개별 임금교섭에서 지역별 공동임금교섭을 하자"고 결의하고, 2002년도 임금교섭을 공동임금교섭 형태로 실행한 바 있다. 이러한 택시노사에 대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와 꾸준한 관심과 지원은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산하에 택시업종협의회를 결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2000년 9월 설립된 마을버스 노조(삼신버스, 시민운수)의 노동쟁의 및 노사갈등이 2000년 11월부터 본격화되자,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12월 5일 마을버스 노사대표를 각각 초청하여 당사자간 쟁점사항(장시간노동 및 휴일 휴게시간의 부여, 교통사고처리비의 임금공제 등)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2001년도에는 장기 미타결 노사분쟁 사업장인 삼양중기, 삼정테크노그라스, 경남기업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에 주력하였다. 이들 사업장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부천지부는 3개사업장의 노동쟁의가 장기화되자,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에 3개 사업장 노동쟁의 중재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소집된 제7차 실무협의회(2000.9.20)는 쟁의사업장 노사대표자와 사업장 방문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제7차 실무협의회에서는 한국노총 부천지부의 중재요청 이후 노동쟁의가 노사자율로 종료된 삼정테크노그라스 노동쟁의 사건을 제외한 삼양중기, 경남기업 2개 사업장의 노동쟁의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삼양중기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가 조속한 시기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것, 경남기업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적조정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삼양

14) 부천지역 8개의 택시노조 중 5개는 한국노총 소속이고, 2개는 민주노총 소속이며, 나머지 1개 노조는 상급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8개 택시노조는 소속 상급단체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부천지역택시노조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중기는 2000년 9월 26일에, 경남기업은 2000년 9월 28일에 각각 노동쟁의가 종료되어 두 개의 간담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한편, 사업장 단위 노동쟁의를 조정하려는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노력은 민주노총 지역조직의 불참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새마을금고 노동조합, 유한대학 노동조합, 소사자동차학원 노동조합, 일광공구공업 노동조합, 성가병원 노동조합, 부천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지역조직의 중재요구가 없어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단지 본회의 및 실무협의회 등에서 그 실태를 논의하는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제2절 세부일지

1999년

- 6월 25일 부천시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공포
- 6월 29일 제1차 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장 김만수) 개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동협약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우선이행사항을 7월 22일까지 각 주체들로부터 제출받기로 하였으며, 사무국 설치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토의
- 7월 22일 한국노총 부천지부,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에 공동협약 내용 중 우선이행의제로 9개 사항(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의 건, 노사정위원회 홍보 팸플릿 제작 배포의 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공단 조성의 건, 지역 노동자의 관급공사 채용장려 및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고용안정의 건,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제고의 건, 노동단체의 무료취업 알선사업의 건, 택시근로자 대책에 관한 건, 청소업 종사 근로자 대책에 관한 건, 사무국 설치에 관한 건) 심의 의견을 요구
- 7월 31일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한국노총 부천지부가 제출한 9개의 우선이행의제 1차 검토
- 8월 18일 제3차 실무협의회 개최
부당노동행위 근절 공동선언, 대장동 일대 공단 조성, 공공근로사업 중 중소기업기동지원사업, 부천시 청소체계개편에 따른 청소업무 종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5개 사항을 집중 토의, 실무적 의견 접근
- 9월 14일 제2차 본회의 개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대장동 공업지역화 조성’전에 대해 부천시가 공단 조성의 타당성 조사,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공감대 형성 주도, 지역노사정위원회 명의로 청와대와 건설부에 공단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기로 함.

‘공공근로사업 중 중소기업기동지원사업’에 대해 노사정을 포함한 총 7인으로 지원단 구성, 구체적 보완대책 논의기로 함.

청소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부천시 청소체계 개편 추진 기구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에 한국노총 부천지부 김정철 의장이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결정

노사정위원회 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명칭을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로 변경기로 하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함께 변경하기로 함

9월 28일 중소기업기동지원사업단 (노총, 상공회의소, 노동부 각 1인 및 시청 4명 등 총 7인의 실무자) 회의 개최

공공근로인력이 중소기업의 생산인력과 배치되는 경우 정리해고 전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것, 3회 연속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은 업체가 공공근로자를 신규채용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중단할 것 합의

11월 08일 한국노총 부천지부,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에 부천지역 8개 택시회사 쟁의와 관련한 조정에 임해줄 것을 공식 요청

11월 09일 제4차 실무협의회 개최
제2차 본회의(1999.9.14.)에서 위임받은 대장동 공단조성 대정부 건의문(대통령, 건설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을 심의 확정.

8개 택시회사의 쟁의조정과 관련해 택시업체 노사대표 각 2인을 출석시켜 노사정협의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기로 함

11월 13일 제3차 본회의 개최
택시업체 노사대표 각각 2인이 출석하여 택시 8개사 공동쟁의에 관한 노사간의 의견을 청취하던 중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 간부 수 명이 회의장에 무단 입장하여 청상직 청문 및 회의를 방해하여 특별한 결과 없이 산회

12월 15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명의로 대통령과 건설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대장동 녹지의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건의문 발송

2000년

5월 25일 중앙노사정위원회,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를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우수사례로 발표

5월 31일 부천지식산업특구(대장동 공단) 조성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7월 3일까지 전개하여 118,590명의 시민 서명 접수

11월 23일 제5차 실무협의회(실무협의회 위원장 홍인석) 개최
노동쟁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마을버스 노조, 환경기동반 노조)에 대한 해결을 위해 본회의에 앞서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쟁의사업장의 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

대장동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진행 경과 점검

12월 05일 실무협의회는 마을버스 노사(삼신버스, 시민버스)를 각각 초청, 노사 각각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 해결을 당부

12월 27일 제4차 본회의 개최
환경기동반 노조 및 마을버스 노조의 쟁의조정과 관련한 실무협의회 진행 내용을 보고받은 후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내심을 가지고 계속 조정할 것을 의결 또한 대장동 지방공단 조성의 건은 수도권정비법 개정을 위하여 노사정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지역 노사정간의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의결하고 사무국 설치(상근간사의 배치)를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여 보고토록 주문.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에 지역노사정협의회 참가의사 여부 확인

2001년

2월 02일 제6차 실무협의회 개최
장기 노동쟁의의 사업장 (환경기동반 노조, 마을버스 노조, 새마을금고 노조)에 대한 교섭 및 쟁의진행사항과 사무국 설치 관련, 사무실, 상근 간사 채용 절차 및 대우수준 점검

실무접촉을 통해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는 중앙단위의 입장변화가 없는 이상 지역노사정협의회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으나,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추가 접촉하기로 함

부천지역 노사정 워크숍을 2월 23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실무 사항을 토의.

2월 23일 부천지역 노사정 워크숍 (양평 남한강 연수원/1박 2일) 개최(50명 참가)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방안」(부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에 대한 집단토의 및 분임토의 진행

8월 30일 한국노총 부천지부는 장기 미타결 노사분쟁 사업장(삼양중기, 삼정테크노그라스, 경남기업)의 노동쟁의 조정,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공동협약 제16호(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노사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요구

9월 20일 제7차 실무협의회 개최
삼양중기, 경남기업의 노동쟁의 사항점검 및 삼양중기 노동쟁의에 대해서 실무협의회가 조속한 시기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것, 경남기업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적조정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간담회를 개최할 것 합의(삼양중기는 9월 26일, 경남기업은 9월 28일 각각 노동쟁의가 종료되어 간담회는 개최되지 못함)
부천시의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출연 및 노사정 워크숍에 대한 실무적 의견을 조율하여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

11월 06일 제5차 본회의 개최
2001년도 지역내 노동쟁의사항 점검, 하반기 노사정 워크숍 개최 의결
부천시의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출연과 관련해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부천시 지역내 근로자자녀의 장학사업을 위해 부천시근로자장학문화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

12월 13일 부천지역 노사정 워크숍 (대부도 경기도공무원 연수원 개최(50명 참가)
지역노사정협의회 기능과 활성화 방안(고려대 김성훈 교수)에 대한 강의와 함께 집단토의 및 분임토의 진행

2002년

2월 18일 제8차 실무협의회 개최
2002년도 노사정협의회 사업 추진계획 전반 심의

3월 11일 제6차 본회의 개최
장기 노동쟁의 사업장인 유한대학 노동쟁의사건 관련, 본회의에서는 유한대학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임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추후 일정을 잡아 쟁의사업장을 방문하고 조속한 해결을 당부하기로 함.

2002년도 상반기 노사정 워크숍을 3월 26일에 개최하기로 의결

3월 21일 제9차 실무협의회 개최
2002년도 상반기 노사정 워크숍에 관한 실무적 준비사항 점검

3월 26일 부천지역 노사정 워크숍(양평 남한강 연수원) 개최(80명 참가)
부천경실련 신철영 대표의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의와 이에 따른 노사정대표자간의 주제발표 (김규명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정렬 한국노총 부천지부 의장, 조정구 부천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 진행
각 업종별 지역 노사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분임토의 진행
택시업종 분임토의에서는 노사대표자들이 '저비용 교섭구조 마련을 위한 각 기업별 개별 임금교섭을 지양하고 공동교섭한다.'고 합의

12월 26일 제10차 실무협의회(실무협의회 위원장 류중혁) 개최
2002년도 사업전반 평가, 지역내 노동쟁의사건에 대해 점검

제3장 지역 파트너십 의제 모색 (2003~2005)

제1절 개요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는 2003년도부터 노동부(한국노동교육원)지원의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중앙노사정위원회 지원의 지역노사정협의회 시범지원사업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역단위 노사정 파트너십 의제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역단위 노사정파트너십 의제의 모색은 그 이전시기까지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가 지역과 사업장단위에서의 노사정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축적되어온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노사정이 무엇을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파트너십 단계를 높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난한 모색과정이었다.

2003년도의 주된 사업내용은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사업'이었다. 제11차 실무협의회에서는 노·사·정 간의 지역사회 공동의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이라는 제한된 구조 뿐 만이 아니라, '노사협의회'¹⁵⁾라는 확장된 영역을 통해 지역사회 의제를 찾아보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부천시지역 내 노사협의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요되는 재정자원은 노동부(한국노동교육원)가 실시하는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다.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부천시지역의 대상 노사협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장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지도하는 국한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협의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의 노사정파트너십 의제를 모색하자는 프로그램이었다.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64개 사업장(주로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노사협의회 운영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각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2003.8.20, 2003.11.25, 2004.2.5)하여 '노사협의회 효율적 운영방안', '지역단위 주체별 협의회 운영사례', '미국 위스콘신 사례를 통해 살펴본 지역 노사정 협력체계', '노사정 간 화합도모와 발전방안',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토의하였다.

또한, 전기전자업종, 화학플라스틱업종, 금형사출업종 등 업종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와의 정보교류 및 업종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였고, 노사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2003년 10월 21~24일)하였다.

1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는 2003년도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지역단위 노사정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는 업종별·주체별 협의회 구축을 통해 지역단위 파트너십 의제 형성과정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 지역단위 노사정파트너십 의제선정은 개별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 및 훈련 등 인적자원개발사업 부문에 모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몸소 체득할 수 있었으며, 향후 구체적인 노사파트너십 실행과정에서 유용한 자양분 역할을 하였다.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 관계자들은 2004년 2월 4일 노사정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 5년간의 활동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노사정실무자 워크숍에서는 5년간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가 걸어온 길을 평가하고,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가 재도약할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실무협의회는 지역 노동시장의 발전모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2004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천시지역 발전모델 연구·조사사업'(부천시지역 발전모델 연구조사사업)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 주된 방향이 종전과 같은 노사정 이해관계의 조정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노동시장 공동의제의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여 '일자리 만들기 부천시 지역 노사정 사회협약'(제2차 협약)의 체결을 추진하였다.

일자리 만들기 부천시 지역 노사정 사회협약(제2차 협약)은 2004년 4월 6일 개최된 제10차 본회의에서 체결되었다. 제2차 협약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 협력을 통한-직업훈련 체계의 마련, 고용안정과 고용증대, 비정규직 해고 개선 및 근로의욕의 고취, 임금안정, 사회취약계층(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의 고용촉진, 노사관계안정, 부천시지역 노사정협의회 발전방안- 부천시지역 노동시장 33개 공동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출범 당시 체결된 제1차 협약이 노사안정을 위한 산업평화유지, 지역사회 노사정 협력에 관한 기타사항 등 지역노동시장 영역 중 노사관계에 관한 의제에 치우쳐 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단계 발전된 내용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열악한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업종별 직업훈련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점, 지역자원의 일자리 연대사업 강화와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계와 시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 업종별 노사협력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산하에 운송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사정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한 점 등은 향후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 강화와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집행에 큰 기초가 되었다.

부천시지역 발전모델 연구조사사업을 통해서 부천시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조직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칭)고용개혁위원회 등 파트너십 모델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 취업연계 효율화를 위해 노·사·정·민·관·학의 파트너십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파트너십 체계가 업종별 협의회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제조업 기술혁신 및 근로자 복지 제고를 위한 부천시와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의회의 협력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한편 2004년 부천시지역 발전모델 연구조사사업과 함께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및 세미나, 토론회, 체육대회 및 대화의 한마당의 개최, 인사노무 매뉴얼 제작 등 입상적인 사업이 전개되었다.

2004년 부천시지역 발전모델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종단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파트너십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동목표의식을 같이 했다.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는 2005년도에 중앙노사정위원회의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불안하였던 택시업종과 공공 부문에 대해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주력하였다.

업종별협의회 구성은 상대적으로 노사 간에 의지가 높았던 택시업종협의회부터 시작하였다. 부천시지역 8개 택시업체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 총 3차례의 준비과정을 거쳐 택시업종 노사로부터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간사들 선임하고 구체적인 구상절차에 돌입하여, 2005년 7월 27일 산하에 택시업종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함으로써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가 업종별·주제별 협의구조를 확대하고 노사정파트너십 체계를 중증화하는 첫발을 내딛었다.

택시업종협의회는 이후 노사비전 21선언 채택 등을 통해 공동의 목표의식을 같이하고 노사 간 신뢰증진을 위한 선진지견학, 노사공동 직무교육 실시 등을 협의하였다.

택시업종협의회의 구성 이후, 공공부문협의회 구성에 나선 실무협의과정에서 공공부문 협의회 구성범위를 부천시와 직접 관련된 공공부문만으로 하자는 의견과 부천시 업무문의주받는 도급용역업체까지 구성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상호간의 의견 교류를 통해 우선적으로 부천시와 직접 관련된 공공부문(부천환경미화원노조, 부천환경기동반노조, 재활용선별장노조, 공원관리원노조, 수로준설원노조, 시설관리공단노조)으로 하고 후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2005년도에는 노사정세미나(5월25일), 노사정워크숍(11월17일), 노사정체육대회(5월4일), 노사정 대화의 한마당(12월14일), 노사정협의회 홍보용 브로셔 제작(2,000부), 노사

정협의회의 홈페이지 개편 운영(7월1일), 기업체 인사노무관리자 및 근로자 위탁교육(9회, 237명) 등 노사정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일상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2005년도에는 몽골국 노사정위원회 방한 관계자와의 교류협력(10월 28일),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 지원(12월 18일) 등 국제적 외교활동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2005년 12월 21일 개최된 제15차 본회의에서는 '업종별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부천시지역 제조업 공동화 대응 및 증장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역할 제고 방안' 연구조사사업 최종결과발표가 있었고, 결과보고 내용은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체계 구축에 전념할 것, 업종별협의체 뿐 만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 등 집적화 단지 활성화와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포럼 구성(물드단지 발전을 위한 노사정포럼, 테크노파크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포럼, 지역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포럼 등)을 구축할 것 등이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세부적인 노동 시장정책 실행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한국노총 부천지부는 연구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 노·사·정 협력에 기초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2006년부터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 실행사업의 재원은 고용노동부가 2006년 추진예정인 노사공동훈련 시범사업과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조달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제안 내용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실무협의회의에 세부 실행방법을 기획하여 추진할 것을 의결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인 '지역파트너십에 기초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전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제2절 세부일지

2003년

- 2월 18일 제11차 실무협의회 개최
2003년 이후 노사정협의회의 새로운 발전방향 논의
노(노동조합)·사(상공회의소)·정(시, 노동부) 단체 간의 협의적 사업 지양 및 지역 노·사·정파트너십의 실질적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사업 확대방안 토의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 신청 합의
- 3월 04일 제7차 본회의 개최
부천시지역 노사정 워크숍 개최와 장애인복지관의 노동정의 진행사항 등 토의

- 3월 27일 한국노동교육원에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역 노사정 협력체계 강화 프로그램」, 이하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 함) 신청
- 5월 13일 한국노동교육원과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협정서 체결
- 5월 16일 제12차 실무협의회 개최
장애인복지관 노동쟁의에 대한 사항 점검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실행방법(실무추진 체계) 토의
- 5월 28일 제8차 본회의 개최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실무추진을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주관 하도록 함.
지역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사정협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협의
여월동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장기근속 제조업체 노동자의 우선분양권 배정에 대해 부천시 실무부서를 통해 그 실행가능성을 협의하기로 함.
- 6월 19일 제13차 실무협의회 개최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추진방안 토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협의
- 6월 23일 제9차 본회의 개최.
지역 내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과 관련해 조례 제정 및 단계별 지원방안을 심의 의결
- 7월 01일 부천지역 주요업체(64개 업체)를 현장방문하고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8월 14일까지 계속)
- 8월 05일 제14차 실무협의회 개최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진행경과 점검, 부천지역 노사협의회 워크숍 내용 확정
안산지역 명예 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 운영 사례 방문결과 토의
- 8월 20일 제1차 부천지역 노사협의회 워크숍(북사골문화센터) 개최
'노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방안(공인노무사 한광연), '지역단위의 주계별 협의회 운영사례'(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박태순 의장), '미국 위스콘신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지역노사정 협력체계'(울산대학교 이성균 교수) 등에 대해 51개 사업장 73명의 노사협의회 담당자들 토의

- 9월 19일 부천지역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전기전자업종 협의회 개최
지역내 동종업종 교류증진방안, 동종업종 내 노사정 협력을 통한 직업훈련 방안 등 토의
- 9월 26일 부천지역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화학플라스틱업종 협의회 개최
- 10월 09일 부천지역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금형사출업종 협의회 개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른 지역단위 대응방안 등 토의
- 10월 21일 제15차 실무협의회 개최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진행 경과 중간평가
제2차 부천지역 노사협의회 워크숍 준비사항, 이주노동자 지원사업 (가이드북 제작) 점검
2004년도 노사정협의회 운영방안 토의, 본회의에 의결 요청
- 10월 21일 부천지역 인사노무 실무자 대상으로 인사노무 업무관련 실무교육 실시 (75명 참석, 10월 24일까지 계속)
- 10월 29일 제9차 본회의 개최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추진실적 점검
제2차 부천지역 노사협의회 워크숍 개최계획과 2004년도 사업계획, 사무국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
- 11월 17일 제16차 실무협의회 개최
제2차 부천지역 노사협의회 워크숍 실행계획(강사 및 강의내용, 그룹토의 주제선정 등) 점검, 확정
- 11월 25일 부천지역 노사정 워크숍 (단양 대명콘도/1박2일) 개최
'노사정 간 화합도모와 발전방안'(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연구위원),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위원회의 역할'(노사정위원회 장하성 운영국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방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사무총장) 등에 대해 40개 사업장 85명의 노사협의회 담당자들 토의
- 12월 30일 제17차 실무협의회 개최
2004년도 한국노동교육원 지원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의 신청 준비, 2004년도 사업계획 수립
노사정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개최 등 협의

2004년

- 2월 05일 노사정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강화도 가락호텔/1박2일) 개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의 경과와 평가(한국노총 부천상당소 소장 심재정),
 '부천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모델 개발과 고용정책 협의
 기구 설립(부천시노동복지회관 박순희 관장)', '부천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를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및 토론 진행
- 2월 24일 한국노동교육원에 2004년도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사업명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천지역 발전모델 구축사업」,
 이하 '부천지역 발전모델 사업'이라 함)을 신청
- 3월 18일 사정 합동 체육대회(부천실내체육관내 탁구장) 개최 (30명 참석)
- 3월 25일 제18차 실무협의회 개최
 「일자리 만들기 부천지역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협
 약(안) 검토
 2004년도 한국노동교육원 지원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의 세부적
 추진방안 협의
 -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기간 결원 중인 본회의 근로자위원을 부
 천여성노동자회로부터 추천받기로 함
- 4월 06일 제10차 본회의 개최
 2004년도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운영방안 심의 의결
 「일자리 만들기 부천지역 노사정 사회협약」(제2차 협약) 체결
- 4월 08일 한국노동교육원과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지원 협정 체결
- 5월 13일 제19차 실무협의회 개최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의 세부적 추진방안을 논의,
 세미나 개최계획 확정
 한국노동교육원으로부터 '부천지역발전모델을 위한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
 조사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
- 6월 10일 한국노동교육원과 「부천지역발전모델을 위한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 조사」
 (책임연구원 이주희 연구위원) 협정을 체결하고, 연구조사사업을 9월 30일
 까지 진행
- 6월 15일 부천지역 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노·사정 세미나(동서증권연수원) 개최
 「부천지역발전모델을 위한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 조사」(책임연구원 이주희

연구위원), 「부천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모델개발」
 (노동복지회관 박순희 관장) 토의

- 8월 12일 부천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와 「부천지역 청년실업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협정 체결, 10월 31일까지 연구조사사업 진행
- 8월 25일 제20차 실무협의회 개최
 '부천지역 발전모델 사업' 진행경과 점검
 하반기 노사정 워크숍 및 노사정 화합행사 토의
- 9월 15일 하반기 노사정 합동 체육대회(부천실내체육관) 개최
 부천지역 노사정관계자 65명 참석
- 10월 08일 제11차 본회의 개최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추진사항 및 연구조사용역사업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연구위원)의 추진결과 토의
 하반기 노사정 워크숍 계획안 심의 의결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이재진 부천시의회 의원 위촉
- 10월 15일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양평 한화콘도/1박2일) 개최
 '부천지역발전모델구축 연구조사용역사업' 결과에 대해 노동계(한국노총
 부천지부 김경협 의장), 경영계(부천상공회의소 천인기 사무국장), 정부측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 전수창 근로감독과장)의 지정토론 및 참석자 110
 여명의 분임을 통해 종합토론을 실시
- 10월 22일 중앙노사정위원회와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관계자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단위 노사정협의회 활성화에 대한 종합토론 진행
- 11월 19일 제21차 실무협의회(실무협의회 위원장 이재진) 개최
 2004년도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추진사항 점검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전체 워크숍 개최계획 논의
 운수업종 노사대표자들이 제안한 업종별협의회 구성 토의
- 12월 06일 노사정 합동 송년회(부천상공회의소 대강당) 개최
 부천지역 노사정 관계자 200여명 참석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사업 종합평가
- 12월 07일 중앙노사정위원회가 주관하는 '2005년도 지역노사정협의회 시범사업 설명회'
 에 실무협의회 관계자들 참석
- 12월 17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주최,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북사골문화센터)
 「부천지역 청년실업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부천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

최영미사무국장), 「고졸 미진학 청년 고용 및 취업현황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의 역할」(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12월 24일 제22차 실무협의회 개최

2004년도 사업 평가 및 2005년도 사업계획 토의
중앙노사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 시범사업'을 신청하기로 함

2005년

2월 19일 중앙노사정위원회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3월 17일 확정)
(세부사업명 : 「업종별협의회 및 주제별포럼 구축을 통한 지역노사정협의회 발전 프로그램」, 이하 '지역노사정협의회 중증화사업'이라 함.)

3월 22일 제18차 실무협의회 개최

'지역노사정협의회 중증화사업' 세부적인 추진방향 확정
(택시업종협의회 및 공공부문협의회 구성에 대해 토의, 택시업종협의회를 먼저 구성하고 공공부문협의회는 택시업종협의회 구성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11월 30일)까지 구성하기로 합의)

3월 31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홍보 브로셔 제작(2천부), 지역내 기업체 등 배포

4월 04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산하 택시업종협의회'구성을 위한 부천지역내 법인 택시 사업주(8명) 초청간담회 개최 (실무협의회)

4월 08일 제12차 본회의 개최

'지역노사정협의회 중증화사업' 최종 심의
택시업종협의회 구성, 공공부문협의회 구성, 기업체 방문(분기 1회) 토의
사업 추진방안 토의 및 조사연구 용역 사업 과제 선정, 노사정협의회 내 사무국 설치 논의

국민임대주택에 근로자에 대한 배정이 15%이상 가능하도록 노사정협의회에서 노력하기로 합의

4월 28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한 실무담당자회의 개최

5월 04일 부천지역 노사정관계자 체육대회 개최(부천실내체육관, 55명 참석)
부천지역 노사정 단체 관계자(한국노총 부천지부, 사업장 노조 위원장, 부천상공회의소, 노무관리협의회, 부천지방노동사무소, 부천시 관계자 등)

5월 13일 실무협의회 주관, 법인택시 노사대표자(사업주대표 2명, 근로자대표 2명) 초청, 택시업종협의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택시업종협의회 구성에 관한 세부적 사항 및 실무 간사 선임 전 논의

5월 25일 부천지역 노사정 실무자 워크샵(포천 한화리조트) 개최

'노사정위원회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중앙노사정위원회 박연정 대외협력실장), '지역노동시장 활성화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연구위원),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구성과 운영사례'(서울모델협의회 이학규 사무처장) 토의

5월 13일 택시업종협의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추진 실무간사 1명 선임

6월 23일 기업체 인사노무관리자 및 근로자 교육사업으로 (주)삼원테크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27명) 실시

6월 27일 기업체 인사노무관리자 및 근로자 교육사업으로 부천테크노파크 입주업체 인사노무담당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 교육(20명) 실시

6월 30일 택시업종협의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택시업종협의회 세부적 사업계획(공동세미나 및 워크샵, 부천지역 택시 업계 노사관계 진단, 택시노사 비전21선언 등) 및 회칙 초안 토의

7월 01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bcnsj.org>) 전면 개편

7월 02일 기업체 인사노무관리자 및 근로자 교육사업으로 부천테크노파크 입주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50명) 실시

7월 13일 제19차 실무협의회 겸 지역노사정협의회 중증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한국노동교육원 정인수 연구위원) 및 실무추진단(택시업종협의회 3명, 노사정포럼 3명, 제조업종 3명, 공공부문 1명, 근로자교육 2명 등 총 13명) 회의 개최

지역노사정협의회 중증화사업의 진행경과 점검 및 각 분야별 세부내용 토의

7월 14일 기업체 인사노무관리자 및 근로자 교육사업으로 부천테크노파크 입주업체 인사노무담당자들에 대한 2차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 교육(20명)

7월 20일 택시업종협의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노사 각 1명씩의 공동대표 선출하고 회칙을 확정하는 등 택시업종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적 준비 마무리

7월 27일 제14차 본회의 개최

지역노사정협의회 중증화 사업의 진행경과 점검
택시업체의 노사대표자들과 함께 '부천노사정협의회 산하 택시업종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노사비전21' 결의문 채택

- 8월 24일 제20차 실무협의회 겸 지역노사정협의회 중증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 및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
공공부문협의회 구성변위와 역할에 대해 토의결과 공공부문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최종결정을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
노사정포럼 설립 추진위원 3명 확정, 조사연구 용역사업에 대한 조사내용 종합 토론
- 8월 25일 기업체 인사노무관리자 및 근로자 교육사업으로 부천테크노파크 입주업체 인사노무담당자들에 대한 3차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 교육(25명)
- 9월 02일 제21차 실무협의회 개최
공공부문협의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지방선거 등 외적요인으로 인한 실무위원장의 장기간 공석에 따른 점을 확인, 공공부문협의회는 부천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6개 공공부문 노조(부천 환경미화원 노조, 부천 환경기동반 노조, 개활용선별장 노조, 공원관리원 노조, 수로준설원 노조, 시설관리공단 노조)를 참가대상으로 한다고 합의
노동시장조사연구용역사업으로 한국노동복지센터(이사장 황원태)와 「부천 지역 제조업 공동화 대응과 증장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역할 제고 방안」을 진행하기로 함
- 9월 09일 기업체 인사노무 관리자 및 근로자 교육사업 「(주)성문일렉트로닉스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22명)」 실시
- 9월 26일 기업체 인사노무 관리자 및 근로자 교육사업 「고강복지회관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18명)」 실시
- 10월 06일 기업체 인사노무 관리자 및 근로자 교육사업 「부천테크노파크 인사노무 담당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업무개선방법과 문제해결 기법」에 대한 교육(25명)」 실시(10월 14일까지)
- 10월 11일 제22차 실무협의회 개최
택시업종협의회 해외견학 프로그램, 노사정 워크샵, 송년행사, 몽골노사정 협의회의 방문 등에 대한 실무 사항 토의
- 10월 25일 택시업종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해외선진노사관계 현장학습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일정, 장소, 자부담 등 상세 내용 토의

- 10월 28일 몽골국의 노사정위원회 관계자 7명이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를 방문하여,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단위 노사정파트너십에 대해 토의
- 11월 02일 택시업종협의회, 해외 선진노사관계 현장학습프로그램 실시(호주 시드니 / 5박6일).
택시전문회사(RSL TAXI)를 방문하고, 소유자와 운전자의 상호연결사업, 택시 콜서비스사업, 택시운전 자격취득 대행사업, 택시관련 행정업무 사업 등 현장견학 (11월 7일까지)
- 11월 11일 제23차 실무협의회 겸 지역노사정협의회 중증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 및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사업추진 사항 및 노사정 워크샵, 송년행사 준비 점검)
- 11월 17일 기업체 인사노무 관리자 및 근로자 교육사업 「부천테크노파크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시대의 조직활성화 과정 교육 실시」(30명) (11월 18일까지)
- 11월 17일 부천지역 노사정 워크샵 개최 (설악 대명콘도, 80여명)
「노동시장조사연구용역사업 중간결과보고」(한국노동복지센터 김성희 소장), 「뉴패러다임 시범사업 추진사례」(뉴패러다임센터 이영호 팀장)에 대한 4개 분임조를 편성하여 토의 진행
- 12월 06일 제24차 실무협의회 개최
노사정 대화의 한마당 및 송년행사,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말하기 대회 지원 등을 토의하고 세부적인 실행방법 등 의결
- 12월 14일 노사정 대화의 한마당 송년행사(부천시청 구내식당) 개최(120명 참석)
모범위원 및 모범근로자 표창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실적 평가
「강한 기업, 강한 조직문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전 GE Korea 강석진 회장) 토의
- 12월 18일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말하기 대회」개최(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150여 명 참가)
- 12월 21일 제15차 본회의 개최
2005년도 사업전반 점검
노동시장 조사연구용역사업 「부천지역 제조업 공동화 대응과 증장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역할 제고 방안」 최종결과 토의

한국노동 부천지부, '지역파트너십에 기초한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을 제안하였고, 만장일치로 실무협의회에서 세부실행방안을 기획하여 추진할 것 의결

12월 27일 택시업종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2005년도 사업내용 점검 및 2006년도 택시업종 종사 근로자의 직무소양 교육 계획 등 토의

제4장 지역 파트너십 실행 (2006~2009)

제1절 개요

2003년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2004년 부천지역발전모델 사업, 2005년 사업 노사정협의회 중증화 사업 등 3년간에 걸쳐 지역 파트너십 의제를 모색해온 부천지역 노사정협의회는 제15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 파트너십에 기초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2006년 2월 7일 부천시와 부천지방 노동사무소, 한국노동 부천지부,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시평생학습센터, 부천시노동복지회관, 한국노동복지센터 등 9개 기관으로 고용사업추진기획단(TFT)¹⁶⁾을 구성하고 본격적 추진절차와 사업내용 등 세부적 방법 논의를 개시하였다.

수차례의 고용사업추진기획단의 논의과정에서는 재직근로자와 취약계층 대상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이 동시에 논의되었는데, 전행 도중 고용노동부의 지역파트너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이 '지자체 중심형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과 '노사 중심형 노사공동훈련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시행·예고되었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지역차원에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과 노사공동훈련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중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고, 논의 결과 사업대상과 목적 등이 상이하므로 사업주체를 명확히 한다면 중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한국노동부천지부와 부천상공회의소는 노사중심형 노사공동훈련사업에 역점을 두는 반면, 고용사업추진기획단(노사포함)은 지자체 중심형의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개키로 하였다.

또한 노사정협의구조의 다양화 및 지역파트너십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중증화 사업'은 2005년도의 시험적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는 보다 다각화된 방식(업종별협의회 및 주제별포럼의 다양화)으로 계속 추진되었다.

2006년 이후 지역파트너십에 기초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3대 중심사업 내용과 추진주체를 구분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16) 고용사업추진기획단(TFT)는 이후 2006년 6월 26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단(고용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은 크게 ① 인프라 구축사업(부천지역 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가 되는 인적·정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② 취약계층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재취업지원과 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민관공동일자리희망본부」 운영) ③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사업(청년층에 대한 전략산업 기술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사업) ④ 조사연구사업(지역 노동시장 및 고용실태 분석 및 대책 모색) 등 4개 사업영역에서 전개되었다.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은 제31차 실무협의회(2006년 1월 23일)에서 확정된 고용사업추진기획단(TFT)이 2006년 6월 26일 사업집행체제인 '부천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단'(고용사업단)으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고용사업단 주관 하에 집행되었다.

인프라 구축사업은 노사정협의회 중증화사업 중 고용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는데, 지역고용정책 수립 및 방향 전반에 관한 '고용포럼'과 취약계층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장년 분과포럼', 중소기업 인적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소기업 분과포럼' 등 고용주제별로 분화하여 집행되었다.

취약계층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은 지역의 취약계층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주도하는 9개의 기관(단체)이 공동 컨소시엄(가칭 '4050사업단')을 구성¹⁷⁾하여 대상별 종합상담 및 구직자 교육훈련, 취업희망직종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7) '4050사업단'에는 부천시노동복지지원센터,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원미지역자활센터, 소사지역자활센터, 나들지역자활센터, 부천시니어클럽, 실업극복부천시인문동본부,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부천여성근로복지센터 등 9개 기관(단체)이 참여한다.

특히, 2008년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 취업촉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부천시(시청구청·동사무소)·노동부(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와 연계를 강화한 '민관공동일자리희망본부'를 설치하여 중장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사업(가칭 '2030 프로젝트')은 2006년 중소기업 재직자의 일반 직무교육과 학교와 연계하는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산학 직무기능교육(지능형 메카트로닉스)을 실시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계 직무기능교육(메카트로닉스 기반 기술교육과 응용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미국 위스컨신주 윈스탐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2008~2009년에 지역단위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체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¹⁸⁾ 이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이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특화하여 공동구인처 개발, 공동홍보 및 교과정 개발 등의 문제를 지역단위에서 공동으로 해결해보려 했던 시도로 부천고용센터 내 "민관공동 일자리 희망본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2010년에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¹⁹⁾으로 '기관연계형 구인처개발단'을 운영함으로써 그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은 지역주체의 공동 컨소시엄 제안 방식에서 개별기관(법인, 등록단체)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그 성과를 도출할 수 없게 되었다.

공동 취업지원 시스템 운영의 경험(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내 공동사업단)은 이후 ①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편승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비영리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② 2009년에는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실태 조사를 통해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부천훈련네트워크(www.bchrd.info), 직업훈련정보망을 구축,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③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을 주도했던 「2030 프로젝트」, 「4050 프로젝트」 주체는 공동사업 중심에서 지역 노동시장 조사연구, 공동과제 도출 등 상시적 협력네트워크 '고용 HRD 네트워크' 구성, 운영하게 되는 절차를 밟는다.

18)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4050 프로젝트'는 2006년 이후 공동사업의 성과와 신뢰·4050의 중장년 고용사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중장년 고용사업 진행을 함께 있어 사업 참여자들의 심리적 위축감을 극복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지난 1년간 진행해온 공동홍보, 구인처개발, 소양교육, 정보네트워크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위스컨신주 윈스탐센터 모델 벤치마킹을 통한 전국 최초 부천고용센터 내 '민관공동 일자리 희망본부'를 계획 추진한다. 이는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의 의미로 볼 수 있다.

19) 2010년 이후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과 지역노사공동훈련지원사업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통합됨으로써 부천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험은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협력 네트워크를 재편하는 과정으로 새롭게 전환함.

부천노사공동훈련지원사업

노사공동훈련사업은 영국의 노동조합 학습기금 사업모델을 부천형으로 정착한 것으로 부천의 영세기업 밀집지역으로 훈련 사각지대의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 기업 훈련수요 발굴을 기본으로 기업 노사 훈련공동협약을 매개로 노사 간의 훈련에의 접근을 높이고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크게 ① 재직근로자 직능훈련 ② 훈련위원 발굴·양성 사업(노조 및 기업체 훈련담당자) ③ 훈련위원 주도 사내훈련 등 3개 사업영역에서 전개되었다.

노사공동훈련사업은 2006년 3월 6일 한국노총 부천지부와 부천상공회의소가 '부천 직업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²⁰⁾한 이후, 2006년 5월 15일 실행기관으로 부천 노사공동직업훈련지원센터(노사공동직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진행되었다.

재직자 직능훈련은 기업의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자동화 기술 분야(PLC자동제어, 마이크로컨트롤러제어, CAD, 3D UG-NX5), 사무자동화기술 분야, 실무능력 향상기술(전기기사 자격증, 주택관리사 자격증)분야 등 3개 분야 직무능력 향상훈련으로 실시되었다.

훈련위원 발굴·양성사업은 노동조합 및 사업체로부터 HRD담당자를 발굴, 역량을 배가하여 기존의 사업주 주도 교육훈련을 수요자(근로자) 중심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설계 및 기획, 교육훈련 리더십 교육, TEAM-SPIRIT교육 과정, 6SIGMA과정 등 교육훈련담당자로서의 소양과 전문성 배가, 기업체 생산성 향상 훈련 등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아울러 노조 및 기업체의 HRD담당자가 사내에서 조합원(노조가 없는 기업체 HRD담당자의 경우, 사내 근로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사내훈련사업(기업 노사 훈련 공동협약 체결)을 병행하였다²¹⁾.

2009년 8월 30일 지역 노사정 공동협약 체결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차 개정(주요 목적과 기능에 있어 노사협력 증진만이 아니라 지역 고용 및 인적 자원개발 등)하였으며 2009년 9월 30일 제23차 본회의에서 부천노사공동훈련지원센터 부천시 지원 확정,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사업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 지역 노사주도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²²⁾.

20) 부천직업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는 2008년 4월 16일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로 조직구성 및 명칭을 변경하였다.

21) 기업 노사공동협약을 통해 스스로 훈련의 수요를 창출하고 노사공동훈련센터는 강사·교과정 제시·사후관리 등 모두 지원함으로써 훈련 사각지대 지역노사의 훈련에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함

22) 중앙의 각 부처별로 시행되었던 지역단위 일자리창출(훈련 취업지원 포함)지원사업은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중복함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바뀐, 그 일환으로 2009년 이후 지역단위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사업과 지역노사공동훈련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재편, 개별기관 중심의 취업훈련으로 추진되어온, 모범사례에서 노사공동훈련사업은 자세히 기술됨으로 참조.

노사정협의회 중층화사업

2006년부터는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산하에 이미 설치된 택시업종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부문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주제별 포럼(노사정포럼, 고용포럼)을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노사정파트너십 체계를 중층화하였다.

2005년도에 출범한 택시업종협의회는 단순한 노사 간 협의구조의 수준을 넘어 2006년부터는 노사공동 택시근로자 직무교육 실시, 택시 노사관계 진단 실시, 노사공동 캠페인 전개 등 공동실행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택시업종의 노사정파트너십 체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공공부문협의회는 공공부문 노사정파트너십 우수지역을 공동 견학하는 한편 공공부문 공동관심사인 고령인력의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는 ① 중앙의 지역단위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의 흐름이 전환되는 시기로 지역단위 공동프로젝트 실행의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시기로 볼 수 있으며, 그 돌파구로 제3차 노사정협약 체결과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그 재원을 부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 9월 본회의에서는 부천노사공동훈련사업을 부천시 재원으로 지원,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부천 노사민정은 2006~2009년 중앙의 재원 확보로 추진된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의 다양한 시도와 경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2009년 이후 중앙의 지역고용 지원사업의 동태변 방향은 지역고용 실행 파트너십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고용 파트너십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조사연구 및 공동주체 포럼 등 개최결과 제기된 지역고용 협력 네트워크로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부천기업발전협의회 출발)'²³⁾ 구성과 지역 고용서비스 기관과 직업능력개발기관을 포괄하는 '부천훈련네트워크(고용 HRD네트워크)' 및 부천훈련정보망(www.bchrdr.info)을 구축하여 전국 최초 직업훈련 정보의 집적과 제공 등을 하게 되었다.

③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는 업종별협의회와 함께 2006년부터는 주제별 포럼(노사정포럼, 고용포럼)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토론회 및 선진지 연수 등을 통해 지역사회 노동시장에 관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발굴하는 한편, 지역노사정 파트너십 인프라의 확충을 도모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의제개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의제개발에 주력하여, 차후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의 발전적 진로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23) 부천지역 중소기업 발전 및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천지역기업발전협의회로 발족, 이후 소기업 밀집형 아파트형 공장단지 중심의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로 구성 및 운영 등 재편, 2017년까지 존속

제2절 세부일지

2006년

- 1월 04일 제25차 실무협의회 개최
중앙노사정위원회의 지원사업은 2006년도에도 사업계획안이 확정되는대로 신청, 2006년도 노동부의 신규사업인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은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훈련사업을 중심으로 신청할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
- 1월 11일 실무협의회, 부천테크노파크일자본부 방문,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 관련 협의
- 1월 23일 제26차 실무협의회 개최
중앙노사정위원회 지원사업과 노동부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의 세부적 추진방안 협의
(노동부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고용사업 추진기획단(TFT)을 노사정협의회 산하에 설치기로 함, 추진사업단에는 부천시, 부천지방노동사무소, 한국노총 부천지부,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시평생학습센터, 부천시노동복지회관, 한국노동복지센터 등 8개 기관 관계자로 구성기로 합의)
- 2월 07일 고용사업추진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4월 18일까지 총 7차례 개최)
- 2월 10일 한국노총 부천지부는 부천상공회의소에 부천지역의 노사가 공동으로 직업훈련사업을 전개할 것을 제안
- 2월 15일 한국노총 부천지부와 부천상공회의소는 노사공동으로 직업훈련사업을 전개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 제1차 실무회의 개최
- 2월 20일 한국노총 부천지부와 부천상공회의소는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에 노사가 공동으로 직업훈련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 2월 10일 한국노총 부천지부와 부천상공회의소, 노사공동직업훈련사업을 위한 제2차 실무회의 개최(사업방식 등에 대해 상호 협의)
- 2월 28일 중앙노사정위원회에 2006년도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 제안 신청
「업종별협의회 운영 및 지역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노사관계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이하 '지역노사정협의회 중증화사업'이라 함」, (중앙노사정위원회는 3월 29일, 지원 확정)

- 2월 28일 한국노총 부천지부와 부천상공회의소, 제3차 실무회의 개최
부천노사공동직업훈련지원사업을 위한 기본원칙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지역노사정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함
- 3월 02일 한국노총 부천지부와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에 부천노사공동직업훈련사업에 관한 세부적 합의사항을 2차 보고
- 3월 06일 한국노총 부천지부와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직업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약서 체결
- 3월 07일 부천직업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 노동부에 노사공동훈련사업 신청
「노동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현장밀착형 노사공동직업훈련사업, 이하 '노사공동훈련사업'이라 함」(노동부는 3월 31일 지원을 확정)
- 3월 23일 택시업종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노사공동 택시근로자 친절교육 등 2006년도 주요 사업계획 토의
- 4월 20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부천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이하, '고용사업'이라 함) 참여계획서 제출(경인지방노동청, 6월 23일 지원 확정)
- 4월 26일 택시업종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부천지역 택시업체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현황과 수준을 살피기 위한 '택시업종 노사관계 진단' 용역조사 토의
- 5월 11일 택시업종협의회 전체회의 개최(국내의 택시노사관계 전략방안 토의)
- 5월 12일 부천직업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 '06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6년도 세부사업 계획 확정, 부천노사공동직업훈련지원센터(이하 '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라 함.) 개소식에 대해 협의
- 5월 15일 부천직업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 노사공동훈련사업 실행기관으로 춘의테크노파크 단지 내에 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 개소식 개최
- 6월 08일 택시업종협의회, 부산지역의 택시노사관계 선진사례 견학 (부산 한진택시) 노사관계의 운영상황, 주40시간제의 실시 운영 실태, 택시근로자에 대한 지역내 쟁점 등 토론
- 6월 14일 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 사무자동화기초과정 직업훈련(20명)을 시작으로 개직자 직무향상훈련 개시(12월 31일 까지)
정보화기초과정, 사무자동화과정, 전자자동제어과정, 마이크로컨트롤러제어과정, 캐드과정, 3D모델링과정 등 19개 과정(총 393명)
- 6월 22일 택시업종협의회, 통일운수에서 노사공동 친절교육 실시(27명)

6월 22일 택시업종협의회 한남기업에서 노사공동친절교육 실시(146명)

6월 26일 '부천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단'(이하 '고용사업단'이라 함.)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전임사무원(간사) 채용 등에 대하여 협의

6월 27일 택시업종협의회 부산지역 택시노사관계 선진사례 견학 내용 점검 및 '부천지역 택시업종 노사관계 진단조사'사업의 세부적 실행방법과 절차 등 토의

6월 14일 노사공동직훈련센터, 제1차 노조훈련위원 전원회의 개최(7차례 개최)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내 직업훈련 역할과 과제' 토의

7월 04일 경인지방노동청과 고용사업 지원협약 체결

7월 10일 고용사업단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2030프로젝트」, 「4050프로젝트」 분야별 사업계획과 회계처리 방안 등 협의

7월 19일 노사공동직훈련센터, HRD담당자 양성교육 실시(12월 26일까지 총6회 시행)

7월 26일 고용사업의 분야별 사업 대표기관(부천시노동복지회관,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노동복지센터)과의 내부 사업협약 체결

8월 01일 고용사업단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고용포럼 및 고용인프라사업의 운영계획 등 협의

8월 04일 고용사업단 제4차 운영위원회 개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산하 고용포럼 구성 등 고용 인프라 구축사업 및 고용사업 전반의 진행내용 점검

8월 07일 택시업종협의회 '부천지역 택시업종 노사관계 진단조사' 용역계약 체결.
부천지역 택시업체 노사 및 근로자에 대한 직무만족도 조사 실시.(10월 20일까지)

8월 21일 제16차 본회의 개최
2006년 중앙노사정위원회 지원사업(노사정협의회 중층회사업)과 2006년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고용사업) 추진상황 점검
노사정협의회 실무위원장으로 강동구 시의원을 위촉하기로 의결

8월 24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산하 제1차 부천노사정포럼(복사골문화센터) 개최
'노사정파트너십 운영 일본사례 연구 및 실천과제'(한국노동연구원 임상훈 박사), '일본 지방정부의 노사정위원회 운영 사례'(한신대 한광희 교수)를 학습하고 토의

8월 31일 부천노사공동직훈련센터, 「춘의도당지역 중소기업 직업훈련수요 조사사업」(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권순식 연구위원) 실시(11월 3일까지)

9월 04일 제27차 실무협의회(실무협의회 위원장 강동구) 개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등 검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공공부문협의회 구성에 관해 본격적인 추진, 합의 세부적 논의는 9월 18일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

9월 04일 고용사업단 제5차 운영위원회 개최
고용포럼의 구성대상을 확정하는 한편 포럼개최 등에 대해 협의

9월 08일 택시업종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노사공동 친절교육 실시 사항 중간점검

9월 12일 고용사업단 제6차 운영위원회 개최
제1차 고용포럼 및 제2차 고용포럼의 일시, 장소, 토의내용, 주제발표자 등 협의

9월 12일 택시업종협의회, 달성운수에서 노사공동친절교육 실시(65명)

9월 12일 부천직업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 200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하반기 사업계획 등 심의 의결)

9월 18일 제28차 실무협의회 개최
공공부문협의회 구성의 지연 건에 관하여 토의, '공공부문협의회는 부천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공공부문 노조(6개 부문, 부천환경미화원노조, 부천환경기동반노조, 재활용선별장노조, 공원관리원노조, 수로준설원노조, 시설관리공단노조)를 참가대상으로 한다'고 재차 확인

9월 20일 택시업종협의회, 노사공동친절교육 실시
삼신교통(교육대상자 182명), 동산운수(교육대상자 65명)

9월 27일 제1차 고용포럼 개최 (복사골문화센터 세미나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지역 파트너십'(한국노동연구원 김주섭 연구위원)에 대해 토의

10월 12일 공공부문협의회 추진을 위한 제1차 부천시 산하 노사관계자 회의

10월 12일 고용사업단은 연구조사사업의 대표기관인 한국노동복지센터와 함께 연구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 연구조사사업에 대한 진행내용 점검

10월 23일 노사정포럼, 일본 사이타마현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 실시(4박 5일, 영커리어센터, 사이타마 청년자립지원센터,

- 고용관리센터, 고용개발협회, 고용취직지원플라자, 동경도 노사취업지원기구 등
견학·시찰)
- 11월 02일 고용사업단, 경인지방노동청과 함께 고용사업 전반(특화사업, 연구조사사업,
고용인프라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 11월 03일 제2차 부천노사정포럼(북사골문화센터) 개최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노사정위원회 박연경
대외협력실장)을 학습하고 토의
- 11월 09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워크샵(태안 롯데오션캐슬/1박2일) 개최
'부천지역 택시업계 노사관계진단 연구'(공인노무사 황교술),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 미국 위스콘신 훈련프로그램 사례'(한국노동연구원 전명숙 연구
위원) 등에 대해 40개 사업장 85명의 노사협의회 담당자들이 토의
- 11월 15일 택시업종협의회 택시종사자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한 길거리 캠페인(송내역)
실시
- 11월 14일 제3차 부천노사정포럼 (부천시청) 개최
일본 해외연수의 성과인 '일본정부와 사이타마현의 고용정책 방향'(한신대
한광희 교수) 토의
- 11월 16일 고용사업단, 제2차 고용포럼 개최(제천 청풍리조트/1박2일)
'고용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노동부 김영중 서기관), '고용인적자원
개발사업의 사례와 부천지역에 대한 제언 및 방향'(영남대학교 이효수 교수)
토의(11월 17일까지)
- 11월 17일 택시업종협의회, 노사공동으로 선진질서교통문화 캠페인 (부천역, 송내역)
실시, 노사대표 24명이 참가
- 12월 05일 고용사업단 제7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6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2007년 사업방향 등 협의
고용지원센터와의 강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완성된 부천고용모델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
- 12월 06일 공공부문협의회 추진을 위한 제2차 부천시 산하 노사관계자 회의 개최
- 12월 07일 택시업종협의회, 부천지역 택시노사의 발전방향을 위한 워크샵(제주도/1박
2일) 실시
- 12월 11일 제17차 본회의 개최
중앙노사정위원회 지원사업(노사정협의회 증충회사업)과 지역고용 및 인적
자원개발사업(고용사업) 추진결과를 점검과 2007년도 계속사업 내용 협의

- 12월 15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노사정 대화의 한마당 송년회 개최(중동 동원부페)
부천지역의 노사정인사 165명 참가
지역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및 모범근로자 표창
- 12월 20일 고용사업단 제8차 운영위원회 개최(2007년도 사업계획을 협의)
- 12월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종합사례 발
표회'에 참석하여 우수사례 발표를 발표하고 향후 사업방향 토의
- 12월 28일 경인지방노동청이 주최하는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결과발표회'
에 참석하여 2006년도 사업결과 종합 발표

2007년

- 1월 12일 제29차 실무협의회 개최
2007년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지원사업 공모신청 내용 토의
한국노동 부천지부가 제출한 재단법인 부천근로자장학재단 기금증액 요구에
대해 장학재단의 운영현황 등 설명, 이에 후 기금증액 여부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 1월 26일 고용사업단 제9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7년도 사업계획 전반 협의
- 2월 06일 고용사업단 제10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협의와 'UBASE'를 방문하여 고용사업과의
연계방안 협의
- 2월 13일 중앙노사정위원회의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 시범사업(지역노사정협의회
증충회 사업) 신청, 4월 3일 지원 확정
- 2월 23일 제30차 실무협의회 개최
2007년 중앙노사정위원회 지원사업 추진방안 토의
고용및인적자원개발사업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 검토
제2기 노사정포럼 운영사항을 토의, 조반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함
- 3월 06일 제18차 본회의 개최
2006년 사업실적 평가 및 2007년도 지원사업 신청을 심의 의견
부천근로자장학재단기금 증액방안은 장학기금모금 운동에 주력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의결, 노사정 산업평화 공동선언문 내용 재검토

- 4월 01일 부천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 제2차년도 노사공동직업훈련사업 시작
- 4월 16일 부천지역 노사정 산업평화 동반대회(원미산) 개최(100명 참가)
- 4월 16일 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 ITQ과정 직업훈련 실시(재직근로자 19명)
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는 2007년도에 정보화기초화, 사무자동화, 전기자동제어, 마이크로콘트롤러제어, CAD 및 3D(모델링)과정 등 재직근로자 직무향상 훈련 실시(28개 과정, 495명)
- 4월 30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06년 택시업종협의회 추진실적 점검 및 2007년 택시업종협의회 추진계획(확정예산 및 사업계획 등) 보고 및 상반기 세부 실천계획 토의
신임 실무추진간사(한남기업 신원명) 선임
- 5월 06일 고용사업단 제1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7년도 사업계획 및 확정 예산 등에 대해 협의
- 5월 01일 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 2007년 기업체 HRD 담당자 교육사업으로 14개 과정, 384명교육 추진
TEAM-SPIRIT교육과정, 6SIGMA과정, 코칭리더십과정, VBADHL 매크로를 이용한 역설과정 등 14개 과정
- 5월 29일 고용사업단, 중장년분과포럼을 개최(포천 한화콘도, 24명)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4050의 취업전략'을 주제로 부천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4050 중장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네트워크 사업의 특성을 살려, 공동개발 공동추진의 효과성에 관한 토의로 진행
- 5월 31일 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 제1차 노조훈련위원 전원회의 개최(총 4회 진행)
'노사공동시범사업에서의 변화된 훈련위원의 역할'(한국노총 부천상당소 심재정 소장)을 토의
- 6월 06일 택시업종협의회, 전체워크샵(속초/2박3일) 개최
속초시 모델택시업체(원성운수)를 방문하여 노사관계 실태 및 개선을 견학, 택시업종협의회 활성화방안으로 문화시민운동추진 워크샵 개최하기로 합의
- 6월 19일 부천직업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 2007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규약 일부 개정 및 2007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심의 의결
- 6월 27일 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 노조훈련위원 워크샵 개최 (홍천 청태산펜션, 27명)
'중소기업 평생학습조직화 제도 및 사례'(한국산업인력공단 김우현 팀장),

'전환기 노동운동과 직업훈련'(한국노총 정책본부 이민우 본부장), '팀조직력 강화를 위한 팀워크 프로그램'을 실시, 노동조합 훈련위원의 역할향상 도모

- 7월 02일 노사정포럼 운영위원회(제1차) 개최
포럼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참가대상, 운영방법) 토의, 사업계획 확정
- 7월 06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공공부문협의회 활성화 방안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국내 공공부문 노사협력 선진지 견학) 토의
- 7월 10일 노사정포럼 운영위원회(제2차) 개최
노사정포럼 참가인원을 총 24명으로 합의(노동계 8명, 경영계 7명, 전문가 그룹 3명, 노동부 및 시청 6명)
- 7월 11일 고용사업단 제12차 운영위원회 개최
사업진행내용 점검, 운영위원 추가와 고용포럼 개최계획 협의
- 7월 24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택시노사관계 모범업체 견학 결과 상호 토론, 선진교통문화 캠페인 실시 계획(9월중 개최) 등 논의
- 8월 16일 노사정포럼 운영위원회(3차) 개최
제1차 노사정포럼 전원회의 개최 등에 대한 실무적 사항 협의
- 8월 27일 고용사업단 제13차 운영위원회 개최
특화사업 진행상황 점검, 중소기업분과포럼 개최 등 협의
- 8월 27일 제31차 실무협의회 개최
노사정협의회 중흥화사업(노사정포럼, 고용포럼, 공공부문협의회, 택시업종협의회)의 진행내용과 고용사업단의 고용사업 진행내용 등 점검
하반기 사업계획과 워크샵 등 토의
- 9월 03일 제1차 노사정포럼 개최(부천시의회 소회의실, 33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 연구위원) 토의
- 9월 07일 중소기업분과 포럼 개최(리더스클럽 부천점, 24명)
'부천지역의 중소기업 육성과 인적자원개발 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핵심적으로 필요하고, 피교육자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정례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공유

- 9월 14일 택시업종협의회, 문화시민운동 실천 캠페인 실시(송내 북부역, 20명)
출근 시민 및 택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문화시민운동 실천사항 홍보
- 9월 20일 고용사업단 제14차 운영위원회 개최
연구조사사업 중간점검, 지역모델로서 RESAP 모델 검토
- 10월 04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워크숍 개최(포천 한화리조트, 50명)
'노사정 협력 신뢰 증진 커뮤니케이션'(한국노동교육원 서광범 교수)
- 10월 09일 제3차 고용포럼 개최(부천시의회 소회의실, 33명)
'고용정책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고용지원센터의 역할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확인, 향후 부천지역 고용정보 네트워크의 중요성 토의
- 10월 18일 제32차 실무협의회 개최
노사정협의회 운영과 시범사업 추진실적 점검, 하반기 본회의 개최 등 협의
- 10월 18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서울모델협의회 전학 일정 등 협의
- 10월 23일 노사정포럼 운영위원회(4차) 개최, 일본국 해외연수를 위한 실무 협의
- 10월 25일 고용사업단 제15차 운영위원회 개최
특화사업, 연구조사사업 및 고용인프라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2008년도 사업방향에 대해 협의
- 10월 25일 노사공동직흥센터, 부천지역 업종별 기업체 대표자 워크숍 개최(실악 대명콘도, 100여 명)
'부천지역 노사협력사업과 노사파트너십 제고'(한국노동 부천지부 김준영 의장) 토의, 노사파트너십에 기초한 근로자 능력개발사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도모
- 10월 26일 노사공동직흥센터, 2007년도 노조훈련위원 주도 사내훈련사업은 ㈜한국호세코 '웃음과 스트레칭을 통한 업무향상' 교육 등 14개 훈련과정 추진 (10개 사업장, 682명)
한국호세코, 우주엔비텍, 신한일전기, 한국콜마정인 등 사내훈련 추진함
- 11월 27일 부천직업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 2007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사업전반 점검 및 전용예산 등 심의 의결
- 10월 29일 공공부문협의회, 공공부문노사대표 15명 서울모델협의회 방문
서울모델협의회의 설립배경 및 연혁, 구성 및 운영현황, 성과와 발전과제 등 토론을 통해 부천지역 공공부문협의회 구성, 의제 등 개선방안 협의

- 10월 31일 제19차 본회의 개최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2008년도 고용창출 노사정 연계추진 시책 운영계획 등 토의
- 11월 01일 고용사업단 제16차 운영위원회 개최
지역고용창출 노사정 연계추진 시책과 관련한 조사사업 추진방안 협의
- 11월 08일 제2차 노사정포럼 전원회의 개최(부산/8~9 지속 토론)
「한일지역고용 국제심포지엄」(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실) 참석, 지역단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방안 등 토론
- 11월 09일 제2차 중장년분과 포럼 개최(충주 보훈휴양원, 15명)
'4050 중장년 고용사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중장년 고용사업 진행에 있어 사업 참여자의 심리적 위축감을 극복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2007년 추진사업 '공동홍보, 구인처 개발, 소양교육, 정보네트워크' 발전방안에 논의, 이후 2008년 사업계획 토의
- 11월 12일 고용사업단 제17차 운영위원회 개최, 2차 고용포럼 개최 계획 등 협의
- 11월 13일 부천노사정포럼, 일본 교토부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 실시(교토부 종합취업지원실, 교토잡파크, 연합교토, 교토부 경영자협회 등/3박4일)
교토부 고용창출협의회 구조화 기능 및 운영의 실제 사례, 고용창출협의회 관계기관 간 제휴에 의한 네트워크 시스템, 교토지역 직업능력개발시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성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현황 등 학습
- 11월 19일 제2차 고용포럼을 개최(서울 아카데미하우스, 27명)
'부천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부천지역 내 모든 고용정책을 연계할 것에 대해 집중토의
- 11월 30일 고용사업단 제18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7년도 사업의 자체평가서 검토, 2008년도 사업계획 협의
- 12월 03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07년도 추진사업 성과 점검, 위원의 변경 및 택시업종의 당면사항 토의
- 12월 13일 제3차 노사정포럼 전원회의 개최
일본국 교토부 지역고용정책 연수 결과에 대한 공개토론 실시
- 12월 18일 노사정포럼 운영위원회(제5차) 개최
노사정포럼 4차 전원회의를 '지역노사정한마당'으로 변경하여 개최할 것 협의

- 12월 24일 제33차 실무협의회 개최
2007년도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2008년 노사정협의회 사업방안 토의
- 12월 27일 제4차 노사정포럼 및 노사정한마당 개최(상동 메가플러스, 147명)
'21세기 새로운 노사관계 전망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성중 위원장) 토론
- 12월 28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08년 사업추진방안 토의
- 12월 28일 공공부문협의회 제2차 전원회의 개최
'공공부문 노동관계의 중요성과 지역에서의 역할', '공공부문협의회 활성화 방안' 토의

2008년

- 2월 13일 중앙노사정위원회에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 시범사업 '지역 노사정협의회 중충화 사업' 신청(5월 3일 지원 확정)
- 2월 13일 경인지방노동청에 고용사업 '민관공동일자리희망본부사업, 취약계층 실업자 인적자원개발사업, 인프라구축사업' 신청(4월 3일 지원 확정)
- 3월 31일 부천직업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 노사발전재단과 노사공동훈련사업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2008년 사업 개시
- 4월 11일 고용사업단 제19차 운영위원회 개최
'민관공동일자리희망본부' 사업계획 및 2008년도 고용사업단의 고용사업 계획 전반에 대해 토의,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에서 관련부서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4월 16일 부천직업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 노사공동훈련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로 조직 개편하여 출범식 개최(상공회의소 대강당, 100명 참석)
- 5월 06일 민관공동일자리희망본부 업무 개시
- 5월 08일 노사공동직훈련센터, 재직근로자 21명에 대해 AUTO-CAD 중급과정 직업 훈련 실시 등 2008년도 재직자 직무향상 훈련은 'UG-NX5, 전기자동제어, 마이크로컨트롤러제어, CAD 및 3D(모델링)과정'을 추진(6개 과정, 229명)
- 5월 08일 제34차 실무협의회 개최

- 노사정협의회 중충화 사업(노사정포럼, 고용포럼, 공공부문협의회, 택시업종협의회) 토의
- 고용사업단의 고용사업(민관공동일자리희망본부 사업, 취약계층 실업자 인적자원개발 사업, 인프라구축 사업)의 진행내용 점검
- 세부사업 내용 및 예산계획 토의
- 5월 09일 노사공동직훈련센터, 기업체 HRD담당자 교육사업 실시(14개 과정, 319명)
12월 31일까지 프리젠테이션 발표클리닉, 중소기업 기초회계실무, 개정세법 실무교육 등 진행함
- 5월 09일 노사공동직훈련센터, 제1차 노조훈련위원 전원회의 개최(총 4회)
2008년도 훈련내용 및 사내훈련 계획 등 토의
- 5월 14일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2008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출범식을 평가하고, 2008년도 노사공동훈련사업 세부계획 및 예산계획 심의 의결
- 6월 03일 민관공동일자리희망본부, 일자리희망본부 사업설명회 개최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자 24명 대상으로 희망본부와 동사무소와의 연계시스템에 대해 토의하고, 사업 네트워크 연계 강화 합의
- 6월 12일 노사공동직훈련센터, 노조훈련위원 상반기 워크숍 개최(충남 보령, 22명)
'지역 고용문제와 노동조합의 역할'(한국노동 부천상담소 심재정 소장), '현장 맞춤형 사내훈련 기획 실무'(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출판식 교수) 토의
- 6월 13일 노사정포럼 테스크포스팀(TFT) 제1차 회의 개최
2008년도 노사정포럼 및 TFT의 세부운영방안 토의, 지원(자문) 멘토로 노사발전재단 심용보 연구위원 추천
- 6월 20일 고용사업단 제20차 운영위원회 개최
민관공동일자리희망본부 사업진행내용, 고용포럼TFT 구성, 고용심포지엄 개최 등 토의, 고용TFT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멘토를 추천받기로 합의
- 6월 24일 택시업종협의회, 2박3일 일정으로 전남 목포일대 택시사업 실태(목포 중앙 택시 등) 택시행정 견학, 택시업종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토의
- 6월 30일 제20차 본회의 개최
2008년 노사정협의회 중충화 사업(노사정포럼, 고용포럼, 공공부문협의회, 택시업종협의회), 2008년 고용사업단의 고용사업(민관공동일자리희망본부 사업,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내용 및 예산계획 심의 의결

- 7월 09일 일자리희망본부 개소식
지역 노사정관계자 및 고용취업알선 관계자 70여 명 참가
- 7월 11일 고용사업단 제21차 운영위원회 개최
고용사업 진행사항 점검 및 고용포럼 및 TFT 운영 토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주제로 고용포럼을 개최하기로 함
- 7월 11일 제5차 노사정포럼 회의 개최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8층 컨벤션홀)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방향'(노사발전재단 심용보 연구위원) 토의
- 7월 22일 고용포럼 테스크포스팀(TFT) 제1차 회의 개최
2008년도 고용포럼 및 TFT의 세부 운영방안 토의, 지원 멘토로 한양대학교 임상훈 교수 추천
- 7월 29일 제3차 고용포럼 개최 (북사골문화센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성화에 의한 지역사회 만들기'(전국대학교 김재현 교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실업극복국민재단 김태인 실장) (54명 참가)
- 8월 09일 노사공동직훈련센터는 노조훈련위원이 주도하는 사내훈련사업으로 (주)제일엔지니어링에서 '업무별 CAD 실무 및 불량대책'교육(22명 참가) 실시
12월 27일까지 노조훈련위원이 주도하는 사내훈련사업에 제일엔지니어링, 한국호세코, 우주엔비텍, 신한일전기, 한국플라스틱 등 11개사업장 905명이 19개 사내교육훈련과정 참가
- 8월 20일 고용사업단 제22차 운영위원회 개최
고용사업(민관공동일자리희망본부사업, 취약계층 실업자 인적자원개발사업, 인프라구축사업) 진행내용 점검, 민관공동일자리희망본부가 직접적인 면에서 직업능력향상과 지역 고용지원체계로서의 지역시스템으로 평가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8월 22일 고용포럼 TFT 제2차 회의 개최
부천지역의 제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에 대한 종합토론
- 8월 27일 부천노사발견협의회, 2008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규정 일부 개정(감사제도 실시), 감사 선출
2008년도 하반기 사업 및 예산계획 심의 의결
- 9월 04일 노사정포럼 TFT 제2차 회의 개최
제1차 협약(1999년), 제2차 협약(2004년)의 이행사항 평가
노사정협의회 조례 점검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작업장 혁신에 관한 방안 등 토의

- 9월 11일 고용사업단 제23차 운영위원회 개최
고용사업(민관공동일자리희망본부사업,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사업, 인프라구축사업)의 진행내용 점검
- 9월 18일 고용포럼 TFT 제3차 회의 개최
교육훈련프로그램(기관)과 기업을 매칭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긴급함 토의
- 9월 23일 노사정포럼 TFT 제3차 회의 개최
작업장 혁신에 관한 방안, 작업장 단위 평생학습 등 토의
- 9월 30일 지역고용심포지엄 개최 (부천시의회 소회의실)
'실업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각 취약계층 영역별 고용서비스 지원현장에 대한 취약계층 당사자와 업무종사자의 발표를 듣고, 취약계층 고용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10월 14일 고용사업단 제24차 운영위원회 개최
고용사업 진행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일정의 일부 조정 토의
- 10월 15일 제35차 실무협의회 개최
노사정협의회 중층화 사업, 고용사업단의 고용사업의 진행내용 점검, 노사정협의회 지역의 지역파트너십협의체로의 전환 등 토의
- 10월 15일 택시업종협의회,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 홍보 및 문화시민운동 실천 캠페인 실시 (송내북부역 일대)
- 10월 22일 고용포럼 TFT 제4차 회의 개최
취약계층 실직자(여성, 노인, 장애인, 중장년), 중소기업 재직자의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의제를 선정하고 토의
- 10월 22일 노사정포럼 TFT 제4차 회의 개최
작업장 단위 노사관계 진단 및 작업장혁신 사업 토의
- 10월 30일 취약계층고용포럼 개최 (강화 오마이스쿨/1박2일)
'지역단위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조언'(부천평생학습센터 홍숙희 소장), '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성공회대 서종균 교수)
- 11월 12일 고용포럼 TFT 제5차 회의 개최
취약계층별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의제, 중소기업 재직자의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의제에 대해 심층 토의

- 11월 13일 노사공동직훈련센터, 노조훈련위원 하반기 워크숍(장수 하늘마을/21명)
'발표력 향상을 위한 일대일 코칭훈련'(한국프리젠테이션 최영수 원장)과
'훈련위원으로서의 발표력 향상을 위한 집중화 교육'
- 11월 21일 제4차 고용포럼 개최(강화 청소년수련원)
고용포럼 주제 '지역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전명숙 연구
위원)과 부천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3년 평가와 발전과제 토의
- 11월 24일 부천노사공동직훈련센터, '부천지역 노사공동훈련사업 3주년 보고대회' 개최
(부천터미널 소풍, 150여명)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전반을 평가하고, 제2의 도약 다짐
- 11월 25일 고용사업단 제25차 운영위원회 개최
고용사업(민관공동일자리희망본부사업,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의 진행내용 전반 토의
- 11월 27일 노사정포럼 TFT와 고용포럼 TFT가 공동회의 개최.
각 TFT별 의제선정 내용 심층토의, 활동내용은 실무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합의
- 12월 01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10년사」 발간위원회 구성 및, 작업 개시
- 12월 10일 공공부문협의회 3차 전원회의 개최(근로자종합복지관)
'공공부문의 고령인력 활용과 임금피크제'(뉴패러다임센터 변상혁 팀장)
- 12월 15일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2008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8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용을 점검, 2009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
- 12월 18일 제6차 노사정포럼 겸 노사정한마당 개최(소풍터미널, 200여명)
'지역경제의 희망' 지역거버넌스 노사민정 파트너십과 부천의 가능성(한국
고용정보원 정인수 원장)
- 12월 30일 제36차 실무협의회 개최
노사정포럼 TFT와 고용포럼 TFT로부터 활동내용을 보고받고, 2009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 토의, 민관공동일자리희망본부의 계속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협의
- 12월 31일 제21차 본회의 개최
2009년도 사업전반(노사정협의회 중층화 사업, 고용사업) 평가, 20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에 위임하기로 함

2009년

- 3월 27일 택시업종협의회, 노사공동대표 선출
- 4월 22일 택시업종협의회(4.24까지 자료취합)
업체현황 및 운영실태, 노사관계 협력 우수사례 견학 및 자료 수집 등 노
사파트너십 강화
- 5월 19일 택시업종협의회, 민주노총 소속 택시업체 2개 사업장(동창산업, 부천운수)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가입하기로 결정
- 5월 20일 공공부문협의회, 공공영역 확대에 따른 공공부문협의회 설립 추진 이해 및
추진일정 협의
- 6월 04일 훈련정보망구축사업, 09년도 직업훈련기관 실태조사 보고회 개최(70명)
직업훈련기관 소통과 만남의 네트워크 토론회
- 6월 10일 공공부문협의회
운영규약(안) 검토 및 선진사례지역 견학 협의
- 8월 20일 공공부문협의회 경기테크노파크 견학(경기테크노파크, 17명)
- 9월 11일 공공부문협의회, 노사파트너십 강화 워크숍 개최 합의
- 9월 24일 노사정포럼, 2009년도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및 실적 보고 및 '노사관계의
쟁점과 동향' 특강 진행
- 9월 25일 경영자 워크숍 개최, '글로벌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전략과 성공적인
변화 관리' 특강과 부천지역테크노파크 연합결성에 대한 발전방향 논의
- 9월 28일 택시업종협의회, 선진모범업체 대상 및 추진사항 결정
- 9월 29일 노사정포럼 개최
취약계층 고용서비스에 대한 협력 연계 모델 제안과 고용 프로그램 표준
화 및 민관공동일자리희망본부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
- 10월 08일 노사정포럼(원주), 사회적기업 우수지역 견학과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의
역할 토론회(홍살림 등 5개소)
- 10월 15일 택시업종협의회, 홍보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활용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문화시민운동 실천 홍보물 배포
- 11월 17일 공공부문협의회 5차 TFT회의 개최(사례견학 및 경영자 워크숍으로 추진)
운영규약 발표 및 임원소개, 설립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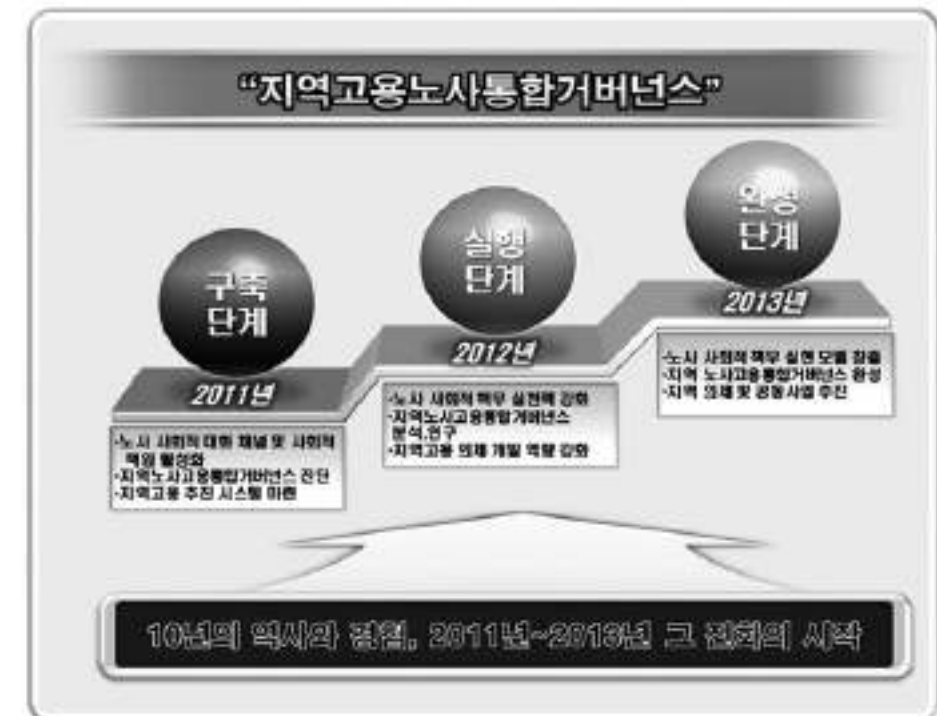
- 11월 20일 혼련정보망구축사업, 참여기관 네트워크 간담회
부천지역 고용관련 서비스기관 사업현황 조사 결과 발표
- 12월 03일 노사정 전체 워크숍 개최
부천지역 고용HRD 네트워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 토론
노사협력과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지역노사민정파트너십
발전 방향(특강) 등

제5장 지역 파트너십 성과공유 (2010~2013)

제1절 개요

2010년 지역단위 사회적대화는 중앙주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책방향으로 선회, 2008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던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지원과 표창제도 도입, 전달기구 사무국 설치 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2012년에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지역고용심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지역노사정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전환을 요구받게 되고, 실무협의회의 수차례 논의와 제26차 본협의회는 '민'의 대표성을 '학' 제로 결정²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다.

지역적으로 민선 5기 출범²⁵⁾으로 부천 노사민정은 새로운 활력을 찾기 시작하였다. 지난 지역 노사의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의 경험과 실패는 전국 최초 기초자치단체 고용심의회를 추진목표와 지역주도 자율적인 고용노사통합 거버넌스를 모색하였다.



24) 민의 대표로 산·학연계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관내 부천대학, 유한대학이 참여

25) 1998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출범 준비기에 당시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준비와 출범을 주도하였던 김만수 (전)부천시장의 당선됨으로 새로운 변화를 예고

지역 차원의 노사고용 통합형 거버넌스 구축과 직업장 혁신 네트워크 및 업종별협의회 운영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확산의 추진목표 하에 지역노사의 정책역량 배가, 지역고용 전문화와 모니터링 시스템, 생산적인 노사문화와 책무성 강화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 등 새로운 협력의제의 확장과 지속가능 시스템 마련을 위한 민-민(民民), 민-관(民官) 협력노력이 함께 하였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 성과는 지역고용전략회의 제안으로 실효성있는 일자리공시제²⁶⁾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민-관 고용 및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공동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과 고용HRD 한마당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민-민(民民), 민-관(民官), 관-관(官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홍보한 것 등이다. 2006년 이후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의 경험과 신뢰는 공동실행파트너십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협력, 조사연구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앙으로부터 제한된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의 한계이기도 하다.

2011년 3월 협의회 설립 10년만에 전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정책협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2011년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일자리지원사업 경진대회에 "하이로드형 전략산업 고용촉진지구" 시범사업 제안하여 우수상 수상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원 결정,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 일자리지원사업 경진대회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부문 문화 콘텐츠 인력양성사업 Social innovation Camp)" 최우수상 수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게 되었다.

2012년 민선 6기 출범당시 부천 노사민정의 노동정책 제안으로 선진노사문화 확산은 새로운 노사협력의제를 모색, 추진하게 되는데, 정책제안으로 부천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제도' 도입과 2012년 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부천시 생활임금제도 도입', 택사업종 종사자 임금향상효과와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브랜드몰 도입(환타지아몰)' 도입 등의 성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생활임금제도는 국내에서 생활이슈로 제기되었을 뿐 그 내용이 전무한 상태로 부천시 생활임금추진위원회(7차 운영)는 생활임금 개념 정의, 적용대상 및 임금산정기준, 그 효과성 등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2013년 10월 25일 부천시의회 여야 공동발의로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 임금'을 말하며, 노사민정파트너십을 통한 합의하에 추진된 사례로 '부천시생활임금 전국 최초' 의회 통과(강동구, 안효식 의원)하였으며, 경기도 행정제의 요구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26) 2010년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일자리공시제도 도입 시행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천시 일자리공시제 방향과 목표 등 연구를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제안, 지역의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분석을 토대로 부천시 일자리공시 목표 및 실행사업 등 제시, 공시함

12월 6일 부천시의회 여야 공동 개의결함으로써 12월 12일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제정되었다. 또한 택사업종협의회는 11월 12일 부천택시 브랜드몰 도입을 위한 노사정 정책(택사업종 종사자의 임금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으로 일자리창출 효과성 제고와 시민의 안전귀가 및 편의서비스 질 담보)합의, 2014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부천 환타지아몰'을 도입 시행하였다.

지역고용부들은 지역 내 고용정책 역량과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한 지역 일자리창출 전략 보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단(부천시+부천고용센터+사무국) 협력을 높일 수 있었으며, 8월 13일에 양용3차 내 교육문화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협약 체결²⁷⁾로 현재의 노사공동훈련센터와 홀씨 도서관, 일기양득 행복일터지원센터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부천 노사민정은 그 간의 경험과 역사를 기반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운영 매뉴얼'을 발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역량을 견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12년 11월 SBS 미래한국리포트 '행복한 일자리 지역거버넌스' 지역 고용 거버넌스 우수사례 '희망부천' 방영과 OECD(국제경제협력기구)는 지역거버넌스 사례 보고서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사례 채택(2014년 발간되어 고용노동부-OECD 지역 일자리창출 컨퍼런스 "효과적인 고용과 숙련전략 구축" 주제로 부산 국제컨퍼런스 개최)되었다.

2013년은 2년에 걸쳐 추진되었던 전국 최초로 지역노사민정 합의에 의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 도입되었던 시기(12월 12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의제화장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2013년 4월 27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약을 위해 'ISO26000 핵심주제 실천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노사민정 사회적 실천 협약'을 체결²⁸⁾, 12월 1차~3차 협약(1999년~2009년)의 이행결과를 공개하였다.

27) 부천지식산업단지 교육문화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협약 체결(11:00, 창외실) -부천시: 여신지원 -쌍용tp단지: 교육실(2) 및 문화 커뮤니티 공간 무상임대 -부천지역노사발견협의회: 운영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협력지원 및 협의의결

28)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약을 위해 다시금 '공공의 선'에 대한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에 부응하여 부천 노사공동 노력을 전제로 한 노사파트너십 모델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모델'로 발전하기 위하여 지난 3차 협약까지의 이행검증을 중심으로 핵심주제 노동분야인 고용, 노사, 교육훈련, 사회적대화 분야 등 주요 4대 핵심의제의 이행속도를 결의하는 바이며, 향후 ISO26000 핵심주제 실천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노사민정 사회적 실천 협약'을 체결

2013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는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사공동훈련센터는 12월 31일 전국 최초 지역노사공동법인을 설립하였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중앙정부로부터 실행사업 제안 지역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노사공동훈련법인 설립을 통해 수요는 있되 공급이 부족한 각종 실행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부천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정책협의파트너십으로 정책연구 및 협의제안과 협력 네트워크 운영, 노사공동훈련법인은 훈련실행파트너십을 통해 훈련의 수요와 공급을 조율, 훈련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본래의 취지와 기능을 담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하게 된다.

2013~2014년 2년 연속 전국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표창하게 되어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게 되었다.

제2절 세부일지

2010년

- 2월 19일 고용HRD네트워크 개최
부천일자리센터 개소 및 업무추진 방향 설명, 일자리유관기관 협의체 참가 의향 조사 및 구축
- 3월 03일 제37차 실무협의회 개최
부천시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력 활성화 사업 및 부천노사공동직업훈련 현황 보고, 중앙노동정책에 반영해야 할 현장의 특성 교류 및 건의
- 3월 03일 제24차 본회의 개최
부천시 지역 노사민정파트너십 활성화 사업 보고
부천노사공동직업훈련 현황 보고
중앙노동정책에 반영해야 할 현장의 특성 교류 및 건의
- 3월 03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10년 택시업종 추진사업 협의, 임원선출 및 기타사항 토의
- 3월 22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문화시민실천운동 캠페인 추진, 택시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협조
- 3월 23일 기업발전협의회 개최
2010년 사업계획 논의, 선진노사문화 중소기업 박람회 계획 수립 협의

- 4월 26일 택시업종협의회 해외전학, 베트남 호치민시 우수택시업체 전학
- 4월 30일 고용HRD네트워크 회의 개최
HRD네트워크 2010년도 사업논의, 위원 변경 및 위촉 협의
- 5월 07일 고용HRD네트워크 회의 개최
지역 일자리창출 활성화 및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방안
- 5월 13일 기업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2010년 사업계획 및 기업발전협의회 워크숍 논의
- 5월 20일 고용HRD네트워크 회의 개최
HRD네트워크 과제 '부천시지역훈련정보망 활성화 방안' 협의
- 6월 14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문화시민 실천운동 캠페인 추진과 택시업종협의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
- 6월 17일 기업발전협의회 워크숍 개최
[주계]창조경영과 창의적 혁신 사업안내,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연계추진
- 6월 22일 고용HRD네트워크 회의 개최
구인업체 발굴을 단일화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네트워크협의회를 통해 회보(복사골신문) 작성 및 유관기관 게시판 제작 활용 홍보
- 6월 25일 고용HRD네트워크 회의 개최
노사민정협의회 이해 및 지역HRD네트워크 과제에 대하여 협의, 토론
- 7월 03일 노사민정협의회 합동 추진단 회의 개최
합동추진단 운영방향과 당면현안(고용정책)사항 협의
- 7월 16일 제38차 실무협의회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추진 지원, 고용네트워크 회의 지원방안
노사민정 선진지 해외연수 추진
- 7월 19일 제24차 본회의 개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추진 지원, 고용네트워크 회의 지원방안
노사민정 선진지 해외연수 추진 심의의결

- 7월 20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
사회적기업 설립추진 TF팀 1차 회의
- 7월 22일 고용HRD네트워크 회의 개최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4차)과 가칭『경력맞춤형 네트워크 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방안 마련(정보공유 등)
- 7월 23일 차별시정포럼, 2010 사업추진 방향과 임원직 선출
- 7월 20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
사회적기업 설립추진 TF팀 2차 회의
- 7월 30일 HRD 네트워크 회의 개최
각 기관의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 및 과제 협의, 고용HRD네트워크 한마당
행사 아이디어
- 8월 12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 (13일까지)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시군 견학
- 8월 24일 차별시정포럼
차별개선네트워크 실태조사와 워크숍 및 창립총회 일정 논의
- 8월 25일 고용HRD네트워크 회의 개최
지역 일자리공시제 적극 참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 방안
(5차) 모색, 노사민정협의회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 8월 25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공공부문협의회 회의(워크숍) 논의 등
- 8월 28일 제25차 본회의 개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대한 논의 및 의견
노사민정활성화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조정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협약 체결
- 9월 13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문화시민 실천운동 캠페인 개최(진)및 노사정 동반대회 논의
택시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협조 및 기타사항
- 9월 14일 차별시정포럼 워크숍 개최(영종도 비치클럽펜션)
2011 공동사업 준비와 차별개선네트워크 창립총회 토론
- 9월 15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부천시 사회적기업 사업 아이템 공모 추진계획
- 9월 17일 기업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기업발전협의회 2010년 하반기 사업 논의

- 9월 24일 노사민정협의회 합동 추진단 회의
일자리공시제 추진관련 공조체계 구축
당면 현안 (고용정책) 사항 협의, 합동추진단 운영 방향 등
- 9월 28일 고용HRD네트워크 회의 개최, 고용HRD 네트워크 한마당행사 논의
- 9월 28일 제39차 실무협의회 개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조정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협약체결 전
- 9월 29일 고용HRD네트워크 회의 개최
지역 일자리공시제 적극 참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경기도 권역별 채용박람회 및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행사 참여
- 9월 29일 노사정포럼 개최, 노사관계 정점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모색과 작업장 혁신
의의 및 도입효과
- 9월 29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문화시민 실천운동 캠페인 및 노사정 동반대회 개최
- 10월 19일 기업발전협의회 회의 개최(기업발전협의회 3차 실무회의)
기업발전협의회 2010년 하반기 사업연경 논의
- 10월 22일 고용HRD네트워크 회의 개최, 고용훈련정보망 광고 방송 제작
- 10월 27일 고용 HRD 네트워크 회의 개최
지역 일자리공시제 적극참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11월 15일 기업발전협의회 회의 개최(기업발전협의회 2차 운영위원회의)
기업발전협의회 CEO 포럼 개최 방향 및 내용 등 협의
- 11월 15일 차별시정포럼 개최, 차별개선네트워크 창립총회 개최(출범식)
- 11월 16일 노사민정협의회 해외연수 개최 (일본 동경/3박4일, 기관단체4개소 견학)
지역상가(상점주) 중심으로 설립한 '아모루도' 지역공동체 경제 회복사례와
고령자 중심의 지역공동체 '시니어소호 보급 살롱', 취약계층 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 '스완베이커리' 사례와 지역사회 현안을 행정, NPO, 자원봉사
등이 아닌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한 설립, 운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사례 견학
- 11월 21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워크숍 및 기념식 개최(소풍권펜션웨딩홀, 120명)
2010년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성과 보고, 화합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사업 소개 및 고용차별개선 네트워크 화합 연계추진

- 11월 24일 고용HRD네트워크 회의 개최
지역 일자리공시제 적극참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12월 09일 제40차 실무협의회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상황 보고,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예산조정
노사민정협의회 전체 워크숍 개최 일시 장소 결정
부천시 지역 고용전략 편찬사업 위탁
- 12월 09일 기업발전협의회 포럼 개최
[주제]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조성방향
- 12월 16일 고용HRD네트워크 워크숍 개최(강원도 속초)
부천시 고용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사업 발표 및 질의응답
- 12월 22일 고용HRD네트워크 회의 개최
지역 일자리공시제 적극 참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12월 23일 기업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기업발전협의회 제4차 실무회의, 기업발전협의회 2010 사업평가
- 12월 28일 공공부문협의회 회의 개최
부천시 지역 고용 HRD 네트워크 구성 운영계획 토론회
노사협력 및 고용인적자원개발 추진을 위한 지역노사민정파트너십의 발전
방향(특강) 등
- 12월 30일 제41차 실무협의회 개최
지역일자리공시제 및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경진대회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 조정
일자리공시제 홍보사업 내용 결정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인원 채용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협약체결

2011년

- 1월 08일 제42차 실무협의회 개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예산, 일자리공시제 홍보사업 내용 결정
- 1월 20일 차별개선 네트워크 개최, 고용차별 개선 거리 홍보·캠페인 일정 확정
- 1월 25일 지역고용네트워크 지역전문가 포럼 개최(부천고용센터 8층 컨벤션홀)
부천시 일자리공시 목표대책 및 일자리공시의 실효성에 대한 대책 논의

- (멘토_정승국 교수 참석)
- 2월 08일 공공부문협의회 비정규직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시청 대회의실, 100명)
부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및 조례제
정에 따른 대시민 공청회 추진(시장, 시의회의원, 노사관계기관 및 단체 등
참여)
- 3월 14일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국 설치, 부천시 내 사무국 마련과 사무
차장 채용하여 업무 개시함
- 3월 18일 제43차 실무협의회, 11년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 및 예산 토의
- 3월 22일 택시업종협의회
2011년도 협의회 추진사업계획 권 -선견지 견학(3.28), 노사화합체육대회
(10월 중)
- 3월 25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고용차별개선 캠페인(1차/송내역, 25명)
찾아가는 길거리 노동상담 및 고용차별없는 부천시 만들기 대시민 홍보 캠페인
- 3월 28일 택시업종협의회 모범택시 업체 견학(속초택시, 16명)
모범택시업체 운영 현황 및 택시업종 관련 시책 등 견학을 통한 생산적 노
사문화 확산 및 노사화합 강화
- 3월 30일 거버넌스실천단(2011년도 부천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 및 예산)
- 4월 01일 프로보노 사업운영(4.1~11.30까지 8개월 운영)
"기업자문단(기업체 퇴직자 2명)" 구성하여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업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로수령을 통해 직접 상담 및 관련 전문가와
연계하여 해결(2011년~2012년도 시범사업 수행), 기업에로의 접수(208업체) 결
과 자금지원 39%, 인력수급 24%, 기술인중 16%, 판로수출 10% 차지
- 4월 08일 지역고용네트워크 회의, 일자리 네트워크 업무협약(MOU) 등 논의
- 4월 11일 제26차 본회의 개최
2011년도 노사민정활성화 사업 및 예산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구성에 관한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4월 12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 4월 23일 노사포럼 공정노동기준 세미나(1차, 속리산, 15명)
노사화합을 위한 공정노동기준세미나 사업의 필요성 및 주요사항 논의
- 4월 23일 노사포럼 공정노동기준 세미나(2차, 부천상공회의소, 10명)

- 노사현안 중심 주제 선정과 쟁점 토론을 통한 지역노사의 자율적인 공정노동기준세미나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일정 논의
- 4월 25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고용노동부부천지청과 부천시 간의 업무지원 및 협약(분기별 실무협의회 개최함으로써 효율적 업무수행에 기여) 협의
- 4월 29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고용차별 개선 거리 홍보·캠페인 일정 확정(홍보포스터 촬영)
- 4월 21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분과위별 향후계획과 관련사항 토의(2011년도 전체 일정 조정)
- 5월 11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상반기 워크샵 및 소식지 'TP NEWS' 제작
- 5월 17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구인처 발굴 자료를 토대로 한 기관별 구직연결에 대한 논의
- 5월 17일 HRD네트워크 개최
책임간사 선임 및 향후 운영 관련 제반사항 (책임간사 홍숙희)
HRD네트워크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논의, 학습지원 체계 필요성 공유
- 5월 18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일자리창출 및 지원 상호 업무협약 체결(고용노동부부천지청과 부천시)
- 5월 19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실무자 워크샵(영흥도 비치펜션, 10명)
기업발전협의회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로 전환을 위한 운영규약 개정안 검토 및 추진절차 등 실무적 협의
- 5월 24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2011년 지역고용전문가 아카데미 및 지역특화사업 개발 공모사업 등 협의
- 6월 01일 차별개선네트워크 모니터링 사업(6.1~7.31 까지)
외국인근로자 차별실태 및 청년아르바이트 현황조사를 통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 도출(부천외국노동자의 집과 부천청년네트워크 주도, 설문조사 외국인실태조사 400부, 청년아르바이트 200부 조사분석)
- 6월 02일 지역특화사업 벤치마킹(대구/부산, 18명)
(6/2)대구경북 "고용촉진벨트사업"→(6/3)부산사하구 "고용촉진지구사업" 및 시니어프라자, 부산 사하구 "시니어프라자와 (주)갑파두레" 견학일정으로 동년 8월 부산 사하구 "고용촉진지구사업" 벤치마킹을 통한 부천형 일자리창출 제안으로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브랜드 일자리지원사업' 우수상 수상하였으며, 지원예산 확보, 현재 노사공동훈련의 기반 조성함

- 6월 14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취업박람회 참석(6/24) 적극 참여와 일자리창출 2차 전략회의(6/27) 개최, 우수단체 표창 및 부천시 중견기업과의 MOU 체결 의결
- 6월 14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및 구성에 관한 건(제조업중협의회→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명칭 변경) 협의
- 6월 15일 지역고용전문가 아카데미(14명)
노사민정 관련기관 및 고용관련기관(비영리) 관련 업무자로 기관장 추천받은 자에 한하여 14인 참여원칙 하에 지역고용 철학, 실태 진단과 공동이행과제 도출, 교육 진행
- 6월 16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상반기 보고 및 상호 협조방안 논의(기업 현장 지원, 상호 간 협조)
지역 네트워크 및 회의의 중복성 최소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 6월 16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전체 워크샵 협의
- 6월 28일 제44차 실무협의회,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제1차 전용예산 전 토의
- 7월 01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하반기 계획에 관한 건(일정 및 내용 결정, 통과)
- 7월 01일 부천지역 특화사업 아이템 공모, 제안사업(7/1~8/30까지)
부천시 특성 및 고용현황을 반영한 우수 아이템 및 사업을 공모, 선정함으로써 일자리창출에의 기관 및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선정된 우수사업은 '11년도 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으로 제안, 부천시 관내 비영리법인(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7.22)하여 중앙 부천 경진대회 제안하여 우수상 수상함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부문 우수상 수상(8.30), 현재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제안(1.12 설명회 참가)
- 7월 07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뉴스레터 "Techno Park NEWS" 창간호 발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소개,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연혁 및 소개, 기업지원기관 소개, BTP letter 등 1,500부 제작 및 배포
- 7월 12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유관기관 사업보고 및 취업박람회, 전략회의 공유
- 7월 18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고용차별개선 캠페인(2차/부천역, 21명)
찾아가는 노동상담 및 고용차별없는 부천시 만들기 대시민 홍보 캠페인
- 7월 22일 제27차 본회의 개최

- 제1차 전용예산 및 전체 워크숍 개최 관련 심의
- 7월 22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노사상생의 의미" 교육 및 노사상생협의회 필요성과 추진사업 협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구성, 매월 1회 회의 정례화
(8월은 워크숍으로 결합하고 차기 회의는 9월 개최)
- 8월 25일 노사민정 전체 워크숍(충남 보령, 76명)
노사민정 전체 위원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내실화에 기여
- 9월 01일 차별개선네트워크 워크숍(강원도 주문진, 9명)
비정규직의 참여확대와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및 2012년도 차별개선
네트워크 사업 모색
- 9월 01일 홈페이지 개편(9/1~11/30까지)
기존의 홈페이지를 새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대시민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함
- 9월 05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선진지 견학결과보고 및 '부택' 체육대회 개최전 협의
(자체부담액은 노사양측 자체회의에서 결정, 일정은 3차 회의시 확정함)
- 9월 07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2011년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추진사업 보고 및 공공부문협의회 사업
검토, 조율 확정
- 9월 20일 제45차 실무협의회 개최
상반기 주요사업 보고 및 2012년도 지자체지원금 편성에 관한 건 협의
(하부협의회별 실적에 따른 사업비 편성에 대한 고민과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에 대한 추후 편성에 대한 논의 등)
- 9월 20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지역고용전문가 워크숍 및 포럼 개최 관련 건 협의(11/10~11 일정 확정)
- 9월 20일 HRD네트워크 개최
2011년도 주요사업보고 및 HRD네트워크 실행사업 모색에 대한 논의
(2012년도 무료직업훈련정보지 공동제작 배포함으로써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대시민 인지도 제고)
- 9월 21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기업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설명 및 각종 기업 인적자원개발지원제도 설명
회장 선출(영진화학노동조합 강명진 위원장, 회칙 제정하기로 결정)
- 9월 22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 일자리전담기구로서 부천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고용센터 간의 실무적
협의(부천고용센터 현장지원사업에 대한 부천시의 적극 협조)
- 10월 11일 택시업종협의회 '노사화합 부택 체육대회'(부천시민운동장, 700명)
부천시장 및 주요인사 참석, 택시업종 7개 업체 노사 참여(한국노총 민주
노총)로 노사화합 및 단결 도모
- 10월 12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2011년도 추진사업 보고 및 하반기 워크숍 계획(당일 워크숍으로 추진함
으로써 참여 확대하기로 결정)
- 10월 18일 노사포럼 개최
노사포럼 위원 재구성 및 세미나 개최전, 소식지 발간에 관한 하반기 추진
사업 논의
- 10월 19일 테크노파크발견협의회 개최
포럼개최 및 제2호 뉴스레터 발간에 관하여 협의
(11.29 포럼 관련 준비위원회 개최, 뉴스레터는 창간호와 같이 20페이지
내외 발간하기로 함)
- 10월 26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회칙 제정 및 기업맞춤형교육지원사업 선정결과 보고 등 주요안건 처리
- 10월 28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상반기 주요 추진사업 보고 및 하부협의회별 하반기 사업일정 검토, 논의
2012년도 지자체지원금 예산집행 방향 및 배정 조율
- 10월 31일 제28차 본회의 개최
부천시생활임금조례제정 제안 및 제2차 전용예산 심의, 2012년도 지자체
지원금 편성 건 심의의결
- 11월 01일 고용노사 통합협의 기구 모델 용역 수행(12.22까지, 노무법인 비전)
부천지역 노사민정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긍정성과 문제점 검토함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미래비전 전략 수립함으로써 2012년도 고용 모니터링
및 지속가능한 지역고용노사협의회기구 모델 발굴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발전적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함
- 11월 04일 HRD네트워크 개최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직업훈련기관 간 협의
(금형업종 지원기관 중심으로)
- 11월 09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토론 및 워크숍 일정 계획(일정 및 내용 결정, 통과)

- 11월 10일 공공부문협의회 1차 워크숍 개최, 노사간 화합 및 팀워크 강화(16명)
- 11월 10일 지역고용네트워크 지역고용전문가 포럼(양평 스위트, 23명)
일자리공시제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천지역 고용전문가 포럼으로 개최, 부천 지역 고용발전방안 토론(강사, 이승협 박사)와 고용관련기관 진단을 통한 개선안 도출 분임토의(청년, 여성, 중고령자, 노사분야로 현안 및 개선방안 토의), 부천시 일자리정책과와 공동추진함
- 11월 16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제조업협의회 회칙 제정(2차) 검토
- 11월 16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지역고용전문가 포럼 평가는 12월 정례회의에서 재차 다루기로 하였으며, 2011년도 사업평가 및 2012년도 사업계획 협의
- 11월 16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한마음 체육대회 결과보고 및 2012년도 추진사업 계획 협의(지역 물 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련업체 설명 포함)
- 11월 17일 노사포럼 개최
전차회의 결과보고 및 12월 노사포럼 추진 협의(2012년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으로 주제 선정)
- 11월 17일 노사포럼 공정노동기준 세미나(3차/부천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 62명)
당해연도 노사 현안 및 쟁점 토론회로 추진, '주제(1)복수노조대비 쟁점 및 대책 주제(2)사내하도급 불법 파견사례를 통한 대책' 토론 진행
- 11월 18일 제조업종협의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워크숍(영흥도 W5리조트, 95명)
최고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부천시 관내 기업체 대표와 지원기관과의 정보교류 워크숍으로 추진
- 11월 25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12월 통합 보고대회 중심으로 책임간사별 보고대회 역할 및 업무분담하여 준비하기로 결정
- 12월 01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포럼개최 및 협의회 법인화 관련 사업보고 (포럼은 12.19로 결정, 뉴스레터 3천부 발행하기로 함)
- 12월 06일 차별개선네트워크 토론회(부천 중동 소로로, 34명)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토론(토론자: 한국노동부천지역지부(부장 박덕수),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사무차장 고현주)) 진행
- 12월 08일 제46차 실무협의회 개최
운영조례 개정 추진결과보고 등 주요사업 보고 및 지자체 전용예산,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제정 타당성 검토

- 12월 09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12월 부천노사민정 통합 보고대회 최종 점검회의 (당일 리허설 16시까지 집결 추진하기로 함)
- 12월 13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2011년도 평가 및 2012년도 개선방안 협의 (고용서비스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사례 및 전문화교육 진행, 전문화교육 및 고용서비스 기관 담당자 업무 매뉴얼(표준화 작업) 제작계획에 반영
- 12월 13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뉴스레터 제2차 "Techno Park NEWS" 발간(1,500부)
주요내용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보고, 고용서비스 지원 정보 및 기업지원정보, 주요인사 칼럼 등으로 구성
- 12월 14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통합 보고대회(부천에스컨벤션, 168명)
지역특화사업 개발 선정기관(개인)시상식 및 2011년도 사업보고 진행
- 12월 19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CEO 포럼 개최(고려호텔 크리스탈룸, 50명)
중소기업 CEO 참석으로 돈버는 "근로기준법"(강사: 공인노무사 신수일)
- 12월 19일 노사포럼 공정노동기준 세미나(4차/부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15명)
2012년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해설 및 토론(공인노무사:최재일)
- 12월 21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2012년도 주요사업별 보고 및 협조회의(상호간에 경쟁적이지만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실천 및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 협의)
- 12월 22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제조업협의회 회칙 확정 및 사업계획 의견수렴 논의, 2012년도 달라지는 기업지원정보 제공(2012년도에는 제조업협의회 참여기업 확대에 주력하고 사업은 기존사업 중심으로 추진)
- 12월 23일 공공부문협의회 2차 워크숍 개최(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32명)
공공부문협의회 소속 근로자 간 소통 및 팀워크를 위한 직무교육 진행, 추진 동력으로 관내 집중 워크숍 추진하여 위원들 참여효과 높임
- 12월 26일 노사민정 홍보사업(700부 제작, 배포 완료)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이해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소개, 역할 기능을 알리고 2011년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추진사업 홍보 달력 제작하여 노사민정 유관기관 및 개인에게 배포하여 인지도를 높임
- 12월 29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2011년도 추진사업 보고 및 2012년도 사업계획 원칙, 기준 논의(1월 회의 까지 각 하부협의회별 추진사업 계획, 제출하기로 결정)

2012년

- 1월 06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2012년도 노사민정협의회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방향 및 각 협의회별로 추진사업계획(안)검토(2011년도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 1월 10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선진사례 벤치마킹 제회 및 논의(노사 자체부담으로 3~4월에 추진)
노사정 이슈포럼의 위지는 적극 공감하나 구체적인 계획 및 내용은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함(워크숍 형태의 집중 토론 방식 등 제안)
- 1월 12일 제47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2년도 부천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계획 및 예산(안) 조율(검토(안)을 중심으로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보완, 조율하기로 함)
운영조례개정(안) 검토 및 부천시생활임금조례 개정(안) 2차 검토
- 1월 27일 노사포럼 노사안정 산업평화를 위한 노사화합 실천대회(태백산, 41명)
부천지역 노사화합·고용안정·산업개태의 감소를 염원하는 노사정 합동으로 산업평화 기원제 개최와 노사화합 및 사회적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부천고용노동지청, 부천상공회의소, 부천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기업대표 협의회, 한국노동부천지역지부, 고용관련기관 등 협력연계 추진)
- 2월 10일 제32차 본협의회 개최
2012년도 일자리공시제 보고 및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제4차 운영조례 개정(안)심의.
본협의회 구성위원 재위촉
- 2월 17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2012년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보고 및 하부협의체별 사업 논의 (3월중 하부협의회별로 일정 협의)
- 2월 17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2012년도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주요사업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주요 사업 보고 및 논의
※기타안전은 테크노파크단지 내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보호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법인 설립 추진전을 다룸(각 단지별 임원 구성 및 기금 조성 등 별도로 대표단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기로 함)
- 2월 17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소식지 "Techno Park NEWS" 발간(3,000부)

(사)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연혁 및 조직도, 테크노파크 입주 업체 현황, 기업지원 및 기업운영에 유용한 정보 등 수록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소개 및 2012년도 추진사업 보고

- 3월 20일 노사포럼 개최
2012년도 노사포럼 추진사업과 "노사자율공정세미나"개최 협의하여 노사 자율 공정기준세미나 일정 확정
(1차)4월28일, (2차)5월4일, (3차)6월8일, (4차)차후 논의
- 3월 20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2012년 지역고용네트워크 사업제안 등 논의, 지역고용네트워크 대표 선출 (이연우 차장)
- 3월 22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2012년 부천지역제조업협의회 사업계획(안)2차 논의와 신규 위원 위촉
2012년 부천시 기업지원사업 안내 및 설명
- 3월 22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지역일자리공시제 보고와 공동협력사업 검토 및 상호협력사업 '계층별 취업 박람회 개최' 실무 협의
- 3월 26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12년도 택시업종협의회 추진사업 '노사정 이슈포럼 및 워크숍' 추진협의 택시업종 선진사례전학(베트남) 확정, 노사정이슈포럼(브랜드 볼텍사업 논의), 워크숍 추진예정(9월)
- 3월 28일 HRD 네트워크 개최
지역 HRD 네트워크 추진사업 조율 및 일정 확정, 지역 특화사업 제안 및 논의
- 4월 중 택시업종협의회 모범택시 전학
모범택시업체 운영 현황 및 택시 시책 등 전학을 통한 생산적인 노사문화 및 제도 등 근무환경 조성(노사 자체부담으로 추진, 베트남, 16명)
개최결과, 노사가 선진 모범택시업체 전학을 통해 당면 이슈로 떠오르는 콜시스템 도입 등의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협력적 관계를 높임
- 4월 01일 사무국 찾아가는 프로보노 사업단 운영(4/1~8/31, 기업복지인 2명 구성)
정부 및 부천시의 기업지원정보와 교육, 기술지원책 등 제공과 기업으로 사향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역전문가와 연계하여 해결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목표로 활동, 기업으로 유형별 분석결과 자금지원 (26%), 인력교육(42%), 기술인증(14%), 관로수출(15%)로 나타남

- 4월 02일 지역고용네트워크 지역고용 매뉴얼 개발(4/2~12/28, 7회 추진팀 운영)
지역고용서비스기관 담당자의 낮은 전문성으로 서비스연계의 어려움 발생, 이에 실무력을 진단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표준화함으로써 지역고용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고용 발전단계별 전문역량 개발” 표준화 작업 TFT 구성, 운영(중견 실무자 4인 구성), 고용서비스기관 실무역량 진단과 선진사례 연구, 전문가 피드백 등 ‘고용서비스 단계별 전문역량 표준화 작업’ 착수, 매뉴얼 발간
- 4월 03일 지역고용네트워크 지역역목화사업 개발단 운영(4/3~7.12, 2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발굴사업” 등 지역 차원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고용관련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제안을 목표로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공모, 미선정(산업진흥재단, 부천노사공동 직업훈련지원센터, 부천시민학습원 컨소시엄), 특성화고 네비게이션사업은 특성화고 4개교 참여 등 선정, 운영함
- 4월 10일 제조업협의회 교육촉진자 세미나 개최(4회, 57명)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직업훈련에의 참여에 제약이 되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1차)갈등조정 및 협상능력 강화, (2차)기업 내 HRD담당자 역할과 자세, (3차)요약보고 Skill 및 기법, (4차)발표력 향상 훈련 및 우수사례 등 교육 토론결과, 계획된 사업을 성실하게 진행, 직업훈련의 질과 참가율을 높임으로써 직무능력향상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노사공동훈련사업은 부천시의 별도예산으로 진행)
- 4월 16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기관 간의 실무적 협의를 통한 조정, 연계방안 모색 (부천고용센터 ‘현장지원단’, 부천시 ‘기업SOS팀’,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일지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찾아가는 기업자문팀’ 등)
- 4월 19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제정 추진내용 및 절차 논의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에 공공부문 대표 1인 참석, 협조)
2012년도 공공부문협의회 워크숍 개최 (상반기 : 노사화합 단합 워크숍 (상반기는 당일로 추진, 하반기는 1박2일로 직무능력향상 및 결과 공유 집중 워크숍 추진, 결정)
- 4월 19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지역고용 전문가 아카데미 교육기획 및 고용상담 매뉴얼 제작 협의,
「복사골 부천」 지역홍보매체 활용은 유관기관 홍보용 공동기획 보도, 회차별 기관 홍보(총5회)로 분류하여 활용하기로 함

- 4월 24일 제48차 실무협의회 개최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제정 TF 구성, 운영,
사무국 운영(사무차장이 사무국장으로 직책변경, 협의회 간사 역할 수행)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전체 워크숍 기획
- 4월 01일 노사정포럼 노사공정기준세미나(총 4회, 91명)
산업현장에서 쟁점이 되는 노동기준에 대한 노사 간 학습토론으로 마련한 공정기준을 홍보하여 사업장내 분쟁을 예방하도록 함.
(1차)노사공정기준세미나 설명회 및 노사화합 단합대회, (2차)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본 파견근로, (3차)교대제의 형태 및 적용방법(근로시간 줄이기 포함), (4차)달라지는 노동법으로 기획하여 추진
- 5월 15일 본협의회 개최
2012년도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 및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제정 추진 TFT 구성 및 운영 보고
사무국 운영과 전체 워크숍 개최 전 심의
- 5월 09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협력 활성화 전체 워크숍 논의 및 협의(세부일정 등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진행하기로 함)
- 5월 15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2012년 부천지역제조업협의회 사업계획(안) 2차 논의
2012년 신규 위촉위원 소개 및 부천시 기업지원사업 안내
- 5월 09일 지역고용네트워크 지역고용 전문가 아카데미 추진(5/9~11/9, 5회, 92명)
지역 내 고용서비스의 중복성과 담당자의 낮은 전문성으로 서비스 연계의 어려움 발생, 이에 고용서비스기관 실무력을 진단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표준화함으로써 지역고용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
(1차)상담기법의 이해 및 구직자별 상담기법, (2차)직업선택도점사 실시 및 해석, (3차)이상심리의 유형별 이해와 대처, (4차)상담자의 자기관리, (5차)상담자의 자기효능감 증진기법과 수료식으로 진행
- 6월 04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12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협력 활성화 워크숍 점검 및 역할 분담
- 6월 05일 부천특사업종 체육대회(부천종합운동장, 500여명)

부천시장 및 주요인사와 택시업종 7개 업체 노사참여로 단사별 노사화합 및 단결력 강화

- 6월 14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워크숍(제주도, 53명)
노사민정 파트너십 안정화와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전체 워크숍을 개최, 각 협의회별 책임간사 및 담당자의 업무연계 강화 도모 및 협력 강화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조별 미션 수행 및 발표 등 협의회별 네트워크 강화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네트워크 기반 구축
- 6월 19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6월 8일 상설면접장 운영 결과보고 및 개선, 고용전문가아카데미 평가 (제2차 지역고용전문가아카데미 연계추진)
- 6월 28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노사정 이슈포럼 및 워크숍 추진(노사정 이슈포럼 및 워크숍 일정을 결정 7월19일~20일, 강화도, “브랜드 택시 관련 사업설명회(인솔라인)와 연계 추진하기로 함
- 6월 29일 비정규직 희망 멘토링 캠프(6/29~9/15, 청년 52명)
취업과 경쟁사회 속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거나 현실을 모르는 청년들의 주체성 회복 등 근본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 협업과 공동체 회복과 수평적 리더십 배양 등 ‘청년 리더십 캠프’ 추진
- 7월 03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상반기 기업 맞춤형 훈련 현황보고 및 이후 사업 논의 (제조업협의회 워크숍 9월 6일에 진행하기로 함)
- 7월 05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뉴스레터 제작, 발간 논의(원안대로 통과, 제3호 소식지 Techno Park News 기획(안)대로 진행,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한 정관 수정안 등)
- 7월 06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상반기 사업 및 공공부문협의회 사업보고
공공부문협의회 워크숍은 상반기는 1박2일, 하반기는 직무교육을 겸한 워크숍(당일) 추진하기로 함
- 7월 12일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창의적 아이템개발 워크숍(영흥도, 20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발굴사업” 등 지역차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고용관련기관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제안

- 7월 17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2012년도 지역특화사업 공모 논의와 공동상설 면접결과 평가, 논의(공동상설면접은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제로 공동 진행하기로 함)
- 7월 19일 택시업종협의회 제1차 이슈포럼 및 워크숍(강화도, 22명)
지역 콜시스템 도입 및 총량제 시행 등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 간 워크숍 추진, 정책 시행에 따른 노사정 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 및 중장기적인 택시업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등 협의
- 7월 25일 지역특화사업 개발 공모사업 추진
지역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일자리창출을 발굴하고자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능력개발 확산’ 등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 발굴 공모사업 추진
- | | |
|------------------|--|
| 지역특화사업 부문 | |
| 대상(1) | 창조를 문화로, 문화를 산업으로 “Social Innovation Camp”(부천노사공동직업훈련지원센터) |
| 사회적기업 부문 | |
| 대상(1) | 부천테크노파크 “하늘농장” 프로젝트(사)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
-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일자리지원사업 최종 심사결과(9월5일),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
- | | |
|--|--|
| 최우수상(지역맞춤형 일자리부문) | |
| 창조를 문화로, 문화를 산업으로 “Social Innovation Camp” | |
| ※ 2013년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국고지원금 우선적 지원 확보 | |
| 우수상(사회적기업부문) | |
| “Social Platform” | |
| 5억 규모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센터 건립 | |
- 7월 30일 차별없는 부천시 만들기 캠페인(1차/송내역, 12명)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사)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의 공동 주관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과 계층별 보호지원 홍보 캠페인 진행
- 8월 21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청년층 구인구직 매칭 박람회 진행계획 협의, 유관기관 참여와 홍보활동 협의(청년층 박람회에 청년대상 사업진행인 유관기관이 참여 결정, 또한 유관기관 홍보활동에 중장년 대상 유관기관 사업도 개시하기로 함)
- 8월 24일 공공부문협의회 파트너십 강화 워크(산정호수, 13명)
팀의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한 관계증진 도모, 공공부문 영역의 의제확장 등 사회적 책무 및 역할에 대한 자유토론 진행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제정 추진경과 보고 및 논의-파트너십 강화프로그램-

팀워크 강화프로그램-생태탐방으로 진행)

9월 6일 HRD고용네트워크 개최, 지역HRD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협의

9월 7일 중소기업 CEO 워크숍 개최(정동진, 55명)
부천권내 중소기업 CEO의 상호교류 및 친목 도모를 통한 경영혁신,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과 고용안정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와 협력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
(기업지원정보교류 및 설명 및 활용방법 논의-리더쉽 강화-팀워크강화 프로그램-문화탐방 등 진행)

9월 10일 고용포럼 개최(부천시청 소통마당, 95명)
부천시 일자리공시제(2년) 평가, 부천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 과제와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 등 여건 조성 및 공감대 형성, 부천시 고용정책 효과성과 종합지원 협력체계 마련을 목표로 지역고용통계의 문제와 개선-지역일자리창출 개선방안-지역노사민정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발표 및 토론

9월 14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지역고용아카데미 일정 및 내용 조정과 '복사골 희망나눔 채용박람회' 참여 및 협력 논의

10월 10일 제49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율
(11/13 본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하부협의회별로 주요목적 및 당해연도 현안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10월 11일 택시업종협의회 제2차 이슈포럼 및 워크숍(성남, 양평, 10명)
성남지역 브랜드를 운영현황 및 애로점 등 벤치마킹, 지역콜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쟁력 토론, 지역 콜시스템 추진 및 제안서 작성 역할분담 등 협의

10월 19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제5차 지역고용전문가아카데미 교육 및 평가 수료식(11/9 회의와 함께 진행하기로 함)

10월 20일 차별없는 부천시 만들기 캠페인(2차/부천시청 및 중앙공원, 10명)
부천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에 대한 개념과 의미에 대해 알림으로써 고용차별을 예방하고자 함

10월 23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2013년도 제조업 중소기업 직업훈련의 활성화 방안 논의(기업체 CEO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공동 모색하여 진행함)

11월 5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12년도 부천노사민정 통합 보고대회 보고와 법인택시 콜시스템 도입 협의 (부천시 브랜드를 사업은 노사가 협의, 합의해 나가며 추진, 사업계획서는 세부적으로 수정하면서 진행하기로 함)

11월 6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상반기 워크숍 평가 및 주요사업 및 부천 노사민정 통합보고대회 보고 하반기 직무교육 워크숍은 11/28(수) 강화도, 제부도 등에서 개최하고 2013년도에는 시관계자 등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노사정 현안을 개발, 주제별 회의진행 의결)

11월 9일 지역고용평가 전체 워크숍 개최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된 지역고용 전체사업에 대한 총괄평가를 통해 2013년 사업계획 논의 (지역고용 전문가 아카데미 수료식 병행, 15명 수료)

11월 13일 제34차 본협의회 개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최종 통과
2012년도 부천노사민정 통합보고대회 일정(12/27) 확정, 2013년도 지역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결합 등 모색

11월 20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협의회 사업 추진 및 노사포럼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선 방안 협의
노사포럼과 차별개선네트워크는 현행 유지방안 도출, 11월 26일 노사포럼 회의, 12월 11일 차별개선네트워크 자체회의를 통해 개선방안 모색)

11월 21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2013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및 의견수렴 CEO포럼 추진 개선(안) 협의(CEO포럼 및 워크숍 등 진행방법에 대한 새로운 모색 필요, 근로자합창단 운영과 관련한 지원 필요 등)

11월 26일 노사포럼 개최
2012년 협의회 추진사업 및 2013년 노사포럼 추진사업 및 예산(안) 보고 제4차 노사자율 공정기준세미나 12월 14일(17시), 부천상공회의소 결정

11월 28일 공공부문협의회 노사화합 및 리더쉽 강화 워크숍(청소년 수련원, 17명)
노사화합 및 리더쉽 강화 주제로 조별 분임토론 및 팀워크 강화 프로그램 진행

12월 5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의제별 주요사업 보고와 부천노사민정 통합보고
대회 협의 및 역할 분담
- 12월 11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2012년도 차별개선네트워크 추진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논의
2013년도 차별개선네트워크 사업계획 논의
- 12월 12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2012년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통합보고대회, CEO포럼 개최 점검
- 12월 13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부천노사민정 통합 보고대회 및 하부협의회와 합동회의 연계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2013년도 사회적 책임 실천 우선적 과제 선정)
- 12월 13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부천시생활임금지원 조례 제정 추진경과 보고와 부천노사민정 통합 보고
대회 추진방향 논의(주제토론 결정, 부천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선언 실천)
- 12월 14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부천노사민정 통합 보고대회 역할 분담과 점검, 2012년도 전체 사업 결과
보고 평가 워크숍 개최 전 협의
- 12월 17일 HRD 네트워크 개최
부천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통합 보고대회 개최 및 참석 독려
기관별 현황 및 지역HRD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협의(2013년도 워크숍 등
진행, 심도있는 토론과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기로 의결)
- 12월 17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CEO포럼(생용3차 세미나실, 69명)
2012년도 사업보고 및 2013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중소기업 미래를 여는
키워드 '변화와 혁신' 강연과 화합으로 이어짐
- 12월 18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부천 노사민정 통합 보고
대회 보고, 2013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공동사업 논의
- 12월 27일 제35차 본협의회 개최
2012년도 부천노사민정 통합 보고대회 보고
부천시생활임금지원 조례 제정 추진경과 보고(생활임금기준 6,59%, 5,180
원, 조례제정 절차는 의원 발의로 진행)
- 12월 27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13년도 사회적 책임 실천 우선적 과제 선정 '소외계층 교육훈련지원을

- 위한 바자회' 등 추진(노사민정 공동으로 바자회 추진하여 발생한 수익을
소외계층의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취업지원 및 고용촉진 기여, 각 업종별
근로자의 물품기증 및 장터 홍보활동 등 함께 추진)
- 12월 27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2013년도 사회적 책임 실천 우선적 과제 선정(일자리 확대, 봉사활동 참여,
선진 일터 문화 조성 등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부천노사민정 제4차
협약 체결, 선포와 연계)
- 12월 27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2013년도 사회적 책임 실천 우선적 과제 선정(관내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사회참여 유도를 목표로 다문화 가정의
교육 및 일자리 지원)
- 12월 27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2013년도 사회적 책임 실천 우선적 과제 선정(최저임금 알리기 대신면
홍보를 통해 근로자 권익을 실현하고, 무지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 방지
'4860홍보 캠페인')
- 12월 27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노사정보포럼과 합동회의 진행)
2013년도 사회적 책임 실천 우선적 과제 선정(고용차별없는 좋은 일터를
찾아 모범사례 발굴, 고용평등 실현)
- 12월 27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고용HRD네트워크와 합동회의 진행)
2013년도 사회적 책임 실천 우선적 과제 선정(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포괄적 제안, 한부모 가정 및 장애우, 고아원 등에게 재능기부하고 경제적
(물품, 금전) 후원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추진)
- 12월 27일 부천노사민정 통합 보고대회(노블리안, 140명)
고용·노사 기구의 통합을 전 시민적으로 공유하고, 각종 고용·노사 통합
보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고용거버넌스로 위상을 갖추고, 대표적인 지역
협의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갖고자 함
- 12월 27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홍보사업(500부 제작 배포)
협의회 소개 및 2012년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주요 추진사업 및 결정,
사진결과 등 반영하여 홍보달력 제작 배포
- 12월 28일 노사민정활성화 추진단 개최
2012년도 평가 및 2013년도 주요 추진사업 협의
(201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단" 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협력의제 개발 협의)

- 12월 29일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 워크숍(양지파인 리조트, 16명)
거버넌스실천단(책임간사)의 노사민정 운영 매뉴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노사민정협의회 인프라 구축의 질적 강화를 위한 창의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과 2013년도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협의
- 7월 11일 부천시 생활임금지원조례 추진위원회 운영(6차, 10명)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등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임금
- 11월 27일 '생활임금 보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부천시생활임금지원조례』 제정을 목표로 7월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7.11~11.27)
주요쟁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부문의 추가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합의의 문제, 생활임금 제정의미는 충분한지, 생활임금의 개념과 기준선, 그 범위의 문제, 현행법상 제정 가능한 조례안 마련 등 이었다. 추진위원회는 쟁점의 완전해결보다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법의 검토와 외국사례 번역 활용, 운영조례(안) 마련과 부천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위탁업체 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기초실태 파악하여 생활임금 설계하였다.
'실태조사 및 자료집'(부천시 위탁업체 근로자 임금 등 실태조사 완료 (1,254업체) 발간 및 최종결과보고서 제작, 발간(2013년 1월)
12.27 본협의회에서 부천시생활임금지원조례 추진 결정(의원 발의)

2013년

- 1월 16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공동사업 논의
차별개선네트워크 운영 및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논의
- 1월 29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취업취약계층 "구인·구직 만남의 날" 확대 운영 논의
부천지역고용안정, 산업평화실천협의회 참석 확인 협의
- 2월 02일 고용안정 및 산 업평화 결의대회 개최(축명산, 42명)
노사민정 산업평화 및 고용안정 기원과 결의다짐, 노사현안 자유토론 등 추진
- 2월 26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 기관별 장기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률 확대 논의
유관기관 복사골 부천(신문) 홍보에 대한 논의 및 협의
- 3월 05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2012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주요사업 평가
부천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계획 조율 및 협의
- 3월 14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공동사업 논의 및 협의
차별개선네트워크 운영 및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논의
- 3월 20일 제50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수정), 운영조례 개정 절차 검토
- 3월 22일 제36차 본협의회 개최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및 운영조례 개정 절차 심의
제4차 사회적 협약 체결 심의
- 3월 26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지역고용(일자리)네트워크 대표 선출
지역고용(일자리)네트워크 사업 제안 및 논의
- 3월 27일 고용차별없는 부천시 만들기(1차/부천테크노파크단지, 32명)
부천지청 지청장 등 참석, 2013년도 달라진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홍보활동과 상담활동 진행
- 3월 28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2013년도 주요추진사업 설명 및 협조, 공동취업박람회 추진 의결
- 4월 13일 노사자율 공정기준 세미나(31명)
부천지청 지청장과 노동의장 등 참여, 노사화합으로 추진 산행-오찬-노사자율 공정기준 세미나 설명회로 추진함
- 4월 15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12년도 사업결과보고 및 2013년도 주요사업 보고
2013년도 제1차 선진교통문화캠페인 일정 논의 및 협의
- 4월 16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고용차별 없는 부천시 만들기 1차 캠페인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사업 계획 논의 및 확정
- 4월~11월 부천시 직업훈련정보망 운영 홍보
부천시 관내 직업훈련정보망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 진행

- (월 평균 1,600명 정도 방문하며, 2013년도 직업훈련 정보 수록은 2,312건으로 나타남)
- 4월 22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부천지역 고용전문가아카데미 교육 기획 논의
유관기관 홍보 게시대(부천고용센터) 운영 및 협의
취업지원 상담매뉴얼 제작 내용 수정·보완 논의 및 협의
- 4월 24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사)부천시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제2회 정기총회 개최논의
부천고용센터 채용대행서비스 진행 논의
- 4월 27일 부천 노사민정 제4차 협약 체결(부천시청 잔디광장, 2,000명)
지속가능발전 ISO2600 사회적 책임실천 선언으로 1999~2009년까지 이행
점점을 토대로 협약 체결, 이행촉구 및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확장 및 사회적책임무성 선포
- 5월 02일 제조업종협의회 개최
2013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주요사업 보고
제조업종협의회 주요사업계획(안)검토와 부천지역 제조업 발전방향 정책
제안 등 논의
- 5월 07일 노사포럼,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및 노사포럼 사업계획 및 일정
- 5월 10일 노사자율공정기준세미나(부천상의 중회의실, 22명)
2013년도 개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이해와 활용(공인노무사 신수일)
- 5월 13일 택시업종협의회 선진교통문화 캠페인(부천북부역, 28명)
출근길 유등인구를 중심으로 2013년도 택시업종 3대과제 홍보
- 5월 14일 차별개선네트워크, 우수기업인증제 심사기준 및 홍보계획 논의 및 검토
- 5월~12월 공정일터우수사례 인증 사업 'GOOD 일터' 추진(5월1일~12월12일)
공정일터 문화 확산 정착에 노력하는 기업 발굴, 기업브랜드 가치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 11개 업체 신청하여 서류심사 결과와 현장심사를 통해
심사요건에 적합한 9개 업체 선정, 시상(12/12 보고대회) 하였으며, 선정
기업 간담회(12/17)를 통해 기업의 애로와 개선점 등 협의
- 5월 23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부천지역고용전문가아카데미 개최일자 논의 및 확정
부천 채용박람회(일자리정책과)개최 논의 및 협의
- 6월 12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 '13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상반기 주요추진사업 보고
사업 주요사업계획 조율 및 협의
- 6월 13일 제51차 실무협의회 개최
주요사업계획(3/4분기) 보고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워크숍 일정 논의
- 6월 14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2013년도 추진사업 및 생활임금 제도화 방안 토론회 협의
공부문 사회적 책임실천 논의
- 6월 17일 생활임금토론회 개최(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5명)
국회의원 등 참석하여 생활임금 제도화방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국 최초 노사민정 합의에 의한 생활임금 도입으로 전국 지자체 모범이
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개정법안 발의중임
- 6월 18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부천지역 고용전문가아카데미 일정 논의 및 협의
2013년 지역특화사업 공모 및 아이디어 발굴 논의
- 6월 20일 제37차 본협의회 개최
2013년 2월4분기 사업 보고 및 주요사업계획(3/4분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워크숍 일정 논의
- 6월 26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상반기 추진사업 및 하반기 주요사업보고
- 6월 26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2013년도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주요사업 및 테크노파크 단지 임주업체간
내부거래 활성화 방안 논의
- 6월 27~28일 지역고용 전문가 아카데미(대천 한화리조트, 24명)
사업 제안서 작성실무(지역고용관련 중심), 팀워크 방식으로 제안서 작성
실무 교육과 조별 아이템 개발, 실제 작성 발표로 진행함
제안서 작성법(팀장 유승우)과 제안을 위한 지역노동시장 이해와 고용통계
(강사: 위원장 김준영)를 중심으로 진행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별도 예산 지원으로 집중 워크숍으로 추진
- 7월 11일 노사자율 공정기준 세미나(부천상의 중회의실, 부천지정장 등 27명)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창출 선진사례 활용 검토, 기업혁신 컨설팅 연계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김혜영) 추진,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설명
- 7월 18일 지역특화사업 발굴 공모사업 추진

- ~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분야로 구분, 선정하여 고용노동부
- 8월 5일 지역브랜드일자리지원사업 제안하며, 차년도 일자리맞춤형지원사업으로 실행하는 사업(2013년도능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일자리지원사업 제안시기 혼선으로 충분히 발굴 못하여 사업 제안의 어려움 따름. 취지를 살리는 적극적 홍보방안 모색이 필요함)
- 7월 19일 HRD네트워크 개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공동사업) 논의
- 7월 26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지식산업단지 HRD 복합지원센터(쌍용 3차)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 업무협약 내용 검토 및 협약 일시 검토 등(8월 중순 체결)
- 7월 4~15일 청년 희망 멘토링 캠프 '희망통통' 추진(근로청소년 45명)
지역 멘토와의 관계형성으로 공동체 회복과 문화체험을 통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으로 추진, 2014년도 기관연대를 통한 지속적인 희망캠프 추진, (비정규직지원센터 공동추진)
(7월 04일)난타공연 관람 및 배우와의 대화.
(7월 11일)내 꿈을 위한 리더십으로 똘똘한 정신을 키우자
(7월 15일) 평가의 시간
- 8월 20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지식산업단지 HRD 복합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
(사)장소제공, (노사)운영, (청)운영 및 근로자 특화도서관 운영예산 지원, (노사민정협의회)총괄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 체결
- 8월 21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테크노파크 협의회 사업 및 하반기 뉴스레터 제작, 발간
- 8월 23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2013년도 부천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전체 워크숍 최종 점검 및 역할 분담 협의
- 8월 27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사업 심사계획 및 차별없는 부천시 만들기 캠페인 일정 논의 및 협의
- 8월 27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부천시 일자리현황 및 유형별 개선과제 연구사업 설명과 책임간사 선출
- 8월 29~30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워크숍 (영월 동강 시스타, 57명)
부천 고용 우선과제 선정 워크숍으로 추진(주제_1억원이 주어진다면 행복

한 부천을 위해 하고 싶은 한가지? (최우수상<부천 행복시스템 '고용-학습-복지' 우수상<취약계층 종합지원서비스시스템, 청소년'미래공작소'>>
sbs 미래한국리포트 방영예정 촬영 당시 진행하였으며, 선정된 두개 분야 사업은 2014년도 사업 반영

- 9월 08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하반기 사업추진 및 부천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전체 워크숍 평가
- 9월 13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사업 심사계획 및 확정, 심사위원단 구성 및 일정 논의
- 9월 13일 노사자율공정기준세미나 (부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15명)
경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노사 쟁점(공인노무사 한광연)
- 9월 16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 구축 사업설명 및 설명회 참석 논의, 기관 간 취업자 마감 처리 업무 협의(워크넷 사용 관련)
- 9월 16일 HRD네트워크 개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사업제안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노사민정 확대회의 추진(지자체간 연합과 단독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 9월 30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취업박람회 결과평가 및 단시간근로 지원 협조
고용조사관련 통계 활용 및 일자리창출방안 모색
- 9월 30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제3차 캠페인 일정 확정 및 '14년도 사업계획 논의
- 10월 01일 제52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1차 전용예산 의결
부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지역노사민정 협약 체결(안) 협의
- 10월 10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행복한 GOOD 일터기업' 11개업체 중 9개 업체 선정합
- 10월 15일 제조업종협의회 개최
노사화합 동반대회는 본인부담 원칙으로 전문가세미나 형식으로 추진
- 10월 24일 교육축진자세미나 추진(부천테크노파크2단지 관리동 교육실, 22명)
조직혁신과 변화를 위한 긍정의 리더십(김용조 능률협회 교수) 강의

- 10월 25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2014년도 고용네트워크사업 협의(고용취약계층 종합지원)
- 10월 28일 선진교통문화 캠페인(부천 북부역, 20명)
출근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2013년도 택시업종 3대 과제 홍보
- 10월 29일 노사포럼 개최
2014년도 노사포럼세미나는 일반기업 참여를 위한 시간대 조정과 관심있는 주제 선정 세미나 형태 고려, 벤치마킹 등 병행
- 10월 30일 고용 차별 없는 부천시 만들기(부천시청역, 22명)
부천지청장 등 참여로 차별없는 일터지원사업 및 기관 홍보를 중심 추진
- 10월 04일 본협의회 개최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1차 전용예산 의결
부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지역노사민정 협약 체결
- 11월 12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고용취약계층 종합지원 발전방안 협의(UBASE업체 설명회 등)
- 11월 14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2013년도 통합보고대회 기획 등 협의
노사민정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 자체평가회 개최 협의
- 11월 15일 교육축전자세미나 개최(부천테크노파크1단지 교육실, 17명)
최신 마케팅 트렌드&전략 수립(강신정 강사) 교육으로 진행
- 11월 19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브랜드몰도입 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등 협의
- 11월 19일 노사포럼 개최
노사자율 공정세미나는 3월, 6월 9월 3회 개최, 우수 사업장 벤치마킹
- 11월 택시업종협의회 브랜드몰 도입 포럼 추진(19명)
- 4~5일 화성 콜센터 견학-영흥도 해송펜션 포럼-노사 합동 추진위원회 협약식 순으로 진행
택시업종 브랜드화를 위한 노사정정책간담회(11/12, 시장 참여)를 통해 '14년도 부천시브랜드몰 도입 예산 마련 합의
- 12월 04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TP법인 수익모델 논의(화분 및 화환 공동구매, 발송,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정부사업 모색

- 12월 05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2013년도 통합보고대회 최종 점검회의, 역할 분담
사업평가회 개최일정 확정(12월 26일~27일)
- 12월 10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생활임금 도입 실제 적용시 설득력있는 데이터와 근거, 공감력 필요.
공공부문협의회 재구조화를 위한 규정 및 참여자 등 정비 필요성 제기
- 12월 12일 노사민정 통합보고대회(에스컨벤션웨딩홀 8층 리젠시홀, 158명)
2013년도 사업공유와 2013년도 사업 우수사례 선정
- 12월 17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운영규정 제정 및 부천시 관련부서 참여 확대방안으로 노사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책임실천 의제로 진행할 것 제시(공공부문 워크샵에서 구체적으로 협의)
- 12월 19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뉴스레터 중간점검 및 2014년 사업계획 협의
근로자합창단 정기공연은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정기공연'으로 진행 협의
- 12월 23일 HRD네트워크 개최
2014년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은 지자체연합형으로 추진, (1월 인근 지자체 타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hrd네트워크 개편 등으로 훈련기관 참여 확대
- 12월 30일 제조업종협의회 개최
제조업협의회 활성화방안(노사포럼과 통합 등 논의)
중견기업 안착화를 위한 현황 및 개선방안 등 마련
- 12월 30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공동박람회 평가(구인수요중심의 박람회로 기획, 추진필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적극 동의, 협조(센터)
2014년도 지역고용의 종합적인 실무협의를 위하여 관련부서 참여 조율, 확대 실무협의

제6장 지역 파트너십 의제 확장 (2014~현재)

제1절 개요

2010년~2013년에 걸쳐 제기되었던 고용노동통합 거버넌스 실현 전략은 2013년 이행 점검과 이행촉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실천협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장된 협력 의제를 제시함으로써 그간의 노사관계혁신-고용으로, 인적자원개발-노동권 보호와 고용 복지로 협력의제가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훈련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부천시 숙원과제를 다시금 제기하게 된다.

2014년~2018년에는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부천 노사민정의 핵심의제는 무엇인지? 새로운 주체 형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간의 경험과 역사는 다시 무엇으로 출발해야 하는가? 고용취약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핵심의제는 무엇인지?'에 답해야하는 과제를 다시 부여받고 있다. 즉, 기존 성과에만 머무를 수 없는 새로운 노동 및 고용환경의 변화와 내부 추진동력의 변화에 따른 지역단위 사회적대화 기구로의 위상과 역할 재조명 등 그 간의 노력에의 평가와 개선, 전문가 중심에서 주체 중심으로, 단론에서 실행가능한 협력의제 중심으로 활력을 찾고자 노력하는 시기로 지역 노동시장 및 현황을 분석,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에는 노동과 고용의제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하부협의회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그 결과 2년에 걸쳐 하부협의회 위상정립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의제별위원회'로 시도되고 있다.(2017~2018년 걸쳐 협의 완료)

2014년에는 고용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기반으로 고용복지조사를 통해 2009년 구축된 훈련정보 중심의 부천훈련네트워크를 훈련-고용복지 정보망을 구축, 제공하게 되며, 2013년 협약 이행사항으로 추진된 일·생활 양립을 위한 지식산업단지(쌍용3차 단지) 내 '교육문화복합지원 시스템' 마련, 일가양득 행복일터지원 센터와 홀씨 도서관, 노사공동훈련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2014년 4월부터 부천시는 부천시 및 부천시 출연출자기관 근로자 407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생활임금 시급 5,580원, 6구간 적용시행)하였고, 8월 19일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부천시지역 노사민정 공동 실천선언을 하였으며, 실천 이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공동이행점검단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취약계층의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자율적인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정착, 최저임금과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공정고용질서 확립 등 사업을 수행하였다.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5개년(2009~2013) 사업백서 발간하여 주요의제 및 실천사업 추진정리와 개선, 협의회 위원의 지역거버넌스 인식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동-고용미래비전 2020의 토대 작업 마련, 이를 통해 향후 2016~2020의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였다. 12.22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경진대회 2013년에 이어 2014년도 대통령상 표창(주요 공적으로는 전국 최초 노사민정 합의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제정 및 적용, 지역자원을 토대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지역 전문가와 자원기관 협업형 "취약근로자와 고용 취약계층 종합지원시스템 기반 마련" 등이 높게 평가)

안정적인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시도²⁹⁾하게 되나, 중앙의 기초자치단체 제안 불가방침으로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게 된다.

2015년에는 감시감독근로자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으로 부천시 공동주택 현황 파악 및 개선추진위원회들 중심으로 실태조사 추진과 개선방안을 모색,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근로환경개선금 지원(부천노총 19개 상생단지 선정, 최대 250만원 지원) 사업을 제안, 추진하였다.

국정과제인 청년일자리창출 제고를 위한 관내 기관(14개)³⁰⁾과의 협약을 통해 협력과 공동과제 수행을 위한 부천 청년 일자리 및 고용촉진을 위한 부천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제공하게 되었다. 부천 노사민정은 10월 6일 청년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이행 및 약속을 다짐하는 '미래세대 고용희망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부천 노사민정 공동 실천선언'을 추진, 부천형 단비 일자리 추진과 청년 및 중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안전도시 구현을 선포하였다.

2016년 4월 28일 ILO 세계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부천 노사민정은 '공정한 노동관행 정착과 안전한 일터, 행복한 지역을 위한 동반자'로서 공동 실천할 것을 선언 함으로써 이후 노동-고용복지 분야별로 이행력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분야 우수기업 발굴, 노동 취약계층 인권보호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천과 정책 적극 발굴, 제안하기로 하였다. 부천시는 고용노동부 일자리공시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5.31), 본협의회는 2017년도 부천시생활임금 심의의결 후 결정(2017년 최저임금 대비 12.05% 인상, 시급 7,250원, 월급여 1,515,250원) 고시하였다.

29) 2014년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인자위)를 지자체 연합형으로 제안하게 됨(부천/시흥/김포 등) 고용노동부의 기초지자체 편입 불가방침으로 시도는 실패하게 됨.

30) 2015. 3. 24, 부천시 및 부천고용지청과 대학(서울신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한국폴리텍2대학, 유한대학교, 부천대학교)과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기관(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나눔지역자활센터, 소사지역자활센터, (주)커리어넷, (주)인력스프링코리아)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정보 및 취업연계 등 성공적인 지역적 협력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5년도 택시업종 종사자 감정노동 실태 파악결과에 기초하여 그 해결책으로 2016년에는 안전일터, 행복한 부천을 위하여 부천시장 외 택시업종노사대표 등 21명은 택시업종 종사자 감정노동근로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부천노사민정/법인택시 8개사/부천근로자건강센터/한국산업간호협회 등) 감정노동 진단과 치유,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였다.(2016~2018)

그 결과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 일자리지원사업 경진대회에서 노사공동훈련 프로젝트 '하이로드형 금형산업 인력양성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10.19, 매년 S등급 평가, 3년간 추가 지원받음),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상, 지역 일자리공시제 경진대회 대상 수상으로 2016 노동-고용부문 3관왕 달성하였다.

2017년은 새로운 정권교체로 지역에서도 새로운 기대와 바람이 넘치는 시기로 볼 수 있으나 중앙에서의 문제의식은 있되 아직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올곧은 방향 제시와 지원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으며, 전국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또한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질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사무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제(전문화) 형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대화의 모색이 치열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7월 4일 전국 최초 기초지자체 단위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분야별 일자리기획단 운영, 경제우선 일자리먼저를 통한 고용안정과 노사의 사회적책임 실현 확산과 공동실천선언의 이행 선포하였다. 핵심과제는 '청년고용촉진 우선과제 선정과 부천형 일자리창출모델 발굴, 노동혁신 및 사회통합모델 발굴을 통해 부천형 일자리 질 제고'로 선정하였으며, 일자리창출의 선제적 대응 노력과 결과, 2017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우수사례 '노사상생 섹터특화형 훈련지원센터'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시상금 30,000,000원) 하였다.

또한 제48차 본협의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2018년 생활임금 시급 9,050원으로 확정하고 적용대상을 직영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민간위탁기관 근로자로 확대함(순수 시비 재원 근로자)으로써 적용대상자는 1,000여 명에 이른다.³¹⁾

31)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제2조(정의)③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부천시 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와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부천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한다. 조항의 의미 상충, 해석의 모호성(출자출연기관 정의로 제시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은 민간위탁기관까지 포괄하는 조항으로 부천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만에 아니라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역량이 가능하게 해석됨)으로 그 적용범위 확장에 문제가 없으므로 적용대상 확대 권고(부천시의회)로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는 법무팀 해석 및 변호사 자문을 통해 그 적용대상 범위를 민간위탁 근로자(순수시비 재원으로 고용된 근로자에 한함)까지 적용하게 되었다.

7월 13일 부천 노동정책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 우선정책 및 과제 수립을 위한 지역 전문가 중심 토론회로 우선과제 10가지 선정, 향후 부천시노동정책연구에 그 실현가능성과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견을 수렴, 부천시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우선과제 선정 워크숍 개최, 부천 노동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10개의 제안과제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중장년, 청년) 일자리 확대', '민간기업 지원과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역단위 노사 쟁정 및 이슈 공론화', '노사민정협의회 실질적 역할 높이고 권한과 위상 강화', '공공혁신 주체로서의 부천시의 민관협치 노력요구' 등으로 제안되었다. 9월 6일 개최된 2017 서울 일자리국제포럼 "일자리창출과 사회적대화"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를 통한 부천시 일자리 및 훈련사례('느리지만 치열하게')를 발표하였다.

2018년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작하며, 그간의 지역노사민정의 고용-노동 우선정책이 민선 7기 공약³²⁾으로 대부분이 확정되면서 그 의제가 민-민 협력의제에서 민-관 정책 실행 의제화 되는 시기로 설립 20년의 경험과 성과의 지속화와 그 대안 제시를 위한 구조 조정과 협력,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의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두 축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하나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협의회의 재구조화'와 2017년 노사상생 일자리창출 모델로 대상 수상한 '섹터 특화형 사업의 실행력 제고' 방향이다. 협의회의 재구조화는 각 협의회별로 3~4차례에 걸쳐 의제별위원회로 재편하는 절차를 진행, 2019년 운영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명시화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³³⁾, 섹터 특화형 일자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위하여 취업취약계층 훈련수요 및 애로 파악, '기업 훈련수요 및 애로 파악(잡 프로브노)', 고용서비스 기관 현황 및 애로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였다³⁴⁾.

또한 그간 기업중심의 행복일터지원센터 운영에서 근로자를 위한 홀씨도서관과의 통합운영 확정, 문화 상담 공간으로 재배치 등을 하였다.

32) 생활임금 10,000원 달성, 공경노동문화 정착, 노동인권조례 제정, 부천인재취업재단 설립(노사공동 훈련사업 확정), 지역화폐제도 도입, 노사상생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등

33)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립 20주년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협의회 기구 개편 집중 논의, 12월 20일 제70차 실무협의회 보고, 조율 완료

• 본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 확대로 대표성과 다양화로 이행관계자 의견수렴 및 대안협의 강화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부천시일자리위원회)로 실무협의회, 3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사)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사업실행기구/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일드림센터)] • 하부협의회는 분과 위원회로 명칭 변경, 포괄성과 개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현안과 이슈 협의의제 중심의 4개 분과위원회로 재구조화(사회적책임실천위원/산업고용환경개선위원회/노동인권추진위원회/노사정아슈포럼(중소상공인 지원개선방안 중심))

34) 2017년 7월 1섹터(산업단지) 외 2~3섹터 공간 마련, 행인부 공간조성비(5억5천) 마련 현재 조성 중이며, 그 운영예산 확보상태임(3억)

8월 22일 본협의회는 부천시생활임금 확정 심의(6구간 설계, 생활임금 시급 10,030원~11,000원), 9월 고사하였으며, 고용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와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부천노사민정 공동 실천선언을 통해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현재 이행점검을 완료하였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느리지만 치열하게' 걸어왔던 다양한 시도와 경험, 세세한 활동을 정리한 기록 '20년사 다시 시작하는 20년 사람희망'을 준비하였다.

제2절 세부일지

2014년

- 2월 14일 제53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4년도 시상금 소요계획(안)
2013년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 및 2014년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현황 보고
생활임금조례제정 보고 및 생활임금기준(안)
- 2월 18일 제39차 본협의회 개최
2014년도 시상금 소요계획(안)
2013년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 보고, 2014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현황 보고
생활임금조례제정 보고 및 생활임금기준(안)
- 2월 18일 택시업종협의회 선진교통문화 캠페인 추진(연3회, 74명)
선진교통문화 확산과 브랜드콜 도입 홍보를 위한 캠페인으로 추진, 콜택시 이용객들의 부담 경감 및 콜비로 인한 분쟁 소지 방지, 안심귀가로 인한 잠재된 콜택시 이용 수요 확대 목표로 홍보 추진
- 2월 26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지역고용전문가 아카데미 내용과 지역고용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논의
- 3월 14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2014년도 시상금 소요계획(안)
2013년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 2014년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현황 보고
생활임금조례제정 보고 및 생활임금기준(안) 보고 및 의견 수렴

- 3월 17일 HRD네트워크 개최
2014년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추가공모(시도내 경쟁)
2014년 부천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고용hrd네트워크 사업)
- 3월 19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지역고용전문가포럼 참여 독려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대상 통상임금 교육 안내
2014년 4월 8일 부천채용박람회 등 협의
- 3월 27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2014년도 기관별 주요사업 보고 및 협의
(관내 대학 및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시 공동 협력 합의)
- 4월 02일 제조업종협의회 개최
2013년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 및 2014년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현황 보고
2014년도 제조업협의회 주요사업 및 활성화 방안
- 4월 15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13년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 및 2014년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현황 보고
생활임금조례제정 보고 및 생활임금기준(안) 보고
2014년도 택시업종협의회 주요사업 협의(캠페인 및 판타지아폴 홍보방안)
- 4월 16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2013년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 및 2014년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현황 보고
2014년도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주요사업(산업클러스터 혁신사업 추진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네트워크 강화)
- 4월 22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2013년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 및 2014년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현황 및 2014년 생활임금 추진경과 보고
차별개선네트워크 주요 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한 연도별 사업 검토 및 구성 확대
- 4월 28일 노사포럼 개최
2013년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 및 2014년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현황 및 2014 생활임금 추진경과 보고
2014년도 노사포럼(산업안전 추진사례 및 대책 등) 및 활성화방안 협의

- 4월 29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2014년도 차별개선네트워크 주요사업
2014년도 차별개선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차별개선네트워크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 등>
- 4월 30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고용취약계층종합지원사업(EAP)
부천지역기업의 인력수급 계획 및 훈련 조사사업
지역특화사업발굴 워크숍 안내
- 5월 26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차별개선네트워크 주요 사업 일정 논의
- 5월 28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고용취약계층종합지원시스템(EAP) 구축 활용 방안
지역브랜딩자리지원사업 아이템 발굴 워크숍
- 6월 02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본회의 개최
2013년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 및 2014년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현황 보고
2014년도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주요사업 협의
- 6월 12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효과적 추진방향 모색
노사민정의 유기적인 협의 채널 조정과 신규사업 발굴 협의
바람직한 방향 자문, 적극적인 조언과 다양한 의견 제시
고용정보 동향 및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내용 공유
- 6월 13일 노사포럼 노사공정기준 세미나 추진(부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4명)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우수사례 활용을 통해 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
- 6월 18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2014년도 차별개선네트워크 주요사업 일정 등 협의<부천시민과 함께하는 고용차별 없는 부천시 만들기 캠페인>
- 6월 25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고용취약계층 종합지원시스템(EAP)과 재능나눔 보고
2014년도 지역 고용 활성화 정책 연구 추진
- 6월 26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혁신, 상생 경영 산업단지 벤치마킹 및 2014 생활임금 적용 및 생활임금 위원회 위원 추천

- 6월 30일 제54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4년도 노사민정 협력을 위한 실천 선언 실무협의(주제 및 내용, 역할, 일정 및 방식)
- 7월 01일 HRD네트워크 개최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추진 기관별 실무협의 간담회로 추진(신규진입 기관별 사업비 관리 교육운영 및 관리 중간평가)
- 7월 07일 제조업중협의회 개최
혁신, 상생경영 산업단지 벤치마킹 추진 보고
노사정 포럼은 지역 노사 간의 상시적 대화 채널로 당해연도 이슈 및 현안을 중심으로 교육, 토론 벤치마킹을 주도하고 있음. 그 주체의 중복성으로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제조업협의회와의 통합 운영 방안을 제안)
- 7월 08일 택시업중협의회 개최
노사민정 상반기 추진사업 보고 및 부천 브랜드를 "환타지아 콜" 활성화 방안 및 캠페인
- 7월 9~10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전체 워크숍(대만 타이페이, 30명)
지역산업 특화 클러스터 해외벤치마킹으로 추진, 강소기업 산업단지 선정하여 첨단과학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거주 공생단지 모델과 대만 중소기업 제도적 지원정책을 통한 상생협력 시책 검토
- 7월 16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근로자 특화형 '홈도서관' 및 '일가양육행복일터지원센터 설립' 보고, OECD 최종보고서 발간 및 부산국제컨퍼런스 등 보고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주요일정 논의(중소기업 CEO경영혁신 세미나)
- 7월 25일 노사포럼 개최
하반기 노사포럼 주요사업 협의 및 노사포럼 활성화 방안으로 (가)제조업 포럼 등 제안 협의
- 7월 29일 HRD네트워크 개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진경과 및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기업인력 수급 및 직업훈련 수요조사 보고
고용노동부 지역 브랜드 일자리지원사업 제안 아이템 협의, HRD네트워크 활성화방안 모색
- 7월 30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고용취약계층종합지원시스템(EAP), 재능나눔활동 등 조사현황 보고
지역고용전문가아카데미(솔루션 회의-전문가 연계) 기획, 제안

- 8월 05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2014년도 부천시생활임금 적용 현황 보고 및 2015년도 부천시생활임금 기준 및 적용(안)
- 8월 08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2014년도 적용대상사를 중심으로 한 실태파악 및 소요예산 산출을 기준으로 2015년도 부천시생활임금 기준 및 적용(안) 2차 협의
부천시생활임금 기준 및 적용(안)
- 8월 12일 제55차 실무협의회 개최
운영조례 개정(안)
설립 15주년 기념 백서 발간 및 연차별 계획 수립
지역노사민정 공동선언 및 2015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안)
지역고용활성화정책 연구 및 고용복지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8월 19일 제40차 본협의회 개최
부천 노사민정 공동 실천 선언식
'15년도 생활임금 기준 및 적용, 사업 및 예산계획(안)
지역고용활성화정책 연구 및 고용복지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9월 02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2015 부천시 생활임금 확정 보고
공공부문 사회적 책임실천 방안 모색과 노사상생문화 워크숍(사회적 책임 실천) 개최 협의
- 9월 03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본회의 개최
근로자 특화형 '홀씨도서관' 및 '행복일터지원센터' 설립' 보고, OECD 최종 보고서 발간 및 부산국제컨퍼런스 보고
2014년도 부천시 중소기업 CEO포럼 및 2015년도 사업 방향 모색
HELP DESK 사업 안내(기업경영 원스톱 경영지원시스템)
- 9월 04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OECD보고서 발간 및 부산국제컨퍼런스 개최와 백서발간 보고
"고용복지행복센터" 운영 지원 논의
공정임금 준수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9월 19일 노사포럼 노사공정기준 세미나 개최(부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0명)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에 따른 정년연장 유형 및 기업과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 등을 분석, 사례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활용방안 모색
- 9월 26일 지역고용네트워크 개최

- 지역고용전문가아카데미(솔루션 회의-전문가 연계) 기획
일자리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 2015년 주요사업 내용 등 협의
- 9월 30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채용박람회 추진실적 공유
부천·김포지역 승인 우량강소기업 발굴을 위한 현장추천형 강소기업 선정 계획(심사위원 협조)
- 10월 07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취약근로자 상시 지원체계 '행복일터지원센터'운영 보고
공정임금 준수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부천시 비정규직(시설, 환경미화 중심)관련 토론회
- 10월 14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부천 브랜드를 "환타지아폴" 활성화 방안 및 캠페인
2015년도 부천택시업종 인력수급 해결방안 모색
- 10월 15일 공공부문 협력 활성화 워크숍 개최(영종스카이라이프, 15명)
사회적 책임실천 방안 모색을 통한 책임성 및 노사상생 모델 마련을 위한 문화 정착(노사의 사회적책임실천 교육, 2014 사회적책임실천 합의)
- 10월 20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부천테크마켓 및 색다른 축제 보고
부천시 중소기업 CEO워크숍 <중소기업에 필요한 제도 및 지원과 관련 중소기업 활성화>
- 10월 23일 제56차 실무협의회 개최
행복일터지원센터 운영 및 부천시생활임금 등 보고
노사민정실천선언 실천선언문 검토 및 이행점검
2015년 사업 및 예산 계획(안) 조율
- 11월 04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14 대통령 표창과 통합 보고대회 보고
2015년도 노사 현안 부천택시업종 인력수급 해결방안 토론
- 11월 04일 생활임금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개최
부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시설관리, 미화) 근로자 고용실태와 개선방안(총61명, 부천시의회)
- 11월 13일 경영혁신세미나 및 교육(CEO) 개최(한화리조트 설악, 34명)
부천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기존 공장주변 부지가 주택 부지로 변경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공장용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

- 및 용지시세 및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시급 등 토론
- 11월 16일 노사포럼 개최
산업안전 우수기업 벤치마킹과 노사포럼 및 제조업협의회 통합에 관한 건
- 11월 20일 제41차 본협의회 개최
부천기업 안착화를 위한 기업 경영 현황 및 대책수립 연구 중간보고(실무협의회 합동 회의 추진)
- 11월 20일 제57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4년도 부천기업 안착화를 위한 기업경영 현황 및 대책수립 연구 중간보고(본협의회 합동 회의로 추진)
- 11월 21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2015년도 사업계획(안) 하부협의회별 의견수렴
2014 부천노사민정 통합보고대회 기획 및 내용
- 11월 24일 제조업중협의회 개최
노사포럼 및 제조업협의회 통합에 관한 2차 협의
- 11월 25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대통령상 표창 및 2014 통합 보고대회 보고
공공부문 사회적 실천 방안 모색
- 11월 26일 노사포럼 노사공정기준 세미나 개최(김포인천, 20명)
김포 신한백지→인천 포스코 에너지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 전파
(근로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 자율안전을 넘어 동료 간 안전을 배려하고 먼저 앞장서는 상호안전이 사내 문화로 정착)
- 12월 04일 HRD네트워크 개최
2014년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진결과 보고, HRD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과 계획 협의체로 전환 합의
조사연구사업 결과 공유, 의견 수렴
- 12월 04일 거버넌스실천단 개최
2014년도 부천노사민정 통합보고대회 역할 분담, 최종 확정
- 12월 05일 제58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4년 지역노사민정 통합 보고대회 일정 조정
제1차 전용예산(안) 검토
- 12월 18일 노사민정 통합 보고대회 개최(에스컨벤션웨딩홀, 148명)

사전으로 보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15년 경험과 역사 전시, 노사민정 발전 기여자 감사패 증정 등

- 12월 26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부천시 우선과제로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100% 지급 법제화에 따른 대책 등에 적극 협력 필요
2015년 주요 내용 공유, 협조 및 협력
- 12월 30일 제59차 실무협의회 개최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및 지원방안 논의(대책 호소문 발송, 공공주택 실태 및 근로환경 개선 수요조사(1월중) 실시 협의)
- 7월~12월 노사문화 혁신 뉴스레터 제작(5,700부 제작, 배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14년도 노사민정협의회 소개, 경제칼럼 및 문화, 부동산 세금 등 정보제공 등, 2014년도 추진실적 및 칼럼 '저성장기의 경영전략', 중소기업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소개 등 정보제공
- 연중 기업맞춤형 교육지원(부천노사공동직업훈련지원센터 추진)
중소기업 교육훈련 담당자 양성과정 21개 과정,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은 48개 과정(1,424명 참가),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 맞춤형 훈련 협약 체결
훈련 취약 기업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 기업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직업 훈련을 지원함. 인력의 경쟁력이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중 제불임금없는 부천시 만들기 프로젝트(연 3회, 4월, 7월, 9월, 70명)
최저임금 및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슈가 되는 노동법 및 관련 규정을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지역 사회의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1회차)통상임금 세미나
(2회차)최저임금 지킴이(캠페인)
(3회차)공정임금제결 가이드북 제작 및 홍보
- 6월~12월 부천시 강소기업 안착화를 위한 실태 및 대책수립 조사사업 추진
(조사범위)부천시 중소기업 50인 이상 기업(200업체)
(조사내용)경영예로, 기업환경, 제도개선, 인력수급 등 현황 파악
(조사기간)5월~12월(조사기간 9월~10월 중순,
(제작발간)최종보고서 12월 발간

2015년

- 1월 30일 제60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2월 25일 제61차 실무협의회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수정안)
- 3월 02일 제42차 본협의회 개최
운영조례개정(안)
부천시 청년 일자리 늘리기 업무협약 체결
- 4월 16일 지역HRD 고용네트워크 개최
2015 부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2015 고용HRD네트워크 추진사업
- 4월 16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15 택시업종협의회 주요 추진사업
- 4월 29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2015년도 노동의제 선정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 이행
2015년도 제조업협의회 운영계획(부천형 강소기업 안착화
노동정책 및 기업지원책 등 검토)
- 4월 30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및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운영계획
일가양육 행복일터지원센터 운영
- 4월 09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경비직근로자 근로현황 파악 및 대책 조사결과
2015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및 차별개선네트워크 주요사업
아파트경비 고용유지 지원사업
- 5월 21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제조업협의회 대표 선출
- 5월 21일 『제1차 노사정 포럼』 사회적책임실천 워크숍 개최(홍원 연수원, 24명)
지역 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 우수사례 특강, 노사의 사회적책임실천 토론
및 발표(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주일 교수)
사회적책임실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특강 사회적 책임실천 과제 논의 및
토론
- 5월 29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생활임금 모니터링 및 사회적책임실천 협의

- 6월 06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2015년도 생활임금 적용 및 추진현황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시급기준 실무협의
2015년도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주요 추진사업 및 향후 일정
- 6월 30일 제62차 실무협의회 개최
운영조례개정(안) 및 부천시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7월 03일 『제2차 노사정 포럼』 개최(부천상공회의소, 24명)
산업안전 보건분야 재해 유형별 대처방안을 주제로 산업안전보건 개정 법,
산업 재해 유형별 사례(부천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서상훈) 교육
- 7월 07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유지 대책 및 2015년 기초 질서 준수 캠페인
2016년도 공공의제 및 실천 사업 아이템 공유
- 7월 15일 지역HRD 고용네트워크 개최
2015 부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계고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
2015 노사민정 전체 워크숍 변경 추진
지역고용-HRD 조사연구 결과 취합 공유
- 7월 15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2016년도 부천시 생활임금 시급 기준(제수당 포함) 협의
- 7월 23일 기초고용질서준수캠페인 개최(역곡역, 28명)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3대 기초질서 확립 대 시민 캠페인, 임금체불 방지,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을 중심으로 홍보
- 7월 31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2016년도 부천시 생활임금 결정 및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등 조례
개정 등 협의
생활임금 적용자 간담회 추진
- 8월 05일 제63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6년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의견 조율
협의회 위원 및 간사위원 위촉,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율
- 8월 17일 제64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6년 운영방향 및 핵심과제를 위한 토론,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차 협의 조율
- 8월 26일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워크숍(동명 금호 마리아리조트, 48명)

‘부천노사민정 상시적 소통문화 및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①2016년도 부천지역 노사민정 우선적 과제 선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②실행력 제고를 위한 노사민정 파트너십 및 지역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토론 및 화합(강사 이종화)

- 9월 02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본회의 개최
“부천시 청년 일자리창출 효과성 제고” 협약 체결
일가양득 행복일터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경영자 워크숍
- 9월 07일 제43차 본협의회 개최
2016년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및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2015년 부천노사민정 공동실천선언 의결
- 9월 08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감정노동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토론
2016년도 택시업종협의회 주요사업 논의
- 9월 10일 제65차 실무협의회 개최
부천 노사민정 실천선언 추진 일정, 주제, 선언 내용 협의
- 9월 11일 기업발전 CEO포럼 워크숍 개최(리송 오션 캐슬, 38명)
부천상공회의소/부천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부천벤처협회 등 공동주최,
'스피치와 협상'을 주제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상대의 마음을 먼저 파악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피치 훈련 등 진행
- 10월 05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중소기업 경영자 워크숍 추진결과 평가
2016년도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운영계획
- 10월 06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공공부문 사회적책임실천 방안(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노사관계 전망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 확대, 지역사회 미조직 근로자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개선 노력 필요함)
- 10월 13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2016년도 부천시생활임금 확정 고시 보고, 부천시생활임금 적용 확대 등
운영조례 개정
생활임금 적용자 간담회_공공부문 사회적 실천 포럼

- 10월 20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택시업종 종사자의 감정 노동 모니터링 설문조사 결과 공유와 대책 포럼
추진 준비
- 10월 21일 지역HRD 고용네트워크 개최
부천시 유관기관 노동, 고용 등 조사 연구 자료 취합 결과와 지역고용
HRD 조사 연구, 자료 분석, 의견수렴
지역고용 HRD네트워크 포럼 개최계획 협의
- 10월 22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2015년 2차 기초 질서 준수 캠페인 일정 논의
사회적책임실천 포럼 개최 및 2016년도 노동인권 보호 프로젝트 추진협의
- 10월 27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강소기업 안착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노동정책 조례 조사 결과
3차 노사경 포럼
- 10월 29일 제66차 실무협의회 개최
부천지역노사민정 합동 컨퍼런스 개최
부천지역 노사민정 통합보고대회
2016년 운영 방향 및 과제 선정을 위한 집중 토론회 개최
- 11월 04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본회의
“부천시 청년 일자리창출 효과성 제고” 협약체결, 실무협의
행복일터지원센터 운영 및 중소기업 CEO워크숍 논의
- 11월 05일 제67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5 부천노사민정 핵심역량 토론회와 부천노사민정 합동 정책 세미나,
부천노사민정 통합보고대회 등 하반기 주요사업 보고
- 11월 05일 기초고용질서준수 캠페인 개최(부천역, 19명)
2015년 부천시면과 함께하는 3대 기초고용질서(임금채불 방지,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대 시민 캠페인 등을 중심으로 홍보, 정비
근로자 고용유지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전단지 및 홍보 물품 전달
- 11월 16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공공부문 사회적책임실천(생활임금 간담회) 논의
- 11월 23일 제68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5 핵심역량 강화 토론회, 부천노사민정 통합보고대회 준비 보고
- 11월 25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2015 부천노사민정 통합 보고대회, 합동세미나 참석 및 준비

	Bucheon Techno park News(통권 제10호) 발행
11월 25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2015 부천노사민정 통합 보고대회, 합동세미나 참석 및 준비
11월 25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15 부천노사민정협의회 통합보고대회 택시업종 종사자 감정노동 모니터링 결과 및 대책 포럼 2016년 사업에 대한 의견
11월 25일	제3차 노사정 포럼」개최(소로로, 35명) 다 지자체 제도 및 우수사례로 본 기업지원-산업고도화-노동정책 토론 ※부천노사민정 전문가 토론회(4섹션으로 추진)
11월 25일	택시업종 종사자 감정노동모니터링 개최(소로로, 25명) 감정노동 모니터링 결과 및 대책을 주제로 택시업종 감정 등 실태 조사를 통한 정책 과제 도출 ※부천노사민정 전문가 토론회(4섹션으로 추진)
11월 25일	생활임금대상자 간담회 개최(소로로, 70명) 사회적실천포럼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중심의 모니터링 등 2016년도 생활임금 설명 및 수요, 공공부문 현안 이슈 토론 ※부천노사민정 전문가 토론회(4섹션으로 추진)
11월 25일	고용HRD네트워크포럼 개최(소로로, 30명) 지역고용HRD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존 조사연구사업 결과 분석, 향후 고용정책 및 계획 수립 토론 ※부천노사민정 전문가 토론회(4섹션으로 추진)
12월 08일	제69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5 부천노사민정 통합보고대회 최종점검회의
12월 09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택시업종 종사자 감정노동 모니터링 결과 및 대책 포럼 2016년 사업에 대한 의견, 브랜드를 운영 및 대책
12월 14일	노사민정 통합보고대회 개최(에스컨벤션웨딩홀 컨벤션홀, 250명) ①부천 고용, 노사사업 보고 및 소통, 화합을 위한 연찬회로 추진, ②화합과 만찬 등으로 추진, 감사패 수여(박태연 여노회 이사, 강남규 신한일전기 상무이사, 부천시청 산재예방과 반장 서상훈)
12월 18일	지역HRD 고용네트워크 개최

	2015 부천노사민정 합동 정책 세미나, 부천노사민정 통합보고대회 평가 지역고용 HRD 조사 연구, 자료 분석
12월 22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생활임금 대상자 간담회 및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확대 등 운영조례 개정 의견 교환
12월 22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22015 부천노사민정 합동 정책 세미나, 부천노사민정 통합보고대회 평가 노사정 포럼 결과보고 및 계획
12월 29일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단 개최 2015 부천노사민정 합동 정책 세미나, 부천노사민정 통합보고대회 평가 2016년 노사 현안 및 쟁점 조율
12월	생활임금매뉴얼 제작/배포(1,500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배포(부천TP 870부, 대우TP 360부, 준의TP 120부, 외부 150부 배포) 주요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소개, 경제 칼럼 및 문화, 부동산 세금 등 정보제공 등
연중	정년희망면토링캠프 '희망찾기 작은학교'(3월~12월, 차별개선네트워크) 사회진출을 앞둔 근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역량개발과 성취를 목표로 기획, 희망찾기 작은 학교를 통하여 연구심, 탐구심, 호기심을 배양하며, 자신의 자아회복과 나아가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연중 9~12월	부천시 노동시장 조사연구 추진 기존의 연구결과(6개년 자료, 2010~2015년 현재)취합하여 고용 현황과 추이 파악하여 활용방안 모색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 취합함 (총 84개 기관을 조사하였으며, 고용 및 인적자원분야 12개, 사회복지분야 25개, 산업/중소기업분야 22개, 교육 및 기타분야 25개 조사됨)

분야별	주요내용
고용 및 인적자원	지역노동시장, 인력수급, 일자리창출, 근로시간연구, 임금, 비정규직, 노동복지, 산업별, 업종별 고용, 노사·고용정책, 고용평등,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사회복지 분야	노인복지,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여성, 외국인, 지역사회중심의 복지
산업/중소기업	산업진흥 및 육성, 수입개방, 규제완화, 산업인력양성, 중소기업 진흥 및 육성 등
교육및 기타	교육복지, 평생교육, 교육전반에 대한 연구사업, 경제활동, 사회보장제도

- 연중** 생활임금 계산 프로그램 개발(4월~11월)
생활임금 적용 및 산출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생활임금의 산출 구조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화 지원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게재 및 부천시 해당 부서별 지급
- 연중** 경비근로자 임금실태 및 근로환경조사(1월~2월)
167개 공동주택 입주사 대표 및 관리사무소, 경비직 근로자 대상으로 공동주택 규모 및 관리방식, 경비직 근로자 형태 및 근무환경 현황, 지원 및 대책 수요 파악과 환경 개선 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지원 및 대책 마련, 고용유지 상생단지 근로환경개선 인증
- 연중** 경비직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3월~12월)
한국노동 부천지역지부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 아파트경비 고용유지 지원사업으로 제안, 선정.
공동주택 입주사(167개소) 대표 및 관리사무소, 경비직 근로자 대상으로 입주인 인식개선, 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관리주체 컨설팅 등 아파트 경비 근로자 고용의 질과 안정성 제고(19개 고용유지 상생단지 선정, 고용 및 근로환경개선 인증, 개선분담금 지원)

2016년

- 2월 02일** 제70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6 사업 계획 및 예산(안) 하부협의회 조율
- 3월 14일** 제71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6년 부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및 예산
일자리공시제 목표 및 성과,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본협의회 위촉 조율 및 사무국 근로환경 개선, 시행규칙 개정
핵심 역량 비전 공유 등 협의
- 3월 21일** 제44차 본협의회 개최
2016년 부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및 예산
2016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청년의제 개발 및 추진
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 지원 조케 검토(2016 10월 노동권보호 추진위원회에서 함께 검토의견 처리)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및 청년의제 개발, 친환경산업단지 유치
- 4월 08일** 제20업협의회 개최

2016 부천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및 예산
2016년 부천노사민정 전체 워크숍 및 제조업협의회 추진사업

- 4월 19일** 제72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6년 부천노사민정 전체 워크숍
2016년 노사민정 실천 선언 기획 조율(이행단 구성)
아파트 경비 근로자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제정
- 4월 22일** 지역고용 HRD네트워크 개최
부천형 일·학습 클러스터, 청년 정책 및 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 4월 26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지역현안 이슈별 대시민 홍보 캠페인, 택시업종 근로자 감정노동 치유사업
- 4월 27일** 제73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6년 부천노사민정 실천선언 역할 및 최종점검, 핵심역량 비전공유 등 컨설팅 추진
- 4월 28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2016 부천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및 예산
일가양육 행복일터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추진사업
- 4월 29일** 자별개선네트워크 개최
지역 현안 이슈별 대시민 홍보 캠페인 결과
2016년 하반기 기관 협업행 “노동인권보호 학교”
- 4월 30일** 2016 부천노사민정 공동실천선언 추진(부천북부역 마루광장, 2,000명)
‘공정한 노동관행 정착 및 안전한 일터, 행복한 지역을 위한 부천지역노사민정 공동 실천선언(노사민정 대표)과 기초고용질서준수 캠페인 및 대시민 홍보 이벤트-노사민정 근로자합창단 공연-노사민정 공동 실천선언-노동 경축음악제와 결합 추진함
- 4월 30일** 기초고용질서준수 캠페인(부천북부역, 33명)
2016년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3대 기초질서 확립 대시민 캠페인(임금체불 방지,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타로카드” 이벤트 운영, 참여자 100여명(타로리더<6명> 1명당 15~20명)
- 5월 18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공공부문 대표 결정, 부천시 생활임금 정책 토론회 참석 건 협의

- 5월 20일 감정노동 치유 관리사업 간담회(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8명)
택시노사대표, 부천시청, 부천시근로자건강센터 등 참석하여 추진개요 및 방법 등 협의
택시업종 등 운수업 감정노동 실태 현황보고 및 운수업 노동자 감정노동 프로그램 운영 협의
- 6월 9일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워크숍(강원 인제스피다움, 47명)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향과 과제' 주제로 부천시 지역 노사민정 15년 경험과 역사(김준영 처장), 지역 고용거버넌스의 주요역제와 기능(주무현 박사) 진행
부천노사민정의 역사들 면밀히 이해하는 시간과 사회적 대화 채널로서의 노사민정의 역할과 위원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다짐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6월 23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정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유지 대책 공유 및 2015년 기초 질서 준수 캠페인 추진 협의 및 2016년도 공공의제 및 실천 사업 아이템 공유
- 7월 18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2017년 부천시 생활임금 결정, 제안 및 부천시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검토
- 7월 19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택시근로자 감정노동 종사자 치유사업 간담회 추진결과보고
- 7월 20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지역 현안 이슈별 대시민 홍보 캠페인 협의 및 2016년 기관 협업형 "노동인권보호 학교" 제안(개별기관 추진방식에서 협업형으로 추진 계기 마련)
- 7월 27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2016년 노동이슈 노사정 포럼,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사례 확산
- 7월 27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2016년 노동이슈 노사정 포럼,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사례 확산
- 7월 28일 지역고용 HRD네트워크 개최
2016 일자리공시제 및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청년정책 및 제도 발굴 연구사업, 2016 부천 훈련정보망 활용 등 고용-훈련 효율화 방안 협의
- 8월 08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2017년 부천시 생활임금 결정, 제안
- 8월 12일 제74차 실무협의회 개최

- 택시업종 근로자 감정노동 치유사업 협약 체결 및 2017년도 부천시 생활임금 제안 보고
시행규칙 개정 및 사무국 운영,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율
실천선언 이행점검 결과 공유
- 8월 23일 제45차 본협의회 개최
일자리공시제 성과 및 목표 보고
택시업종 근로자 감정노동 치유사업 협약 체결(9/30, 체결 완료) 심의
2017년도 부천시 생활임금 결정(9/15 고시함)
2017년도 사업계획(사무국 치우개선 등 추가예산 편성 수정가결)
- 9월 08일 기초질서준수캠페인(부천TP 4단지 및 상용TP 203동 광장, 18명)
부천시 생활임금 홍보와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 및 고용차별개선 지원 기관 등 홍보 주력함
- 9월 12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전문가 토론회 협의
(가)노동권 보호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협의
- 9월 30일 택시업종 종사자 직무스트레스 관리업무협약 체결(부천시청 창의실, 30명)
택시업종 종사자 직무스트레스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안전한 일터와 행복한 부천』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10월 14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노사상생 사회공헌 프로젝트 협의, 제안
- 10월 26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하반기 기관협업형 "노동인권보호 학교" 협의
- 11월 11일 제75차 실무협의회 개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운영세칙 제정 검토
2017 세부사업 계획 및 예산(안) 조율(8월23 본협의회 수정가결안)
사무국 운영기준 및 내용 등 2차 검토
- 11월 13일 홍보캠페인 "청년 발광(發光)"(부천역 마루광장, 200명)
포럼 홍보, 청년정책 설문과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청년 컨퍼런스를 사전에 알려 의견을 수렴, 설문조사함
- 11월 16일 지역노사민정발전포럼(수원 라마다 플라자H, 35명)
'지역 노사민정 역할 및 발전방향' 을 모색하는 지자체 노동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노사정위원회 운영 현황 설명과 자치단체 노동정책 사례 및 지역 사회적 대화 사례, 소개(김종진연구원, 이원복 주사) 및 토론

- (중앙 경제사회바른 노사정위원회와 합동 추진)
- 11월 17일 부천청년정책포럼 개최(송내어울마당, 55명)
청년정책 설문조사 보고 및 청년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청년 정책, 부천시 청년 활동의 현주소, 수원시 및 시흥시의 청년 정책 등 사례연구, 일자리, 주거, 지역복지, 문화예술 등 우선 과제 선정
- 12월 07일 민관 의제 맞춤형 회의 개최(부천시민학습원, 25명)
부천 청년정책의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방안 모색, 2017년 실행력 제고, 부천형 청년의제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 협의체에 대한 논의
- 12월 12일 부천노사민정 통합 보고대회(에스컨벤션웨당홀 컨벤션홀, 187명)
①2016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사례 선정 시상 ②재능기부자 감사패 증정 ③2016 노사민정 협력 일자리창출 사례 보고 ④청년활동보고 및 공연 등 ⑤화합과 소통(만찬)으로 진행
- 12월 14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16 주요 추진사업 보고 및 2017년 공동추진사업 추진(안) 제안
- 12월 20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본회의 개최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설립 및 현황, 2017 운영방향 및 주요의제 협의
- 12월 20일 지역고용 HRD네트워크 개최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및 2017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 사업 공고 안내
2017년 지역고용HRD네트워크 주요사업 논의
- 12월 21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안전보건 우수기업사례 선정 및 시상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2017년 운영방향 및 과제 협의
- 12월 22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공공부문 사회적책임실천 활동 의견 조율
- 12월 28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2016년 주요 추진사업 보고 및 2017년 주요 추진사업 계획 및 의견
- 12월 09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 사회 통합 리더 양성
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장 사례 발굴 확산, 2017년 제조업협의회 주요 사업 논의
- 11월 29일 기관 협업형 찾아가는 “노동인권보호 학교” 추진

- ~ 여노회, 부천노동상담소,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법률지원센터 등 연계
- 12월21일 부천관내 부천고등학교 3학년 대상 수능이후 교내 프로그램으로 부천관내 고등학교 3학년(부천여고, 상원고, 소사고, 소명여고, 원종고 5개교 59개 학급, 약 1,534명) 교육 실시
찾아가는 노동인권보호학교 주요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실습 등으로 근로 계약서를 직접 작성, 모둠별로 발표
- 12월 2일~26일 수능이후 노동인권 교육 추진(16회/부천시 대강당 19개 학교, 약 5,893명)
노동의 권리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영화상영전 교육(근로기준법 OX퀴즈)으로 진행.
- 10월 11일 부천지역 사회통합 리더 양성과정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진행(34명)
~12월 6일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갈등 유형과 갈등분석), 협상 및 조정프로세스 개요와 방법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미래 지역사회통합 리더 양성

2017년

- 1월 10일 제76차 실무협의회 개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_일부 수정·보완
사무국 전달자 채용기준 및 임금체계 개편(안)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3월 07일 제77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최종안)
2017년도 부천노사민정 협약 및 실천선언(이행점검단에서 재논의)
- 3월 13일 노사발전협의회 특별위원회 개최
2017년 노사공동수요자능력개발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2017년 부천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 3월 29일 제46차 본협의회 개최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최종안)
2017년도 부천 노사민정 협약 및 실천선언(원하정 간 공청거래 등 포함 사회적책임 협약 노사민정 간 협의)
- 4월 18일 제78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7 부천 노사민정 실천선언 및 협약 체결 일정 및 내용 조정

- 4월 29일 노동이슈 홍보 캠페인 "기초고용질서 준수"(24명, 부전북부역)
최저임금 홍보와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 및 고용차별개선 지원 기관 등
홍보 주력함
- 5월 18일 제79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7 부천 노사민정 실천선언 및 협약제결 절차 등 협의
- 5월 23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2017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주요사업과 활성화 방안(CEO워크숍 : 테크노
파크발전협의회+노사발전재단 경인사무소 가능 타진)
- 5월 25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2017년 차별개선네트워크 주요사업(부천시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대상,
진로시간 활용하여 노동인권보호교육 추진)
2017년도 노동이슈 홍보 캠페인(부천노동상담소 "길거리상담" 일정 확정
후 개별적으로 결합 여부 확인)
- 5월 30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2017년 제조업협의회 추진사업은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에 관한 내용 등
분석과 하반기 고용노동부 장관 및 최저임금 등의 기본(안)이 구상된 후
진행
- 6월 09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2017 공공부문협의회 주요의제와 추진과제는 10월 중,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서 노사가 상생하는 모델 등 고려하여 추진
- 6월 12일 2차 노동이슈 연합 홍보 캠페인 "기초고용질서준수"(부전북부역, 29명)
길거리 노동상담과 최저임금 홍보와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 및 고용차별
개선 지원 기관 등 홍보 주력함
- 6월 13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17년 택시업종협의회 추진계획(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아이디어
및 정책에 대한 자료 취합,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리스, 환승제도
등))
- 6월 15일 제80차 실무협의회 개최
일자리기획단 운영 및 향후 과제(부천상공회의소 기초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분석과 청년 구직자 관점으로 취업 애로사항 파악, 일자리추진단
(실무협의회+고용HRD네트워크) 운영
- 6월 15일 HRD 고용네트워크 개최
본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위촉

부천 노사민정 공동실천선언협약 체결(실천선언문 최종 취합) 협의
부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7월 17일 노사발전협의회 개최
대장동 친환경 기업단지 조성 경과 보고
노사공동 수요자 능력개발사업 상반기 실적 및 결산 보고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상반기 실적 및 결산 보고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 상반기 실적 및 결산 보고
- 7월 21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생활임금 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부천에 맞는 단계적 절차 등 고려)
2018년도 생활임금 제안(기본급 중심의 장기적 로드맵 설정)
- 7월 04일 제47차 본협의회 개최
부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동영상)
다양한 의견 반영하여 협업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모델 발굴을
목표로 2017년도 부천 노사민정 공동실천선언 및 협약 체결
- 7월 05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설립 및 현황과 2017년 운영방향 및 2018년 주요
계획(단지별 회장단 의견 취합)
- 7월 07일 산업안전우수사례 벤치마킹 개최(애디언트코리아㈜, 18명)
2017년 지역 노사 핵심현안 '산업안전보건'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 전파
및 산업안전예방에 관한 상시 활동
- 8월 08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2018 부천시 생활임금 결정
(제안된 4개안의 소요예산 산출 후 3차 생활임금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
- 8월 16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2018년도 부천시 생활임금(안) 결정(4개 제안 중 부천시 제안으로 2018년도
생활임금은 9,050원으로 결정)
- 8월 18일 제81차 실무협의회 개최
2018년도 부천시 생활임금 결정 보고 및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8월 23일 제48차 본협의회 개최
2018년도 부천시 생활임금 결정(하반기 생활임금 조례개정 추진_법률적인
부분 검토 등 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공공혁신 가이드라인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 제시

필요(부천시장)

- 8월 24일 HRD 고용네트워크 개최
일자리창출추진단 운영(연근지역과의 협약체결로 구인 구직 미스매칭 해소 방안 모색)
- 8월 29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전체 워크숍(제주 베스트웨스턴 호텔, 44명)
'부천 노사민정 핵심과제 선정'을 위한 부천시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과제 토론회 및 발표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과제 우선 선정 •활동평가 및 개선으로 진행
- 9월 28일 HRD 고용네트워크 개최
부천형 일자리 창출 모델(안)(규모는 작지만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노사공동훈련센터 실무화 및 기구화 :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 , 사업(미취업자, 재직자) 노사공동의 기능과 훈련을 확대 강화)
- 9월 06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17년 우수사례 벤치마킹(9월 셋째주 또는 넷째주, 벤치마킹 후 진행과 현 정책 및 이슈에 대한 논의 워크숍으로 진행)
- 10월 11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근로자와 함께하는 나눔 공연(11월25일 추진)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활성화 방안(핵심쟁점이나 현안들에 대해 사업으로 추진 고민)
- 10월 13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2017년 노사정 이슈포럼(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역할과 전반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의 변화 주제로 결정)
- 10월 17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2017 공공부문 사회적책임실천 우수사례 벤치마킹(비정규직 정규직 사례 및 사회 공헌 등 선진지 견학)
- 10월 23일 노동-고용복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제언(미국 섹터특화형사례 지역, 6명)
미국 일리노이주(시카고)-위스콘신주(밀워키)-캐나다 토론토
기관의 일반현황(연혁, 조직 및 운영, 주요역할과 활동)과 섹터 특화전략(취약계층) 고용 및 취업연계 종합지원 방향 및 전략 벤치마킹하여 현재 노사정파트너십의 변화와 고용의 주요이슈, 지역고용전략을 위한 제언
※노사상생 일자리창출모델 '섹터특화형 일자리창출 모델' 대상 수상

- 11월 03일 제82차 실무협의회
제2차 노동정책 전문가 포럼
2017 노사 사회적책임 확산 간담회, 부천노사민정 통합 보고대회
- 11월 08일 3차 노동이슈 홍보 캠페인*기초고용질서준수*(쌍용TP/부천TP, 32명)
길거리 노동상담과 최저임금 홍보와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 및 고용차별 개선 지원 기관 등 홍보 주력함
(찾아가는 전문상담, 건강, 노동법률, 구인구직, 심리 상담으로 구성, 진행)
- 11월 20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생활임금제도의 타 지자체 사례(조례개정 TF 구성하여 점검하고 추진, 생활임금 중간 점검 필요)
- 11월 21일 공공부문 사회적책임실천 우수사례 벤치마킹(안성시 시설관리공단, 17명)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우수사례 벤치마킹, 나눔화산의 실질적인 사례(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청결한 거리), 노사의 적극적인 경영참여 및 기간제 전환 등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등 공유
- 11월 27일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개최
2018년 핵심의제 선정·협의(의제 또는 주제에 맞는 네트워크로 확장)
- 11월 30일 HRD 고용네트워크 개최
부천형 일자리 창출 모델(안)
(2018년 수요조사(분석하고 셋팅을 잘해서 잡플래너 사업 내용 충실화), 장기적인 플랜으로 취업센터들의 영역 특화, 기관들의 특장점을 살려서 전문화된 영역 및 역할 분담까지 고려)
- 11월 06일 택시업종협의회 개최
2018년 의제 선정·협의(대중 교통(버스)과 택시간의 환승 할인 제도 등)
- 12월 11일 제조업협의회 개최
2018년 핵심의제 선정·협의(산업안전컨설팅 및 여가활용 가이드북 제작 등)
- 12월 05일 노사발전협의회 개최
2017년 노사공동 수요자능력개발사업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017년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017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보고대회의 전
노사공동 섹터 특화형 모델(안) 보고

- 12월 06일 공공부문협의회 개최
2018년 핵심의제 선정·협의(사회적 책임실천 및 공공 소관부서 적극적 회의 참석 도모)
- 12월 06일 차별개선네트워크 개최
2018년 핵심의제 선정·협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적용에 있어 기업의 혼란예방, 이에 대한 지역적 대책 수립, 홍보 캠페인 방향은 1588-2089 활성화)
- 12월 14일 2017 노사민정 통합보고대회(에스컨벤션웨딩홀 아트홀, 216명)
①2017노사민정협력활성화 부문 기초, 자치단체 대상 시상 ②실무협의회 위원 감사패 증정 ③노사민정협의회 동영상 ④섹터특화형 노사상생 훈련 모델 “2018년 핵심의제” 보고 및 선포식 ⑤화합과 소통(만찬)
- 3월~12월 근로자합창단 운영(부천테크노파크1단지 회의실, 30명)
일생활 균형을 위한 주1회 야근 없는 (수)요일에 정기적인 연습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사회생활과 취미활동을 도모하고 연 1회 “함께하는 나눔공연” 실천
- 12월 노동인권강화 교육 지원(부천고등학교 3학년 88개 학급, 2,640명)
- 1~20일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보고 모둠 별로 발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교정
(본 사업은 2012년 부천실고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인권 및 자기회복 프로그램을 기관 협업 사업으로 확장한 사례)

2018년

- 2월 12일 제83차 실무협의회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조율 : 일부 조율, 순차적 보완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최종 조율 : 노사민정 홍보 강화 주력
일본 노사정 벤치마킹 시기 조정 : 노총 의견 수렴 후 조율 예정
- 3월 29일 제84차 실무협의회
2017년 일자리 대책 추진실적 및 2018년 추진목표 보고, 의견수렴 : 일자리 전담부서 분리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감액분 반영 조정
공동실천선언은 민선7기 취임 이후에 진행 일정 재검토, 이행력 강화

- 5월 16일 제49차 본협의회
2017년 일자리 대책 추진실적 및 2018년 추진목표 보고, 의견수렴, 생활 임금 적용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미적용사례 파악, 차후 보고, 부천시 일자리위원회 성과 노사상생형 ‘섹터특화형 일자리 모델’ 노사공동 훈련센터의 확대 개편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 주문
- 5월 27일 노동이슈 홍보 캠페인(1차) (부천 북부역, 40명)
2018년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예방,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이슈 대시민 홍보
(1차) 기초고용질서 준수 최저임금 홍보 (5/24)
(2차) 기초고용질서 준수 최저임금 홍보 (6/30)
(3차) 플로깅부천과 연계 추진 (10/25)
(4차) 고용차별예방 주간 일가양득행복일터지원센터 연계 추진 (11/6)
- 5월 일가양득 행복일터지원센터 운영 개시
2014년 9월 개소한 일가양득행복일터지원센터는 2018년 3월 기업자문 중심에서 과도기적으로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교육, 상담, 문화활동) 운영 및 고용복지정보 업그레이드 진행, 지역 고용복지 자산관리, 정보제공(488개 기관 대상) (~12월까지)
※2019년 전일 전담인력 배치 고려(홍씨도서관 및 구연구직, 심리상담 등) 상시운영 체계로 고려하고 있음
- 6월 05일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2018 부천시생활임금 적용 보고(당초 적용대상 960여명에서 665명으로 축소 적용,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 전환에 따른 생활임금 대상 제외)
2019년 부천시 생활임금은 부천형 생활임금 시행전략 하에 마련,(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적용근거 및 절차 마련, 통상임금 기준과 부천시 지불 능력 반영 등)
관계기관 생활임금 적용 교육(1/2차) 실시와 6월 임금실태조사 완료 후 논의하기로 함.
- 6월 18일 차별개선네트워크
2018 부천시생활임금 적용 및 조례 개정 의견 수렴
민선 7기 정책 제안 노동인권보호 근거 마련(노동인권조례 검토), 노동이슈 홍보캠페인 지역 축제와 연계 추진(5/27, 6/30, 하반기 1회 추가 추진), 노동인권역사기행, 평가토론회와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노동인권교육은 수능이후 기관 협업으로 추진 (2차 회의의 구체화 논의 예정)
- 6월 18일 생활임금 확산교육(1차)

- 생활임금 적용대상 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①생활임금 이해, ②개정된 근로기준법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70명 참석, 부천시청 소풍마당)
- 6월 22일 사회통합리더 양성 프로젝트(사회조정전문가) (영종스카이라이프)
2017년 지역 및 공공영역의 갈등 심화로 민관 갈등조정전문가 기초과정 개설, 2017년 심화과정 이수자 중심, 사회적조정능력 태양
지역내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조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중 워크숍 진행(서정철 박사) (17명) 이후 매월 1회 정기 네트워크 회의 진행
- 6월 26일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적용근거 및 절차 마련에 있어 적용근거와 절차, 타지자체 사례 검토 등 충분히 준비 후 시행제안
2019년 부천시생활임금 결정, 위원별로 목표전략, 근거, 생활임금액과 기준 제시, 합의 후 결정 제안하기로 함 (차기회의 까지 제안)
- 6월 30일 홍보캠페인(2차) (부천북부역, 24명)
한국노총부천지부 '노동가족 음악회' 행사 연계 진행
3대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노동이슈 홍보를 위해 협업기관별 홍보물과 기념품 배포
- 7월 04일 택시업종협의회
택시운수업 종사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리스' 제도개선 필요(고용노동부 건의) 새로운 노동환경에 적합한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등 객관화 작업 필요
하부협의회 규정 등 조항 신설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등 개정
- 7월 04일 공공부문협의회
지역고용노동정책 선진사례 견학 보고 및 2018년 부천시 생활임금 보고, 2019년 생활임금 의전수립(생활임금 1만원 달성 합의 근거 마련과 적용대상자 확대 필요)
향후 공공부문협의회 재구조화 논의결과, 동의 현안 중심의 의제별위원회로 전환 차후 지속 논의하기로 함
- 7월 16일 현장고용노동민원해결지원 사업「잡프로보노」추진 (~11월까지)
7/16 잡프로보노 공개채용(2명), 기업지원과 및 부천상공회의소 기업데이터 협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기업지원제도 홍보책자 협조
8~11월 잡프로보노 업체 방문 활동 : 금형업종 239개, 전기전자업종 266개, 기타제조업종 154개 업체 대상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와 예로사항 파악, 구인수요업체는 부천시일자리센터 및 노사공동훈련지원센터 연계 처리. 부천형 일자리창출 모델 구체화 및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업체 현장의 요구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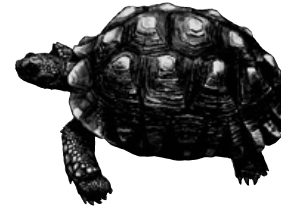
- 7월 24일 실천선언 1차 이행점검회의
3/29 선정 이행점검위원회(노사민정 4인) 중심으로 2018년 실천선언 및 협약 체결 방향 협의(공동실천선언으로 추진)
주제는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과 삶의 질 향상(워라벨)을 중심으로 노사정3자간 공동실천선언으로 추진함. 초안은 고용노동부부천지청에서 잡고, 보완방향으로 진행(일정은 8월말/9월초 두 개안으로 좁힘)
- 7월 24일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적용근거 및 절차 마련에 있어 적용근거와 절차, 타지자체 사례 검토 등 충분히 준비 후 시행 제안 (제안된 안을 중심으로 차기 회의 논의 예정)
- 8월 13일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노사정, 공익이 제시한 4개안을 중심으로 2019년 생활임금 10,030원 결정 (결정물: 임금안상률, 지방세수입전망, 생활물가지수, 조정분)
산업항목 및 적용대상 전년도 기준 유지 : 2019년에 부천형 생활임금전략 수립을 위해 기준 및 적용, 민간 확산 등 용역 추진 예정
- 8월 16일 고용HRD네트워크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 '일드림센터' 구축 및 운영 보고, 행안부 지원 5억 확보 공간 조성 및 기자재 구입 가능(단, 국고지원으로 진행되나 청년 창업 및 훈련 등 일부 진행 불가피함)
고용HRD네트워크 재편으로 청년 일자리위원회 및 일드림센터 운영위원회 역할로 재구성할 필요 있음
- 8월 17일 제85차 실무협의회
공동실천선언은 노동인권보호와 일생활 균형 실현 주제로 선정, 8/22 본 협의회와 연계 추진하기로 함
부천시 생활임금 보고, 부천형 생활임금의 의미와 설계 필요함, 2019년 사업계획으로 반영, 평가와 적용대상, 기준 등 객관화작업 필요, 2019년 설립 20주년 대비, 11월경 확대회의 등 개최 의견 개진
- 8월 22일 제50차 본협의회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 '일드림센터' 진행과정 보고(행안부 시설 장비 구축비용 5억 지원, 훈련컨텐츠 개발 및 로드맵 구축 TF 구성 논의 심화) 청년창조공간 2개 확보, 하반기 시공예정
2019년 부천시 생활임금 10,030원 확정,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예산 및 사업방향 확정함.
고용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와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부천노사공동실

- 천선언 연계추진(부천노사정 4인 실천선언, 이행점검, 이행보고 진행)
- 8월 22일 부천 노사민정 공동실천선언
2019년 20주년 제5차 협약 체결. 2018년은 노사정 노동인권 보호 및 일
생활 균형 실현 공동실천선언으로 추진함.(이행점검은 실무협의회에서 점
검, 이행결과 보고서 공개)
- 8월 23일 제조업협의회
52시간 근로시간 준수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노사의 대응, 기업 활용사례
중심으로 노사정포럼 주제 선정(1차, 부천지정의 제도 중심 발표, 토론)
지역단위 사회적대화기구로서의 재구조화, 노동정책위원회 등 검토, 추진
향후 회의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함
- 8월 30일 공공부문협의회
2018년 사회적책임실천 활동 선정(플로깅 부천과 기부후원 결정함)
기부후원은 회의비 1회분 기부방식으로 진행. 플로깅부천은 홍보캠페인 연
계하여 진행하기로 함(기부수혜대상 차기회의 시 논의, 사무국에서 후원
금 관리방식으로 진행)
향후 공공부문협의회 재구조화 논의결과, 현안 중심의 의제별위원회로 전
환 차후 지속 논의하기로 함.
협의회 구성 등은 11월 TF 구성하여 진행 예정
- 9월 11일 노동인권 역사기행 “전태일길따라잡기” (부천실고 재학생 90명)
부천시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노동인권 역사기행 운영
전태일재단 전문강사진 진행, 평화시장 방문, 마석 모란공원 현장 탐방
- 9월 19일 공공부문협의회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현장내 노노갈등 보완책 마련(순차적 적용 검토)
플로깅부천 일정 결정(10/25), 100인 사회공헌 릴레이 어게인35) ‘소년희망
센터’ 건립 및 운영에 기부하기로 결정함(12월 통합보고대회 전달식).
협의회 구성 등은 11월 TF구성 결정하기로 함(역합, 구성 등 확정)
- 9월 17일 차별개선네트워크
노동인권교육 청소년 교육컨텐츠 개발, 자료 등 개발 업그레이드 요함. 일
하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특화계층 교육 컨텐츠 개발 필요
노동인권교육 평가 토론회 : 11/20, 취약계층 구직수요 및 애로 연구사업
과 연계, 섹션별 진행
고용차별예방강조주간 캠페인 : 11/6, 쌍용TP 내 기관협업으로 진행
차별개선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은 3차 회의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함

- 11월 06일 노동이슈 홍보 캠페인(4차) (테크노파크쌍용3차 단지 내 휴게광장, 25명)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 연계, 일생활균형 캠페인 및 3대 기초고용질서 준
수 홍보, 재직 근로자 대상 건강, 취업/교육/노무 상담 부스 운영(차별개
선네트워크 위원, 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일가양육 행복일터지원센터 자치운영기관 담당자 등)
- 11월 14일 제87차 실무협의회(3차 이행점검회의)
공동실천선언 이행 일정 등 공유, 참여주제별 이행내용 점검, 결과공개
(이행확산 간담회, 제안 검토, 12/13, 12/19)
(사)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근거 「가로청소 위탁계약 해지, 2018.12.31.」 통
보에 따른 가로청소 위탁계약 연장에 관한 의제 채택 요구 공문 제출 이
에 대한 실무협의회 협의 안건 상정(당사자간 계약으로 의제채택 어려
우나, 고용승계 등 고려할 필요 있음), 이해관계자 사실확인 및 향후 추이
점검 후 12월 초 재 논의하기로 함
- 11월 15일 제조업협의회
2018 부천노사민정 100일 사회공헌 릴레이 보고 및 기부 독려, 전문가 토
론회(11/20)와 통합보고대회(12/11) 참가 보고
재구조화 3차 논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표협의체 지향, 중소기업기업 보
호(현황 파악, 애로 정책반영) 및 좋은 기업 인식 제고 방안, 예비취업생
멘토제도 도입추진(TF구성 후속 논의)
- 11월 20일 부천노사민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블루미더가든)
(1섹션) 청소년 노동인권실태 및 개선
①부천지역청소년 노동실태(한유리 부천가톨릭노동사목 사무국장), 부천지
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최영진 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의 발제와
②노사민정 각 당사자의 지정토론 및 ③자유토론
(2섹션) 일자리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협력과제
①부천시 고용위약계층 훈련수요 결과사업 중간 발표(박세림 와이엘컨설팅
부대표), 부천지역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유관기관 현황(유승우 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장), 부천시기업인력수급 훈련 수요(고현주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의 발제와 ②전문가 지정 토론 및 ③자유토론
- 11월 26일 2018년 찾아가는 노동인권보호교육
~12월 17일 기관 협업(4개 기관/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청소년법률지원센터, 한국노
동부천상담소, 노사민정협의회)으로 인문고 9개교(부천여고, 부명고, 소명
여고, 정명고, 중원고, 상원고, 원종고, 역곡고, 심원고), 총 107개 학급 교
육 지원. 향후 상시적 지원, 교육운영(교육지원청과 협의) 필요성 있음

- 11월28일 공공부문협의회 TF팀 회의
협의회 명칭은 사회적 책임실천위원회로 하고, 그 역할은 근로자 전체 권
인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책 협의,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실천 실행
(구성은 노사민정 25인 이내로 정하고, 직영 2인, 출자출연 2인, 민간위탁
4인, 기타 전문가 및 지원부서로 함. 단 2019년 첫 회의에서 이를 회의
안전화하여 위원들의 공감 확보, 추진하기로 함)
- 12월03일 택시업종협의회
2019년 사업계획(작은연구) 결정 및 효과적 수행을 위한 위원회 개편.(개
편동의, 위원 구성(안)은 부택에 위임 결정하기로 함)
- 12월11일 2018 통합 보고대회 (부천에스컨벤션, 약230명)
①2018 감사패 증정 및 사회적 책임실천 '사회공헌 100인 릴레이' 기부금
전달식, ②동영상으로 보는 노사민정20년사, ③마술로 풀어가는 '핵심의제'
선포식, ④소통과 화합의 만찬 등 거행
- 12월 20일 고용차별개선네트워크
의제별 분과위원회 개편과 관련하여 (가)노동인권보호추진위원회로서 부천
시 노동인권보호지원조례 제정, 노동인권보호지원 확대방안 모색, 고등학
교 상시 노동인권 교육체계 마련 모색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향후 추진 내용과 방향성 협의
- 12월 21일 제88차 실무협의회
가로청소 위탁계약 연장에 관한 의제 채택 건 논의 결과 운영조례 및 시
행규칙 상 의제 채택을 위해 본회의에 심의, 상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
단하여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결과 통보하기로 함
2019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부천지역 일
자리미스매치 해소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기위해
지역 기관들의 협업과 산학 협력의 시너지를 기대함
- 12월 26일 전국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12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상담 사례집 발간
근로청소년 보호 노동관계법, 상담 사례별 솔루션,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
는 기타 정보 수록, 발간

- 35) 어게인(AGAIN)은 학교밖 청소년, 위험에 노출된 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 함께 살아내는 공동
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스토리펀딩 등으로 소년희망센터를 건립, 운영함. 11월 개소.
- 36) 플로깅: 스웨덴에서 진행된 자발적 홍보활동으로 조깅+거리환경 깨끗이 보존하기 활동. 조깅과 거리
환경 조성을 결합하는 대시민 활동임.



느리지만
치열하게
사람, 희망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年史

1999 - 2018

제3부 주요활동보고

제1장 주요활동사진

제2장 주요연혁 및 수상경력

제3장 근거 및 조례

제4장 우수사례

제5장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주요 발간서

제1장 주요활동사진

1. 노사민정파트너십 기반 구축



▲ 본협의회 '99.5.30.~'18.8.22. (1차~50차)



▲ 고용HRD네트워크 '10.4.30.~'18.12.17. (1차~31차)



▲ 부천시지역노사발견협의회(부천노사공동훈련센터) '04.12.6.



▲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12.7.16.~'18.8.16. (1차~22차)



▲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09.11.17.~'17.11.27. (1차~26차)



▲ 택시업종협의회 '07.4.3.~'18.12.3. (1차~37차)



▲ 제조업협의회 '11.7.22.~'18.11.15. (1차~28차)



▲ 실무협의회 '99.6.29.~'18.12.20. (1차~88차)



▲ 공공부문협의회 '17.10.18.~'18.11.28. (1차~25차)



▲ 고용차별개선네트워크 '10.7.23.~'18.12.11. (1차~32차)

2. 노사민정파트너십



▲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 '16.6.9.



▲ 2002년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02.3.26.



▲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 '10.12.21.



▲ 노사민정협의회 '일본_해외벤치마킹' '18.10.30.



▲ 2003년 노사정협의회 하반기 워크숍 '03.11.25.



▲ 고졸 미진학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토론회 '03.12.17.



▲ 부천 노사정 고용복지 워크숍 '04.12.17.



▲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 '15.8.26.



▲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 '17.8.29.



▲ 노사민정협의회 '대만_해외벤치마킹' '14.8.24.

3. 업종별 협의회 주제별 토론회 및 포럼



▲ 택시업종협의회 추진위원회 '05.6.30.



▲ 고용포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지역 파트너십' '06.9.27.



▲ 고용심포지엄 '실업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 '08.9.30.



▲ 노사정포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근로자 실태 및 개선 토론회' '14.11.5.



▲ 제1차 직업훈련네트워크 포럼 '09.6.4.



▲ 부천시 지역 일자리 네트워크 포럼 '11.11.10.



▲ 차별개선네트워크 '부천시 지역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토론회' '11.12.6.



▲ 공공부문협의회 '생활임금 제도 도입 토론회' '13.6.17.



▲ 노동정책포럼 '노동정책 현황과 지역 노사민정 역할' '16.11.16.



▲ 고용HRD 네트워크 '지역고용 전문가 아카데미' '13.6.27.



▲ 노사민정 전문가 토론회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및 개선' '18.11.20.

4.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



▲ 중장년 실업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협정식 '08.4.



▲ '2030 프로젝트' 산학연계향상훈련 '06.9.~'07.10.



▲ 민관공동 일자리희망본부 '고용서비스 슈퍼비전' '09.11.27.

5. 노사공동훈련 사업



▲ 부천노사공동훈련지원센터 지원 협정식 '06.3.1.~09.12.31.



▲ 부천노사공동훈련지원센터 설립 개소식 '06.6.15.



▲ '기업 맞춤형 노사공동 훈련지원' 집체훈련 '06.6.15.~현재



▲ 부천지역 중소기업 교육훈련담당자 전문화 워크숍 '12.9.6.~현재(연1회)

6. 노동인권 보호 지원



▲ 노동인권 역사기행 '전태일 따라 걷기' '18.9.28.



▲ 고용차별없는 부천시 만들기 캠페인 '14.7.2.



▲ 근로조건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14.11.5.



▲ 기초고용질서준수 거리 캠페인 '17.6.12.



▲ 희망멘토링 캠프 '희망찾기 작은학교' '12.6.29.~'15.3.7.



▲ 차별개선네트워크 '고용차별없는 부천시 만들기 공동캠페인' '13.10.30.



▲ 부천청년고용촉진추진단(부천청년 기본조례 제정 검토) '17.7.4.~12.31.



▲ 기관 협업형 '찾아가는 노동인권보호학교' '16.11.29.~'18년 현재

7. 사회적책임실천 및 일·가·양·득·행·복·일·터·지·원·센·터



▲ 브랜드콜 '한타지아 콜' 도입 '14.1.1.



▲ 전국 최초 부천시 생활임금 제도 도입 '13.12.12.



▲ 일·가·양·득·행·복·일·터·지·원·센·터 '개소식' '15.10.1.



▲ 노사민정 사회적책임실천 '시민과 함께하는 플로깅 부천' '18.10.28.



▲ 제조업협의회 '지역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 워크숍' '15.5.21.



▲ 부천시사민정 '100인 사회공헌 릴레이' '18.12.12.



▲ 일·가·양·득·행·복·일·터·지·원·센·터 연합행사 '18.11.6.



▲ 노사민정 사회적책임실천 '시민과 함께하는 플로깅 부천' '18.10.28.

8. 공동실천선언



▲ 제5차 미래세대의 고용희망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사민정 공동실천 선언 '15.10.6.



▲ 제2차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04.4.6.



▲ 제3차 부천시지역노사민정 일자리창출 협약 체결 '10.9.28.



▲ '경제우선, 일자리먼저' 사회적 책임실천과 부천시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17.7.4.



▲ 지식산업단지 HRD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MOU)체결 '13.8.20.



▲ 일자리늘리기 업무협약(MOU) '13.10.4.



▲ 제4차 ISO26000 지속가능 발전 지역노사민정 사회적실천 협약 체결 '13.4.27.



▲ 고용취약계층노동인권 보호와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부천시노사민정 공동실천 선언 '18.8.22.

9.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협력활성화 우수사례 및 시상



▲ SBS 미래한국리포트 행복한 일자리거버넌스 우수 사례 '12.11.13.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대동령 표창 '09.12.11. '13~'14년 2회 연속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경진대회 '대상' 수상 '17.12.15.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상 '16.12.15.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상 '16.12.15.



▲ OECD(국제경제협력기구) 지역일자리창출 우수사례 보고, 발표 '14.10.15.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상 '18.12.26.

제2장 주요연혁 및 수상경력

1. 주요연혁

08.27	한국노총 부천지부, 노사경간담회 제인(37)	1998
10.13	부천시노사경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문회(38)	
11.15	제1~4차 추진준비위원회(39), 노사경위 조례 제정안 검토 (~12.18)	
12.26	〈구성 및 운영 조례〉심의/의결	
05.16	노사협의회 네트워크 사업(40)추진	2003
07.01	업종별 간담회 및 사업장 현장 실태조사(41)	
11.25	노사협의회 전체 워크숍(43)	

01.12	제5~6차 추진준비위원회
01.15	'부천시 노사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공포
01.22	민주노총 부천협의회 불참 선언
05.24	국회, '노사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5.31	부천시노사경위원회 공식발족 및 제1차 본회의(42)
09.14	제2차 본회의(44)

- 37) 한국노총 부천지부는 부천시, 부천시의회, 부천상공회의소에 각각 '부천시 노사경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회계(안)'를 송부하고 구체적 논의를 위한 노사경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였다.
- 38) 부천시의회 산업국복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수)는 노사경 관계자들을 초청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하여 부천시 노사경위원회 설치 및 조례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39) 11월 15일 지역노사경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1차 추진실무협의회는 부천시, 부천상공회의소, 노동부 부천지방법사무소, 한국노총 부천지부,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 등 지역 5주체 실무자가 참석하였으며 12월 18일 '부천시 노사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최종 검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논의를 계속했다.
- 40)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으로 '노사협의회 네트워크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관해 지역노사정협의회 차원에서 접근방법을 모색, 6월23일 제 9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조례 제정 및 단계별 지원방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 41) 업종별(전기전자, 화학플라스틱, 금형사출) 간담회 (9.19), 부천시 각 사업장 현장방문 및 노사협의회 실태조사 실시(7.1~8.14)
- 42) 부천시 노사화합지원 협의회는 폐지되었고 〈부천시 노사경위원회 출범 공동선언문〉에서 부천시 노사경위원회 공동협약 총18개항을 채택하였다.
- 43) 사회적 대화와 노사경위원회의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방안 등 노사정간 화합도모 및 발전방안 모색
- 44) 〈부담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오정동, 대장동 생신복지의 공업지역화 대정부 건의 의결, 공공근로사업 중 '중소기업기동사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단 구성, 부천시 청소사업체계 개편 권고 확정, 부천시 노사경위원회 명칭 '부천시노사정협의회'로 변경 등을 다루었다.

04.06 '일자리 만들기 부천지역 노사정 사회협약' ⁴⁵⁾	2004	
04.08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부천지역 발전모델 구축사업 ⁴⁶⁾	2005	04.04 택시업종협의회 구성 추진 ⁴⁷⁾ 09.02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역할 제고방안 연구사업 ⁴⁸⁾ 12.21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 추진 의결 ⁵⁰⁾
02.07 제1차 고용사업추진기획단 회의 ⁴⁹⁾	2006	
07.04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 지원 협약 ⁵¹⁾		09.04 공공부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합의
	2007	
03.31 노사공동훈련사업 지원협정 ⁵²⁾	2008	
07.09 일자리희망본부 개소식 ⁵³⁾		
12.01 「10년사」 발간 추진 ⁵⁵⁾	2009	03.24 제조업종협의회 설립 논의 ⁵⁴⁾ 08.03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차 개정 ⁵⁶⁾ 12.30 부천시 직업훈련정보망 구축, 운영 ⁵⁷⁾

45) 제11차 본회의 개최, <일자리만들기 부천지역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

46) 노사협력지원 프로그램 지원 협정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천지역 발전모델 구축 사업'(한국노동교육원)

47) 택시업종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업주 간담회 추진 및 부천택시업종협의회 발족 (~7.27)

48) 제21차 실무협의회에서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지역자원의 공동 대응 및 '중장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역할 제고방안' 연구사업 추진(~12.14)을 진행하기로 함.

49)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기획단 구성 의결로 제1차~제7차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기획단을 운영 4.18까지 제7차에 걸쳐 운영

50) 제15차 본회의에서는 한국노동 부천시부가 제안한 '지역파트너십에 기초한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기획 및 추진을 의결함

51) '부천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신청(3.7) - 부천직업 노사공동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5/12)-부천노사공동직업훈련지원센터 개소(5.15) - 경인지방노동청과 고용사업 지원협약 체결 (7.4)

52) 부천직업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는 노사발전재단과 노사공동훈련사업 지원협정을 체결하고 2008년 사업 개시

53) 지역 노사경관계자 및 고용취업알선 관계자 70여 명이 참가

54) 산업집적단지(테크노파크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종협의회 설립 논의(3.24) 및 기업발전협의회 창립 총회 (11.17)

55)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 10년사 발간위원회 구성, 발간작업 개시(2009.1 발간)

56) 주요 목적과 기능에 있어 노사협력 증진만이 아니라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 추진 운영조례 개정

57) 부천지역고용서비스관련기관 실태조사 및 부천시 직업훈련 정보망(www.bchrd.info)구축, 운영

05.19 부천운수, 택시업종협의회 가입 ⁵⁸⁾	2010	
07.30 지역일자리공시제 논의 ⁵⁹⁾		
09.27 HRD네트워크 구성 ⁶⁰⁾	2011	03.14 사무국 설치/운영 ⁶¹⁾
03.01 '부천시생활임금조례' 논의	2012	
11.13 SBS 미래한국리포트 행복한 일자리 지역거버넌스 우수사례 소개		
12.27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관련 심의 의결 ⁶³⁾	2013	04.27 제4차 협약 체결 ⁶²⁾ 04.27 제1~3차 협약 이행점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08.20 부천지식산업단지 교육문화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협약 ⁶⁴⁾ 08.26 부천노사민정 100인 토론 워크숍 ⁶⁵⁾ 10.04 부천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창출 협약 11.12 부천택시 브랜드를 도입 합의 ⁶⁶⁾ 12.12 생활임금조례 제정 ⁶⁷⁾ 12.31 OECD 지역거버넌스 우수사례 비교 분석 보고 완료 ⁶⁸⁾

58) 택시업종협의회는 만주노동 소속 사업장인 부천운수의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 합의, 타결

59)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합동추진단 회의: 당면현안(고용정책) 사항 협의, 「지역일자리공시제」 시행관련 추진방향 논의

60) 대학 및 비영리 직업능력개발기관 자발적 협력네트워크 10개소 「HRD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1)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집행기구로서 전담 사무국, 부천시 내 설치 및 운영 개시

62)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4차 사회협약 체결. 부천시 승격 40주년 맞아, 3차 협약까지의 이행점검을 중심으로 핵심주제 노동분야 '고용, 노사, 교육훈련, 사회적 대화 분야' 등 주요 4대 핵심의제의 이행촉구 결의. ISO 26000 핵심주제 실천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실천 협약」을 체결함

63) 제35차 본회의 개최.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제정관련 적용범위 및 생활임금액 등 의결 (최저임금 5.8%, 5,180원 / 의원 발의로 추진)

64) 부천시 : 매산지원, 상용테크노파크단지 : 교육실(2) 및 문화커뮤니티 공간 무상임대,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 운영,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 협력지원 및 심의 의결

65) '노동-고용 우선적과제 선정을 위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100인 토론 워크숍

66) 택시업종 종사자의 임금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으로 일자리창출 효과성 제고와 시민의 안전과 관련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노사경관의 합의 하에 2014년도 정책반영하기로 합의(2014년도 부천시 브랜드를 무료 '판타지아폴' 도입, 운영

67) 전국 최초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의한 생활임금조례 제정 (2014년도 부천시 및 부천시 출연출자기관 소속 근로자 468명 적용, 2015년도 부천시 생활임금 최저임금의 8.5%, 6,050~6,500원 확정)

68) OECD(국제경제협력기구) 지역거버넌스 우수사례 (2014년 사례보고서 발간 및 부산국제컨퍼런스 추진됨)

04.01 생활임금 적용 시행 ⁶⁹⁾	2014
08.19 지역 경계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부천시·노사민정 공동 실천선언 ⁷⁰⁾	
09.15 2015년도 생활임금 고지 ⁷¹⁾	2015
12.22 대통령상 표창 ⁷⁴⁾	
12.31 5개년 사업백서 발간 ⁷⁵⁾	
01.01 행복일터지원센터 운영 ⁷¹⁾	
02.01 아파트경비 근로환경개선 사업 ⁷³⁾	
03.24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⁷⁶⁾	
10.06 미래세대 고용희망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 실천선언 ⁷⁷⁾	

69) 부천시 및 출연출자기관 근로자 407명 생활임금 적용시행, 생활임금 5,580원 적용, 격경구간 6구 간별 적용시행(5,860원까지 순차적용)

70) (요약) 취약계층의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자율적인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정착, 최저임금과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공청고용질서 확립 및 사회적 책임 실천, (이행계획) 부천시·노사민정 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를 공동이행점검단으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71) 2018년 12월 현재까지 부천 노사민정 협업지원사업 '행복일터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식산업단지 기업 및 근로자의 상시 지원시스템 운영,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민원 및 고충처리, 직업훈련 정보 제공과 생활법률 및 재무상담

72) 2015년도 생활임금 6,050원. 이는 2015년도 최저임금의 8.5% 인상으로 최고구간은 6,500원까지(6개 적정구간 설정) 적용됨. 적용기간은 2015.1.1~12.31까지임

73) 감시감독근로자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으로 실태조사 추진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근로환경개선금 지원(19개 상생단지 선정, 최대 250만원 지원)

74)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경진대회에서 2013년에 이어 2014년도 대통령상 표창, 주요 공적으로 전국 최초 노사민정 합의 부천시생활임금조례 제정 및 적용, 지역자원을 토대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지역 전문가와 자원기관 협업형 "취약근로자와 고용취약계층 종합지원시스템 기반 마련" 등 평가

75)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주요의제 및 실천사업 추진보고, 협의회 위원회의 지역거버넌스 인식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동-고용미래비전 2020'의 토대 작업 마련, 이를 통해 향후 2016~2020의 비전과 계획 수립 추진

76) 부천시 및 부천고용지원과 대학(서울신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한국폴리텍2대학, 유한대학교, 부천대학교)과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기관(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나눔지역자활센터, 소사지역자활센터, (주)커리어넷, (주)인덱스트트코리아)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정보 및 취업연계 등 성공적인 지역적 협력 및 협업 감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77) 청년일자리창출 업무협약(3월 24일) 이행 및 약속을 다짐하는 <미래세대 고용희망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부천 노사민정 공동 실천선언> 추진, 부천형 단배 일자리 추진과 청년 및 중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안전도시 구현을 선포

04.30 공정한 노동관행 정착과 안전한 일터 공동 실천 선언 ⁷⁸⁾	2016
05.31 부천시, 고용노동부 일자리공시제 ⁷⁹⁾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수상	
08.23 2017년도 부천시생활임금 심의 의결 ⁸⁰⁾	
09.30 택시업종종사자 감정노동 등 보호 업무협약 체결 ⁸¹⁾	
10.19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 일자리 지원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⁸²⁾	
12.15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최우수상 수상 ⁸³⁾	
07.04 경계우선 일자리먼저 공동실천선언 ⁸⁴⁾	2017
07.13 부천 노동정책 전문가 토론회 ⁸⁵⁾	

78) ILO 세계산업안전보건의 날(4월 28일)을 맞아 부천시·노사민정 제 주체는 '공정한 노동관행 정착과 안전한 일터, 행복한 지역을 위한 동반자'로서 공동 실천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이후 노동-고용 복지 분야별로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분야 우수기업 발굴, 노동 취약계층 인권보호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천과 정책 적극 발굴, 제언

79)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대책을 널리 알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제도로 부천시는 지역 특성과 공공 영역을 결합한 틈새 일자리 발굴, 전문력이 발굴 및 제각 지원, 일하는 어르신 위한 일자리 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80) 2017년 최저임금 대비 12.05% 인상(시급 7,250원, 월급여 1,515,250원)으로 2017년도 1.1~12.31까지 적용됨. 9.15 부천시청 고시 예정

81) <택시업종종사자의 감정노동근로 효과적 관리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안전 일터, 행복한 부천을 위하여 부천시청 외 택시업종노사대표 등 부천시·노사민정 21명 공동 체결(부천노사민정/법인택시 8개사/부천근로자건강센터/한국산업간호협회 등)

82) 2016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 일자리 지원사업 경진대회에서 노사공동훈련 프로젝트 '하이로드형 금형산업 인력양성사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향후 3년간 추가지원 받음

83) 지역 일자리공시제 경진대회 대상 수상과 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이어 2016 노동-고용부문 3관왕 달성

84) <경계우선 일자리먼저를 통한 고용안정과 노사의 사회적책임실천 확산 공동실천선언>, 공공혁신모범으로 민간으로의 고용노동 혁신의 견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민관노력 성과모델 마련 전력, 여의 실행으로 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분야별 일자리기획단(청년고용추진단, 노동인권보호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지 표명과 제도개선의 선제적 대응 실행

85) 고용노동부정책 및 과제 수립을 위한 지역 전문가 중심 토론회로 우선과제 10가지 선정, 향후 부천시 노동정책연구에 그 실행가능성과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 제시

	2017 08.23 2018년도 부천시생활임금 확정 ⁸⁶⁾ 08.29 부천시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우선 과제 선정 워크숍 ⁸⁷⁾ 09.06 서울 일자리국제포럼 사례 발표 ⁸⁸⁾ 12.19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경 진대회 대상 수상 ⁸⁹⁾
2018 07.03 일드림센터 사업 추진 ⁹⁰⁾ 08.22 2019년 부천시생활임금 확정 ⁹¹⁾ 08.22 2018 노사민정 공동실천선언 ⁹²⁾ 12.20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최우수상 수상 7~12월 협의회 기구 개편 논의 ⁹³⁾	

86) 시급 9,050원 확정, 민간위탁기관 근로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적용대상자는 1,100명에 이
 름, 국도비 지원 임금대상자 등은 하반기 법적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 결과 및 시행방안 모색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제외 업종 및 직무 종사자의 임금인상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 마련

87) 7.13. 제기된 10개의 제안 과제를 중심으로 1)취약계층(중장년, 청년) 일자리 확대 2)민간기업 지원
 과 취약계층 고용촉진 3)지역단위 노사 정경 및 이슈 공론화 4)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 역할, 권한과
 위상 강화 5) 공공혁신 주체로서의 부천시만의 민관협력 노력요구 등 제안

88) 서울 일자리 국제포럼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대화" 지역 사회적 대화를 통한 부천시 일자리 및 훈련
 사례 발표("노리치만 치열하게")

89) 우수사례로서 노사상생 일자리창출 '섹터 특화형 훈련지원센터'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 수상

90) 부천시형 일자리창출모델 "일자리 미스매치해소를 위한 일드림센터" 공간 확보 및 운영 예산 10억 확보
 (행안부 5억)

91) 2019년 부천시생활임금 확정 심의(생활임금 시급 10,030원~11,000원)

92) <고용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와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사회적 책무 강화 부
 천노사민정 공동 실천선언> 체결

93)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주년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고용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협의회 기구
 개편 긴급 논의, 12월 20일 제70차 실무협의회 보고, 조율 완료. 1)본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
 확대로 대표성과 다양화로 이행관계자 의견수렴 및 대안협의 강화 2)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부천시일
 자리위원회)로 실무협의회, 3개 특별위원회로 구성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사)부천지역노사발견협의회
 _사업실행기구/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일드림센터)] 3)하부협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 포괄성
 과 개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현안과 이슈, 협력외제 중심의 4개 분과위원회로 재구조화 [사회적책임
 실천위원회/산업고용환경개선위원회/노동인권추진위원회/노사장이슈포럼(중소상공인지원개선 중심)]

2. 수상경력

2009	12.10 전국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경진대회 '대통령상'
2010	12.10 전국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2011	8.30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우수상' ⁹⁴⁾
	12.23 전국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경진대회 '장관상'
2012	9.5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⁹⁵⁾
	6~12월 OECD 지역거버넌스 사례 비교분석,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례 보고
	11.13 SBS 미래한국리포트 '행복한 일자리 지역거버넌스' 지역 고용 거버넌스 우수사례 '희망부천' 방영
2013	12.20 전국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경진대회 '대통령상'
2014	10.15 고용노동부, OECD 지역 일자리창출 컨퍼런스 "효과적인 고용과 숙련전력 구축" 주제로 부산 국제컨퍼런스 개최, 발표
	12.22 전국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경진대회 '대통령상'
2016	10.19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일자리지원사업 경진대회 노사공동훈련 프로젝트 '하이로드형 금형산업 인력양성사업', 최우수상
	12.15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⁹⁶⁾
2017	9.6 서울 일자리국제포럼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대화" 지역 사회적 대화를 기 반으로 한 일자리거버넌스 '부천시' 사례 발표
	12.12 전국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섹터 특화형 일자리 창출 모델 '대상'
2018	12.26 전국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94) 지역 권력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창출사업 "하이로드형 권력산업 고용촉진지구" 시범사업

95)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부문 "문화 콘텐츠 인력양성사업 Social
 innovation Camp"

96) 5.31 지역 일자리공시제 경진대회 대상 수상과 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이어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6 노동-고용부문 3관왕 달성

제3장 근거 및 조례

1. 운영조례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08.03.】

(제정) 1999.01.15 조례 제1624호
(일부개정) 1999.12.01 조례 제1702호
(일부개정) 2009.08.03 조례 제2412호
(조례) 2010.11.08 조례 제2553호
(일부개정) 2015.08.03 조례 제296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노사협력증진,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하여 부천시의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합의의 도출과 그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0, 2009.08.03, 2015.08.03.]

제2조 기능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개정 2015.08.03.]

1. 지역경제 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
 5. 그밖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전문개정 2009.08.03]

제3조 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5.08.03.]

- ②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8.03.]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1.08, 2015.08.03.]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5.08.03.]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5.08.03.]
3.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고용노동업무담당국장 [개정 2015.08.03.]
4. 부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개정 2015.08.03.]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5.08.03.]
6.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 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협의회와 의제별 또는 업종별 파트너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08.03]

제3조의2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단체·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시 고용노동업무담당국장,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의 총괄한다. [개정 1999.12.01]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8.03.]

제5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9.12.01]
 -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1999.12.01, 2009.08.03]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개정 2015.08.03.]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08.03.]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9.12.01]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책임자 및 노사책임자를 회의에 출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6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1999.12.01, 2009.08.03]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1명, 부천시 대표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약간 명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08.03, 2010.11.08]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위원이 겸한다. [개정 1999.12.01.]

제7조 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및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01, 2009.08.03]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12.01.]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99.12.01, 2009.08.03]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1999.12.01, 2015.08.03.]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01, 2015.08.03.]

제10조의 2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8.03.]

제11조 성실이행의무

각 경계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1.]

제12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01]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03 조례 제2412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8 조례 제2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3 조례 제2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활임금조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시행 2015.12.30.]

(- 제정) 1913.12.12 조례 제2827호
(일부개정) 2015.12.03 조례 제3015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라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부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 "생활임금"이라 함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② "생활임금액"이라 함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최저임금"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 ④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 ⑤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부천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⑥ "외주화"라 함은 부천시의 사무 및 업무에 대하여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이 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거나, 타 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부천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국, 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 생활임금의 결정기준

- 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 생활임금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임금의 결정

- ① 부천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생활임금의 심의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하며, 시장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생활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협의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생활임금안에 따라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 ③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7조 적용시기

- ①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제8조 시장의 책무

- 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법인·단체 등이 외주화 계약 체결 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임금위원회

시장은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위하여 6인 이내의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1. 운영부서는 노사협력 업무 담당부서 또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으로 한다.
2. 신고대상은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신고로 한다.
4. 신고접수 처리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11조 불이익 처우 금지

시장은 조례에 의하여 생활임금과 관련된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공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감금, 징벌 등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부칙 (2013.12.12 조례 제2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생활임금은 2014년도 3월 31일까지 결정한다.
-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생활임금은 2014년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장 우수사례

1. 노사공동훈련사업 (2006~현재)

제조업 기반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부천시 경제구조는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에 따라 개발 규제에 묶이면서 높은 지가를 이유로 중대형 기업들이 이전이 시작되었다. 이 흐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대형 제조시설이 철수하고 중소·영세 기업이 밀집된 산업구조로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와 열악한 고용환경은 청년 취업미스매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⁹⁷⁾, 경력단절 중장년층의 경우 취업 의사가 있더라도 기술 부족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로 인한 인력난은 기업이 교육훈련에 관심을 갖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것은 다시 중소기업의 기술력 낙후 요소로 작용하여 결국 지역 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인적자원개발 기피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왔다.

한편 2005년 이전 인적자원개발은 주로 개별기업의 경영 영역에 속하여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기업의 인사 방침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근로자(노동조합)는 이 분야의 객체에 머물러 있었다. 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 등 정부의 기존 직업훈련지원방식의 대기업 핵심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상대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지원에는 제한이 있었다. 더욱이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기업 부적응 중도퇴직자 등 훈련취약계층은 여전히 직업능력개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기업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노사관계를 생산적으로 전환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양 당사자인 노사가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주도적으로 나서 '우수 인력 공급'과 '고용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새로운 노사협력의제를 모색하였던 부천 노사민정은 2004년 제2차 노사정협약 체결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를 선포, 2006년 중앙정부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지역노사공동훈련사업' 두 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노사민정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산·학연계행(청년) 「2030 프로젝트」, 취업취약계층(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4050 프로젝트」,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민관공동 일자리희망본부」와 노동시장의 주체인 노사공동 실행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기업 내 훈련위원 발굴·양성과 기업맞춤형 훈련지원을 목표로 하는 「부천노사공동훈련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97) 권순식, 2006, "부천지역 교육훈련에 대한 조사연구", 부천직업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

○ 사업추진 경과

발전단계	시기	추진내용
노사협력사업 준비단계	2003년 ~2005년	· 2002년 이후 무분규지역으로 노사정협력의제를 모색하게 됨 · 제2차 노사정 공동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노사정 협력의제를 노사 협력에서 지역 일자리 의제로 확대, 선포함 ※ 2004년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사회협약 체결, 일자리 만들기와 지 역발전을 위한 부천지역 노사정협약 체결
	2005년 7월~12월	· 노사 실무협의회 추진, 공동훈련사업 기획 · 부천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 컨소시엄 체결(부천직업 훈련사업 노사공동위원회 결성)
노사주도 실행사업 시범사업 단계	2006년~ 2010년	· 2006. 5.15 '부천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 개소 · 노사공동훈련시범사업(2006년~2008년) 3년 형, 노동부 지원 · 노사공동훈련 본사업(2009년~2010년) 2년 진행, 노동부 지원 · 노사공동수요자능력개발사업(2011년~2012년) 부천시 지원 ※ 2007년 부천지역 중소기업 인력 수요조사 연구 ※ 2008년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출범 ※ 2009년 부천고용서비스 관련 기관 현황 및 실태조사 연구 ※ 2009년 노사민정협의회 제3차 사회협약 체결, 고용 및 인적자원개 발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규정
노사협력사업 발전단계	2011년~ 2014년	· 노사공동수요자능력개발사업(부천시 지원) 진행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고용노동부/부천시 지원), 하이로드 형 산업(금형) 고용촉진시범사업 CAD/CAM기술인력양성사업 진행 ※ 2013년 4월 노사민정협의회 제4차 사회 협약 체결 노사의 '고용', '노사협력', '교육훈련', '사회적 대화' 4대 사회적 책 임 실천 협약 · 2013년 사단법인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출범
노사협력사업 안정화단계	2015년~ 2018년	· 노사공동수요자능력개발사업(부천시 지원) 진행 · 지식산업단지 문화훈련복합 시설-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HRD지 원센터 사업 진행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고용노동부/부천시 지원), (1) 전략 산업(금형) CAD/CAM기술인력양성사업 (2) 4in1 융합회계사무인력 양성사업 추진 · 일자리 매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드림센터' 운영기반 조성 ※ 2014년 부천지역 기업인력수급 계획 및 훈련수요조사 연구 ※ 2016년 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 최우수상 수상,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14~'18년 4년 연속 5등급 평 가) ※ 2017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경전대회(노사상생 섹터특화형 일자리 창출 모델) 대통령상 수상

○ 지원근거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컨설팅에 관한 사항,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부천시 노사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장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 협력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제3차 노사정협약 체결과 이행

2009년 8월 30일 지역노사정 공동협약 체결과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주요 목적과 기
능에 있어 노사협력 증진만이 아니라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 으로 규정, 9월 30일
제23차 본협의회는 부천노사공동훈련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합의·결,

○ 사업내용

의의

부천노사공동훈련사업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원 아래 '부천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
부천지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훈련수요조사·훈련실시·훈련평가의 선순환 인적자원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고용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부천지역 HRD정책 및 실행을
발전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이다.

목적

부천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가 기업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인적자원개발
과제를 지역차원에서 함께 풀어가기 위해 노사협력을 기초하여 설립한 직업훈련 지원기관
『부천노사공동직업훈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촉진, 고용촉진을
통한 노동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체계

■ 의결기구 : 부천노사공동운영위원회

구성기관	역할	비고
한국노동부천김포지부	· 사업의 대표기관으로 사업 수행의 주도적 역할 · 노동조합 내 근로자학습위원 양성사업 주도	구성 기관
부천상공회의소	· 사업의 협력기관으로 업종별 직무훈련 연계 · 기업 직무훈련항상 훈련으로 훈련코디네이터 발굴	구성 기관
부천고용센터, 부천시	· 본 사업의 행정적 지원 및 감독	협력 기관
한국폴리텍Ⅱ대학 인천인력개발원 부천교육지원센터	·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교육 장비 및 프로그램 협력 · 실직자 산업 맞춤형 교육 장비 및 프로그램 협력	협력 기관

역할 : 사업계획, 예산안 의결, 집행 협의, 집행결과 보고 및 평가

임원 : 대표이사 2명(노사 각 1인), 이사 8명, 감사 2명

정기회의 : 연 3회(2월, 6월, 11월) 그 외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 개최

구성 : 노사대표 동수, 관계 행정기관 및 학계전문가로 구성

■ 집행기구 : 부천노사공동직업훈련지원센터

부천노사공동직업훈련지원센터	센터장	실장	팀장
	1명	1명	1명

소재지 : 부천시 석천로 397, 303동 1층(부천테크노파크향유3차)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야간훈련 지원 시 22:30까지)

이용대상 : 부천시 소재 기업 및 근로자, 훈련 및 취업 애로제출 등

사업전략

■ 노동시장 당사자인 노사가 핵심 주체가 되어 지역 고용거버넌스를 이끌며 지역훈련,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 협업

■ 천노동, 고임금, 공적 이익을 극대화하여 상호 협력적으로 성장하는 'high road' 전략의 산업 문화적 측면 확대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 시범사업단계 (2006년~2010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노사공동훈련사업은 ① 훈련코디네이터 양성사업 ②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훈련지원사업, ③ 부천지역 고용·훈련정보망(www.bchrd.info) 운영의 세 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훈련코디네이터 양성은 '06년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 훈련코디네이터를 발굴하였고, '07년~'08년도에는 프로그램매니저(program manager)과정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07년도에는 훈련코디네이터가 주도하는 사내훈련이 실시되었고, '08년~'10년에는 현장 맞춤형 사내훈련이 내용적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둘째,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사업은 '06년도를 시작으로 부천지역 직업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무자동화, 3D제품모델링 등을 지원하였다.

셋째, '10년에는 부천지역 160여 개 훈련정보를 하나의 정보망으로 구축하여 훈련위약 제출의 고용을 촉진하였고, 지역 훈련 데이터 현황 파악의 기반을 다졌다.

2006년~2009년 사업추진 성과 (단위: 명)

분류/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589	1,585	1,377	1,708	1,908
훈련 취약계층 직업훈련사업		393	495	229	123	243
훈련 위원	HRD담당자발굴	176	384	157	145	171
	HRD담당자양성	20	24	15	25	19
	기업맞춤형훈련	-	682 (10개업체)	892 (11개업체)	1415 (20개업체)	1,475 (25개업체)
부천지역훈련정보망 (bchrd.info)		-	-	-	-	150개기관 (3,458데이터)

■ 본 사업 추진단계 (2011년~2015년)

훈련코디네이터는 '12년~'15년 사이에는 숙련과정을 통해 훈련코디네이터가 기업 강사로 활동하는 등 기업 교육담당자로서의 전문성을 높여 나갔고, '12년~'13년에는 품질관리, 원가절감 등 관리영역으로 현장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훈련분야를 확대하였다. '14년~'15년에는 부가가치세 실무, 정년 연장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실무 등 변화하는 제도와 정세에 맞춰 중소기업 담당자들의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15년에는 훈련정보망에 고용복지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훈련과 고용복지를 하나의

정보망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천의 고용-HRD기관들이 개별 기관에서 진행한 부천지역 연구자료DB를 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지역의 연구 성과가 활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1년부터는 지역 산업 취업 mismatch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구직자가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을 발굴하여 취업 취약계층을 훈련시켜 채용을 연계하는 고용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0년~2015년 사업추진 성과 (단위: 명)

분류/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953	1,452	1,635	1,503	1,609	1,540
훈련 위원						
HRD담당자 양성	20	21	22	21	21	21
기업 맞춤형 훈련	1753 (27개업체)	1431 (36개업체)	1575 (35개업체)	1482	1588	1519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수료29 취업14	수료41 취업31	수료31 취업22	수료37 취업22	수료37 취업32	수료33 취업30
특성화고 취업네비게이션	-	수료23 (115%)	-	-	-	-
부천지역 고용훈련정보망 (bchrd.info)	152개 기관 (2,357 데이터)	154개 기관 (2,501 데이터)	161개 기관 (2,459 데이터)	161개 기관 (2,019 데이터)	164개 기관 (1,924 데이터)	164개 기관 (1,836 데이터)

■ 제도약 단계 (2016년~2018년)

'16년부터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구인처 84개사 상시 관리, 지속적 발굴이 진행되고 있고, 금형, 기계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또한 '18년 「4in1 융합회계사무인력양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력단절여성, 사무직 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여 중소기업 채용을 연계하는 고용서비스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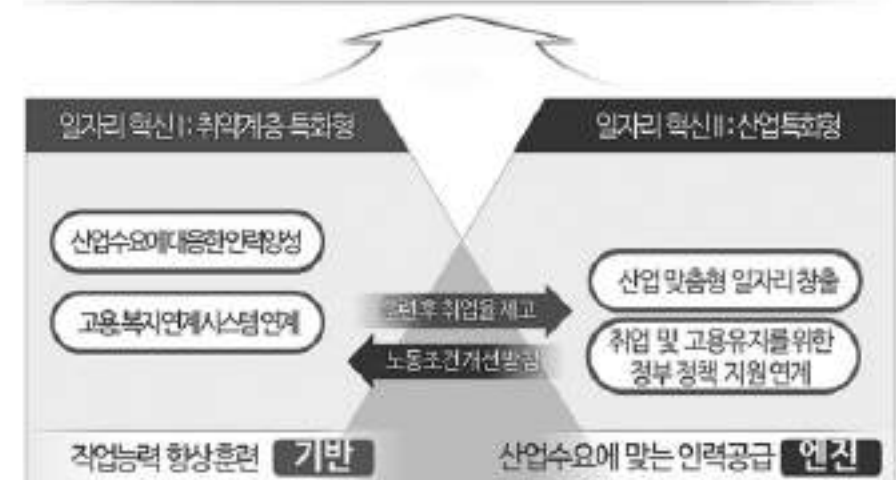
2016년~2018년 사업추진 성과 (단위: 명)

분류	2016	2017	2018
합 계	1,602	1,542	1,797
훈련코디 네이터			
HRD담당자 양성과정	21	21	24
기업맞춤형 훈련지원	1,519	1,521	1,526
합리적 갈등관리 사업			
교육	36	95	95
네트워크	40	61	83
부천지역고용훈련정보망 (bchrd.info)	164개 기관 2,044개 데이터	162개 기관 1,125개 데이터	169개 기관 1,775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33수료 30취업	34수료 31취업	69수료 55취업

하이로드형 전략산업 고용촉진사업 '13년~'18년 6년 연속 S등급 평가
4in1 융합회계사무인력양성사업 '18년 S등급 평가

○ 발전방향

부천지역 섹터 특화형 일자리 모델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과 산업을 잇는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 '18년~'22년(5개년 계획)으로 지역 거점별 특화사업 운영으로 대상별, 산업별 특화된 일자리 서비스 구현
- 취업 취약계층이 일 할 수 있는 훈련기회 보장
- 우수 구인처 발굴 및 상시 관리를 통해 노사중심의 지역 고용거버넌스 실현

2. 지역고용자산맵 구축 _ 부천훈련정보망 (2009~현재)

○ 사업 경과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훈련정보망은 고용노동부 승인과정만을 홍보하고 있어, 부천시역 비영리기관, 고용노동부 승인 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다양한 고용 및 훈련기관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 수료자에 대한 채용 연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바, 공동된 문제를 협업의 자세로 풀어보고자 부천시역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유관기관 사업현황 조사가 시행되었다.

시기	주요내용	세부내용
2009년	직업훈련기관 현황조사	· 주소, 고용인원, 훈련과정, 연간 수료생 등 일반현황 · 운영의 어려움, 개선을 위한 노력 · 공동 홍보망의 필요 여부, 공동의 노력 필요성 등
2013년	고용 및 직업훈련기관 현황조사	· 주소, 고용인원, 훈련과정, 연간 수료생 등 일반현황 · 운영의 어려움, 개선을 위한 노력 · 공동홍보망의 활용 정도, 공동 노력 필요성 등
2018년	고용 및 직업훈련기관 현황조사	· 주소, 고용인원, 훈련과정, 연간 수료생 등 일반현황 · 훈련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심층상담 · 공동홍보망 활동 정도, 공동 노력 필요성 ·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 등

→ 2010년 bchrd.info 훈련정보망 개설

○ 직업훈련 주요 정책 변화

시기별 직업능력개발정책 내용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시기	주요정책	세부내용
1982년	직업훈련시설 공동화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 직업훈련시설을 종괄적으로 운영 ·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부여 등 직업훈련의 영역을 넓힘

시기	주요정책	세부내용
1990년대 초중반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직업훈련의 질적개선 추구	· 대학은 산학협력교육 강화 · 공공 직업훈련시설은 기능대학으로 개편, 이후 폴리텍대학 으로 변경 · 민간 훈련시설은 공동직업훈련원을 설립하여 이후 대한상 공회의소 인력개발원으로 변경
1990년대 말	지역중심, 현장맞춤형,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	· 지방자체단체, 지역교육청, 지역산업체, 직업교육훈련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 전개
2000년대 이후	민간과 개인 주도적 교육훈련으로 전환	· 사업주 지원 재직자 훈련과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직접 훈련비용 지급하는 '개인지원 방식 의 재직자 훈련' 신설
2011년 이후	내일배움카드제 도입	· 과거 훈련기관 위탁방식에서 실업자 스스로 훈련 상담을 통해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택하는 실업자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
2012년	자격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NCS를 통한 교육훈련	· NCS를 통해 교육훈련, 자격, 직무를 연결하는 기초를 마련
2013년 이후	NCS체계화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전면적으로 NCS를 도입

※ 자료: 조세형·배을규·박준석·라세원, 2014

부천고용·훈련정보망(bchrd.info)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정보통신, 음식서비스, 사무관리와 관련한 훈련과정이 전체 54.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훈련분야별 훈련기관 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훈련분야별 훈련과정 비중을 분석해본 결과 이미용, 사무관리, 음식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기계설계, 공예조경 분야의 비중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기관 및 사업현황

부천의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유관기관 조사기관 71개 중 유료 민간학원이 57.7%(41개소), 공공기관 22.5%(16개소), 직업전문학교 11.3%(8개소) 순으로 유료 민간학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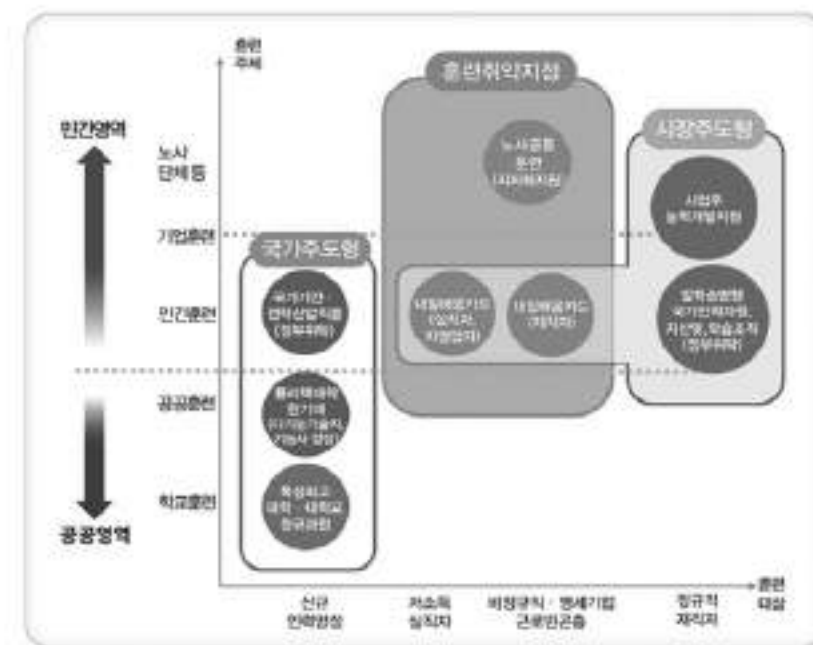
2009년 실시된 조사사업된 훈련기관 164개 기관 중 43개 기관이 휴·폐업되었으며, 6개 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남은 기관이 11개소로 나타났다(휴·폐업된 43개 기관 중 42개소가 유료 민간학원이며 1개소가 기업·사업주단체 훈련기관).

부천시 지역 취업지원 알선사업의 경우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구직자 및 창업희망자,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사업의 경우 유료 민간학원에서 직업훈련 주요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유료 민간학원에 비해 종사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는 비영리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유료 민간학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훈련공급 미스매칭 기초 데이터 분석

2009년~2018년 동안 축적된 지역 훈련공급 현황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미용, 음식서비스 등 의 훈련은 과잉 공급되고 있고, 인력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전기전자 관련직, 기계 관련직)는 훈련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훈련기관의 입장에서 (1) 내일배움카드제는 수익성 추구로 모집이 용이한 과정 중심의 운영, 지역산업과 분리, 공급 과잉. (2) 국가주도형은 기술훈련에 편중, 훈련취약지점과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3) 사업주주도형은 기업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용, 음식서비스 등 훈련 공급과잉, 인력수요 부분에는 훈련 공급부족.(기계, 부품, 금형, 전기전자, 생산 단순직, 경비 및 청소직), 훈련 추가 수요인원은 기계관련 직 약 1,826명, 전기전자 1,494명.

인력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전기전자 관련직, 기계 관련직)의 희망 직능 수준(기능사, 고졸 수준이 44%, 학력 무관 20%)(출처:2016년 부천상공회의소 조사보고서)

○ 지역 고용·HRD 전달체계 개선의 디딤돌

부천고용훈련정보망은 전국 최초의 지역 단위 온라인 홍보망으로 지역 고용 및 훈련 기관이 겪고 있는 공통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로 운영되었다.

훈련정보망에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접속하고, 1,800여개의 훈련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서 정보 전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의지를 높이고, 고용복지 및 훈련의 기회를 보장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 효율적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고용훈련정보망 발전방향

- 훈련 수요자에 대한 적극적 채용연계전략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구인처 개발단을 운영하여 산업별, 직능별, 취업센터 전문성 강화 및 취업을 제고 모색
- 부천시 지역 직업능력개발 유관기관들의 공동의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일자리 시너지 확대 플랫폼' 필요
- 일자리의 미스매치 해소방안이 적극 고려되기 위해서는 단지 일자리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서 한 단계 진화한 '일학습 병행' 지속교육 연대 요구
- 산업 및 기업 인력수요에 적합한 훈련프로그램 공급 모색 필요
- 중장기적인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의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공유·집행·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3. 부천시생활임금 (2012~현재)

●●● 전국 최초 노사민정 주도 '생활임금조례' 제정

○ 추진배경

부천시의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중견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말미암아 공업의 급격한 축소를 경험한 바 있고 제조업체만 하더라도 50인 이하 사업장이 99%에 이를 정도로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인 탓에 저임금, 저숙련 중심의 노동이 압도적인 상황이었다.

사회적대화를 통해 지역의 고용과 훈련사업을 전개해 온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빈부격차 증가, 실질임금 하락,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고, 현재의 최저임금이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던 중 2011년부터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생활임금 캠페인을 주시하며 부천지역에 접목할 고민을 하게 되었다.

○ 부천시 생활임금의 목적

지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단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과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한다.⁹⁸⁾

○ 부천시 생활임금의 준비과정

'11.12.20	· 한국노총 부천지부의 제안으로 노사민정 본회의 안건 상정
'12. 4월	· '생활임금조례 추진위 구성' 실무협의회 의결
'12. 5월	· '생활임금조례 추진위 구성 및 사업추진' 본회의 의결
'12.07.11	· 1차 추진위, 생활임금의 목적과 지역차원에서의 의미 논의
'12.08.07	· 2차 추진위, 조례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범위 및 내용 검토

98) 관련근거 : 부천시생활임금지원조례[2013.12.12. 제정] 중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

'12.09.11	· 3차 추진위, 생활임금에 담아야 할 내용 논의 (외국사례 참조)
'12.10.16	· 4차 추진위, 현행법 내 제정 가능한 조례 논의 (법률검토 요구)
'12.11.13	· 5차 추진위, 생활임금 구체화 (지자체 예산지원범위 설정)
'12.11.27	· 6차 추진위, 부천시의회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 합의
'13.02.01	· 제7차 생활임금추진위원회 (부천시 및 소속근로자로 제한하는 생활임금 수정 안 마련)
'13.06.17	· 생활임금제도화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 개최 (법적 쟁점)
'13.10.25	· 부천시의회 생활임금조례 의결 (경기도 재의 요구)
'13.11.13	·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재의 (경기도 재의 요구 수용)
'13.12.12	· 부천시의회(강동구/안효식) 조례 재의결 (28명 중 24명 찬성)
'14.01.20	· 경기도 재소 포기
'14.02.18	·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등 의결
'14.04.01	· 전국 최초 노사민정 합의로 '생활임금조례' 제정 및 시행

○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연도별 사례

연도	구분	사업
2014	적용	· 생활임금 적용 (2014.4.1)
2015	홍보	·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매뉴얼 제작 배포 · 부천시 생활임금 계산기 제작 ·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대시민 홍보 캠페인
	토론회	· 생활임금적용대상자 간담회
2016	홍보	·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대시민 홍보 캠페인
2017	홍보	·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대시민 홍보 캠페인
2018	확대	· 적용대상기관, 담당자 생활임금교육 (2회차) · 민간위탁기관 근로자까지 전면 확대

○ 생활임금 시행 절차

■ 차년도 생활임금은 매년 9월 15일 시장이 고시, 본예산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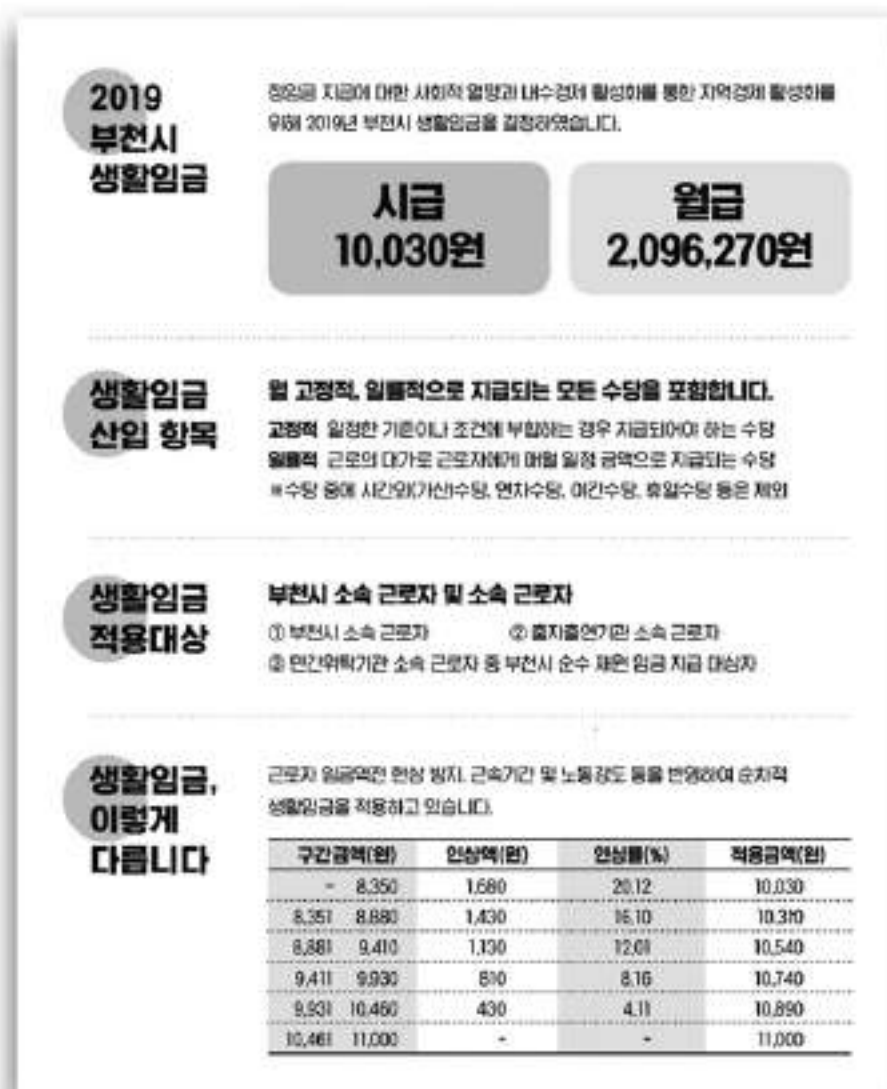
○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생활임금 위원회 (6인)	노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1
	사	부천상공회의소	1
	공공부문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 1인	1
	민	전문 노무사 / 변호사	2
	정	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1
	실무지원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1
	자문	생활임금 전문 연구자	1

○ 생활임금 결정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활임금	5,580원	6,050원	6,600원	7,250원	9,050원
최저임금	5,210원	5,580원	6,030원	6,470원	7,530원
인상률	-	8.4%	9.1%	9.8%	24.8%
적용인원	406명	481명	533명	492명	665명
총소요예산	1.73억원	4.57억원	4.46억원	8.29억원	15.9억원

○ 2019년 생활임금 적용



○ 부천시 생활임금제도의 성과

생활임금의 도입은 지역의 노사관계 및 복지문제, 지역의 사회경제적 이슈들로 확대되고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왜곡된 시장작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축소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목표를 연계시킴으로써 사회정책수단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⁹⁹⁾

아울러 지자체가 입장서서 저임금노동자, 특히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최소한 고용관계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써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의 규범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생활임금의 실시는 저임금에 의존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저비용 경쟁을 억제하는 순효과가 있고 지역 저소득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수준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생활임금제도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재정지민주연합의 민생공약 1호로 채택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지방자치제 및 지역 사회적 대화의 큰 성과로 자리매김 하였다.¹⁰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천시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이라 부르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과 협소한 대상자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으며 향후 대상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역 노사민정 간 갈등 가능성, 공공부문 일부에만 적용되는 협소함 등의 한계가 명확하다.

○ 부천시 생활임금 추진과제

-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 생활임금조례 개정
- 생활임금제도의 중간평가를 통해 경제적인 효과와 영향력과 아울러 비경제적(사회적)인 효과와 영향력에 대해서도 조사, “부천시형 생활임금” 설계
- 생활임금제도와 지역화폐의 연계를 통해 노동자/자영업자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득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
- 대시민 홍보 강화 및 노동친화기업 MOU를 체결하여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부천시민 홍보 강화와 관내 공익성 기업/기관들(병원, 대학교 등)과의 MOU 체결로 자발적인 생활임금 지지 확산
- 적정수준의 임금이 무엇인가를 뛰어넘어, 적정수준의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에 개입, 참여하여 노사정 경제주체의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함.

99) 미국의 생활임금운동을 살펴보면 저임금경쟁을 막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 복리후생, 고용안정 보장 등 노동기본권여다가 공공서비스 확충 등으로 의제를 확대.

100) 2017년 7월 기준 국내 생활임금은 102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 9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4곳은 생활임금 조례 시행이 유예된 곳이 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결합, 김종진, 2018>

4. 노동인권보호지원 (2012~현재)

○ 추진배경

소비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노동의 문제는 개인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인간은 노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사회에서의 국민의 대다수가 임금노동자화하기 때문에 노동의 문제는 범국민적인 문제로 개별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은 국민전체의 소득분배 및 복지후생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노동현장에서의 민주적 질서는 국민 전체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근로조건에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특히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부천시 15세~19세 청(소)년 인구는 17.3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가장 취약한 아르바이트 중심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의 권리와 보호는 거의 부재한 가운데 몇몇 개별기관의 노동상담 정도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2011년 청소년의 최소한의 노동교육 지원 및 보호상담, 정체성 회복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차별개선네트워크 참여기관들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2011~12년은 계층별 노동인권실태 파악 및 개선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13~14년에 '부천실고(당시 일하는 청소년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체험과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자존감 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희망멘토링 희망찾기 작은학교" 활동하면서 문화와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청소년층의 아르바이트 욕구 상승과 취업,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그들의 노동권 보호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 기관 공동 협력의제로 채택하면서 차별개선네트워크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부천시 관내 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지원을 결의했다.

2015년 부천노사민정은 제5차 '사회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부천노사민정 공동실천선언'을 통하여 의제를 확장하고, 2016년부터는 기관 협업¹⁰¹⁾으로 부천시 관내 고등학교 노동인권보호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101)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내 '차별개선네트워크' 참여기관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천시장애인복지회관 등을 중심으로 협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교육지원을 하였음.

○ 목적

청소년의 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나쁜 일자리와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의 노동현장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고학력화, 일자리미스매치 등의 문제와 함께 근로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에서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과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알권리의 보장,

즉 상시적인 노동교육과 노동권리구제 및 보호를 통한 근로자로서의 보호받을 권리 회복, 나아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국가의 미래희망 역량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큰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노동인권 보호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절차

■ 추진체계

구 성		소 속	구 성 인 원
차별개선 네트워크	노	한국노총부천김포지역지부 부천노동상담소	1
		부천여성노동자회	1
	면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1
		부천시니어클럽	1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1
		노사발전재단 경인사무소	1(2)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1
	공익	부천공인노무사회	1
		더월공인법인대표노무사	1
		부천연대 청년위원회	1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정	부천시	1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1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1(2)

■ 추진절차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평가 → 사업 확대 논의 등



○ 추진내용

구분	년도	일자	주요내용
차별개선 네트워크	2012	05/16	· 2012년 사업계획 및 공동사업논의 등
		12/11	· 2012년도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등
	2013	01/16	· 운영 및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03/13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공동사업 논의
		04/16	· 캠페인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2014	04/29	· 2014년도 차별개선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06/18	· 2014년도 주요사업 일정 등 협의
		09/04	· 공정임금 준수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10/07	· 부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토론회
	2015	04/09	· 2015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07/07	· 2016년도 공공의제 및 실천 사업 아이템 공유
		10/22	· 2016년도 노동인권 보호 프로젝트
		11/25	· 2015년 부천시사민정 합동 정책 세미나
	2016	04/29	· 2016년도 노동인권 보호 교육

102)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한국노총 부천 김포지부 부천노동상담소

구분	년도	일자	주요내용
희망 멘토링 캠프		06/23	· 2016년 하반기 기관 협업형 "노동인권보호 학교"
		07/20	· 지역 현안 이슈별 대시민 홍보 캠페인
		10/26	· 2016년 하반기 기관 협업형 "노동인권보호 학교"
	2017	05/25	· 2017년도 노동이슈 홍보 캠페인
		10/18	· 2017 노동이슈 홍보 캠페인
		12/06	· 2018년 핵심의제 선정·협의
	2018	06/18	· 2018년 사업계획 및 주요 현안 논의
		09/17	· 의제 중심 협의회 운영 관련 논의 구체화
		12/20	· 고용차별개선네트워크 운영 개선 방안
	2013	07/04 ~ 07/15	· 문화체험 등을 통해 지역사회 진입을 촉진
		03/07 ~ 05/02	·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캐리커처 그리기
	2014	08/29 ~ 12/05	·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난타)
	2015	06/05 ~ 07/17	· 문화를 통한 통합교육(손그림)
		07/15	·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 12개 학급(360명)별로 동시 진행 · 취약계층 지원기관간의 협업을 통한 지원
		09/11 ~ 12/04	· 부천실업고등학교 고3 재학생 20명 · 문화를 통한 통합교육(난타)주1회
		12/07 ~ 12/08	· 도당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 14개 학급(350명)별로 동시 진행
		12/16	· 상원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 10개 학급(300명)별로 동시 진행
		12/16	· 상원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노동인권 보호교육	2016	06/17	· 국가와 인권(부천실고 80명)
		08/30	· 영화로 보는 헌법속의 노동권(부천실고 3학년 20명)
		09/06	· 사례중심의 노동법(부천실고 3학년 20명)
		11/29 ~ 12/21	· 기관 협업형 찾아가는 노동인권학교(4개학교 시범운영)
		12/02	· 수능이후 노동인권 교육(59개학급*약26명)

구분	년도	일자	주요내용
	2017	12/16	
		12/01 ~ 12/20	· 기관 협업체 "노동인권교육지원" · 8개 학교 89학급, 약 2,670여명
		09/28	· 전태일길 따라 걸기, 모란공원 견학 등(부천실고 90명)
	2018	11/20	· 노동인권전문가토론회 ·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교육지원 개선(30명)
		11/16 ~ 12/17	· 기관 협업체 찾아가는 노동인권 · 9개교, 107개 학급 노동인권교육
		10/01 ~ 12/31	· 노동인권사례집 제작 · 청소년노동상담 사례 및 유형, 지원기관 정보제공 등

○ 평가 및 개선 과제

- 노동인권보호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도 수 년 내에 취업을 하여 노동시장에 편입하게 되거나 몇몇은 현재도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여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음.
-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교육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편입되고 있고, 이는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바람직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큼.
- 노동인권보호지원 사업은 청소년에게 노동인권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점차 노동시장에 편입되었을 때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고 더 나아가 주변 타인의 인권까지 옹호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매년 교육대상 학교를 새롭게 모집하여야 하며, 교육 대상의 범위와 규모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더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단위 주체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 참여 주체의 확장이 필요.
- 이에 '(가)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을 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상 근거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노동인권보호지원 활동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관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교육 대상의 범위 및 규모의 확대와 관련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등과 MOU 체결하여 관내 학교에 대한 홍보 및 이를 통한 대상 확보의 방안을 고려.

5. 브랜드콜 '환타지아 콜' 도입 (2012~2014)

○ 추진배경

도입 전 부천시 관내 택시산업은 총량제 제한으로 암묵적으로 1인1차제가 적용되고 있어 근로자는 상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다 지역적인 특성으로 타시도 불법영업 택시운전의 상시화로 그나마 임금수준이 더욱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더욱이 법인 및 개인택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콜센터 난립은 시민의 혼란 가중 및 작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었다.

택시산업의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내 택시업종협의회(8개 업체 노사대표 참석)는 근로자의 임금인상 효과와 시민의 편의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여 부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2012년 브랜드콜 도입제도에 관한 정책을 제안, 이후 지속적인 노사협의체 추진하였다. 이후 부천시 법인택시 콜추진위원회를 통해 콜시스템 도입에 따른 노사의 역할과 책무, 콜시스템 운영과 위탁문제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2014년 1월 22일 부천브랜드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간의 정책 합의 및 협약을 체결하고 동년 4월 부터 브랜드콜 제도가 적용되었으며 그 명칭은 '환타지아콜'로 결정 운영하게 되었다.

환타지아 콜 도입으로 법인택시 사업자 및 근로자의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 택시 영업에서 대기 영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연료비, 지출 절감을 통해 수입을 증대하고 공차율을 최소화하여 실차율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도 법인택시 운송기사의 수입 증대를 꾀함으로써 1년 이내 이직율이 70%가 넘는 운송기사 고용안정 효과를 꾀하였다.

그러나 카카오톡 무료콜 앱 도입 등으로 지역콜의 운영상의 적자 발생, 운영 근로자 및 시민의 활용도 저하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으며, 특히 2018년 택시운수 산업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임금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2018년 택시업종협의회는 총량제 도입 및 완전월급제 시행 등에 따른 지역노사의 대응, 협력의제를 새로이 하고 노사정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및 중장기적 택시업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목표로 재정비하고 있다.

○ 목적

지역 콜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임으로서 종사자의 임금인상 효과와 안정적인 처우개선 도모하고자 콜택시 이용객들의 부담 경감 및 콜비로 인한 분쟁소지 방지, 시민 편의 서비스 향상 및 안심귀가 등 안전도시 구현으로 잠재수요 확대, 고용-복지 실현

○ 추진절차

■ 추진체계

구분	소속	구성원
택시업종협의회	노	달성운수노동조합 1
		동산운수노동조합 1
		부천운수노동조합 1
		삼신교통노동조합 1
		신일교통노동조합 1
		통일운수노동조합 1
		조인산업노동조합 1
		동창산업노동조합 1
	사	달성운수 1
		동산운수 1
		부천운수 1
		삼신교통 1
		신일교통 1
		통일운수 1
		조인산업 1
		동창산업 1
	정	부천시(대중교통과) 1
		부천시(일자리경제과) 1
		고용노동부 부천시청 1

■ 추진절차

2012년 성남벤처마킹 및 지역 브랜드 도입에 따른 쟁점별 토론회 → 2013년 선진지 견학 및 사업 성공 계안을 위한 포럼 → 2014.01.22 부천브랜드를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체결 → 판타지아몰 도입 시행 → 2014.05.16. 부천시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2014.08.03. 부천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제정

■ 추진내용

구분	년도	일자	주요내용
택시업종협의회	2011	3.22.	◦ 2011년도 협의회 추진사업계획 건(선진지 견학(3.28), 노사화합체육대회(10월중))
		9.5.	◦ 선진지 견학결과보고 및 부천체육대회 건 ◦ 지체부담액은 노사양측 자체회의에서 결정, 일정은 3차 회의시 확정함
		11.16.	◦ 한마음체육대회 결과보고 및 2012년도 추진사업 계획 관련 건(지역 콜시스템 도입 업체 설명회)
	2012	1.10.	◦ 선진사례 벤치마킹 계획 및 논의
		3.26.	◦ '12년도 택시업종협의회 추진사업 노사정 이슈포럼 및 워크숍 추진 ◦ 택시업종선진사례견학 ◦ 노사정이슈포럼 (브랜드 콜택시사업 논의)
		6.28.	◦ 노사정 이슈포럼 및 워크숍 추진(콜택시 브랜드 사업 설명회)
		11.5.	◦ 지역 법인 택시 콜시스템 도입 노사 협의
		12.27.	◦ 2013년도 사회적 책임 실천 우선적 과제 선정
	2013	4.15.	◦ 2012년도 사업결과보고 및 2013년도 주요사업 보고 ◦ 2013년도 제1차 선진교통문화캠페인 일정 협의
		9.30.	◦ 제3차 캠페인 일정 확정 및 '14년도 사업계획논의
		11.19.	◦ 브랜드콜도입 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등 협의
	2014	4.15.	◦ 2014년도 택시업종협의회 주요사업 ◦ 2014년도 캠페인 및 판타지아몰 홍보방안
		7.8.	◦ 부천 브랜드를 "판타지아몰" 활성화 방안 및 캠페인
		10.14.	◦ 부천 브랜드를 "판타지아몰" 활성화 방안 및 캠페인 ◦ 2015년도 부천택시업종 인력수급 해결방안 모색
		11.14.	◦ 2015 노사현안 택시업종 인력수급 해결방안
	2015	4.14.	◦ 2015 택시업종협의회 주요 추진사업
		9.8.	◦ 감정노동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토론회 ◦ 2016년도 택시업종협의회 주요사업 논의
		10.20.	◦ 택시업종 종사자 감정모니터링 결과 및 대책 포럼

구분	년도	일자	주요내용
		11.25.	◦ 택시업종 종사자 감정모니터링 결과 및 대책 포럼
		12.9.	◦ 2016년 택시업종협의회 주요사업 협의 ◦ 브랜드콜 운영 협의
모범택시 업체견학	2011	3.28. ~ 3.29.	◦ 견학장소 : 속초 일원 (속초택시) ◦ 참석인원 : 16명 ◦ 모범택시업체 운영 현황 및 속초시 택시 시책 등 견학을 통한 생산적 노사문화 확산 및 노사화합
노사화합 부탁 체육대회		10.1.	◦ 장소 : 부천시민운동장 ◦ 부천시장 및 주요인사 참석, 택시업종 7개 업체 노사참여 700여 명 (한국노총/민주노총 전체 참여)
모범 택시 업체 견학		4월	◦ 모범택시업체 운영 현황 및 택시 시책 등 견학을 통한 생산적 노사문화 및 제도 검토 및 콜시스템 도입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노사자체부담으로 추진) ◦ 견학장소 : 해외(베트남) ◦ 참석인원 : 16명
노사화합 부탁 체육대회		6.5.	◦ 장소 : 부천종합운동장 ◦ 부천시장 및 주요인사 참석, 택시업종 7개 업체 노사참여 500여 명 (한국노총/민주노총 전체 참여)
제1차 이슈포럼 및 워크숍	2012	7월 19. ~ 20.	◦ 참여인원 : 22명 ◦ 장소 : 강화도 (해밀 펜션) ◦ 주요 내용 - 지역 콜시스템 도입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응답 - 노사정 포럼 : 지역 콜시스템 도입 등 택시업종 중장기 발전방안
제2차 이슈포럼 및 워크숍		10월 11. ~ 12.	◦ 참여인원 : 10명 ◦ 장소 : 성남, 양행 ◦ 내용 - 성남지역 브랜드콜 도입지역 벤치마킹 - 지역콜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정별 토론 - 지역콜시스템 추진일정 및 제안서 작성 역할분담 협의
선진 교통 문화 캠페인	2013	5.13.	◦ 참석인원: 총 28명 ◦ 장소: 부천북부/남부역 ◦ 내용: 출근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2013년도 택시업종 3대 과제 홍보
브랜드콜 도입 포럼		9.30.	◦ 참석인원: 총 24명 ◦ 장소: 송내북부/남부역 ◦ 내용: 퇴근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2013년도 택시업종 3

구분	년도	일자	주요내용
			대과제 홍보
		10.28.	◦ 참석인원: 총 20명 ◦ 장소: 부천북부/남부역 ◦ 내용: 출근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2013년도 택시업종 3대 과제 홍보
		11월 4. ~ 5월	◦ 참석인원: 총 19명 ◦ 장소: 화성콜센터·영종도 해송편선 ◦ 내용: 화성콜센터 견학 ⇨ 영종도 해송편선 포럼 ⇨ 노사 합동 추진위원회 협약식 개최
브랜드콜 도입		1.28	◦ 부천 브랜드콜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체결
		1.01	◦ 부천 브랜드콜 시행 '한타시아 콜' 운영
		5.16	◦ 부천시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8.03	◦ 부천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제정
브랜드콜 도입 캠페인	2014	2.18.	◦ 참석인원: 총 30명 ◦ 장소: 부천역(남·북부) 및 송내역(남·북부) ◦ 내용: 안전, 안심하게 귀가 및 이용 할 수 있는 "판타지아 콜택시" 1566-1444 전화번호를 전파
		5.9.	◦ 참석인원: 총 29명 ◦ 장소: 상동역 및 신중동역 ◦ 내용: 안전, 안심하게 귀가 및 이용 할 수 있는 "판타지아 콜택시" 1566-1444 전화번호를 전파
		10.27.	◦ 참석인원: 총 15명 ◦ 장소: 역곡 남부 및 북부 ◦ 내용: 안전, 안심하게 귀가 및 이용 할 수 있는 "판타지아 콜택시" 1566-1444 전화번호를 전파
감정 모니터링 연구조사	2015		◦ 택시업종 특수환경인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개선 모색 ◦ 방 법: 설문조사(직접)→결과분석→공유/대책 ◦ 내용: 감정노동 및 우울증 측정 작업환경 및 조건 등 조사, 대책 공유
대시민 홍보 캠페인	2016	9.6.	◦ 참석인원: 총 24명 ◦ 장소: 부천북부역(마루광장) ◦ 내용: 택시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안전안심 귀가 브랜드콜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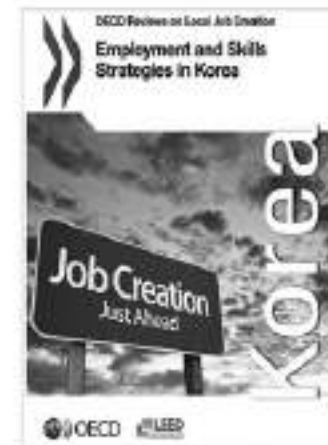
구분	년도	일자	주요내용
감정치유 사업 정책 간담회	2016	5.20.	◦ 택시업종 등 운수업 감정노동 실태 현황보고 ◦ 운수업 노동자 감정노동 프로그램 운영계획 협의
		6.13.	◦ 운수업 노동자 감정노동 프로그램 운영계획 (서포터즈 사업 중심)
		8.18.	◦ 캠페인 논의 및 감정노동 치유사업 업무협약 (MOU) 체결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2017	9월 25. ~ 26.	◦ 참석인원: 총 19명 ◦ 장소: 운수업종 근로복지시설 견학→ybm연수원 ◦ 내용: 택시업종 종사자 근로복지시설(유틸리티 등) 선진지 견학,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및 정책 토론

○ 평가 및 제언

- 부천은 인구 및 면적 대비 택시 대수가 많아 업체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었음.
- 이에 더하여 또한 지역적 특성으로 타시도 불법택시 운영으로 수입의 저하 등 운수 종사자의 지속적 감소로 휴차(休車, 1인1차제 엄목적 시행 등) 비율이 증가하여 종사자의 상시 사고위험에 노출과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브랜드 골은 골택시 서비스를 하나의 번호로 통합하여 부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택시노사가 자율적 운영시스템을 통해 그 효과성을 배가하였으며, 이용자와 기사 모두의 편의성 도모와 이용자의 접근을 유도하였음.
- 이를 통해 택시 운영을 배회에서 배차대기로 전환 불필요한 시간 및 연료의 소비를 줄이고 이용자의 편리 및 수요확대를 달성할 수 있었음.
- 특히 그간 한국노총 조합 중심에서 민주노총 조합의 가입을 이끌어내 부천시 전체 택시업체를 하나의 브랜드 골로 통합할 수 있었으며 브랜드 골 외 택시 관련 다른 논의에서도 논의 주체 및 대상의 확대를 이룰 수 있었음.
- 그러나 골택시가 점차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어플의 개발 등 플랫폼 서비스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 간의 지혜를 새로이 모아야 하는 시기로 판단됨.

6. OECD 지역거버넌스 사례보고 (2014)

Employment and Skills Strategies in Korea



OECD Reviews on Local Job Creation, OECD Publishing

OECD 지역 경제 및 고용 개발 (LEED) 프로그램은 양질의 고용을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노동시장 정책의 기여도를 조사하는 국제 교차 비교 연구를 개발, 진행하면서 한국에 관한 연구로서 부천 및 부산 지역의 지역 전략에 중점을 둔 고용 및 기술 정책에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보고서(2014) 내용 가운데 부천시 관련 내용을 발췌, 번역하였다.

목 차

- I. Policy context for employment and skills in Korea
 -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Korea's jobless recovery
 - Facing a new crisis: on-going challenges
 - Summary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 Korean Labour market policie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 Korea'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es
- II. Overview of the Korean case study areas
 - Bucheon
 - Busan
 - Comparison across the case study areas
 - The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at the sub-national level
- III. Local job creation dashboard findings in Korea
 - Theme1: Better aligning policy and programmes to local economic development
 - Theme2: Adding value through skills
 - Theme3: Targeting policy to local employment sectors and investing in quality jobs
 - Theme4: Being inclusive
- IV. Towards an action plan for jobs in Korea: Recommendations and best practices
 - Better aligning policies and programmes to local economic development
 - Adding value through skills
 - Targeting policy to local employment sectors and investing in quality jobs

[개관] 한국에 있어서 고용과 기술전략

머리말

OECD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비판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 최근의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심각한 결과를 낳았으며, 실업률 증가로 많은 분야에서 일자리가 손실되었다. 일부 국가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 입안자는 줄어든 공공부문 예산으로 더 많은 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용과 훈련 같은 영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동 시장 참여 지원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동시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용 및 기술 정책 맥락

이 장은 한국의 고용 및 기술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발전한 경제적 환경을 개관한다. 아시아 금융 위기는 이후 등장한 경제 및 노동 시장 정책 틀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요소였다. 특히 지역 고용위원회와 지역 노동조합, 노동당, 관료, 정부 및 지역 사회 대표단을 통해 보다 큰 지방 분권화와 광범위한 지역 인권 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노동 시장 정책은 한 지역 또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도전과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한국사례 연구 영역 개요

이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에 기여하는 지역 자원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두 영역, 곧 부천과 부산에서의 지역 활동을 조사했다. 두 지역 모두 고유한 고용 및 노동 시장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그들의 성장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장에서는 OECD LEED 통계 도구를 사용한 분석 결과와 함께 각 지역 노동 시장 및 경제 개요와 하위 국가 수준의 기술 공급과 수요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한국내 일자리 창출 대시보드 결과물

이 장에서는 한국 현지의 일자리 창출 대시보드에서 얻은 결과물을 집중 조명한다. 조사 결과는 4가지 주제 영역으로 논의된다. 첫째, 지역 고용 개발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조화. 둘째, 기술을 통한 부가 가치. 셋째, 지역 고용 부문에 정책을 집중시키고 양질의 일자리에의 투자. 넷째, 포용

한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권장 사항 및 모범 사례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자극하려면 고용, 훈련 및 경제 개발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통합된 행동이 필요하다. 조정된 지역 기반 정책은 근로자가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수요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교육 및 경제 개발 이해 관계자의 노력을 활용하는 유연한

정책 관리 프레임워크, 정보 및 결합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한국 내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을 검토하면서 제기된 핵심 권고안에 대해 설명한다.

[부분 발췌]

One way of promoting quality job cre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s for local areas to build on their comparative advantage by identifying and supporting existing strategic growth sectors and employers. Bucheon and Busan have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attracting firms through industrial clusters that exists in their regions, which are important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nd building new growth. Both region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tensify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round these clusters through 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industry and education institutions.

지역단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방법 하나는 기존의 전략적 성장 분야와 고용주를 확인하고 지원함으로써 비교 우위를 구축하는 것이다. 부천과 부산은 외국인 투자 유지와 새로운 성장 구축에 중요한 산업 집단을 통해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두 지역 모두 산학연대와 교육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 집단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reating more and better jobs requires that all potential members of the workforce are given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labour market. In Korea, women face a number of significant challenges to enter and stay in the labour market, which has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how to align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mes targeted at women at the local level, as well as supporting measures to create an effective work-life balance environment, in order to ensure that the barriers women confront in the labour market are removed.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모든 잠재적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한국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머무르는데 많은 심각한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친다. 정부는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맞닥뜨리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의 환경조성을 위한 수단들과 함께 지역적 차원에서도 여성을 타겟으로 하여 고용과 훈련 프로그램을 조율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The approach for Korea This study has looked at the range of institutions and bodies involved in workforce and skills development in Korea. In-depth field work focused on two case study regions : Busan and Bucheo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wide set of stakeholders. An electronic questionnaire was sent to local managers within

public employment service offices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questionnaire ascertained how public employment services are aligned with trai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organization in job creation activities. In November 2012, two local roundtables were held in each of the case study areas and a national roundtable was held to discuss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hese meetings brought together a range of national and local stakeholders, including relevant department officials in the fields of employ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training ; employers; and other local community and social development organizations.

이 연구는 한국에 있어 노동자 관련 기관과 단체 그리고 기술 발전이라는 범주에 주목했다. 현장 심층 연구로 부산과 부천, 두 지역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면담이 이루어졌다. 지역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고용서비스 담당자에게 전자 설문지를 전송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일자리 창출 활동에 있어 공공 고용 서비스 영역이 훈련 및 경제 개발 조직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보여주었다. 2012년 11월, 각 사례 연구 영역에서 2개의 지역별토론회가 열렸고,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토론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고용, 경제 개발 및 훈련 분야 공무원들, 고용주들, 그리고 여러 지역 커뮤니티, 사회단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이해당사자들을 불러모았다.

To better understand the role of the local level in contributing to job creation and productivity, this review examined local activities in two areas in Korea: 1) Bucheon ; and 2) Busan. Both areas face unique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challenges, which affect their growth and competitiveness. This chapter provides a labour market and economic overview of each region as well as the results from an OECD LEED statistical tool which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skills supply and demand at the sub-national level.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에 기여하는 지역 수준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한국의 두 지역, 즉 1) 부천과 2) 부산의 지역 활동들을 조사했다. 두 지역 모두 그들의 성장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고용과 노동 시장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장은 하위 국가 차원에서 기술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규명하는 OECD LEED 통계 기법에 근거하여 노동시장과 경제에 대한 개관을 제공한다.

Overview This section of the report provides an overview of key trends in the two case study areas chosen for the present study, namely the cities of Busan and Bucheon, in order to help contextualize their labour marke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y provide a useful comparison due to the distinct settings in which they are located – Bucheon is close to Seoul and is part of the capital region, whilst Busan is in the south-east, industrial area of Korea. With 875,204 inhabitants,

some 1.7% of Korea's total population, Bucheon is a medium-sized city advantageously located between the two metropolitan cities of Seoul and Incheon, in the Gyeonggi-do province (TL3 region). As such, the city has grown as a manufacturing area benefiting from the developed infrastructure of the Seoul-Incheon beltway,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out-migration of many firms from the city's boundaries. This has resulted in clusters of small manufacturing firms.

이 보고 섹션은 노동 시장의 도전과 기회를 문맥화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과 부천이라는 도시를 선택했다. 이는 두 가지 사례 연구 영역의 주요 동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부천은 서울과 가깝고 수도권에 속한다. 반면 부산은 한국 남동쪽에 위치한 산업지역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약 1.7%인 875,204명이 살고 있다. 부천은 서울과 인천이라는 대도시 사이에 위치한 경기도의 중간 규모의 도시상업 지역이다. 또한 부천은 경인고속도로의 기반시설 덕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전해온 결과 군소 제조업체들이 집적하였다.

In 2010, the manufacturing sector represented the largest share of employment (26.6%) in Bucheon, while service related sectors, such as wholesale/retail trade (14.5%), hotels/restaurants (9.9%), and personal services (5.8%) were lower. A key feature of the city's labour market is the significant presence of SMEs. To accommodate these companies, Bucheon has a medium-term development plan, Vision Bucheon 2019, which aims to attract business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to the city by providing high quality industrial sites in the form of techno-parks with "factory apartments", as well as skills based on demand-l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0년, 부천 취업자는 제조업 부문에 2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반면 도소매업(14.5%), 숙박 및 음식점업(9.9%), 개인 서비스업(5.8%) 등 서비스 관련 업종은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천 노동 시장의 주요 특징은 중소기업이 주목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부천은 중기 개발계획인 비전 부천 2019를 통해 이들 기업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장아파트"인 테크노파크 내 높은 수준의 산업지역을 제공함과 함께 수요 맞춤형 기술 직업교육과 훈련들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로의 기업 및 연구개발(R&D) 투자 유치 목표를 수행하고 있다.

Bucheon's local public employmen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landscape

The local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Bucheon has 66 members of staff, with 9 part-time consultants. The local centres' major task is to manage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EIS) programmes. Training and services are conducted by

outsourcing to relevant and qualified contractors. The total budget of the Bucheon centre in 2012 was KRW 14 billion. Of that, less than 2% is dedicated to the centre's own programmes, which focus on three key training areas: i) strategic high-road industry training (moulding, CAD/CAM); ii) electronics and IT industry training (electronic circuit design); and, iii) customised ERP and engineering design.

Bucheon'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network consists of the followi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training centres: Bucheon college, Yuhan college (private, two-year vocational colleges); Korea Polytech II college; a vocational training college run by the MOEL; Bucheon skills development centre, Korea Chamber of Commerce; Bucheon job skills training support centre; the Bucheon labour-management joint initiative; Bucheon lifelong education centre — run by the municipality; and the moulding training centre — run by the industry council. There is also the Bucheon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BIPF), which is a not-for-profit foundation established to promote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small and venture firms. Bucheon also has some sector councils, which seek to establish strategies for their specific sector. They are also members of the local four party committee composed of labour, management, community and government representatives.

지역 공공 고용, 직업교육, 훈련 분야

부천시 지역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에는 66명의 직원과 파트타임 컨설턴트 9명이 있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고용 보험 시스템(EIS)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이다. 교육 및 서비스는 관련 및 자격을 갖춘 계약자에게 아웃소싱하여 실시한다. 2012년 부천센터 예산 총액은 140억 원이었다. 그 중 2% 미만이 자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i) 전략적 고도로 산업 훈련(목조, CAD/CAM), ii) 전자 및 IT 산업 훈련(전자 회로 설계), iii) 맞춤형 ERP 및 엔지니어링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천의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교육기관 및 연수원으로 부천대학교, 유한대학교, 한국폴리텍1대학(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대학), 대한상공회의소, 부천노사공동훈련지원센터, 평생교육센터, 금형기술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등이 있다. 부천에는 특정 분야를 위한 전략 수립을 모색하는 협의회가 있는데 바로 노동, 경영,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대표 당사자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다.

The local-based job creation support programme was created to help local NGOs, academic institutions, worker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conduct research on their local labour markets and develop creative job creation projects.

In 2012, under the local-based job creation support program, the government selected 276 local projects through an open bidding process and provided them with funding of KRW 30.9 billion. Among the selected projects, specialized projects

accounted for the biggest portion with 241 projects, followed by 12 "packaged projects", 8 research projects and 15 forum projects.

Furthermore,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with "the local job creation strategy notice system", the government began, in 2012,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with good records in relation to the system: an additional KRW 3.2 billion was granted to 36 local governments to finance their local-based job creation projects.

In Bucheon, the employment centre was given KRW 200 million for three training programmes, including strategic high-road industry training (moulding, CAD/CAM); electronics and IT industry training (electronic circuit design); and customised ERP and engineering design. In 2012, the total budget of the Bucheon centre was KRW 14 billions. The proportion of the local centre's own programmes relative to their total budget was not large (less than 2%). However, local staff at the employment centre said that it is a significant amount because the programme cost is net of all administration costs.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NGO, 교육기관, 근로자 및 고용주단체, 그리고 지방 정부가 지역 노동 시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창의적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2012년 지역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276개 지역 사업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 309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선정된 프로젝트 중 전문화된 프로젝트가 241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2개 패키지 프로젝트, 8개 연구 프로젝트, 15개 포럼 프로젝트가 뒤를 이었다.

또한, "지역 일자리공시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36개 지자체에 32억 원의 지방자금을 지원하였다.

부천에서는, 전략적 하이로드 산업 훈련(금속, CAD/CAM), 전자 및 IT 산업 훈련(전자 회로 설계), 맞춤형 ERP 및 엔지니어링 설계 등 3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2억원이 지원되었다. 2012년 부천센터 예산 총액은 140억 원이었다. 지역 센터 자체 프로그램의 총 예산 대비 비율은 크지 않았다(2% 미만). 그러나 고용센터의 현지 직원은 프로그램 비용이 모든 관리 비용의 순액이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라고 말했다.

Flexibility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re are a diverse range of training courses in Korea — some of which are designed at the national level and some that cater to local needs. The system appears to be quite flexible and adaptable to local needs. Local employers make requests to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to design courses and curricula to ensure that it is aligned with industry demands. Some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have recently been reorganised into an upper level organization covering TL3 regions in Korea. In Bucheon, there are also joint labour-management programmes that are delivered by

some institutions. Under these programmes, Training co-ordinators play a role in designing programmes around the needs of employers and individual workers. In 2011, 462 workers and 12 different firms participated in this type of training program.

직업교육 및 훈련의 유연성

한국에는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설계되었고 일부는 지역적 필요에 맞게 설계되었다. 그 시스템은 매우 유연하고 지역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고용주들은 직업 교육 기관에 산업 요구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할 것을 요청한다. 일부 직업교육기관들은 최근 한국의 TL3지역을 망라한 상위기관으로 재편성되었고, 일부 기관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노동관리 프로그램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하에서, 훈련 조정자들은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역할을 한다. 2011년 462명의 근로자와 12개의 다른 회사가 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Co-ordination at the local level between employment, trai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actors. There appear to be a robust number of local governance structures which focus on employment, trai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issues at the local and regional levels. Both Bucheon and Busan have a Local Associat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Labou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The Local Association has a role in deliberating employment and training projects at the regional level. For instance, major employment and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projects initiated by the MOEL are deliberated by Local Associations and local participants can co-ordinate employment and training projects desig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Bucheon, the Local Four Party Association is well-renowned for its successful activities regarding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Established in 1999, the association has developed a strong policy capacity compared to other Korean regions.

Despite the weaknesses of its industrial compositions, Bucheon has demonstrated a variety of creative activities in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based on strong partnerships comprising labou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representatives.

Bucheon is known for its "network model" for both employment and skills formation policies, which refers to the diverse voluntary networks amongst its relatively small-sized and homogeneous firms, as well as other actors like training institutions, social assistance bodies and different municipal departments.

The strength of the local association of Bucheon can be found in its sub-committees, which are actively engaged in various focused activities co-ordinated by the association. Those sub-committees include the committee tasked to oversee the development of a techno-park, the committees for the public and manufacturing sector, amongst others.

In addition, the association is connected with various networks such as local employment centres, and the training centre, which is jointly operated by the labour and management bodies. As a result, a number of unique projects have been developed, including a steering committee on living wages, and a forum on fair labour and management standards.

In addition to the Local Associat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Labou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Busan established an Employment Forum in 2006. It was created as a result of concerns about the weak links that existed between employment and training institutions as well as the insufficient regional expertise on employment and training issues which could undermine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e Forum has voluntary members from industry, academia, and government. The objectives of the Forum are to introduce measures aimed at increasing employment and creating decent jobs in Busan; promoting one-stop service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qualification screening; and achieving policy coherence through active networking by regional employment, training institutions and experts.

The Forum's Steering Committee i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and its responsibilities include making funding decisions on implementing plans and projects; regularly assessing and promoting project implementation; and, discussing and reaching consensus on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to undertake strategic initiatives.

There are 18 members in the Steering Committee and they come from various sectors including academia, business, labour, government agencies,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ions. There are 12 local institutions that take part in the Steering Committee, including Busan Metropolitan City, Pukyong Universit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Labor Institute, Busan Jingu Wome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Busan Haeundaegu Wome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Busan Dongrae Wome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Busan Women's Center, Ministry of Labor Career Consultants' Union Busan Office, Korea Workers' Solidarity, Busan Office of Education, Korea Polytechnic VII University Busan Campus, Korea Chamber of Commerce, Busan HRD Center, and Busan IT Vocational College.

고용, 교육 및 경제 간의 지역 차원의 조정

개발 행위자들은 지역 및 지역 차원에서 고용, 훈련, 제 개발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많은 지역 지체 구조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천과 부산 모두 노동, 경영, 정부 및 지역사회 대표들의 지역 협회를 가지고 있다. 지역협회는 지역 차원에서 고용과 훈련 프로젝트를 심의하는 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시작한 주요 고용 및 직업적 자격 개발 프로젝트는 지방단체와 지역참여자가 협의하여 중앙정부가 설계한 고용 및 훈련 프로젝트를 조정할 수 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과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성공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99년에 설립된 협의회는 한국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강력한 정책 역량을 발전시

켰다.

산업 구성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부천은 노동, 경영, 정부 및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고용과 인적 자원 개발에서 다양한 창조적 활동을 보여주었다. 부천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동질적인 기업들 사이에서 다양한 자발적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고용과 기술 형성 정책 모두에 대한 '네트워크 모델'로 잘 알려져 있으며, 훈련 기관, 사회지원기관, 다른 시 부처와 같은 다른 행위자들 또한 언급하고 있다.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강점은 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다양한 집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소위원회에는 테크노파크, 공공 및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감독하는 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합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노동-경영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센터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있다.

'결과'로써, 생활임금위원회와 공정한 노동 및 경영기준에 대한 포럼을 포함한 많은 독특한 프로젝트들이 개발되었다.

Similar to many other OECD countries, investment in workplace training is higher among large companies and less among smaller firms.

To offset such concerns among SM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upports SMEs with training subsidies. For example, SMEs can be reimbursed 100% of the expenses whereas for large firms the upper limit is 80%. Workers at SMEs also receive preferential treatment in their training leave subsidies and in acquiring Individual Training Accounts. In Bucheon, the local municipality provided KRW 122 million to fund a customized SME skills training programme. Some 1,020 workers participated in this programme, which was delivered in partnership between the unions, employers and not-for-profit organizations.

다른 많은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직장 훈련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들 사이에서 더 높으며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덜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비용의 100%를 상환받을 수 있는 반면 대기업의 경우 상환선은 80%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교육휴가보조금과 개인 자격증 취득 시 혜택을 받는다. 부천시에서는, 지방 자치회가 맞춤형 SME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천 2백만 원을 제공했다. 약 1,020명의 근로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노동조합, 고용주 및 비영리 단체들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Interestingly, there are brokers in both Bucheon and Busan that work to connect employers with relevant training. These local training co-ordinators recruit employers and organize training programmes for workers. Local co-ordinators design training programmes that fit the demands of workers and employers. In 2011, 21 co-ordinators, 462 workers and 12 firms participated in training. Local stakeholders indicated to the OECD study visit team that employers are engaged in training through these co-ordinators, however the relationship with training institutes could still be strengthened. Matching people to jobs and facilitating progression To effectively match the supply of skills at the local level,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vide support and guidance to unemployed adults and youth. These actions can help make the local labour market more transparent and provide information for effective career planning decisions. Adult career planning support is provided as part of a career guidance programme for unemployed adults. In Korea, all unemployed people registered with the EIS receive counselling within the first three months of unemployment. Job centres managed by the MOEL are required to report on the proportion of the re-employed amongst the unemployed as well as the job retention rate following a placement. Bucheon has launched a Job Creation Everyday programme, which is a job matching programme where teams of experts composed of municipal staff and job consultants interview job seekers and employers and arrange their employment. In 2012, there were 4 teams with 19 members and they interviewed 258 persons and 184 firms and succeeded in arranging employment for 74 persons at 67 firms.

흥미롭게도, 부천과 부산에는 고용주들을 관련 훈련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이 있다. 이러한 지역 훈련 조정자는 고용주를 모집하고 근로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며, 지역 조정자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요구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2011년에는 21명의 조정자, 462명의 근로자, 12개의 회사가 훈련에 참여했다. 국내 이해관계자들은 OECD 연구 방문팀에 고용주가 이러한 조정자를 통해 훈련을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과의 관계는 여전히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을 일자리에 매칭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수준에서 기술의 공급에 효과적으로 맞추기 위해, 실업 상태인 성인들과 청소년들에게 지원과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노동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인 직업 계획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인 진로 계획 지원은 실업자를 위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된다. 한국에서는 EIS에 등록된 모든 실업자가 실업 후 처음 3개월 이내에 상담을 받는다. 노동부에 의해 관리되는 취업 센터는 실업자 중 재취업 비율과 취업 후의 취업률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부천은 도시 직원들과 직업 컨설턴트들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들이 구직자들과 고용주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고용을 정리하는 일자리 창출 일일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19명으로 구성된 4개 팀이 참가해 258명, 184개 회사를 인터뷰하고 67개 기업에서 74명을 채용하는 데 성공했다.

Bucheon has identified moulding, packaging, lighting, robotics, and animation as five strategic growth sectors going forward. These industries were chosen based upon industrial distribution, competitiveness, and future growth in order to transform the existing industrial structure and move to high value added industries that will lead growth into the future. The city's growth strategy has also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attracting firms through industrial clusters that exists in the region. For example, in the lighting sector, companies such as Samsung and LG, are located in the city along with other SMEs, which are important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nd building new growth. The city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tensify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round these clusters through 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industry and education institutions. Bucheon was also sele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a culture industry cluster. The comic and animation industries are being supported as a "forward base of Korean animation". At the same time, Bucheon established the Korea Manhwa Content Agency in the Bucheon Movie Cultural Complex and established a full-package of support systems from the production of drafts to business areas such as planning, production, and sales. This area is being actively developed as the best animation and visual industry base in Asia. In the area of robotics* there is a large cluster of firms operating in the area, making the area a hub for this type of activity.

부천은 몰딩, 패키징, 조명, 로봇공학, 애니메이션을 향후 5개 전략 성장 분야로 분류했다. 기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미래 성장을 이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유통, 경쟁력, 미래 성장에 근거하여 이들 산업을 선정하였다. 도시의 성장전략은 또한 그 지역에 존재하는 산업 집단을 통해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예를 들어, 조명 분야에서 삼성과 LG와 같은 회사들은 다른 중소기업들과 함께 서울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새로운 성장 구축에 중요하다. 서울시는 산업과 교육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 군집 주변에 연구와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부천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선정되었고,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전진기지'로 지원받고 있으며, 부천시 영화문화관에 한국만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초안 제작부터 제화, 생산 및 판매와 같은 비즈니스 영역에 이르는 시스템 이 지역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애니메이션과 영상 산업 기지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로봇공학 분야에는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있어, 이 지역은 이러한 유형의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

Bucheon Cluster Strategies in Robotics and Lighting Robotics Bucheon has a component industry cluster that serves as a solid foundation for the robot industry including precision electronics, and electric and machinery parts. 19 firms among 100 domestic robot manufacturers have moved in, thereby securing its status as the

centre for robot commercialisation in Korea. In order to enter the global intelligent-type service robot market, it seeks to become a foothold for robot produc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by attempting to cluster robot-related R&D institutes and specialized robot producers. Bucheon will also promote the industrialisation of intelligent-type service robots through the fusion of robot-related advanced component and cultural content industry. Lighting Bucheon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support system to support the advanced lighting industry with the development of cutting-edge technologies, standardization of technologies,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by inviting the Korea Institute of Lighting Technology to provide assistance. Based on the existing lighting industry environment, the city will build a lighting manufacturer cluster and continue to develop advanced light source technology such as highly-efficient LED to advance the lighting industry and realize high value transformation. Bucheon has about 8% of lighting manufacturers across Korea, which it aims to increase to about 17%. Bucheon, alongside the neighbouring Incheon metropolitan city, has the potential to grow into Korea's leading city for the lighting industry. Source: Bucheon City (n.d), "Strategic Industry", webpage, 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

부천 로봇공학부 부천 클러스터전략은 정밀전자, 전기, 기계부품 등 로봇산업의 탄탄한 기반 역할을 하는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 국내 100대 로봇 제조회사 중 19개 업체가 입주해 국내 로봇 상용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지능형 서비스 로봇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로봇 관련 연구개발(R&D) 기관 및 전문 로봇 생산업체를 집결시켜 로봇 생산 및 기술 개발의 거점이 되고자 한다. 부천은 또 로봇 관련 고급부품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융합을 통해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조명과 관련하여 부천은 한국조명기술원을 초청하여 첨단기술개발, 기술표준화, 인적자본개발 등을 통해 선진 조명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조명 산업 환경을 바탕으로 조명 제조업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고효율 LED 등 첨단 광원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조명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 전환을 실현할 계획이다. 부천은 국내 조명 제조업체의 약 8%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조명 제조업체의 경우 약 17%로 증가하였다. 부천은 인근 인천시와 함께 부천시(n.d), '전략산업' 웹페이지 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를 참고하면 나오듯이 조명산업에서 한국의 주요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Bucheon has several techno-parks which are business incubation buildings that accommodate many SMEs. These centres aim at attracting firms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order to create job opportunities. The Techno Parks provide services to enhance SMEs' business administration capabilities. When SMEs need to accelerate their scale of business activities, they need the detailed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finance, marketing and management. To support them, the Techno Parks provide services to enhance their business administration capabilities.

for example, exploring overseas markets, operating show rooms, hosting Design Contests, and arranging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upports. As global marketing environments are changing rapidly, the Techno Parks run classes for CEOs to enhance their skills for business administration and decision-making. Also, there are more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mes such as outplacement start-up education and seminars for technology protection.

부천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육성 건물인 테크노파크가 몇 개 있다. 이 센터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회사를 유치하고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사업활동의 규모를 가속화해야 할 때, 그들은 금융, 마케팅, 경영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 테크노파크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 쇼룸 운영, 디자인 콘테스트 개최, 국제인증지원 등의 사업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 마케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테크노파크는 경영과 의사 결정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CEO들을 위한 강좌를 운영한다. 또한, 해외 스타트업 교육이나 기술 보호를 위한 세미나와 같은 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

Promotion of skills for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raining is recognised as legitimate skills training and as such the expenses are supported by Individual Training Accounts under the EIS. Local government employment centres also offer entrepreneurship training programmes and provide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counselling services.

Entrepreneurship training programmes can be found in large city employment centres (for example, the Seoul centre offers a course for adults). Bucheon has a lifelong education centre run by the municipality and local vocational colleges also have their own lifelong education centre, which includes entrepreneurship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courses contain entrepreneurship skills in their courses but the curriculum is more focused on technical skills. To promote entrepreneurship among youth, there is the Youth New Start Programme, which fosters universities as cradles of start-ups and promotes creative businesses by young people.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s required to co-operate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this programme, which promotes direct business start-up and commercialisation activities in universities through start-up leading universities, business incubation centres, and start-up support groups.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developing a business start-up friendly academic system to implement in regular academic programmes, an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will tak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new business creation and technology commercialisation. Economic development promotes quality jobs for local people.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re administered by the municipality, and under previous administrations in both Bucheon and Busan, local contractors who hire local residents had been favoured. This system of preferment has now been discontinued.

기업가정신을 위한 기술 육성

기업가정신 교육은 적절한 기술 훈련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비용은 EIS에 따라 개인 훈련 계정에서 지원한다. 지방 정부 고용 센터는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및 기업가정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은 대도시 고용 센터에서 찾을 수 있다(예를 들어, 서울 센터는 성인들을 위한 코스를 제공한다).

부천에는 시립 평생교육센터가 있으며, 지방 직업대학들도 기업가정신 교육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센터를 가지고 있다. 직업훈련 과정에는 기업가정신이 포함되지만 커리큘럼은 기술에 더 초점을 맞춘다. 젊은이들 사이에 기업가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학에는 신생기업을 육성하고 젊은이들의 창의적 사업을 장려하는 청년 새출발 프로그램이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와 협력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생대, 비즈니스 육성 센터, 창업주 등을 통해 대학의 직접 창업과 상업화를 촉진한다. 그들 교육부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시행하기 위해 창업 친화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사업 창출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담당할 것이다. 경제개발은 지역주민의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고 부천과 부산의 이전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지역계약자가 선호되어 왔으며, 이 선호제도는 이제 중단되었다.

In Bucheon, another important local employment policy issue is the working

conditions of irregular workers, for whom labour rights are not always followed. Bucheon has a special policy emphasis on these individuals and opened an irregular worker support centre in 2012. Bucheon passed a municipal ordinance to protect labour rights and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irregular workers and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them. In both Busan and Bucheon, there are local partnerships focused on issues such as migration, homelessness and green growth. However, these networks are primarily led by the municipality with limited participation from the employment services, including MOEL job centres and the local government employment services.

There ar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in both Busan and Bucheon. Busan has a social enterprise support centre within its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The support centre assists in co-ordinating the social enterprises in the region. It also offers certification and training services, such as advice on starting a social enterprise as well as marketing and business promotion guidance. Bucheon provides similar support and has 35 social enterprises operating in the region. Local stakeholders indicated to the OECD study team that there is sporadic and ad-hoc communication between these organizations and the public training system. Childcare and family friendly policies to support women's participation in employment Administrative and policy functions related to child care were transferred fro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08.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n announced long-term childcare plans for 2009-12.

It contained directives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and to implement demand-oriented policies. This included increasing the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care subsidies; imposing child care allowance for infants; improving monitoring and accreditation of childcare facilities;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curriculum; and, introducing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부천에서 또다른 중요한 지역 고용 정책 이슈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조건이다. 비정규직의 노동권은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천은 이 개인들에 대해 특별한 정책을 강조하며 2012년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개설했다. 부천은 노동권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차별 철폐하기 위한 시 조례를 통과시켰다. 부산과 부천 모두 이주, 노숙, 녹색성장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지역 협력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는 주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지방 정부 고용 서비스를 포함한 고용 서비스의 제한된 참여로 자치단체에 의해 주도된다.

부산과 부천에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있다. 부산에는 지방 정부 기관 내에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가 있다. 지원 센터는 그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을 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것은 또한 인증과 훈련 서비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설립에 대한 조언, 그리고 마케팅과 사업 홍보 지침을 제공한다. 부천은 비슷한 지원을 제공하며 35개의 사회적 기업을 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역 이해당사자들은 OECD 연구팀에 이들 기관과 공공 교육 시스템 사이에 산발적이고 아늑한 의사소통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 고용관리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육아정책과 육아정책은 2008년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9-12년 장기 육아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수요 지향적인 정책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포함했다. 여기에는 보육보조금 수혜자 수 증가, 유아 보육수당 부과, 보육시설 모니터링 및 인증 개선, 보육교육의 질 향상, 공공보육시설의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

7. 일·가·양·득·행·복·일터지원센터 (2015~현재)

○ 추진배경

2013년부터 「부천시 지역 테크노파크단지 중소기업 인력 mismatch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등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화 창구가 없어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테크노파크 3차 업무관계자 간담회」(2014.7.7.)에서는 정부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의 컨설팅 및 사업추진보다는 테크노파크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테크노파크 단지 내 행복일터지원센터(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정부 지원 사업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 추진체계



○ 추진내용

운영자치회의

구분	년도	일자	주요내용
고용 HRD 네트 워크	2014	9.17	행복일터 운영방안 및 참여기관별 실무협의
		11.20	부천TP단지와 연계한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논의
		12.24	부천TP와 연계한 2015년 일학습병행제 홍보
	2015	3.26	행복일터지원센터 현황 및 문제점
		5.19	행복일터지원센터 운영 보고 및 홍보이벤트
		7.9	행복일터지원센터 운영 보고 및 캠페인 등
		9.22	행복일터지원센터 홍보 물품 제작 등
	2016	5.25	찾아가는 행복일터지원센터 논의 등
		7.26	하반기 행복일터지원센터 홍보이벤트
		10.19	행복일터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논의 등
		12.26	지원센터 운영시간 변경에 대한 논의 등
	2017	1.24	2016 행복일터지원센터 실적 및 홍보 방안
		6.5	행복일터지원센터 추진사업 협의 등
		9.11	홍보 캠페인 및 이벤트 논의 등
	2018	3.27	2017년 운영실적 검토 및 2018년 사업방향 논의
		9.20	2018년 운영현황 및 하반기 홍보 및 캠페인 사업 추진

홍보 캠페인, 문화 이벤트 및 상담유형별 성과 (단위 : 명,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교육상담	4	40	28	12	-	84
타로, 영어회화 등 운영	-	-	-	-	327	327
전문가 및 기관 연계	-	-	-	-	7	7
생활법률상담	-	33	18	15	-	66
정보제공	-	50	9	122	559	740
면접	-	-	70	-	-	70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구인구직 (면접)	22	255	191	70	18	556
건강상담	148	472	213	140	-	973
캠페인 및 센터안내	-	75	538	13	-	626
도서대출					718	718
근로상담	-	21	2	16	-	39
합계	174	946	1,069	388	1,629	4,206

○ 평가 및 제언

- 지역 내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상용테크노파크에 센터를 위치시켜 기업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상시적으로 매칭시킬 수 있었으며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개발 또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용테크노파크에 센터가 위치한 것은 상용테크노파크 입주 기업들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었으나 상용테크노파크 외에 위치한 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
- 2018년부터 추진된 근로자 프로그램 확대 및 유휴공간 활용으로 인지도 상승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상용테크노파크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확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예컨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집단적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으나 소규모 혹은 개인 수준의 노사갈등에는 지원체계가 미비함. 따라서 소규모 노사갈등에 대한 갈등조정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기업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제도적으로는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센터 운영의 근거를 다지고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예산 구조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제5장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주요 발간서

연도	주제	연구원
2004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천지역 발전모델 구축 사업	이주희/전병유/이상민/박규호
2005	제조업공동화 대응 및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역할 제고방안	김성희/홍선웅/김민정
	부천지역 월드벨리 등 테크노밸트 형성에 따른 훈련수요 현황과 인적자원 수급원활화 방안	권순식/강병규/안수범/송보화/박태준
2006	지역노동시장연구Ⅱ : 부천 제조업 노동시장 및 지역협의체 분석과 정책과제	정인수
	부천지역의 연령별 이직원인과 구인·구직 불일치 해소방안 연구 :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노용진/노광표/홍주원/이선정/김태균/박태준
2007	부천지역 산업에 대한 고용 및 인적자원의 분석과 대책연구를 통한 고용창출 연계방안	이문호/신인아/곽성신/전경미/박태준/심정선
	부천지역 고용정책 연계방안 조사보고서	이선정/임수경
2008	부천지역 노동취약계층 고용실태 조사연구	이선정
	부천지역 고용정책 연계방안	이선정
2009	부천지역 고용관련서비스기관 사업현황 실태조사	고현주/유승우/이선정/임수경/장혜경
2012	취업지원업무매뉴얼	오현주
2013	부천지역 일자리사업 현황과 유형별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이호창/ 권혜자/고현주/라세립
	고용미래비전 2020	고현주
2014	기업애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등 대책 수립 연구 : 부천시 제조업 중심으로	조세영/라세립/박진영
	부천시생활임금지원조례 종합보고서	이철

연도	주제	연구원
	강소기업 안착화를 위한 지자체별 조례/정책현황 및 제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15	부천시 택시운전원 노동실태 및 부천브랜드콜택시 활용 만족도 조사·감정노동을 중심으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부천시 산업 및 고용특성 분석과 고용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부천시 아파트 경비근로자 실태조사	공동주관
2016	부천시 청년정책 및 제도발굴을 위한 연구보고서	조돈문/정용준
2017	부천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장기성/김재민/김광민(자문)
	부천시 노동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김종진/박용철/김적수
2018	2018년 부천시 취업 취약계층 훈련수요 및 욕구조사	라세립
	부천시 청년 고용정책 기본과제 제언	류기락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천시 지역발전모델 연구

2004 / 이주희, 전병유, 이상민, 박규호

이 연구는 부천시 지역의 성장과 고용안정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지역파트너십 모델 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부천시 지역의 산업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기초로 부천시 지역의 주요 산업의 노동인력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주력산업에 기반한 발전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 부천시 지역경제와 산업

-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분석을 통하여 부천시 산업의 아이덴티티를 제조업에 있다고 규정
- 대규모 공장의 신설보다는 중소기업형 첨단산업을 지향하고, 기존산업-첨단산업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적정규모의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 필요함 강조
- 중앙정부의 지원과 조응, 지역경제발전을 모색할 것
- 산업자원부의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을 통해 부천의 산학관의 협력가능성 제고
- 부천시는 노사를 포함한 지역사회단체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사회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 제기

■ 부천시 지역경제발전 모델

이 연구에서는 사업장 및 근로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천시 지역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현재 가동 중인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천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발전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고용개혁위원회(가칭)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 부천시 지역경제발전 파트너십의 내용

- 취업연계 효율화를 위한 노-사-경, 민-관-학 파트너십의 확립
-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확대를 위한 부천시-업종별협의회-대학/교육훈련기관간의 협조
- 제조업 기술혁신 및 근로자 복지제고를 위한 부천시-상공회의소-업종별협의회와의 협력 강화

제조업공동화 대응 및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역할 제고방안

2005 / 김성희, 황선웅, 김민정

이 연구는 부천시 지역 경제발전의 가장 큰 문제로 부천시 지역의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대체산업부재의 문제를 들고, 이러한 지역의 문제가 단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참여했을 때 지역경제경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 지역자원 인적자원개발 체계의 구축

- 월드벨리의 숙련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동복지단체와 월드사업조합의 공동사업 구축과 중앙, 지방정부의 지원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마련
- 테크노파크의 재구성과 결합된 집중화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리모델링 사업)
- 지역노사정협의회와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체계 구축과 중앙, 지방정부의 지원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구축

■ 테크노파크의 재구성과 인적자원개발체계의 구축

- 테크노파크의 집적화단지로서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연관효과를 구축할 재구성 방안을 해당 주체들이 공동 기획, 실행
- 테크노파크의 입주사지원본부의 역할 재정립과 집중 지원
- 테크노파크의 재구성과 결합된 집중적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
- 개별 중소기업체체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집적화 단지 개념(테크노벨트 브랜드화)의 탈바꿈

■ 월드산업컨벤션 행사 개최와 지역경제의 중소기업형 첨단산업 기지로 이미지 재구축

- 월드 컨벤션을 거대한 지역관련 당사자를 중심으로 월드 컨퍼런스 위원회의 구성
- 지역노사정협의회를 기반으로 부천시 주도의 월드 컨벤션의 타당성과 효과 평가

■ 지역 노사정협력의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체계구축에 밀접한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 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노사정 공동인식 마련, 내부 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
- 집적화단지 활성화와 인적자원체계 구축에 접맥된 노사정포럼의 구축과 노사정협의회

와의 연계체계마련. 예) 물드단지 발전을 위한 노사정포럼, 테크노파크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포럼, 지역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포럼 개최

- 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전략적 기획 기능 강화와 지속성의 확보, 이를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 검토

부천지역 물드밸리 등 테크노벨트 형성에 따른 훈련수요 현황과 인적자원
수급 원할화 방안

2005 / 권순식, 강병구, 인수범, 송보화, 박태준

이 연구는 부천지역에 반영되어 있는 생산 및 기술 인력난을 해소하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부천지역 중소 제조업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물드산업의 인력 수급 인프라 구축 사례에 주목하였다.

■ 부천지역 구인구직 불일치 원인

- 사업주, 재직근로자, 구직자 공통 :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 낮은 임금수준,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등 지적
- 사업주와 재직자 :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중요시
- 구직자 :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고령층 및 여성인력에 대한 채용기피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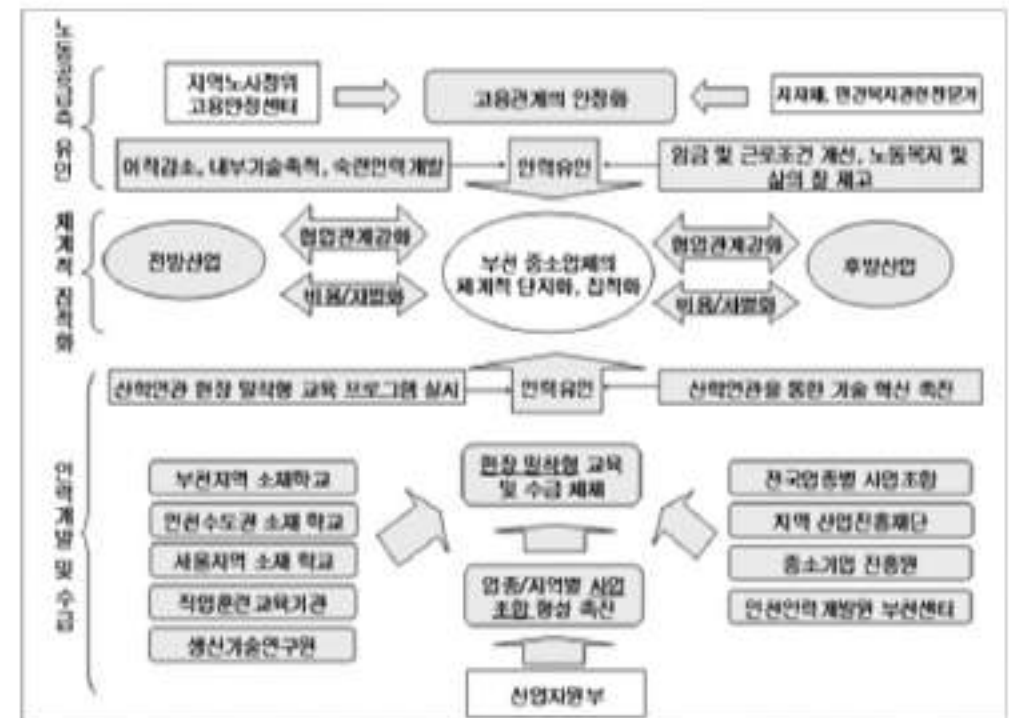
■ 부천지역 인력난 해소

- 사업주, 재직근로자, 구직자 공통 :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국고보조,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구조개선자금 지원 (중소기업청),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혜택의 확충,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기능 강화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

■ 부천지역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

-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 내 대학의 우수인력 양성, 지역 중소기업의 업종별 직업훈련소 등 제시

■ 부천지역 중소 제조업 인력 개발 및 수급 모델



지역노동시장연구Ⅱ: 부천 제조업 노동시장 및 지역협업체 분석과 정책과제

2006 / 정인수

이 연구는 부천 제조업 노동시장과 지역협업체 분석을 통하여 부천지역 노동시장의 핵심 사안들을 찾고, 부천지역에 대한 정책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거시적으로 예측되는 노동시장의 문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향후 부천지역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징에 기인하여 이 연구는 이후의 부천지역 노동시장조사연구 및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었다.

■ 부천지역 제조업 노동시장 분석결과와 주요발견

- 업종별 사양, 성장산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 발생
- 높은 재직자훈련 효과와 낮은 실업자 훈련 효과
- 회사에 대한 재직자 호의보답수준과 재직자 직업훈련과의 연관성 분석

■ 부천지역 제조업 기능인력 수급 및 직업능력개발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향

-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 마련
- 재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능력의 향상
- 지역협업체 주도로 지역 교육훈련기관과 결합한 직업훈련 실시
- 지역 고용지원센터의 인력수급 & 직업훈련 동시 관장 및 지역 차원의 권한 강화
-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과 선진국형 장기실업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 필요
-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에서 구체적 노동시장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

부천지역의 연령별 이직구인인과 구인 구직 불일치 해소방안 연구
: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2006 / 노용진, 노광표, 홍주환, 이선정, 김태균, 박태준

이 연구는 정인수(2006)의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분야를 좀 더 좁혀 전기전자업종으로 한정하여 심화연구를 하였다. 제조업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부천지역의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및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 부천지역 전기전자업종 노동시장 특성

- 부천지역 전기전자업종 노동시장은 영세기업 중심의 노동수요,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탈락자 등 낮은 역량 중심의 노동공급 등으로 구성된 2차 노동시장의 성격
- 이와 같이 낮은 위상의 노동시장 성격으로 인해 경력자 중심의 채용과 높은 이직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높음
- 실업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등 공교육기관과의 연계성 취약

■ 고용지원 활성화 방안 - 고용지원을 위한 지역 민간네트워크의 활용

- 지역의 적극적 취업 알선을 위해 공적기관인 고용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정보력과 민간 단체의 현장접근의 융이성 활용

■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방안

-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주체집단의 형성
- 지역 내 더 많은 직업훈련기관의 확보
- 현장 밀착형 직업훈련의 강화 및 대상별 직업훈련의 특화
- 기본적으로 다기능화훈련에 초점을 맞춘 부천지역의 재직자 훈련 필요
- 경력 전망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청년층 훈련 필요

-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직무의 개발과 숙련 형성
- 기업 내 직업훈련의 촉진
- 지역 차원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자발적 학습 지원

■ 지역 차원의 복지 정책

- 부천시 지역 전기전자업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지역 내 공업계고 및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더 좋은 보수와 근무여건을 찾아 지역 내 노동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수도권 내 대기업과 서비스업종으로 이동하는 점에 주목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 수요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및 시스템을 구축, 즉 '부천시 지역 중소기업 노동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함
- 테크노파크 내 복합 문화시설과 의료시설의 유치, 중소기업장 노동자 장학사업, 결혼·장례 등 경조사 지원사업 등 가능
- 복지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향으로 집적 단지 내 종업원들에게 찾아가는 '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 시스템을 민관이 공동으로 구축해야 함

부천시 지역 산업에 대한 고용 및 인적자원의 분석과 대책연구를 통한 고용창출 연계방안

2007 / 이문호, 신인아, 박상신, 전정미, 박태준, 심정선

이 연구는 부천시 지역 부천시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부천시 지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수급 불일치 실태를 조사하여 고용과 인적자원 개발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부천시 지역 전체 산업구조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수급불일치 현상의 변화와 특징을 연형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중·고령자의 위기

- 2003년까지 부천시 지역은 인구 증가와 함께 산업 종사자도 늘고 있어 고용창출의 잠재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이후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40대이상의 중·고령자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등지고 있음

■ 중·고령자 고용대책

- 부천시 지역에서 구인수요가 늘어나는 50개 직종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재취업의 가능성 제고
- 중·고령실업자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 <4050 희망프로젝트> 확대
- 정상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어려운 취약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추진

■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훈련은 부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
- 외부적 지원과 함께 기업 내부에서 혁신능력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학습조직화'의 발전을 위한 코칭 필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시스템 필요

■ 산업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 현재의 산업구조에 적응하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산업고도화를 목적으로 전략산업을 개발하는 지역차원의 적극적 산업정책 필요
-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차원의 중장기적 '산업고도화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

■ <평생학습지역화 네트워크> 구축

- 이상의 정책적 함의를 종합해보면 지역차원의 <평생학습지역화 네트워크> 구축 필요

부천시 지역 고용정책 연계방안 조사보고서

2007 / 이선정, 임수경

이 조사보고서는 이문호외(2007)의 연구에서 제시했던 부천의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 보면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상별로 기업수요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과 함께 구인구직 연계 대책에 대한 기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부천시 지역 고용 창출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한 이 보고서는 2008년 부천시지역노사정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민관공동 일자리희망본부 설치·운영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 부천고용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대응 전략

이 조사보고서는 중앙정부와 부천지역의 고용관련 현황을 ①지역고용 파트너십, ②고용 정보네트워크, ③인적자원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네트워크로 나누어 분석하고, 지역 고용 정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노동자, 사용자, 지자체(공공행정)가 파트너십을 구체화 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 고용정보네트워크 사업

- 지역의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 알선사업과 일자리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

- 공적 취업알선기관은 접근성, 전문인력의 한계로 구인구직에 대한 효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공적 취업알선기관과 민간 비영리기관과의 연계로 통해 공적 영역의 단점과 민간 영역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취업고용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 있음
- 따라서 공공의 정보망과 민간의 현장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강점을 살려 보다 적극적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지역의 고용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과 취업지원민간 위탁사업 등을 지역의 One-stop Center의 집행예산으로 집중 지원해야 할 것 제안

■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 능력개발 네트워크

-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지역 내의 고용정책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역의 공급과 수요 분석을 토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이 필요함

■ 부천시 지역 고용정책 연계 기본방향

- 노동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고용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계
- 수요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천시 지역 고용정책 연계 기본방향을 제시

부천시 지역 노동취약계층 고용실태 조사연구

2008 / 이선정

이 연구는 2007년도까지의 부천시 지역 노동시장 연구조사에서 노동시장의 인적특성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취약계층 고용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 조사연구 내용

- 부천의 고용취약계층 생활 실태 및 고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 5가지 분야 구성

■ 부천시 지역 노동취약계층 고용실태와 시사점

- 첫째, 4대 보험의 사각지대 및 부채로 인한 생계형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필요함

따라서 이들이 안정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방언의 모색 필요

- 둘째, 기업과 직업훈련기관, 고용지원기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강화 제시
- 셋째, 기업의 인식의 변화 및 노동취약계층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직업훈련 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모색이 필요함

중장년층이라도 체계적인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 넷째, 유연성이 높은 직종에 대한 노동안정성 확보가 필요할 것
- 부천시 지역의 산업변화에 기인한 일자리의 변화에서 사업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따라서 이들이 실업과 재취업의 역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서는 중사자들에게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의 향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제공하고, 이에 맞는 노동시장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구매자와 제공자, 이들의 노동복지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부천시 지역 고용관련서비스 기관 사업현황 실태조사

2009 / 고헌주, 유승우, 이선정, 임수경, 장혜영

조사결과 부천시 지역의 직업훈련 관련 기관 120개소 중 유료학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지관, 직업능력훈련기관 순이었으며, 프로그램은 정보통신, 서비스, 사무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천시 지역의 주요 산업인 전기전자 및 기계분야에 관련된 훈련기관은 낮게 나타나 산업수요에 따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의 미스매칭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교육훈련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보험기금 이외의 고용 관련 서비스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천시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한 인력자원개발 차원의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준이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급여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고 기존의 유료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직업훈련 대상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권을 제한하는 기제로 발동되고 있다.

■ 합의 및 제안

- "네트워크를 통한 고용 HRD 정책연계"와 "네트워크를 통한 고용 HRD 전달체계" 제시
- 지역차원에서 각 부처별,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관련된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취업지원 네트워크와 직업훈련 네트워크
- 취업지원 네트워크는 보건의료서비스기관, 복지관, 동주민센터, 계층별 취업지원기관, 지역자활센터, 비영리 취업센터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직업훈련네트워크는 인력개발전문기관, 관내대학, 사업주단체교육훈련기관, 학원, 계층별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의 논의와 협력체계 구축
- 두 개의 네트워크는 서로 독립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기업과, 구직자, 훈련 수요자와의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네트워크에서 발굴된 구직자가 능력개발이 필요할 경우 직업훈련 네트워크로 연계가 되고, 직업훈련 네트워크에서 교육을 마친 훈련생이 취업을 필요로 할 경우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취업을 하는 연계 고리 마련
- 직업훈련과 취업이 지역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부천시 지역 일자리사업 현황과 유형별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2013 / 이호창, 권혜자, 고현주, 라세림

부천시 지역 노동시장의 현황과 일자리 사업의 대상별 특성을 살펴보고 중앙정부, 광역 지자체(/경기도), 기초지자체(/부천)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을 분석함. 또한 부천시 지역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와 설문조사에 근거해 부천시 지역 일자리사업 현황과 유형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부천시의 노동시장 특성과 지역 일자리사업 간 미스매칭해소를 위한 산업경제 정책적 차원의 적극적 일자리 사업추진 필요

- 부천시 지역일자리 사업은 기존 취약계층의 복지차원에서 소극적인 사업을 취하기 보다는, 지역의 산업체의 요구와 부천시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경제정책에 맞도록 적극적인 전략을 펴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현재 서비스업종에서 제조업종의 기능직인력 중심으로, 사업대상에 있어서도 현재 노인,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보다는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청년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는 지역일자리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분권화 형태의 지역일자리사업 전달체계 강화 필요

- 인당 예산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약한 분권화형에서 인당 집행액이 가장 크게 조사되었으며, 강한 중앙집중형일 때 인당 예산집행액이 가장 낮게 조사되어 효율적인 면에서도 지자체적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음
- 따라서 부천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지역 일자리사업이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부천시 지역 일자리사업의 인프라 및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필요

-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천시에서는 지역 산업체와 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일자리 사업에 필요로 하는 지역 내 정보를 구축하고 제공의 노력 등 지역 일자리사업의 조율과 지원 등 허브시스템을 통한 종합적 추진체계의 시도가 필요함

기업으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등 대책 수립 연구 : 부천시 제조업 중심

2014 / 조세형, 라세림, 박진영

본 연구는 부천시 지역의 기업체 대상으로 기업운영의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부천시 지역 내 기업들의 안착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주된 연구 목적은 첫째, 산업별 기업 규모별 부천시 기업의 전입과 전출에 대한 추이 분석을 통하여, 기업체의 증감이 부천의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고 주요 이슈를 파악하며, 둘째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요인과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를 도출하고, 셋째, 타 지역의 기업유치 전략 및 지원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부천시 기업의 안착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부천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애로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공격형 기업유치 전략수립 및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이에 공격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팀을 두고 전략적 기업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 개별 입지형태의 아파트형 공장의 한계극복과 기능적 인프라 강화

- 부천시 주변에 산업단지 및 공장단지 주변에 황폐해진 공간을 재 탄생시켜, 단순한 시설개선보다 기능위주의 개선 및 문화 복합시설 등 확대 필요

■ 대중교통 개선 및 타워주차장의 신설

- 산업단지 내 버스 노선의 증설 및 연장 등을 통하여 기업의 접근성 개선

■ 특화산업에 대한 개선 및 지원 범위의 확대

- 소수 기업에게 돌아가는 특화산업에 대한 시설 등의 지원을 부천시에서 진짜 필요한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기술력 보호

-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기술력을 보호해 주는 제도, 외국처럼 한 개인이 아이디어가 있어서 부품을 개발하면 인정해주고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방해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는 제도 등, 외국 선진사례 참고)

■ 기업의 정부지원 사업 접근성 강화(기업지원 포털사이트 운영, 행정 간소화)

- 정부지원 사업 활용 접근성 제고 및 온라인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필요

강소기업 안착화를 위한 지자체별 조례/정책현황 및 제언

2015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부천시는 공업입지적 특성이나 기업규모, 기업생산력 등 영세성으로 타 지역과의 기업 경쟁력 저하, 이에 지속적인 기업발전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 전략 및 제도, 정책 개발 필요성 증가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한적이고 산발적인 자료 조사가 아닌 전국적인 기업지원 조례와 정책에 대한 자료 조사와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지자체 운영조례 및 유형별 기업지원, 노동정책과 제도 등을 심층 모니터링 하여 중장기적인 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등의 정책을 개발·제언하고자 한다.

■ 타 지자체의 기업지원조례 현황과 시사점

- 현재 '강소기업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모항시가 유일함. 하지만 용어는 다르지만 차세대 지역의 선도·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음
-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시군구를 중심으로는 「각종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우는 있음
- 더불어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뿌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조례를 통해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음
-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은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글로벌 산업', '전통 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정의하고 종합계획 마련과 각종 지원 범위를 규정.

■ 타 지자체 노동관련 조례 및 정책 현황

- 근로자, 노동복지관(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근로조건 개선(생활임금 조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노사관계발전(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노동시장 보호(노동사건 무료법률 지원 조례)

부천시 택시운전원 노동실태 및 부천 브랜드 콜택시 활용 만족도 조사 :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2015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본 연구에서는 부천시 택시업종 종사자의 임금·근로시간·감정노동 등 전반적인 정신적·육체적 근로실태 및 감정노동을 조사하여 향후 택시업종에 대한 실효적 지원정책을 모색하고자 하며, 나아가 부천 브랜드 콜택시 "판타지아 콜"의 회원만족도를 파악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할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택시업종의 불황으로 기형적 노동시장의 형성

- 택시불황과 사납금제 등 택시특수의 인사관리로 인하여 택시운전원의 처우 및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
- 일 평균 근무시간과 개인 총수입, 사납금제도에 따른 회귀선 도출 결과 평균근무시간 대비 사납금은 상승하는데 비해 평균 근무시간 대비 총수입과는 연관성이 거의 없음
-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택시기사가 대체로 초과 근무를 하기 때문

■ 감정노동을 통해 본 승객 서비스 질적 개선 필요

- 감정노동이 많이 요구되는 서비스산업과 택시업종을 비교분석한 결과 판매원 및 콜센터 종사자 보다 택시운전수의 감정노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택시운송업체와 운전원은 획일화된 서비스 제공을 타파하고 택시의 장점(신속성, 편리성,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타 수단(대중교통, 자가용) 대비 차별화된 서비스기능을 복구하여 택시수요 증대 위한 양자 간 노력 수반해야

■ '판타지아 콜' 활용 이슈와 개선방안

- 택시운전원의 고충을 접수받고 해결할 수 있는 자원팀(상담 등)을 부천시 차원 운영
- 산재가 발생하였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았을 경우 법인택시 노사 및 부천시가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도출된 근로자들에게 사회 안정망을 제공
- 고객취소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 하거나, 타 지역 택시 운행에 감시도 강화되어야

부천시 산업 및 고용특성 분석과 고용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

2015 /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국제적인 저성장 기조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고용 및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부천시지역은 환경요인에 따른 산업 구조적 문제와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경기도내 타 지역보다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열악한 지역 여건 속에 지역의 고용·노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 내 민·관·산·학이 다양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기존 조사·연구 자료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부천시지역 고용정책 및 액션플랜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 고용 정책의 비전 및 장기 계획 수립 필요

- 부천시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고용·노동 시장의 분석 기반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 수립과 장기계획 마련이 선결과제

■ 일자리 행정 및 사업 역량 강화

- 지역의 고용·노동 정책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지역의 여건상 유관 행정 인력 및 조직은 미비한 상황
-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과제(주무현, 2015)'를 비롯, 다수의 지역 일자리 사업과 관련 기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재원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 강화를 강조

■ 지역 고용 거버넌스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고용문제 해결에 있어 고용노동의 주체와 행정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 문제 해결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지역 고용 거버넌스의 역할과 비중 확대
- 실제 이러한 지역 고용거버넌스를 통한 일자리사업의 수행 효과가 행정기관 단독 수행의 결과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지역 고용거버넌스를 보다 확대하여 민간 및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증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

■ 고용 중심의 산업·경제 정책 추진 필요

- 지역의 산업 및 경제정책은 규모와 성장 중심에서 고용친화형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의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등 기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있어 기업의 고용성과와 연계한 지원체계의 구축 요구됨
- 신규 산업 및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전략 필요함

■ 인력수급 및 훈련의 수요와 공급

- 인력수급과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지원 제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수행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함
- 다만 그 예산의 한계가 존재하고 배분에 있어 수행주체의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부천시 청년정책 및 제도발굴을 위한 연구보고서

2016 / 조돈문, 정홍준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청년세대의 차별적인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되, 일회적이고 시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제도적인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포괄적인 내용의 중요성

-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사회적 역할을 도모시킨 협소한 접근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일과 생활, 사회참여 등 포괄적 삶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현실적인 예산 제약에 의해 당장 비중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책의 기본틀은 포괄성을 띠어야 함

■ 당사자와의 유기적 협력

-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 당사자 조직과의 유기적 협력이 요구됨
- 청년 스스로가 청년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할 때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
- 그 동안 청년정책이 관 주도로 이뤄지면서 사업의 관성화로 인해 다분히 전시행정에 머물렀음

■ 혁신적인 실험

-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혁신적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부천시가 생활임금 도입에 선도적 역할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청년정책에 있어서도 보다 과감한 정책적 실험이 요구됨

■ 제도적, 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

- 청년사업의 출발은 조례제정,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정책 수립 및 집행을 법적 근거 마련, 사업의 임의성 방지, 의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을 견인

부천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2017 / 장기성, 김재민, 김광민(자문)

본 연구의 목적은 부천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생활과 경험,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취업지원 로드맵 수립과 청년 고용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정 목표에 한 단계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조사를 통한 정책제언의 의미

- 청년 고용불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도 밀접하게 관련됨
- 생산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정부차원 정책에 발맞추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병행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청년세대 맞춤형 정책을 계획할 필요 있음

■ 청년기본조례 제정 및 청년 기본계획

- 현황 파악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현황 파악은 정책의 공백 지점을 드러내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청년기본조례 제정은 제도적 지원 체계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청년정책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 고용실태조사의 정례화

- 청년고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임. 정책 수립의 기초적인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정책의 공백 지점을 드러내는 역할도 수행

■ 맞춤형 고용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부천시 청년 정책에 관한 제언은 우선적으로 청년세대의 맞춤형 고용정책의 필요성과 연령별·시기별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청년 고용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

- 부천시와 노사민정협의회 간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소통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필요

- 시민사회 영역에서 취합할 수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의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민·관 협조체계는 중요

■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지원 확대

- 부천시 소재 사업체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천시역 청년들의 취업희망이 낮은 것
-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동인권 및 노동복지 강화

-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필요
-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완화, 실직 및 취업준비기간 중의 생활지원/주거지원정책 등 강화될 필요

부천시 노동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7 / 김종진, 박용철, 김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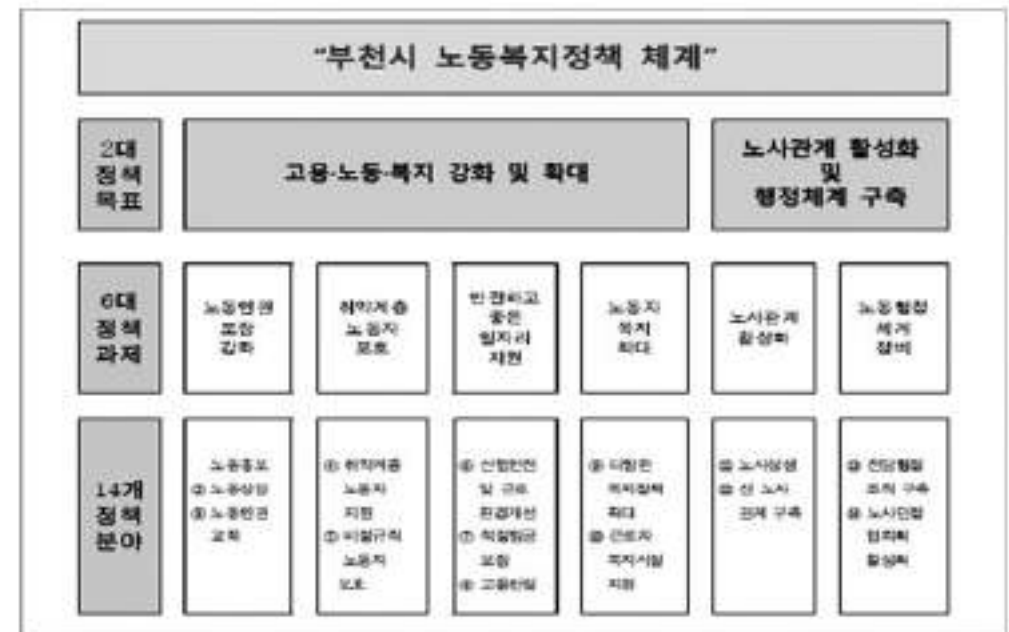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광주, 충남, 경기, 대구 광역지자체를 비롯하여, 경기 안산, 충남 아산 기초 지자체에서 노동정책을 진행 중인 상황
- 현재 국내지자체 노동정책 연구는 광역 지자체 연구와 기초지자체 연구로 구분되고, 광역 지자체 연구는 서울시, 광주시, 충청남도 정도며, 기초지자체 연구는 경기 고양, 안산, 용인, 충남 아산에 불과
- 부천시도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적 노동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그간 지자체 노동정책은 일자리 사업과 노사민정협의회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나, 시 행정조직 차원의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영세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취약노동자의 고용안정,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촉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부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필요

■ 부천시 노동정책 검토 과제

- 노동복지 인프라 및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볼 때, 노동 관련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 마련이 시급하며 일자리정책은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복지 분야와 연계한 일자리정책이 필요함
- 아울러 기존 사업 외에 최근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는 청년수당, 노동시간 단축, 노동이사제, 감정노동, 청년수당, 사회보험 지원, 노사경 연대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천시 특성상 취약계층과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와 복지, 산업 및 노동시장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고용노동정책 추진이 필요함
- 부천시는 (중소)제조업 기반이 강한데다가 청년 및 여성(노동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영세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촉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부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마련해야 함

■ 부천시 노동복지정책 방향 및 과제



출처: 부천시 노동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128p.

부천시 취업취약계층 훈련수요 및 욕구조사

2018 / 라세림

우리나라에서 고용 취약계층은 흔히 20대 청년층, 출산·육아기 여성, 50대 이상의 장년층을 지칭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청년층의 취업준비 장기화 및 학력 과잉, 출산 및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등이 고용 취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밀착형 고용서비스와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역부족한 상황이다.

취약계층 대상 특화되고 전문적인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로 실업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취업취약계층과 빈곤층의 훈련공급 현황 및 활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계층 훈련수요와 취업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연구결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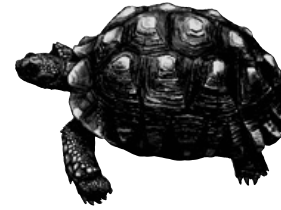
- 첫째, 부천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상반기 61.2%로 경기도 평균(64.9%) 보다 약 3.7%나 낮으며 고용률은 58.5%로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평균 고용률(62.3%) 보다 3.8% 낮음

18년 구인배율이 0.13배로 나타나 지역내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 기업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구직자는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의미함

- 둘째, HRD-NET에서 추출한 실업자 훈련 인원의 통계자료와 워크넷의 구인DB 바탕, 부천시의 직종(KECO) 중분류 단위로 훈련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을 분석한 결과 경호·경비직,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영업·판매직,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등으로 해당 직종에서는 직업훈련 확대 정책 필요함
- 셋째, 취약계층훈련 대상자는 일반 실직자에 비하여 저숙련, 저학력, 취업경력의 미흡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훈련과정은 훈련대상 특성에 적합한 과정을 개발·제공되기 위해서 더 다양한 측면의 지원이 요구됨

- 넷째, 현재 취업 희망 직업, 4차 산업혁명 대비 신 직업, 직업 기초역량,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4개 분야에 대한 대상별 요구도를 바탕으로 대상별 차별성을 반영, 모듈화 하여 부천시 취업 취약계층의 대상자별 직업훈련 체계를 마련함



느리지만
치열하게
사람, 희망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年史
1999 - 2018

제4부
종합진단

제1장 종합진단

제2장 주요정책 제안

제1장 종합진단

1. 개요

평가란 “활동의 개입, 집행 및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조사·사정하여 그 유용성과 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활용하는 체계적인 활동”으로 정의된다.(2012, 박홍운).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조직적·제도적으로 제한적인 협치체제와 열악한 산업환경과 노동시장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사정파트너십을 통한 지역 노동-고용 통합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1999년 설립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와 성과를 도출하면서 창의적인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 노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전략과 리더십의 발휘, 노사파트너십 주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체역량과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으로 자율적 거버넌스로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2014, 여기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대표적인 지역단위 고용노동 파트너십협의체이다. 그러나 아직 형식은 갖추되 그 내용은 질적으로 승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 측정지표나 평가지표 등은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종합진단은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5개년(2012~2016)에 걸쳐 추진하였던 핵심의제와 방향, 구조와 참여주체, 운영현황 분석 보고서인 ‘2016년 핵심역량 강화 진단 컨설팅’ 결과를 기본 토대로 현재적 시점에서 재구성하였다.

20년의 경험과 역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의 제시로써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다. 다만 20년의 경험을 정리하여 그 핵심을 들여다봄으로써 2019년도 부천시노사민정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리라 믿는다.

연도	구분	주요내용
방향	목표	당해연도 방향에 맞게 핵심과제가 목표화 하고 있는지 정성적 평가 및 정량적 평가치가 가능한지
	비전	지역 산업환경 및 고용환경을 반영하고 있는지 당해연도 지역내 현안 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구조	구조	적합하게 구조화하고 있는지 조례 및 지침 등을 통해 명확화하는지(근거)

연도		구분	주요내용
		주체	참여주체의 참여의지 및 적극성 해결주체의 다양화 및 확대의 문제
의제 및 운영	노동	협약	협약의제 등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정도 (협의 의제의 적합성)
		사업	구체적인 실천 및 협업 시도 등
	고용 복지	협약	협약의제 등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정도 (협의 의제의 적합성)
		사업	구체적인 실천 및 협업 시도 등
협약 이행		협약체결	당해연도 선정의제 및 이슈에 대한 협약 체결 및 실천선언
		이행반영	지역 내 확장성 여부(언론보도 및 홍보 캠페인 등 연계) 이행점검 및 협의회 운영에 반영 정도
인프라 구축		지자체 적극성	지자체장의 적극성, 지자체의 관심 및 지원 등
		예산지원	협의회 지원 예산 정도
		전담인력	전담인력의 배치 및 고용환경 등 개선정도

2. 지역특성 및 과제

부천지역 환경¹⁰²⁾은 도시형 공업지역 특성을 지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성숙단계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업지역의 자율적 거버넌스 유형으로 산업유형으로는 도시형 공업지역과 서비스중심 복합지역의 경계 유형으로 분류된다.

노동시장 규모	발전방향	특성
도시형 공업 지역	대기업 중심	숙련·일자리창출 파트너십 (산업연계) -노사분쟁의 조정 필요, 제조업종별 노사관계 이슈 브리핑 등 -숙련향상 훈련 및 재직자 훈련 등 -산학연계 강화, 노사공동펀드 훈련시스템 마련 -산별/업종별위원회 설치 및 전략산업 중심 산업 고도화

노동시장 규모	발전방향	특성
중소기업 중심	고용복지 파트너십 (고용유지/사회안전망)	-취약근로자 및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복지 지원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미스매치 해결, 고용환경 개선 -특수계층 복지·문화 및 주거 등 사회안전망 구축 -낙후공단 재생 및 인프라 지원
서비스 중심 복합 지역	대도시형	-고용환경 안정화를 위한 인사노무관련 교육 등의 사업추진 -도시재생 및 인프라 구축/도시형 공동 브랜드화 -청년 창업 및 벤처 육성, 공동 창업 등 인프라 지원(서울형)
농림 어업 지역	중소도시형	사회적경제 파트너십 (향토산업/협동조합) -소득수준이 낮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 개발·레저 및 문화(지역특산물과 연계) -어르신 복지 및 환경 개선, -지역자산형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회복
농촌형 공업 지역	중소도시형	일자리창출형 파트너십 (훈련/취업연계) -장시간 문화 개선 필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가장 활성화가 덜 됨 -신규공업단지 내 인력수급 원활화, 단순 기능 및 취업연계 -취업 인프라 약함, 고용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

그러므로 부천은 산업특징은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2~3차 노동시장으로 집약된 중소영세기업 밀집지역으로, 숙련보다는 구인구직 미스매치 고착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이 점차 증가하나, 그 형태는 도소매 및 기타 판매 등 산업으로 포진하여 고용율이 낮고, 실업률은 높으며 임금 및 근로환경 열악한 노동시장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① 특화영역의 주체변화와 내부주체변화에의 인식을 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정 파트너십 협의제에서 고용노동 거버넌스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② 전문가중심의 협의회 운영방식에서 지역현안을 확장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와 해결중심의 사회적대화기구로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미 2014년도에 제기한 『노동-고용복지 미래비전 2020』 전략은 지역 환경에 맞게 제시되었다고 보여지며, 기존의 연구조사 결과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2019년 설립 20주년에 맞는 선진적인 부천 노사민정 5개년 기본계획과 액션플랜을 세워,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102) 2015,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매뉴얼 제시

3. 비전과 목표

비전이란 미래의 상황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모습, 미래상이나 계획, 전망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상, 전망을 의미, 즉 더 나은 상태로의 지향을 말한다. 목표란 실재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루거나 도달하려는 일이나 상태, 실제적 대상으로 삼음과 또는 그 대상을 말한다.

첫째,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된 미래 지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형태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비전과 목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좀 더 진일보한 전망을 제시하고, 이루고자 노력하는 활동을 의미함으로 현재적 단계에서 요구하는 객관화 작업으로부터 출발한다.

셋째, 비전을 살펴보면, 2011~2013년 『지역노사의 정책역량 배가를 통한 노사고용거버넌스』 시스템 완성으로 제시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후 2014년 『지역 노동 3대 핵심의제 선정,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협의 및 실천』, 2015년 『부천형 강소기업 및 근로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형별 노동정책 개발 및 제언』, 2016년 『노동-고용복지 협업 강화를 통한 노사민정 협업시스템 구축과 효율적 사업 추진』 등으로 구체적인 당해연도 목표 및 전략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되었으리라 본다. 하나는, 지역 노사 고용거버넌스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실현 목표에 대한 고민의 반영, 또 하나는 노사 고용거버넌스를 추진하기에 아직 협의회 내 수준 및 공유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다시 각 부문의 활성화의 필요성과 요구현안을 중심으로 고민되지 않았나 싶다.

앞의 산업환경이나 고용환경에 대한 연도별 추이분석과 참여자의 지역통합거버넌스의 인식 결과¹⁰³⁾에 기초해 보았을 때 2014년에 제시된 『노동-고용복지미래비전 2020』은 지역 특성에 기반한 비전으로 볼 수 있고 다만 그것을 실행할 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

비전과 목표, 전략이 혼용되고 중앙지침 및 성과에 따라 매년 목표 선정과 그에 대한 다양한 의제 및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오히려 협의회의 고민 해결과 결과 반영에 있어 다소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103) 2014년 발간 '고용노동미래비전 2020'에서 분석된 산업환경 및 노동시장 특성과 협의회 위원 '지역 거버넌스 인식조사' 결과의 내용은 제외하고 당시 종합적으로 분석되었던 결과,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비전, 목표와 전략 등을 기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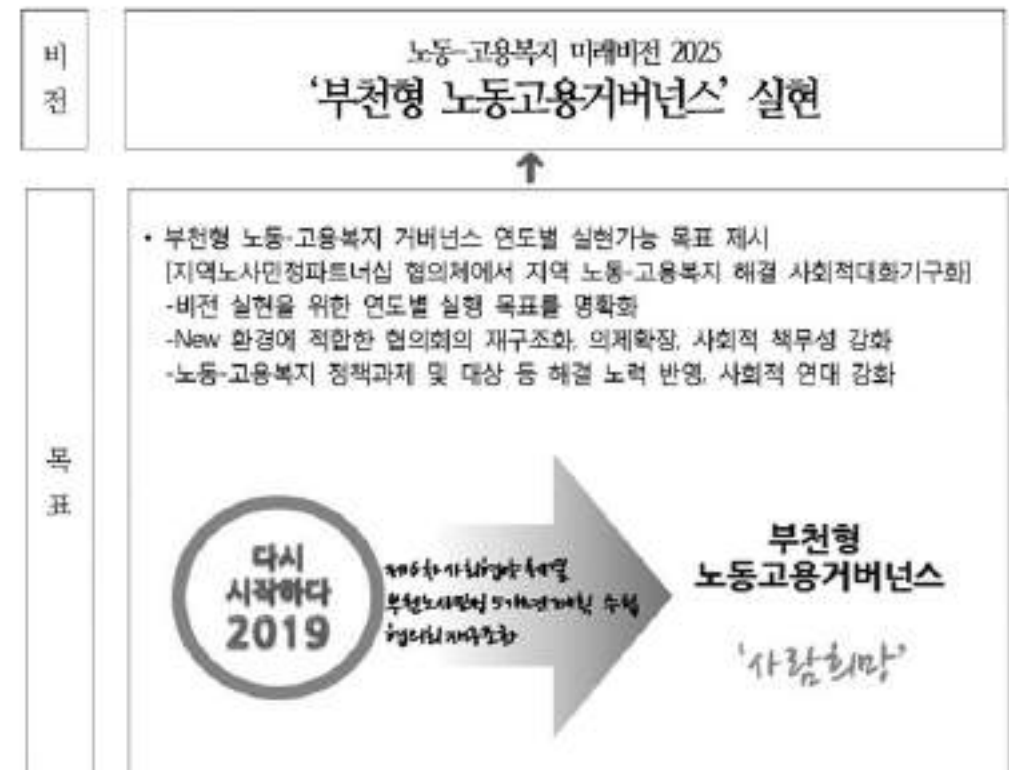
연도	구분	주요방향 내용
2012	비전	- 지역 노사의 정책역량 배가를 통한 '노사·고용거버넌스' 시스템 완성 -지역고용 전문화,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통한 지역고용 통합능력 제고 -생산적 노사문화, 노사 사회적 책무성 강화로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
	목표	-지역 노사 및 고용관련 자문위원제도 도입(자문위원 위촉 조례 개정) -현 구조에 적합한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대표적 협의체로서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새롭게 함. -지역 고용-복지-학습지원 기관 간 실무협의체 '가칭'지역문제해결연합회' 추동으로 종합적인 지역 지원시스템 기반 마련
2013	비전	- 지역 노사의 정책역량 배가를 통한 '노사·고용거버넌스' 시스템 완성 -지역고용 전문화,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통한 지역 고용 통합능력 제고 -생산적 노사문화, 노사 사회적 책무성 강화로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
	목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다공모' 및 '대시민 홍보사업' 추진으로 지역 대표적 협의체로서의 위상 강화 -지역 고용-복지-기관 간 실무협의체 '가칭'지역문제해결연합회' 지속적인 추동으로 종합적인 지역 지원시스템 기반 마련
2014	비전	- 지역 노동 3대 핵심의제 선정,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협의 및 실천 -고용취약계층 종합지원 시스템 마련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VISION 2017,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미래비전 및 연차별계획 수립
	목표	-2009~2013년 5개년 활동백서 발간을 통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장기적 발전방향 및 연차별계획 수립 등 모색 -운영조례 개정(위원 임기, 하부협의회 설치운영, 자문위원 위촉 등) -노사포럼(제조업협의회+노사포럼) : 노사미수 및 현안 대책포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역고용네트워크+지역HRD네트워크)구성, 운영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구성, 운영(생활임금 조사 및 자문 등)
2015	비전	- 부천형 강소기업 및 근로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형별 노동정책 개발 제언 -고용취약계층 등 지역자원 연계 통한 종합지원 협업 시스템 본격화 -노동-고용 미래비전 2020, 부천지역노사민정 비전 및 연차별 계획 수립,공유
	목표	-2014년도 '협의회 위원 지역거버넌스 인식결과'를 토대로 부천지역노사민정 협의회 장기적 발전방향 및 연차별계획 수립과 공유 -운영조례 개정(위원 임기, 하부협의회 설치운영, 자문위원 위촉 등)
2016	비전	- 노동-고용복지 협업 강화를 통한 노사민정 협업시스템 구축과 효율화 추진 -적극적 지역사회 개입 전략, 홍보를 통한 협의회 인지도 제고 및 위상 강화 -상시적 소통구조, 고용정책역량 배가를 통한 고용안정 및 창출 인프라 마련 -지역사회 분야별 협의회 간 연대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마련

연도	구분	주요방향 내용
	목표	-부천형 고용복지플러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부천시 관내 공공(준공공) 직업훈련기관 간 협업 등 의제 협의대안 마련 -노동·고용·복지 유관기관 간 종합지원시스템 단초 마련(가칭, NPO지원센터)
2017	비전	2015 미래세대 고용희망과 노동인권 보호 실천선언 정신 계승 '일자라 창출과 노동권 보호 노사민정 협업, 공유체계 강화' -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정책개발 및 제도화 - 지역 특화형 고용복지 모델화 - 지역 현안 의제중심의 협업 공유, 이행약속 계승
	목표	-민관 합동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운영, 청년 고용촉진 계획 수립 착수 -노동인권보호조례 및 정책 검토, 제언 -사무국 전문화 전담인력 확대, 협의회 구조 재편
2018	비전	- 다시 시작하다 부천노사민정 20년 '사람희망' - 부천시 일자리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및 노사상생 일자리창출 실행력 제고 - 고용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노동권 보호 지속 강화 - 지역 현안 및 이슈 중심의 주제별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재정비
	목표	-노사상생 일자리창출 '일드림센터' 실행력 가속화, 로드맵 마련 -노동인권보호조례 및 정책 도입 노력 -핵심의제 핵심실천 주제별 협의로 재편, 현안 해결 사회적대화 기구로 전환

10년사¹⁰⁴⁾를 보면 1999년~2008년에 걸쳐 선정된 의제와 활동은 노사정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연구와 포럼,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우선과제 또한 지역적 현안 해결로 구체화 되어 있다.

2009년 이후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발전방향은 '노사정 파트너십에서 고용 거버넌스를 향하여' 모색시기로 보이며, 중장기적 목표와 과제의 혼용, 당해연도 목표 대비 미시행의 원인분석 등이 부족, 매년 반복되어 차용되는 목표에의 수정 등이 요구된다. 그간의 비전과 목표 분석결과, 2019년 부천노사민정 20주년으로 새로운 고용노동환경에서 요구되는 NEW 비전과 전략, 목표가 연도별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104) 2009,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10년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4. 실천선언 및 협약 체결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크게는 1999년~2014년에 걸쳐 제4차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있다¹⁰⁵⁾라고 평가되고 있다.

1999년 제1차 사회협약 체결 (고용안정 및 노사관계 혁신), 2004년 제2차 사회협약 체결 (부천 노사정 일자리 사회협약, 고용과 일자리), 2009년 제3차 사회협약 체결 (부천노사정 파트너십 협약, 파트너십과 HRD)에 걸쳐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그간의 3차 협약의 이행점검을 통해 이행촉구를 위한 제4차 사회협약 체결 (ISO2600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실천, 3차 협약 이행점검 및 이행촉구)을 체결하였으며, 매년 실천선언과 협약 체결의 이행을 위한 이행점검단 구성과 이행결과 보고, 또한 타지단체에 비해 그 이행을 위한 의제 및 사업에의 반영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 제4차 협약 체결을 통해 취약근로자의 임금 향상 및 지원을 위한

105) 2010, 심용보, 이호창,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통합적 연구, 한국노동정책연구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또한 부천시 브랜드를 도입 “판타지아콜” 등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노사정은 산업단지 내 교육-문화 복합센터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행으로 2014년부터 단지내 “노사공동훈련센터 설립 운영”, 지원기관 12개소 협업형으로 일가양득 “행복일터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미래세대 노동인권보호와 고용희망을 위한 지원기관 간 협약 체결과 지역 노사민정 실천선언, 8월 ‘부천시청년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제정’, 청년정책연구 및 청년포럼 개최, 부천시 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준비와 의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¹⁰⁶⁾. 2017년에는 전국 최초 기초지자체 ‘부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운용으로 지역 노사상생 일자리창출 모델의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협약 체결 및 이행, 실천선언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아젠다가 제시되고 있으며, 오히려 중앙부처의 실천선언이나 협약체결 방향에 앞서 제시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이후 이행점검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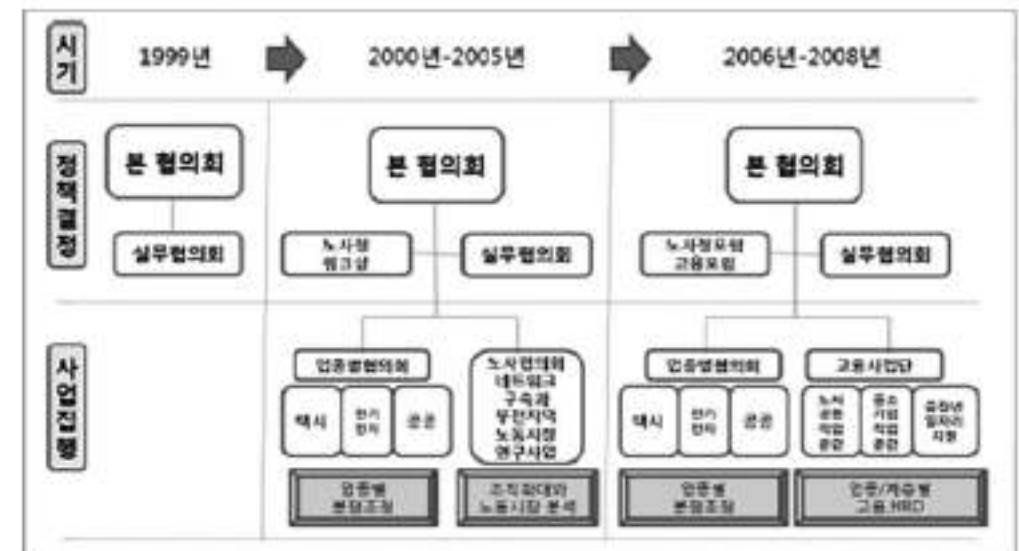
다만 성과측정에 있어 ① 설립 초기 노사정 협약에 비해 매년 체결되는 실천선언과 협약의 의미는 형식화되고 있다. ② 실천선언이나 협약체결의 방향과 내용이 지역 노동-고용의 사회적 책무를 담고 있다면 당해연도 이행 목표 및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이행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다. ③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고용환경에 부합한 의제 선정과 중장기 해결과제 채택 등 전략 수립을 통해 협약과 실천선언의 방향이 제고되어야 한다.

5. 협의회 구조 및 참여주체

1) 발전단계별 중층화 구조¹⁰⁷⁾ (1999~2008)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1999년 설립 초기 본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 실무협의회가 실질적인 운영방향 및 조율, 협의 안전화를 추진하였다.

2004년 새로운 노사협력 의제를 모색하게 되는데, 하나는 2004년 사회협약을 통해 협력의제로서 노사관계 혁신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으로의 전환과 또 하나는 11월 9일 노사정 워크숍을 통해 협의회 중층화사업 방향에 논의, 2005년 「중층화사업 제안」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연구사업과 집중포럼, 택시업종협의회와 공공부문협의회가 설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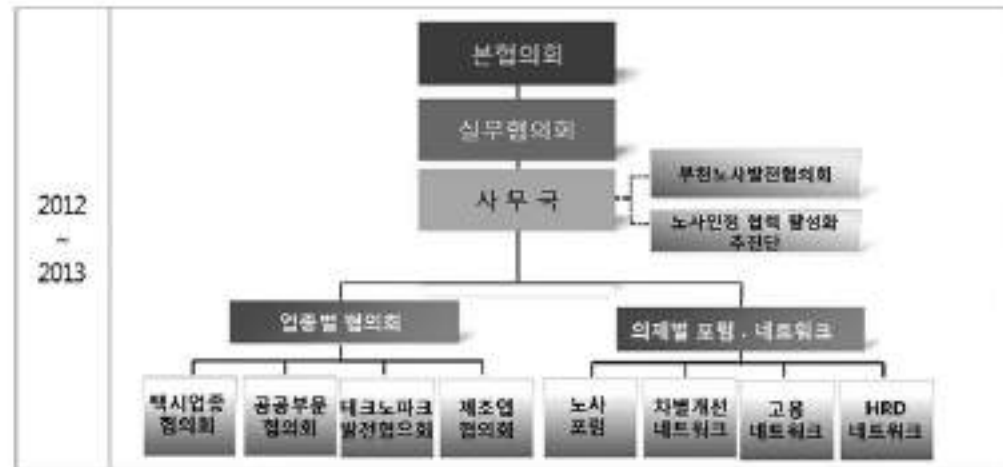
2005년 이후 중앙단위에서 지역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의 제안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3개의 업종별 협의회와 실행사업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네트워크가 구성, 운영하게 되었다. 그 방향은 노사공동훈련사업 파트너십과 고용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파트너십으로 형성 운영하게 되며, 2009년 이후 중앙의 사업 방향이 전환되면서 노사공동훈련 파트너십은 지속적으로 진화, (사)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로 발족 안정화와 다양한 모델 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노사민정 파트너십은 지역고용실무자협의회와 지역고용HRD네트워크로 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106) 협의회 사무국장 인터뷰, 2017년 사업 반영하여 추진 예정

107) 2014. 노동고용미래비전 2020.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 발전단계별 협의회 중층화 구조 (2009~현재)

협의회 구조는 본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특별위원회(2)를 기본으로 6개의 분과위원회 (하부협의회)와 비상설 운영되는 노사정보로럼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다.



구조를 살펴보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단과 고용네트워크의 통폐합 등 협의회의 운영과 환경에 의해 적합한 구조화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으며, 또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실행기구격인 (사)부천시노사발전협의회와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안기구로서 역할이 미비함을 보완하고 있으며(108), 노사민정 합의절차가 요구되는 생활임금위원회가 포진되어 있다.



그러나 구조를 볼 때, 업종별 협의회에 비하여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협력할 수 있는 지역 주체간의 네트워크가 점점 약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하나는 중앙의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의 기관별 제안과 성과 측정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나 여건의 불필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역 고용HRD 의제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천고용센터와의 연계성이 중요한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단(109)의 구조가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한 협의와 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향후 지역내 전달체계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부천시-부천고용센터-협의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타 지자체에 비해 구조가 매우 확장되어 있어 형식화가 우려된다. 우선 실무협의회와 하부협의회 대표간사 구조에 대한 조율, 실무협의회 내로 흡수 운영하는 구조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본다.

둘째 지역고용네트워크와 지역고용HRD네트워크가 주관부서가 다르고, 성격이 중복됨으로써 분화과정을 거치는데, 지역고용네트워크가 정보교류를 중심으로 담당자 네트워크로 활동하고 있다면 지역고용HRD네트워크는 고용HRD 관련기관 대표자(책임자) 협의체로의 지향을 명확히 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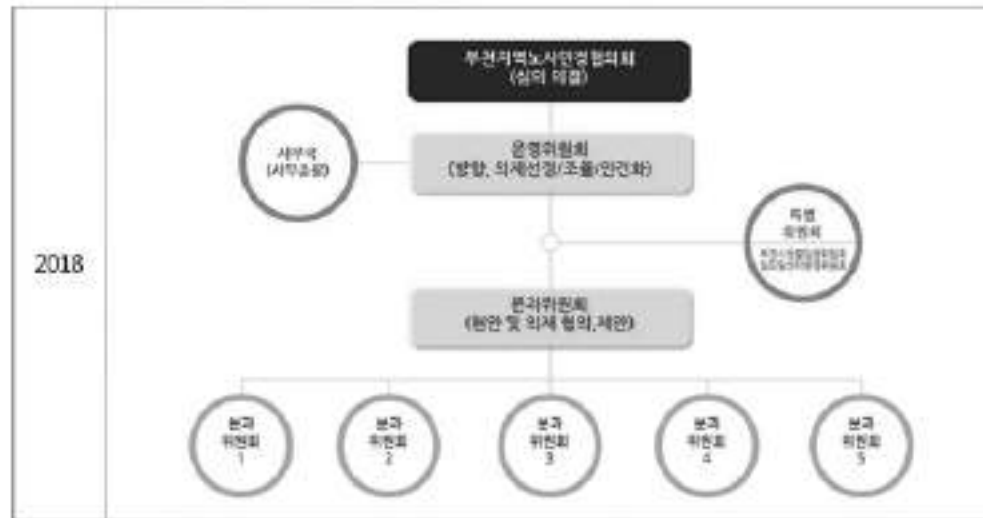
셋째 지역의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그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회

108) 중앙단위 지원사업이나 각종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요건으로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그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별도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록단체나 법인이 필요하다. 현재 (사)부천시노사발전협의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109)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단은 부천시-부천고용센터-부천시노사민정협의회 간의 상호 정보교류, 협력을 위한 논의 기구였음.

구조의 유연화가 제기된다.

2017~2018년에 걸쳐 협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의제별 위원회로의 재구조화 절차는 향후 지역단위 사회적대화기구로서의 행식을 갖추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회 유연화 작업이며, 2018년 협의회별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6. 구성 현황 및 참여정도

지역 협력 네트워크란 자원 공유를 통해서 참여기관만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지역적인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상호의존과 협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이다(Powell, 1990). 즉 상호 독립적으로 참여하면서 상호 보완성, 효율성과 효과성, 상호 호혜성을 기반으로 성과 시너지 확장에 기여한다.

구조는 협의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협의회의 협력 활성화 정도와 그 내용 등을 포괄하여 한눈에 볼 수 있다. 그 내용으로 협의회 수와 참여주체, 연도별 개최횟수 등을 살펴본다.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참여주체는 전체위원 182명에서 민(공익 포함) 58명(32%) - 노 52명(29%) - 사 42명(23%) - 정 30명(16%)를 차지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 비해 골고루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이후 지역고용네트워크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단이 해체됨으로써 민-정의 참여인원이 제한되고 있으나, 특이할 점은 타

지자체에 비해 사의 참여가 높다¹¹⁰⁾.

구분	협의회명	구성수	노(勞)	사(使)	민(民.) (공익포함)	정(政)
총 합		182 (100%)	52 (29%)	42 (23%)	58 (32%)	30 (16%)
본협의회		11	2	2	4	3
실무협의회 (거버넌스실천단)		9(7)	1(2)	1(1)	4(3)	3(1)
특별 위원회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6	2	1	2	1
	노사민정 활성화추진단	6	-	-	1	5
	(사)부천시지역노사발전협의회	13	5	5	1	2
업종별 협의회	택시업종협의회	19	8	8	-	3
	공공부문협의회	14	12	1	-	1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24	10	10	1	3
	제조업협의회	13	5	6	1	1
의제별 포럼	노사정포럼	13	2	4	5	2
	차별개선네트워크	14	2	-	10	2
	지역고용네트워크	22	-	1	19	2
	지역HRD네트워크	11	1	2	7	1

전체 182명 중 대표 및 총괄책임자 급의 참여가 148명(82%), 중간관리자 및 담당자가 34명(34%)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지역고용네트워크를 주관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협의결과에 대한 지역 내 책임성과 추진력을 내올 수 있는 노사민정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협의회명	구성수	대표	총괄 책임자	중간 관리자 (팀장)	사업 담당자
총 합		182 (100%)	83 (46%)	65 (36%)	15 (8%)	19 (10%)
본협의회		11	11	-	-	-
실무협의회(거버넌스실천단)		9(7)	1(1)	8(6)	-	-

110) 2016년 현재 총 154명 중, 노54명(34%)·사41명(27%)·민38명(25%)·정23명(15%)를 차지

구분	협의회명	구성수	대표	총괄 책임자	중간 관리자 (팀장)	사업 담당자
특별 위원회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6	2	3	1	-
	노사민정 활성화추진단	6	-	3	2	1
	(사)부천시지역노사발전협의회	13	10	3	-	-
업종별 협의회	택시업종협의회	19	16	1	2	-
	공공부문협의회	14	12	1	1	-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24	10	13	1	-
	제조업협의회	13	10	2	1	-
의제별 포럼	노사정포럼	13	6	6	1	-
	차별개선네트워크	14	3	10	1	-
	지역고용네트워크	22	-	-	4	18
	지역HRD네트워크	11	1	9	1	-

각 협의회 구성 현황은 본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개최 횟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하부협의회는 연간 3~4회로 정례화되어 당해연도 여건에 따라 개최 횟수가 증감함을 볼 수 있다. 통상 3월부터 지역협의회가 운영된다고 볼 때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연 3회)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무협의회는 중추적 역할과 견주어 볼 때 격월이나 수시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

구분	협의회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합		66	57	55	48	41		
본협의회		4	3	3	2	2	3	2
실무협의회(거버넌스실천단)		4(8)	3(6)	6(3)	5(5)	4(3)	7	6
특별 위원회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	-	2	4	5	4	4
	노사민정 활성화추진단	4	6	3	-	-	-	-
	(사)부천시지역노사발전협의회	4	4	4	4	4	4	3
업종별 협의회	택시업종협의회	5	3	4	5	3	3	3
	공공부문협의회	5	3	3	3	3	3	4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7	5	5	5	4	3	-
	제조업협의회	5	3	3	4	3	3	3

의제별 포럼	노사정포럼(비상설포럼)	3	3	3	3	1	2
	차별개선네트워크	3	7	6	4	5	3
	지역고용네트워크	10	10	7	-	-	-
	지역HRD네트워크	4	1	3	4	3	4

7. 협의회 인프라 구축

협의회 인프라는 타 지자체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 변화에 적합한 조례 개정 및 세부규칙 등 지속적으로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예산은 다소 타 지자체에 비해 높긴 하나, 시상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편이다. 2013~2014년도 중앙평가¹¹¹⁾에 의하면 전담 사무국의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업무 하중의 높음 또한 지적하고 있다. 2016년도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 논의(3차 논의)와 반영 결과 2018년 3명 전담으로 구성하고 있다.

(단위: 명,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담	1	2	2	2	2	2	2	3
예산	189,000	222,080	166,099	212,502	208,202	171,802	226,883	283,564

또한 매년 노동-고용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지역 환경에 맞는 의제와 운영에 대한 노사민정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2004년 이후 매년 진행되는 조사연구사업은 지역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의미 있는 작업이라 보며, 조사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사민정포럼을 통해 공유하고, 좋은 아이템은 사업이나 협의의제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연도	연구사업명
2004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부천시 지역 발전모델 구축
2005	부천시 지역 몰드벨리 등 테크노밸리 형성에 따른 훈련수요 현황과 인적자원 수급 원 활화 방안
2007	부천시 지역 산업에 대한 고용 및 인적자원 분석과 대책연구를 통한 고용창출 연계 방안

111)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전담 사무국의 전담인력 추가 배치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함.

연도	연구사업명
2008	부천시 지역 고용정책 연계방안
	부천시 지역 노동취약계층 고용실태 조사연구
2009	2009년 부천시 지역 고용관련 서비스기관 사업현황 실태조사
2012	취업지원업무매뉴얼
2013	고용미래비전 2020
	일자리사업 현황과 유형별 개선과제
2014	부천시 생활임금지원조례 종합보고서
	부천시 지역 감소기업 안착화를 위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등 대책 수립연구(부천시 제조업 중심으로)
2015	부천시 아파트경비근로자실태조사
	부천시 산업 및 고용특성 분석과 고용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
	감소기업 안착화를 위한 지자체별 조례·정책 현황 및 제언
	부천시 택시운전원 노동실태 및 부천브랜드콜택시 활용 만족도조사-감정노동중심으로
2016	부천시 청년정책 및 제도발굴을 위한 연구보고
2017	부천시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부천시 노동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8	부천시 청년 고용정책 기본과제 제안
	취업취약계층 훈련 수요조사

2009년 구축, 운영하고 있는 부천훈련네트워크는 2018년 현재, 등록된 훈련정보 1,484개와 등록된 훈련기관 167개소를 비롯하여 고용복지 정보(120개소, 650개)를 관리하고 노동시장 통계를 집적하여 제공하고 있다.



협의회 인프라 구축에 있어 미국 위스콘신 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자산 맵 구축과 관리 시스템, 관리 협약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구축된 부천훈련네트워크¹¹²⁾ 운영관리와 지역조사 및 연구 등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정책협의 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노사민정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기본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지역자산을 모으고 관리, 활용하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점이며, 부천의 사례는 정책협의와 다양한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지역자산 맵 구축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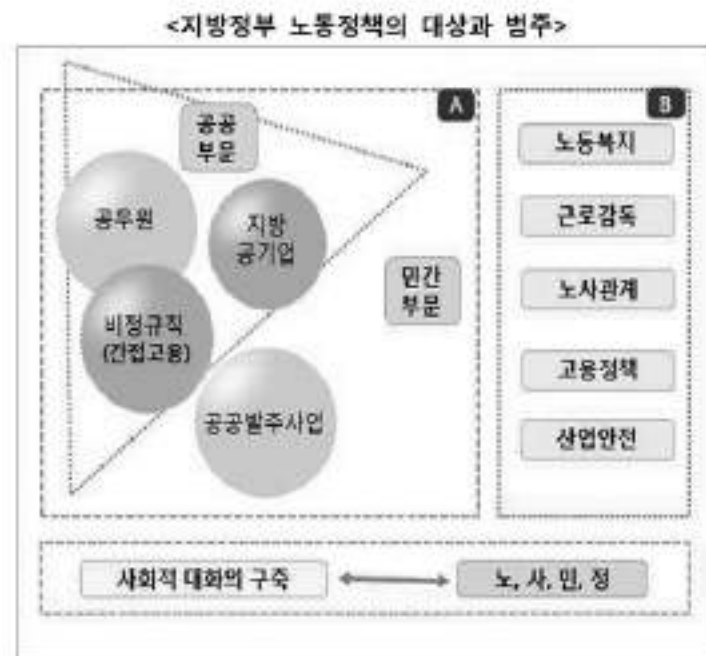
8. 연도별 운영 및 사업 추진

1) 개념 구분

노동(勞動, labor) 또는 근로(勤勞)는 경제활동에서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112) 2009년 지역훈련 현황 조사와 부천시 직업훈련정보망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고용복지, 노동시장 통계를 모아 관리, 정보제공을 통해 고용촉진함.

인적 자원 및 그에 따른 인간의 활동을 뜻으로 사용되나, 노동정책이라 함은 노사관계, 노동복지,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고용정책 등을 포괄한다.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사용자 위치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노동시장·노사관계에 관계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대화의 촉진을 위한 노사민정협의체 사업이다'(2014, 노광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출처: 2014. 노광표.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연구소

지자체별 노동정책 사례를 보면, 노동복지의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노사협력을 증진하는 각종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직업훈련, 사회적 경제 활동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인 노·사·민·정 협의체 사업의 추진을 꼽을 수 있다.

고용(雇用, employment)은 고용되는 자와 고용하는 자 간의 노무를 제공과 그 노무에 대하여 보수(報酬: 임금)를 지급을 위해 성립하는 계약(655조)을 말한다. 즉 고용의 유지와 안정, 확대는 물론 실업자에 대한 생계 보조 및 재취업 관련 일련의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1981, 배무기).

고용정책은 인력수급 예측, 직업훈련 등 인력개발,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및 고용보

험, 근로시간 및 해고, 직업안정 및 실업대책을 통하여 완전 고용과 인력의 최적 배분과 활용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대책을 말한다.(1991, 백응호) 지역고용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차원의 고용정책과는 별도로 지역의 고용 사정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특정 대상 혹은 지역의 고용문제에 특화하여 일자리 창출정책, 고용안정 및 지원정책, 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이 핵심적으로 포함된다(2010, 전명숙).

각 지역노사민정협의체 사례를 살펴보면 두 개념은 상호 혼동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보완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편의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노사관계 및 작업장 혁신, 노동이슈 등에 관하여는 노동의제로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고용촉진 등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은 고용의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동	고용
-노사분쟁 조정 및 노사관계 혁신 -노사문화 및 고용안정 -노동복지 및 근로환경, 작업장 환경 개선 -노동시장 이슈 및 현안 해결노력 등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고용촉진 -고용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직업훈련 및 교육 등

2) 연도별 핵심과제

연도별 협의체 운영 및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앞의 <표 5-2> 비전 및 목표와 견주어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지로 구분하여 보았다.

연도	구분	내용
2012	노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제정' 등 -비정규직 및 실업 청년 '희망멘토링캠프'와 '노사공동 직업훈련' 추진 -지역 고용안정 및 산업명화 실현결의대회 및 노사정 공동선언 추진 -'지역노사공동 법인' 과 '지식산업단지 공동법인' 추진 -영세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프로보노사업' 추진
	고용	-취약계층별 고용채널 조직화와 지역고용 전문역량 강화 -“지역고용전문가아카데미” 및 “지역고용사례별 관리 솔루션회의” 개최 -“부천시 공동구인처개발단” 운영으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결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지역특화사업개발단) 운영 -일자리공시제 모니터링 및 대시민 캠페인, 홍보사업 추진

연도	구분	내용
2013	노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원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제정' 실행 및 모니터링 -노사공동훈련사업 지역 확산과 '최저임금지킴이' 캠페인 추진 -고용안정, 교육, 작업장 혁신 등 우수기업 인증제 (10개 업체 선정, 시상) -"지역고용안정 및 산업평화 실천 결의대회" -노사자율공정기준 세미나, 교육축전자 세미나 등 기업 간 네트워크 확산
	고용	-부천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단 확대, 강화 -부천시-부천고용센터와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로 결합, 강화 -노사민정협의회 체계화, 표준화 (2012년도 제작운영 매뉴얼 활용) -취약계층별 고용채널 조직화와 지역고용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고용 전문가아카데미' 및 '지역고용포럼' 개최 -노사민정 '상상력 캠프' (지역고용정책개발 100인 워크숍)
2014	노동	-노사의제 실천 협의회 (노사포럼+제조업협의회) 운영 -노사전문가 교육 및 세미나-혁신사례 벤치마킹 -최저임금 지키기 캠페인-일터혁신 컨설팅-노사정 실천협약 -기업 애로현황 파악과 진단-제도개선 등 노동의제 발굴을 통한 대책 수립 -2015년도 정책제안 및 의제 선정, 실천
	고용	-본협의회의 지역고용 협의 및 심의 기능 강화 -지역 고용서비스 기관 및 지원기관 연계-전문가 POOL 구축-사례관리 솔루션 회의-대책(치유 및 사후관리) -청년 희망 멘토링 캠프 '희망찾기 작은학교' 확대 추진 (고용차별개선네트 워크+부천실고+지역고용 및 자원 연계 공동추진)
2015	노동	-부천형 강소기업 애로수렴 및 해결(부천시/부천시청 등 협업 추진) -2014년도 조사결과 기반 유형별 정책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 제안 -고용환경 조성사업 추진(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예산추진)
	고용	-본협의회의 지역일자리공시제 보고 및 심의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심의 조율, 지역브랜드일자리지원사업 제안 -노동시장 및 산업 특성별 데이터 수집, 지역고용 전략 및 정책, 제안 -취약근로자 종합지원 『행복일터지원센터』운영 -고용취약계층 원스탑 지원 『고용-복지 플러스』 사업
2016	노동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발굴 인증/홍보/사례 확산 -노동-고용 이슈별 지역적 대시민 홍보 캠페인 추진 -청년층 욕구조사 및 진단, 청년포럼 개최, 청년의제 발굴 및 정책 개발 -부천시 노사현안 및 쟁점을 중심으로 한 이슈 노사민정 컨퍼런스 개최 -노동인권 보호 조례 제정 등 검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사민정 100인 사회공헌 릴레이 프로젝트 수행 -예비취업생 노동인권 교육 및 자존감 회복 '희망찾기 작은학교' 확장 -감정노동 심리치유 시범사업 추진

연도	구분	내용
2017	고용	-사회적경제협의회/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 협업 시범사업 추진 -체계적 사례관리 및 지역 고용전문화 추진 -행복일터지원센터 지속 추진 -찾아가는 고용복지 추진
	노동	-기관협업 '노동인권보호 교육' 확대 -노동정책 검토 제안 -감정노동치유사업 지속화
2018	고용	-7.7 일자리실천선언, 부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3개 추진단 운영 -부천청년 고용촉진 연구 및 조례안 마련 -지역 특화형 일자리창출 모델 '노사공동훈련사업 확장' 결정, 우수사례화 -사무국 전담인력 확대(3인) 및 사회적대화기구로서 재구조화 심의의결
	노동	-2019년 부천시 생활임금 10,030원 달성 -민선7기 정책 제안, 채택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생활임금 10,000원 달성/공정노동문화정책/노동인권 조례 제정)
2018	고용	-섹터특화형일자리창출 모델 지속화(취업취약계층 훈련수요파악) -미조직근로자 및 중소영세기업 훈련 수요 및 애로 파악(잡 프로보노) -민선7기 정책 제안, 채택 (부천인재취업육성재단/노사상생형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지역화폐제도 등)

3) 연도별 주요과제 및 활동 요약(1999~2018)

설립 초기의 노사분쟁조정과 노동복지에서 2006년 노사정 협력 의제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의 경험과 신뢰를 기반으로 그 이후에는 고용이슈가 주요 의제화 하고 있다.

주요과제 및 활동은 노사정협약과 실천선언을 중심으로 지역 내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현안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게 추진, 성과도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역 내 노동-고용문제를 해결의 협의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전국 노사민정 합의 최초 '생활임금제도 도입', '브랜드 도입은 매우 모범적이다. 노동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고용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행복일터지원센터 운영', '지역특화사업 아이템 개발과 제안¹³⁾' 등 협의와 실행의 메카

니즘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둘째, 매년 지역 자산 및 특성을 반영한 핵심방향으로 노동-고용복지형 협의체로서 명확히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반영-실행-평가 등으로 이어가고 있다. 즉 지역자산을 모으고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 등 반영을 하고 있다.

셋째, 지역 노동-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서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노력의 결과 등이 보인다. 택사업종 감정치유 사업은 2015년도 노동실태 파악-2016년도 노사민정 간 협약 체결(책임과 역할)로 실행력을 내오고 있다. 또한 2012년도 부천실업고교에서 출발했던 '희망멘토링 캠프'는 2016년에는 6개 지원 기관 협업으로 노동인권 보호교육으로 확장하면서 참여식 교육 7개 고교로 확장, 수능 이후 프로그램 19개로 5,86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넷째, 사업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과정 및 절차의 중시로 지속적인 상호신뢰 구축이 가능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전문성과 위상이 지역 내 강화되고 있다. 브랜드네이밍 '사람이 힘, 희망부천'에서 보이듯 주체 중심의 과정과 절차, 성과의 공유가 타 지자체에 비해 확고히 자리하고 있다. 지속적인 전국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가 높고, 우선적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14년도 OECD 보고서를 통해 이미 국제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2014년 여기구는 부천의 강점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역 활동가의 역할이 부천의 강점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자칫 전문가 중심의 협의회 운영으로 흐를 수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참여주체의 역량과 전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자체 평가와 개선을 위한 절차 모색과 모니터링 등의 노력이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설립 이후 매년 지역노동시장을 진단 연구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지역자산을 모으고 공유함으로써 고용촉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구조 중층화 이후 자체 모니터링 기능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 내 조사연구사업 청년정책 조사연구-노동정책 연구 등 지속적인 정책역량 강화 노력 '부천시 훈련정보망'¹¹³⁾ 운영으로 고용촉진 기여, 핵심역량 간 평가와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등으로 이어가고 있다.

여섯째, 고용 관련 보고 및 심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취약계층 및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촉진 노력이다. '생활임금제도 도입', 고용취약계층 사례관리 및 행복일터지원센터 운영의 협업모델, 나아가 2015년 지자체별 노동권 보호 정책 및 제도 조사

-2016년 본협의회 노동권보호추진위원회 의결-2017년 추진위원회를 통한 조례 및 법률 검토, 정책 발굴 제안 등 지속성과 향상성을 위한 개선노력에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18년의 경험의 축적을 들여다보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앞서가며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콘텐츠를 개발, 적용하며 그 시너지를 확장하였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보다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추진하고 있는 선진적인 사업 콘텐츠를 현재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노동-고용복지 미래비전 2020의 완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부천지역 리더십은 부천 지역공동체라는 상생의 윤리로 무장되어 있으며, 변화에 대한 대응일 수 있는 향상성과 지속 가능성, 변화에 대한 적응 및 확대 노력일 수 있는 자기 조직화, 나아가 지역파트너십이 가져야 할 상생의 윤리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2014. 여기구).

즉 산업환경과 노사정 파트너십이 어울려서 상생의 윤리를 제기하고, 의제와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확장하여 온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다.

113) 2012~2013년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브랜드일자리지원사업 제안, '우수상', '최우수상' 수상과 2016년 노사민정 우수 일자리창출 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함.

114) 2009년 구축한 부천직업훈련정보망(www.bchrd.info)의 운영으로 2015년부터 지역자산을 모으고 공유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취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육, 고용복지 노동시장통계까지 업그레이드하고 있음

■ 1999 ~ 2005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	노사 분쟁 조정	택시 8개사	마을 버스 청소 3개사	삼양 중기 삼정 유리	유한 대학	장애인 복지관	-
	소통 문제	-	-	노사정 워크숍			
	지역 현안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장동 공단 조성	근로자 장학 사업	-	외국인 노동자 지원	-
	고용 의제	-	-	-	-	노사 협의회 네트워크	부천 지역 발전 모의
조직	형태	본협의회 + 실무협의회					택시 업종
지자체 역할	내용	행정지원			사무 업무대행		
정부의 역할	프로그램	-	-	-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지원 조직	-				지역노사정 지원시범사업	

■ 2006 ~ 2012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	노사 분쟁	-		-		-	-	-
	지역 현안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실행				지역고용거버넌스		
						사회 취약계층 보호지원		
	고용 의제	-지역고용서비스 통합 전달체계 구축 -지역 노사공동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노사주도 지역고용거버넌스		
조직	형태	3개 업종 + 3개 의제별 포럼			4개 업종 + 4개 의제별 포럼			
					실무간사제 도입		사무국 운영(2)	
예산 (천원)	내용				73,330	107,500	129,000	222,080
지자체 역할	내용	사무 업무대행					예산지원+행정지원	
정부의 역할	프로 그램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 기업맞춤형훈련사업		
	지원 조직	부천시+고용노동부						

■ 2012~2018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 업	노사 분쟁	-	-	-	-	-	-
	지역 현안	사회취약계층 보호 (노동권 보호 + 고용촉진)					
	고용 의제	고용노동 통합 거버넌스 (고용복지)					
조 직	형태	4개 업종 + 4개 의제별 포럼			3개업종 +2개 의제별 포럼		의제별 위원회 개편중
		특별위원회 (노사발전협의회+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 기구화 함					
		사무국 운영(2)					사무국 운영(3)
예산(천원)		166,099	212,502	208,202	171,802	226,883	283,564
지 자 치 역 할	내 용	예산지원 + 행정지원					
정 부 의 역 할	프 로 그 램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 기업맞춤형훈련사업					
	지 원 조 직	부천시 + 고용노동부					

제2장 주요정책 제언

■ 2014년 부천시 액션플랜 제시안

『BUCHEON ACTION PLAN』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2014년 전국 최초 OECD 지역 거버넌스에 보고된 지역으로 1999년 설립 이후 부천지역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부천지역공동체라는 상생의 윤리로 무장되어 있으며, 변화에 대한 대응일 수 있는 향상성과 지속가능성, 적응 및 확대할 수 있는 자기 조직화, 나아가 지역파트너십이 가져야 할 상생의 윤리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되지 않고 있다.

5차에 걸친 사회협약 체결과 이행, 미래세대 노동권 보호와 고용희망으로 의제 확장이 요구되는 지금, 그간의 경험과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재충전하여야 한다.

시대환경이 요구하는 리더십과 윤리의식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고용복지, 나아가 사회통합의 사명을 요구받고 있다. 축적된 모범사례를 점점, 변화 환경에 적극적 대응하는 논리와 의제, 협의의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거듭나야 한다.

1. 부천지역 노동환경에 걸맞는 정책과제 발굴과 제안의 기능을 핵심 의제화하고, 중소 영세기업의 보호 지원과 취약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노동권 보호에 주력함.

1-1. 2017년 노동권보호추진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인권 현장' 및 지원조례 등 제안 (시흥시 노동인권 보호조례, 미국 위스컨신주 공공부문 민간위탁 등 표준임금 및 복지제도 제시 등)

1-2. 생활임금 확장 뿐 만 아니라 최소한의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범 지역적 연대, 홍보 등 강화

1-3. 기업대표 간의 상시적 교류와 정보제공 등을 위한 참여 채널 다양화와 참여 적극성 전인 (산업단지 중심의 대표자 협의기구 확대, CEO 포럼 등 정례화)

1-4. 일가양득 '행복일터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단지별 확장 (찾아가는 기업자문, 지역단위 구인처 개발단 등 운영)

- 1-5. 노사상생을 위한 2년 단위 노동정책 수립, 노사정 협의 및 합의 노력
- 1-6. 하부협의회의 노사상생 현안 적극 개발, 노동권 보호 효과적 추진 (택시업종 협의회 '감정노동치유사업', 공공부문협의회 '부천시생활임금제도', '단시간근로 일거리 나눔사업' 등)
- 1-7.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문화체험 등의 확대 (노동권보호교육의 확대, 노동법, 인권 및 공동체 회복)
2. 부천시 지역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확보를 위하여 합의의 우선과제로 협의, 대책을 수립함.
 - 2-1.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추진의 심의 기능과 정책 제안,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 (THINK TANK)
 - 2-2.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추진 모니터링 기능 강화, 지역 노동시장 통계 등 지속적으로 축적 활용 (지역 내 노동시장 통계 담당자 간 협력 네트워크 등 정보 공유)
 - 2-3. 4개년 고용복지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모니터링으로 체계화함)
 - 2-4.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 훈련, 취업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위한 지역 내 공간 활용 지원시스템 마련(홀씨도서관, 365민원센터 및 JOB카페 등 활용하여 상담컨설팅으로 공간혁신에 기여)
 - 2-5.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복지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공복지형 전문가 양성, 기관간 협력으로 시너지 확대 (심리상담 및 갈등조정가 등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사회적서비스를 위한 단비일자리 마련)
3. 수요자 중심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달체계의 확대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 시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 적용하고, 이의 실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역고용 허브 기능 수행
 - 3-1.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단 부활 (부천시-부천고용센터-사무국)
 - 3-2. 부천훈련네트워크의 지역자산 및 정보 사이트 적극 활용 (미국 위스컨신주 자산지도 Asset Map)
 - 3-3.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달체계 상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민-관 협치 강화 (대표성 있는 상시적 협의구조, 현재 고용HRD네트워크의 개선)

- 3-4. 장기적으로 유사관련기관 간 협력연계를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으로 전환, 사업 중복화를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함(서울 NPO 지원센터, 경기일자리재단 등 사례)
 - 3-5. 지역고용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고용포럼 및 고용전문가 아카데미 등 마련 (2011~2015년 지속적으로 추진)
 4. 지역 내 갈등 및 분쟁의 심화, 협의회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마련, 갈등조정 및 해결 등 적극적 사회통합 리더로서 지역적 대안과 협업의 기반을 조성함.
 - 4-1. 사전 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화와 협력, 나아가 지역내 해결 시스템 기반 마련 (전북, 대구, 광주광역시 등)
 - 4-2. 노동-고용복지의 의제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협력의제로의 확대와 협력 기반 조성, 지역적 연대 강화 (고용차별개선네트워크의 확대)
 5. 위의 사항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자기 조직화와 향상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안착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5-1. 환경에 적합한 협의회의 재구조화와 근거, 구체적 지침 등 개정, 마련
 - 5-2. 전담 사무국의 인력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 (노동-고용복지 정책 역량 및 전문화 필요)
 - 5-3. 각 협의회 구조 및 참여주체 간 소통 및 의견교류를 위한 채널의 다양화와 실무협의회 중심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 연계 구조가 전환
 - 5-4. 협의회 참여주체의 전문화와 가치와 비전의 공유, 핵심 역량화하여야 함. (노사상생아카데미, 노사민정 포럼 등 주체별 토론회 부활)
- 노동-고용복지 미래비전 2020 기본계획을 수립, 협의회 내 공유와 지역적 확산을 위한 제6차 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으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여야 함.

■ 2014년 지역 고용거버넌스 협의회 위원 인식조사 결과 (1)

대주제	소주제	내용	설명력 (%)
운영 및 논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6-31)	주체 및 역량자원	지자체의 역량 및 추진의지	27.7
	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차원	동반자 의식	75.7
		입장 이해 및 존중	
		실무자 모임을 노사주도	
		사전소통의 보장	
		민주적 의사 결정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시설 등 인프라	
		지역공동협약	
노사관계 기여도를 높이려면 (6-28)	주체 및 역량자원	노와 사의 신뢰관계	32.2
	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차원	민간/전문가의 역량 및 추진의지	78.5
		비공식적 실무자 모임	
		일자리 및 HRD사업 활성화	
일자리 및 HRD 기여도를 높이려면 (6-29)	주체 및 역량자원	사전소통의 보장	40.0
		노와 사의 신뢰관계	
		사와 정의 신뢰	
	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차원	민간/전문가의 역량 및 추진의지	84.0
		우리 기관의 발전도모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	
		(-)지자체의 시의적절한 정보제공 안함	
		입장의 이해 및 존중	
		(-) 인력을 쉽게 찾을 수 없음	
		지자체와 독립적인 협의회 아이덴티티 구축	
		노사주도의 실무자 모임	
		사전소통의 보장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기여도를 높이려면(6-30)	주체 및 역량자원	노와 정의 신뢰관계	31.6
	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차원	사측의 역량 및 추진의지	60.8
		유의미한 변수가 없음	
발전단계들 높이려면 (6-32)	주체 및 역량자원	노와 사의 신뢰관계	27.6
		사측의 역량 및 추진의지	
		지자체의 역량 및 추진의지	
	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차원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공유가 이루어져야	60.8
		노사민정 간 동반자 의식이 형성되어야	
		노사민정 간 책임의식이 분명해야	

■ 2014년 지역 고용거버넌스 협의회 위원 인식조사 결과 (2)

대주제	소주제	내용	낮음	보통	높음
거버넌스 환경	산업환경	기업 증가, 기반시설, 서비스업 전환	○		
	고용환경	일자리, 양극화, 고용정책	○		
	노사관계	안정성			○
	지자체의 의지	지자체장의 의지, 지자체의 의지		○	
거버넌스 이해 및 필요성	이해수준	종합적 이해 정도			○
	역할 및 기능	주요 역할과 과제	일자리창출고용안정 노사관계혁신/협력		
	필요성	필요 정도			○
	필요이유	필요 이유	노사관계혁신/협력 일자리창출고용안정		
거버넌스 주체	주체 간 신뢰	노와 사, 노와 정, 노와 정, 민과 노사정		○	
	주체 역량	노, 사, 지자체, 노동관서, 민의 역량		○	
	참여의지 및 리더십	노, 사, 민, 정의 참여의지, 참여수준, 영향력	노-정-민-사		
					○
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	전략과 목표	비전공유, 기관발전도모, 협업가능성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관발전 도모		
	관계 및 문화	동반자의식, 책임관계, 정보공유, 상호존중			○
	실무자모임	별도구심, 실무자핵심역할, 실무자노사주도, 실무자지자체주도, 실무자스킨십		○	
	구조 및 인프라	지자체장 관심, 하부협의회, 인력, 시설, 자원, 필요인력, 사업수행시설 구축	지자체장의 관심 하부협의회구성/역할		
	의사결정방식 및 결과	의사결정의 민주성, 사전소통			○
	전문가활용	전문가 활용, 전문가 지원		○	
	활성화사업	노사관계, 고용/HRD, 일자리조정, 이해조정, 지역공동협약	노사관계 기여 일자리및HRD		
거버넌스 효과 및 발전수준	기여도	노사관계, 고용/HRD, 사회통합, 이해조정	노사관계 기여 일자리및HRD		
	발전수준	발전수준			○
	만족수준	운영 및 결과 만족수준			○
거버넌스 발전방안	주체	리더십 주체, 고용HRD 리더십 주체	노-정-지방관서-사		
	역량	필요역량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 지역 외부로부터 재정, 인력 지원		
		노조측 필요역량	지역외부로부터 재정 정보인력 지원고용사업제안 및 협상능력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거버넌스 활성화방안	중앙정부의 재정, 인력, 정보 지원 각 주체 지도자 간 네트워크 강화		

■ 2017년 부천시 고용노동정책 기본과제 제안

정책 목표	정책과제	정책분야	세부과제	핵심 정책
고용 노동 복지 확대 · 강화	노동인권 보장 강화	노동인권 홍보·포럼	노동관계법 준수 홍보 및 포럼	
		노동인권 상담(컨설팅)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관련	
		노동인권 교육	대상별 노동인권 교육	핵심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취약계층(노동자) 보호	청년수당, 청년보장제도 도입	핵심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핵심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파견업 모니터링 및 고용구조 개선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지원	산업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	산업안전 예방 활동 강화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직정임금 보장	생활임금 확대(민간위탁)	핵심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민간위탁 확대)	핵심
	노동자 복지 확대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	일과 삶의 질 개선, 지원	
			돌봄서비스 확대·강화	
노사 관계 활성화 및 행정 체계 구축	노사관계 활성화	노사상생	노사민정 네트워크 강화 및 사회적대화	
		신노사관계 구축	노사갈등 해결노력 및 노사관계 구축	
	노동행정 체계 구축	전담행정조직 구축	노동정책 전담 행정조직 구축	핵심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2018년 부천시 청년정책 기본과제 제안

유형	정책	주요내용
청년 맞춤형 고용서 비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비경험 및 소극적 청년 구직자의 구직 의욕 고취 및 경력 형성 지원 -(중소기업연계형) 지역 우수 중소기업 인턴십 및 장기현장 실 습프로그램 운영 등 -(비영리조직연계형) 지역내 NGOx 등 사회조직 인턴십 등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의 진로 및 구직정보 교환 및 사회 참여 지원 - 경기도 '청년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활동 지원프로그램 구성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기관 운영	청년의 복합적인 구직 장애물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고용 서비스 인력과 인프라 운영 - 구직구인알선, 진로상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청년대상일자리정 보지도 서비스	부천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내 구인정보 발굴을 통해 모바일 정보 제공
	부천 청년 일자리 플랫폼	부천 청년 대상 고용지원 거버넌스 구축 - 지역내 청년 고용 관련 기관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 사업 개발
	노사협력형 사업 인증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사업을 노사 공동으로 추진하여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역 중소기업의 노사가 합의 하에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면 심사하여 고용환경 개선 지원 후 인증
일자리 질 개선	부천시형 중소기업 노동공제조합	부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재직자 복지 향상 - 고용주, 노동자, 부천시 공동 기여로 공제조합 설립 후 재직자 복지 용도 사용
	청년 주거 지원	청년 노동자의 주거 안정 도모 - 합동조합을 활용한 사회주택 운영으로 중소기업 청년들 대상 주거지원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초기 단계 인프라 제공 - 도심내 창업 공간을 설치하여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및 컨설팅 제공
창업 및 숙련 지원	도시 재생형 청년 창업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 지원 - 구도심내 빈집 매입 혹은 임대를 통하여 청년창업 공간 제공

유형	정책	주요내용
	부천시 청년 인재육성사업	4차산업혁명 대비 미래 유망 지역 사업 대상 숙련 인력 양성 -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청년 노동권 보장	청년 노동권익센터 운영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개선 - 차별 진단, 개선지원, 상담 및 예방교육 지원
	청년 노동권 교육 프로그램 강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명확화 - 중고등학교 졸업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권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年史 *노리지만
치열하게 사람, 희망*
1999 - 2018

집필진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국장 **고현주**

부천상공회의소 진흥부 과장 **김제균**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소장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 부장 **이동철**

부천노사공동직업훈련지원센터 센터장 **장해영**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장 **정선화**

발행일	2019.1.
발행인	장덕천
발행처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주소	경기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4층)
연락처	032.322.3814~5
홈페이지	http://www.bcnsj.org

사람, 노 의망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